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2013-2014 활동 이야기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블로그 : <http://blog.daum.net/lesbian2013>

이메일 : lesbian2013@hanmail.net

트위터 : [@lesbian_2013](https://twitter.com/lesbian_2013)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를 소개합니다

2013년 3월 25일-2013년 9월 25일까지의 소개문

반갑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활동가 박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비영리조직으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일부분을 기록하고, 많은 분들과 그 기록들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작은 단체입니다. 준비는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공식적인 연구소 개소일은 오늘인 2013년 3월 25일입니다.

저는 2000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활동을 했고, 2003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레즈비언권리연구소〉와 〈사이버레즈비언NPO 자료관〉을 공동설립·운영하였습니다. 10여 년간 레즈비언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2013년에 이렇게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년 정도 활동을 쉬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소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했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분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만나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살아 온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을 상상기만 해

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느리지만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느리지만 뚜벅뚜벅 꾸준히 걸으면서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사업 중 [증언집 기록 사업]을 특화하여 레즈비언 관련 기록 사업을 진행하는 중점과제 연구소입니다. 레즈비언 생애 기록물들은 출생연도별로 정리하여 게시할 계획입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단체 블로그에 <레즈비언권리연구소>와 <사이버레즈비언NPO자료관>의 자료 일부를 옮겨두었습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발간했던 자료집에 있는 칼럼과 기고글들 중 일부도 이곳으로 옮겨 올 예정입니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진행하던 <20년 영상기록 프로젝트>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사업으로 옮겨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모든 자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복사·퍼가기·인용 등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단체명과 인용한 웹 페이지 주소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들, 현재의 고민들을 듣고 잘 기록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만들고 남기는 이 기록들이 오늘을 사는 많은 분들에게 작고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 할 이 기록 작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 남아 미래의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가 걸어 갈 기나긴 길에 동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단체 블로그에 많은 기록들을 담고 있지는 못 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야지요. 가끔 ‘애네들, 느리게 걷는다고 하더니 너무 느리게 걷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심각하게 꾸짖지는 말아주세요. 그저 ‘채네들도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저러는 모양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록 활동가 모집 · 기록물 공모 등 주요한 알림 사항은 블로그 카테고리 [알립니다]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체 블로그에 방문해주시고,

소중한 기록의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대표 활동가 박김수진

반갑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입니다.

2013년 9월 25-2014년 11월 21일까지의 소개문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2013년 3월 25일에 문을 연 활동가 중심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레즈비언에 관한 생애기록(구술기록)을 수집·연구·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입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모든 연구 과제와 활동 내용은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활동 결과를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기획·운영 중인 사업팀은 총 5개입니다.

- ① 생애기록/아카이브사업팀
- ② 연구/출판사업팀
- ③ 영상기록사업팀
- ④ 교육사업팀
- ⑤ 소모임기획운영팀
- ⑥ 연대사업팀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활동가 단체입니다. 팀 활동, 소모임 활동 등 우리 단체의 작고 큰 모임과 프로젝트 팀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활동회원이 됩니다. 회원 가입 후 기존의 사업팀과 소모임 등의 활동에 결합하

실 수 있고, 새로운 사업팀과 소모임을 결성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카테고리 중 [활동회원 가입안내] 게시판(<http://blog.daum.net/lesbian2013/165>)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후원인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인건비, 활동지원금, 사업추진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후원인이 되어주실 분들께서는 카테고리 중 [후원방법] 게시판(<http://blog.daum.net/lesbian2013/164>)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9월 25일에는 2차 회칙 개정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명의 활동가가 모여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활동을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정기후원 안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생애기록/아카이브 사업, 연구/출판 사업, 영상기록 사업, 교육사업, 소모임 기획/운영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인건비, 활동지원금, 사업추진금, 사무실마련 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본금 없이 시작하는 초소형 단체라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CMS를 구축하지 못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활동 내용을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되어 여유가 생기면 CMS를 구축하여 보다 간편하게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를 후원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후원 방법

1) 다음의 계좌 중 한 곳으로 자유롭게 월정액을 정해 자동이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054901-04-181776 (예금주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농협은행 : 351-0633-2179-83 (예금주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국민은행 : 591502-04-094561 (예금주 : 박수진)

2) 자동이체를 통해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적어 레즈비언

생애기록연구소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월 1회 후원금 수입과 지출내역은 회원카페를 통해 공개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이메일 lesbian2013@hanmail.net 으로
다음의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1. 성함이나 닉네임
2. 입금자명
3. 매월 이체일(입금일)
4. 이메일 주소(회원카페 가입을 위해 한메일(daum) 계정을 적어주세요)
5. 휴대전화 번호
6. 기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 전하고 싶은 말

3)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 및 출판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기획하는 모든 유/무료 강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프로그램 및 정기회의에 참가비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애·동성애자 인권 교육 신청 안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동성애·동성애자 관련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1. 담당 강사

1) 박김수진

전 레즈비언권리연구소 활동가
전 군포여성민우회 간사
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대표
현 여성주의저널 일다 칼럼니스트
현 한국형에니어그램 일반강사
현 여성상담공동체 옥탑방상담소 대표

2) 현이유빈

전 레즈비언권리연구소 활동가
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활동가

2. 강의 주제 선정

“동성애 바로알기”, “레즈비언 바로알기”, “레즈비언과 여성주의” 등 동성애 ·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한 강좌 제목을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3. 출강 대상 조직 및 프로그램 예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상담단체, 대학 특강, 소모임 등으로 출강합니다.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활동가를 위한 특강 ■ 청소년 상담기관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 청소년 상담기관 레즈비언 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징 프로그램 ■ 여성단체 각종 상담가 · 강사 양성 프로그램 ■ 대학 여성학, 사회학 등 특강 ■ 각 대학 학생회 주최 특강 //

4. 강의료

강의료는 신청 소모임 및 조직에서 정해주세요.

5. 신청 방법

1) 이메일(lesbian2013@hanmail.net)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시 ① 신청 소모임 및 조직명 ②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③ 강좌 개설 희망 일시와 장소 ④ 신청 강의 주제 및 제목 ⑤ 강의안 마감 일시 ⑥ 강사비 등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세요.

2) 전화 신청 방법

오후 12시~9시 사이에 010-8674-3959로 전화 문의/신청하세요.

6. 담당 강사 강의 이력

인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조,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안산 YWCA,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 피해여성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 충남가족복지센터 부설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아하성문화센터, 도시 속 작은학교,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의전화, 다산인권센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여성학 특강, 자율주의학생연대 활력포럼(준) 개최 여성주의 활력포럼 특강, 계명대학교 여성학 특강, 성공회대학교 소수자 연구 특강, 성균관대학교 '성과 문화' 특강, 사회과학아카데미 특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특강, 서울시립대학교 여성학 특강,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특강, 한림대학교 기독교학생회 SCA, 한림대학교 여성주의 공동체 '날' /총여학생회 준비위원회 주최 페미니즘 워크샵 특강,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비너스팝콘> 의 다수.

(혈연)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문을 연 작은 단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입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다양한 레즈비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 중인 활동 중에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편지]를 채워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등 혈연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시작으로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들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편지] 공간을 채워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치지 못하는 편지 혹은 언젠가 부치고 말 편지 등을 자유롭게 적어

이메일 lesbian2013@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단체 블로그 [편지] 게시판에 편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편지 글들이 모이면 묶어서 출판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지] 보내는 방법입니다.

1. 혈연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 이메일 lesbian2013@hanmail.net 로 보내주세요.
2. 이메일에 편지글과 함께 1) 성함이나 닉네임 2)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후에 출판 기획 등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드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10-8674-3959(오후 12시-오후 9시 사이 통화 가능)나 이메일 lesbian2013@hanmail.net 로 해주셔요.

다음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편지] 게시판에 올린 편지 글입니다.

아빠에게 : 2013년 3월 10일, 박혜정 <http://blog.daum.net/lesbian2013/133>

To. 엄마 : 2013년 5월 27일, 이정인 <http://blog.daum.net/lesbian2013/147>

사랑하는 엄마 : 2013년 6월 첫 날, 유빈

<http://blog.daum.net/lesbian2013/148>

엄마 : 2013년 6월 16일, 공지현 <http://blog.daum.net/lesbian2013/150>

엄마 닮아 한평생 똥고집 딸 올림 : 2013년 6월 30일 새벽에

<http://blog.daum.net/lesbian2013/154>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에게 <http://blog.daum.net/lesbian2013/156>

안녕, 사랑하는 우리애기. 내 동생. : 2013.7.8, 하이킴

<http://blog.daum.net/lesbian2013/157>

너랑 나랑은 헤어질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DS

<http://blog.daum.net/lesbian2013/158>

아빠에게, 2013년 8월 매우 더운 여름 날, 박제하

<http://blog.daum.net/lesbian2013/159>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http://blog.daum.net/lesbian2013/160>

엄마에게 쓰는 편지 <http://blog.daum.net/lesbian2013/161>

엄마 안녕, 2013.08.12/엄마의 사랑스러운 딸, RJ

<http://blog.daum.net/lesbian2013/163>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전체 회원(활동회원, 후원회원) 정기회의 안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회칙 제 17조에 의거
매년 3회 이상의 활동회원 전체가 모여
주요 의결 사항을 의결하는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에 열린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연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14년에는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정기회의는 전체 활동회원이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후원회원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정기회의는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 회의이기도 한데요,
어제 열린 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한 의결 사안이 없다면
회원 전체가 모이는 일종의 친목 성격의 자리를 만들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 2가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1. 다음의 정기회의 일시를 확인해주시고, 잘 챙겨주세요.

- 정기회의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2014년 1월 :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2014년 4월 :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2014년 7월 :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2014년 10월 :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2. 2014년 1월 정기회의에서 함께하면 좋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회원카페에 올린 관련 공지 확인 후 리플이나 글로 제안해주세요.

2014년 1월 정기회의 일시: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회원카페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기존 기록활동가 13월 정기모임 안내입니다.

기존 기록활동가 정기모임은 연 1회(6월, 12월)에 열립니다.

기존 기록활동가 12월 정기모임은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12월 정기모임에서는 근황을 공유하고,

기록활동 진행 상황과 과정 상의 어려움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해요.

시간이 남으면 오래간만에 알콩달콩 수다를 떨어보아요.

장소는 이메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에 초대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2013년 하반기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는 역대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재상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인권을 이야기 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18회 서울인권영화제가 끝난 후,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들은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하기 위해 주제별로 활동세미나를 해왔습니다. 정기상영회 “화기애애”에서는 그 공부들의 주제인 표현의 자유(10월), 반빈곤·반개발(11월), 여성·성소수자(12월)의 인권영화를 상영합니다.

12월13일(금) 여성 · 성소수자

장소: 인권중심 사람 (예정)

시간: 늦은 7시

영화 상영 후 박김수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님과 함께하는 활동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갑자기[Suddenly, Last Winter

구스타프 호퍼루카 | 80분 | 이탈리아 | 다큐 | 2008

이탈리아 총리가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법안을 내자 시민들은 시위를 하고, 교회는 법안을 죄의 근본이라 선언한다. 기자이자 로마에서 8년간 동거한 동성커플 루카와 구스타브는 자신들의 바람이 소동으로 이어짐에 놀라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불합리한 비난에 직면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둘의 매력 이 돋보인다.

* 출처 : 서울인권영화제, <http://www.hrffseoul.org/ko/article/873>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전체회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단체 회칙 제 17조에 의거
매년 3회 이상의 활동회원 전체가 모여 주요 의결 사항을 의결하는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정기회의는 전체 활동회원이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후원회원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정기회의는 의결을 위한 회의이기도 한데요,
어제 열린 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별한 의결 사안이 없다면
회원 전체가 모이는 일종의 단합 성격의 자리와 함께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첫 정기회의는

- ① 단체 소개
- ② 팀별 활동 계획 공유
- ③ 전체 회원 소개
- ④ 즐겁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전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전체 프로그램을 결정하지는 못 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카페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회원카페와 메일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공지] 3개 팀에서 함께 활동할 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연구팀〉, 〈교육사업팀〉, 〈생애기록 서울팀〉에서 함께 활동할 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다른 팀 활동을 더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혹은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우리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모집을 합니다. ^^;

1. 가족연구팀

〈가족연구팀〉에는 현재 두 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팀장인 다희님과 아가미님이 계시지요. 원래는 세 명으로 구성했던 팀이었는데요, 아름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시어 이렇게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연구팀〉에서는 가족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만들어 인터뷰하고, 공부하고, 자료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관련 홍보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http://blog.daum.net/lesbian2013/172>

2. 교육사업팀

〈교육사업팀〉에는 현재 총 세 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팀장인 러수님과 리턴님, 규월님이 함께해주고 계시지요. 원래 월님까지 총 네 명인데요, 월님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월님, 잘 다녀오세요.....흑흑흑) 〈교육사업팀〉에서는 2014년 사업계획을 모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 분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활동가를 연중 모집한다고 하시며 동시에 활동회원 대상으로 내부 충원도 추진을 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ㅋㅋㅋ) 아마도 친목모임 분위기를 맘껏 뽐내면서 활동을 해나가실 계획이

아닌가하는 마음이 듭니다. ^^ 활동가 모집 홍보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http://blog.daum.net/lesbian2013/175>

3. 생애기록 서울팀

〈생애기록팀〉은 연중 활동가 모집 모드입니다. 〈생애기록 서울팀〉 활동가는 내부
활동가 8명, 외부 활동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부담없는 활동을 지향하다
보니 활동가별 인터뷰 팀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활동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합니다. 〈생애기록 서울팀〉에서는 주변 친구, 지인, 가족 등
을 인터뷰하고, 그 생애를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가
족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에 관심있는 활동가
를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정말 열심히 기다립니다. 활동가 모집 홍보 내용은 다음
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http://blog.daum.net/lesbian2013/192>

각 팀 활동을 신청해주실 분들은 회원카페 관련 공지 글 하단에 리플을 남겨주시거
나 담당자인 박김수진에게 문자, 전화, 카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팀 활동에 관한 문의도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태는 글 ****

1. [두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정체성의 다양한 함의들

[교육사업팀]에서는 〈Luseful(L+유용한) 학원〉의 두 번째 강좌를 우리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2014년 3월의 〈Luseful(L+유용한) 학원〉 강좌에서는 〈여성
주의저널 일다〉 대표 조이여울님을 모시고 "정체성의 다양한 함의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2014년 2차 전체회원 정기회의 안내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14년 2차 전체회원 정기회의 합니다. 프로그램 확정하였어요. 아홉 가지 성격으로 보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체 활동, 팀 활동은 물론 회사나 가족, 커플 사이에도 아주 유용한 성격검사랍니다. 에니어그램을 거의 모르다시피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글로 정리하여 연락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회의록”을 쓰기로 했어요.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3월 1일에는 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 결과를 게시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회의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회의록”은 우리의 모든 활동이 특정한 결과를 내기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넘어 과정 자체가 결과이기도 하다는, 그런 고민 끝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우리의 모든 활동의 과정이 곧 목표이고, 이 과정들이 곧 결과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의 마무리가 또 다른 형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 단체는 <생애기록>을 중시하는 단체인데요, 생애기록이라는 것의 의미 또한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함께 하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자는 뜻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는 회의 시간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회의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나누고, 셋길로 빠져 다양한 수도도 떨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그 시간들이, 이야기들이 우리 활동의 역사이고,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자체를 기록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기록은 팀별로 자유롭게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팀은 녹음을 할 것이고, 어떤 팀은 노트북으로 문서 기록을 하겠지요. 그리고 전체 문장의 분위기나 형식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어요. 그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록하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팀 팀장이 팀 회의 시간에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혹 ‘나는 이야기 회의록에 반달세’라는 의견이시라면 그도 회의 시간에 밝혀주시고, 논의해주셔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크.

그럼, 이에 관해서 공유해주시고, 의논해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2014년 2차 전체회원 정기회의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단체 회칙 제 17조에 의거
매년 3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엽니다.

〈2차 전체회원 정기회의〉는 오는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3시입니다.

이번 〈2차 전체회원 정기회의〉의 프로그램은
'소규모 조직(가족 공동체 포함) 및 단체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에니어그램 검사와 해석'입니다.

정기회의는 전체 활동회원이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이며,
회원 카페에 가입한 후원회원 중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서울시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
니다.

장소 확정 후 회원 카페를 통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럼, 4월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 2014년 7월과 10월에도 전체회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록 <못 다한 이야기>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2014년 내가 하는 기록 첫 번째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내가 하는 기록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번 주제를 정하여 글을 모집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첫번째 기록으로
'못 다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못 다한 이야기◆

레즈비언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첫사랑, 짝사랑, 옛 연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들 등등..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지내오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이야기..
지금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간직했던 이야기, 지난 시간들을 한 번씩 돌이켜 보고
지금 그때 그 사람에게 하고픈 말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대상: 레즈비언 정체성과 관련된 대상 누구에게나

형식: 쓰고 싶은 마음대로

기간: 쓰고 싶은 아무 때나

보낼 곳: lesbian2013@hanmail.net

들러 보세요 => <http://blog.daum.net/lesbian2013/218>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쓸 글이 없거나 주제가 맘에 안드시는 분들은 다음 주제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블로그에 게시됩니다.

다양한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만큼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또 다른 레즈비언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작성 : 생애기록부산팀 벳들

[못 다한 이야기]

젊디젊던 그 시절, 너무나 성숙하지 못했던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http://blog.daum.net/lesbian2013/218>

Conceal! Don't feel! and Let it go!

<http://blog.daum.net/lesbian2013/219>

푹푹한 짝사랑의 추억에서 성숙한 관계로...

<http://blog.daum.net/lesbian2013/220>

2기 운영위원회, 시작합니다!

최근에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러수님, 레고님, 레종님, 벗들님, 다희님, 박김수진으로 총 6인이었습니다.

초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결합해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활동이 여의치않아 논의 후에 해체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 팀별 팀장을 다시 선출하고,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사업팀에서는 규월님이, 이성애의원인팀에서는 수현님이, 여성학팀에서는 윌리님이 새로 운영위원이 되어주셨고요, 기존의 운영위원인 생애기록 부산팀의 벗들님과 생애기록 서울팀의 박김수진이 운영위원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은 각 팀의 팀장으로 각 팀의 활동 전반을 이끌어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팀의 월별 활동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가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영위원의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체 활동이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만, 어떤 활동이든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지속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 활동과 운영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언제든 다시 의논하여 다른 방

법을 함께 모색해보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결합해주신 레종님, 려수님, 벳들님, 다희님, 레고님 감사합니다. 콩알만한 단체의 시작을 함께해주셔서 큰힘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작지만 단체 틀을 만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 올림 4호] (활동펼치기/상영작소개) <레인보우 팝콘> 박김수진 활동가(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와의 대화

시놉시스

2004년 12월, 패스트 페임 공장의 사장이 비밀리에 중국으로 사업을 옮겼다. 150명의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 돈, 먹을 것도 없이 타이완에 남겨졌다. 타이완 국제 노동조합(TIWA)의 도움으로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들과 타이완에 머물며 다시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타이완 노동법 개정 운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TIWA는 패스트 페임 기숙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레즈비언 커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몇몇 커플이 이 투쟁의 리더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TIWA의 2009년도 다큐멘터리인 <The Lesbian Factory>는 이 중 세 커플과 패스트 페임 노동자 투쟁에서 어떻게 계급, 성, 섹슈얼리티가 맞닥뜨릴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타이완 노동법을 바꾸기 위해 이들이 함께 한 몇 년 동안 사랑과 가족, 더 나은 삶을 위해 바다를 건넌던 이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화 <레인보우 팝콘>에서 TIWA는 공장이 문을 닫고 난 이후 6년 동안 그녀들과 패스트 페임의 다른 여성들 몇 명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를 따라간다. TIWA의 조합원들은 필리핀의 Luzon, Ilo-Ilo, Mindanao의 집을 방문한다. 몇몇은 이들을 인터뷰를 하고 삶을 추적하기 위해 두바이로 떠난 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기존의 커플들은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그들의 인생은 깜짝 놀랄 만큼 변해있었다. 영화는 그녀들의 감정적인 삶, 그녀들이 겪었던 압박감과 비극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예전에 일했던 곳과 전혀 다른 나라의 환경을 가진 지금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더 깊숙이 파헤치고 있다. <레인보우 팝콘>은 필리핀의 퀴어 이주노동자들이 국경, 성 정체성, 계급을 계속 넘나들며 애인, 전 애인, 친구, 동료,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수잔 첸 감독의 레즈비언 팩토리(Lesbian Factory, 2010)의 후속작품이다. <레즈비언 팩토리> 이후에 일어난 그녀들의 삶의 변화를 담았다.

박김수진 활동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와의 대화

물고기, 매생이, 성미, 윤상, 지현, 혜원 참여(4월11일, 19:30-21:30)

매생이

물고기: <레인보우 팝콘>은 필리핀 레즈비언들을 다루었는데, 영화를 보고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박김수진님은 20년 동안 레즈비언 20명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20년20인 프로젝트”도 하신다고 들었다.

내가 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적이지 않은, 올바른 이해인지 궁금하다. 영화에서는 굉장히 탁 터놓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동성애 관계에서 그러한지 등.

박김수진: 그럼 우선 내가 궁금한 걸 먼저 묻자면, 게이 친구들은 있나?

혜원: 친구는 아니지만, 김조광수, 정율 등을 만나 본 적은 있다. 레즈비언은 만나 본 경험이 없었다.

박김수진: 레즈비언은 내가 처음인가? 처음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머리도 짧고, 편견을 주는 레즈비언을 만났다. (웃음) 다들 동성애자가 확실히 아니신가? 여기서 죽어도 난 이성애자라는 분? 그게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라도 내가 동성애자로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신 분?

(대부분 손들)

여기는 대부분 열린 사람들이다. 이 사회가 이성애만 강요되는 사회다. 이성애자가 죽을 때까지 이성애자일 것 같지만, 강요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다양한 선택들이 가능할 거다. 강압적 이성애주의에 내가 묶여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영화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계기이다. 그런데 너무 낮설어 들 한다. 내가 처음 본 레즈비언이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많은 레즈비언들을 봤을 텐데 그들이 커밍아웃하지 않았으므로 모르는 것이다.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환경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억압적인 환경이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볼, 그것을 생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보통 가능성을 닫아놓느냐,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숨겨야 하고 숨기지 않으면 배제당하므로, 그래서 탈반을 하는 거다. 영화에 기가 막힌 대사가 있었다. 결혼에는 지지와 허용, 경제적 안정감이 있다고 한 것.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성애자들에게 집중된 권리인 거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배제 당한다. 출연자들은 그것을 알고 탈반한 것. 동성애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영화는 씁쓸했다. 국적은 달라도 나의 현실이고, 내 친구, 가족의 현실인데, 영화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성애 관계에 있던 시기가 꿈처럼 아름다운 과거, 아름다운 한 번쯤의 추억으로 치부되는 느낌이 들어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한 영화. 그러나 몇몇은 이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 자체의 컨셉이나 전 애인 총출동은 엄청난 것.

물고기: 그래서 영화를 보고 탈반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고 여자고. 탈반하게 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해가 되었다.

박김수진: 주변의 수많은 레즈비언들이 결혼했다. 그러한 메리트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커플은 게이 커플, 그 다음이 이성 커플, 그 다음이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 문제 극복하는 데에 결혼이 훌륭한 대안이 되므로 실제로 그 선택을 많이 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고기: 영화에 늙은 레즈비언들이 나온다. 나이 들어 오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기력해 보였다. 새 파트너 구하기 어려워 보여서, 경제 상황도 별로고 늙

었고. (영화에선 대만 공장에서 만나는데) 한국은 어디에서 만나나?

박김수진: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동성애자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연애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끼리만 연애할 거라는 것. 특별한 연애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난 지금까지 네 번 연애했는데, 동창이었거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만났고 모두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했다. 한 명 제외하고 모두 이성애 경험도 있었다. 두 명은 나와 헤어지고 결혼했다. 칠 년째인 지금 애인은 연애상대들 중 처음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만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왠지 관심이 생긴다. 게다가 동성이 그러면 괜히 더 특별한 느낌이 들어 끌리기도 한다. 그 때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다.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에 상담을 한다. 사랑이 움직이듯이 정체성도 움직인다.

윤상: 게이 영화를 남자친구와 봤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남자를 돈으로 사는 어두운 내용. 남친이 왜 항상 동성애자는 저러냐고 하며 평범한 동성애자를 볼 수 있는 영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도 그런 영화가 동성애자커뮤니티를 음지화하고 편견 만든다고 생각한다.

박김수진: 부정적인 시각의 영상물들 천지다. 동시에 동성애자 커뮤니티도 사회 전반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이성애자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똑같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사회에서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 편견을 전제하는 시선이 많고, 그렇게 영상화하는 게 한국에서 일반적이다. 물론 동성애자들 안에서는 가정 폭력, 성폭력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동성애자가 성적 욕망의 화신이라거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동성애자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문제다. 이성애자는 그런 사람 없냐고 묻고 싶다.

지현: 극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한 기사도 헤드라인이 마약인가 도박인가를 하는 “동성애자들 검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춘다. 장애인의 경우도 천사 같은 이미지로 주로 그리는데, 당연히 나쁜 사람도 있을 거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다.

성미: 전혀 다른 애긴데, 동성이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고 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영화 봤을 때는 서로 만나면서도 너무 헤어짐을 전제하는 것 같았다. 영화 내내 행복하냐고 질문하고, 헤어짐을 늘 전제로 하니까 지금의 감정을 자꾸만 묻는구나하고 생각했다.

박김수진: 이성애자도 제도 결혼이 아니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커플이 많다. 이혼한 친구 찾기도 정말 쉽다. 결혼의 메리트들인 사회적 지지와 안전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그냥 사는 경우 많다. 동성애자는 제도로 묶이는 게 아니므로 온전히 둘의 마음만으로 유지되는 거다. 우리의 경우는 제도로 묶이지 않으므로 헤어짐의 의지를 실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이걸 외부에서 봤을 때 문란하다고 하는 것.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니, 두려움에 헤어짐을 전제하는 거다. 불안한 마음,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 프라이드가 공존한다. 나는 왜 그렇게 이성애만 하냐고 자연스럽게 말할 만큼의 프라이드는 있다. 구조의 압력을 난 이겨낸 것. 이런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동성애자의 과제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 아니겠나. 주변의 많은 친구, 가족들이 함께 했을 때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물고기: 육우당이라고 청소년 레즈비언 추모제에 갔는데, 사랑의 다양성 인정하면 근친도 인정하냐는 피켓이 있었다. 그게 올바른 비판이냐는 문제제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술자리에서도 왕왕 이런 논점을 이탈한 수준의 언급이 나온다.

지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 자리에 동성애자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본다.

물고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근친까지도 사랑으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

박김수진: 그런 질문할 시간에 사랑을 독점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무엇을 특정한 계급, 계층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인 거다. 그런 질문에 흔히 근

친, 수간, 시간 등 온갖 성적 결합이 포함되는데, 다분히 성기 중심적인 사고다.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가 단지 성적 지향이라고 보는데, 성적 지향이 모든 이에게 중요한가? 성적 지향의 문제 떠나서 사람이 좋을 수 있는 거다. 모든 사랑의 전제가 성기 중심적인 것으로 사고가 된다. 섹스 중심적인 사고의 한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물고기: 이와 별개로, 영화 이야기하면 〈친구사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등, 편견 생길 수 있는 게 영화가 성적인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이 보고 궁금증 해소되었다고 한다. 보통 동성애자가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다. 그런 것도 성기 중심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거인 것 같다. 물론 동성애에서 섹스도 중요한 하다, 이성애에서도 중요하니까.

또 궁금한 건 레즈비언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로 나누어져 있냐는 것. 영화에서 머리 짧고 남자 같다고 하는 차림새인 사람을 부치라고 하더라.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닐 거라 보는데 실제로 어떤지?

박김수진: 중요한 건 이성애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정형화된 남성성, 여성성이 있다. 그래서 나처럼 여잔데 머리가 짧거나 멋을 안 내거나 하면 내가 편안한 차림을 하는 건데, 남자답다고 읽는다. 이데올로기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그러한 요구 속에 우리가 있어 강요되는 거다. 이로부터 동성애자들도 영향을 일정 부분 받는다고 생각. 〈더 월2〉를 보면 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50년대 레즈비언 커플, 70년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커플, 또 샤론 스톤과 누가 레즈비언 커플로 나온다. 뒤로 갈수록 점점 부치, 펌 경계가 흐려진다. 첫 번째는 분명 남녀 역할로 보이고,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들의 부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도 여전히 구분이 존재하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흐려진다. 페미니즘이 성장할수록 이데올로기 비판 의식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여성 운동, 여성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판 의식이 성장할수록,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경계들이 흐려질 것이라고 생각. 70년대 한국 레즈비언들은 바지씨, 치마씨라고 했다. 바지씨는 여자 몸을 가진 남자였다. 지금으로선 트랜스젠더인 것. 상대는 여자 같은 여자, 치마씨. 동성애 관계이면서도 이성애 관계였던 거다. 이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생기니까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는 것. 초반엔 부치, 펌이 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머리 짧으면 부치, 머리 길면 펌.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아직 그걸 그대로 내면화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양상이 복잡하다. 비투비(부치와 부치 커플), 펌투펌(펌과 펌 커플) 별의 별 게 다 있다. 이제는 차이가 정말 다양하다.

성미: 질문 하나 있는데, 내가 나의 동성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동성애자 당사자는 동성애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두렵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박김수진: 중요한 질문이다. 너무 중요해서 내가 답을 잘 할 수 있을지. 우선 소위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해서 커플을 이루거나 해서 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다. 정체성과 무관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 그런 고민들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동성애자에게도 필요하다. 당사자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건 정체성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타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질문과 고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생각한다면, 현재 낙인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알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다.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도 마찬가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좋다. 소외감이 덜 든다.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 깨는 게 뭐냐면, 많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 것. 당연히 당사자만큼 다 알 수 없다. 모르는 부분을 몰아서 제대로 알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지현: 겨울방학쯤에 학회지 같은 걸로 글을 쓰는데 성소수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쓰고 싶었다. 쓰기 전에 고민이 들었던 게, 당사자가 아니지만 지지하고 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가 아닌데 썼다가 누군가가 글을 보고 나는 이렇지 않은데 하고 생각할까봐. 공부를 새로 해나가면서 글을 쓰고, 생각도 정리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쓰고 싶었다. 글을 위해 이제 배우면서 한다는 게 자책이 들었다. 동인련에서 쓴 가족구성권 자료집을 많이 봤는데, 언니네에서도 가족제도 비판하고, 차별금지법도 제정 안 되고, 만연한 차별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파트너십이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박김수진: 12월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 전개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도 있었지만, 프랑스의 파스처럼 시민 결합 형태의 다양한 가족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족구성권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제도화는 두 번째 문제이고, 가족구성권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식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왜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순간 거기서도 배제시키는 가족형태가 있다고 보기 때문. 이성애-동성애, 등등으로 차츰 단계별 진행이라고 하면 순서는 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 이성애만 진리인 상황에서 제도 결혼의 권리를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의 문제 상황. 독점적 권리를 해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김조광수 커플이 시도하고 있는 합법화 투쟁을 지지하거나 지원하진 않지만 말릴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욕구가 분명 존재하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동성애자라고 치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할 것이다.

물고기: 옛날에 알바 연대에서 최저시급 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읽혔다. 동성결혼도 당장 합법화하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느낌이라고 보았다.

박김수진: 맞다. 김조광수 씨도 당장 될 거라고 생각 안 할 것. 투쟁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 그제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담론이 출현해서 경합하고, 지지받고 비판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 김조광수 씨가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고기: 예능프로에서 개그 코드로 동성애 많이 쓰는데 어떤 느낌 드는지? 웃음 포인트가 되어 버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음지에서 양지로 와 희화화 되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느낌은?

박김수진: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홍석천 씨도 회화화의 선봉에 있다. 그의 방식인 건데,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런 방식, 그런 이미지로만 소비된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자로서의 느낌을 묻는다면, 난 전혀 웃기지 않다. 당사자가 빠진 웃음이다. 이해하는 동시에 불편하다. 비하인 거니까. 병신이라는 말처럼, 너무 일상적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배제된 것. 당사자는 듣기 불편하면서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데 쉽게 회화화되어 소비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동성애자의 일상에는 그게 못 들어온다. 웃음을 유발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혼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 출처 : 서울인권영화제 <http://hrffseoul.org/ko/article/100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6월 정기상영회: 빈의 대담한 여자들

한 달에 심포 한번씩! 영화 소셜 네트워킹 넷째주 목요일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무대홀 (tel. 02-332-8333)
상영영화 <빈의 대담한 여자들 | Amorous, Antiquated, Audacious>
문해비 5천원 (영화+음료 1 Free)
참가신청 웹지로 상담 (참가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기 go) 클릭
문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미디어교육실 02-583-3999 / archive@wffs.or.kr
상영 후 박갑수·진혜진·연성희·이민준·유영민·한남과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매력적이고 거침없는 세 명의 60대 레즈비언,
5, 60년대 오스트리아 빈에 존재했던
레즈비언의 삶에 대한 중요하고 드문 구술 기록**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2009 비엔나퀴어영화제 관객상 최우수다큐멘터리상

<빈의 대담한 여자들> Amorous, Antiquated, Audacious

카타리나 할페르트, 크로틀라 팀 | 오스트리아 | 2009 | 64분 | 다큐멘터리


영화는 우리들 1950년대와 60년대의 비엔나로 데리고 간다. 비엔나는 레즈비언을 환영하는 개방적인 도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레즈비언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디에 가고, 어떻게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대했는지, 세 명의 활동하고 거침없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듣는다. 세 사람의 인터뷰로 구성된 영화는 그 시절 레즈비언의 삶에 대한 중요하고 드문 구술의 기록이다.

카타리나 할페르트 비엔나 미술아카데미에서 개성예술을 전공한 카타리나 할페르트는 미술과 영화 분야에서 단적으로, 그리고 값진으로 프로페서를 경험했다. 1977년 미술 출생의 크로틀라 팀은 비엔나 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편집을 전공하고 음악감독과 감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독을 남아서(2003)를 연출했으며, 여아(2008)에서 편집감독, 여아를 2010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다.

박갑수진 <레즈비언(2009)> (연구구조)와 여성성상징론체 역학(2010)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동성 커피숍, 강지 향상의 밭, 강지 향상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정기상영회

넷째주 목요일



Amorous, Antiquated, Audacious


퀴어, 레즈비언, 역사쓰기, 나이들 tag

The Lost Continent of MU

357-7 hapjeong-dong, mapo-g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7-7

TEL 02 332 8333
E-MAIL mudaeruk@naver.com

6호선 합정역 7번출구 / 상수역 4번출구



6월 정기상영회 '빈의 대담한 여자들' 신청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3차 전체회원 정기회를 엽니다.

활동회원은 물론 후원회원 여러분들도 참석하 가능합니다.

이번 3차 전체회원 정기회의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1차, 2차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재미나게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하핫.

1. 회원 가입 자격에 관한 논의

우리 단체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 가입 자격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3차 회의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꾸 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뇌 구조 그리기 -_-;

운영위원 율리님이 제안해주신 프로그램인데요, 이름이 뭔가 무시무시하네요. ㅋㅋ 아마도 지난 인생 곡선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스케치북에 뭔가 그림을 그리고 각자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뇌 모양을 그린 후 뭘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지를 표현한 후에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발표를 원하는 분들은 모두 발표를! 발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당근 즐겁게 청담만 해주시면 되지요!

우리 단체 회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모두들 시간, 에너지가 생기면 다시 활동 결함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회원이 적어지고 있는만큼 전체회의에 참석해주시는 분들이 더더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바쁘고,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무리하실 것은 없지만요. 하핫.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뵈요!

감사합니다!!!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회원 카페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회원여러분, <100문 100답>의 <100문>을 채워주세요!

활동회원,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징그럽게 우중충하더니만 그래도 어제 오늘은 맑고 경쾌한 편이네요.

다들 하늘 자주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지내시는지요?

(물론 모두들 그렇게 지낼리 만무한 일입니다만. _-:)

[생애기록 서울팀]에서 "활동가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를 의논하다가 솔직한 말로 "시작하기가 두렵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달랑 세 명으로 줄어든 상황인데다가, 다들 직장인인데 기존의 생애기록 활동에 더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우야님의 멋진 제안으로!!!!!!

우리 단체 회원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 우리단체 회원 인터뷰 대신에 <회원 100문 100답>이라는 고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100문 100답>의 <100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주신다면, 우리팀 활동이 참으로 원활할 것입니다. ㅋㅋ

<100문>에 들어가면 좋을 어떤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 떠오른다면 언제든 회원카페 공지를 확인하신 후 해당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_-)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사랑이 뭐예요?〉 설문 결과 공유에 관한 안내

지난 2014년 7월과 8월에 진행했던 〈이성애의 원인팀〉의 설문조사 "사랑이 뭐예요?" 설문 결과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단체 활동가들은 작은 팀의 회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활동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애의 원인팀〉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 역시 공개와 공유가 필수입니다. 활동계획 상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발간하게 될 "사랑이 뭐예요?" 소자료집에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와 관련 에세이들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9월 11일 회의에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잘 보이도록'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뭐예요?" 자료집 발간과 무관하게 10월 중에는 설문조사의 결과만을 보고하는 자료들을 공개, 공유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자료집도 예쁘게 만들어 널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인사도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4차 전체회원 정기회의를 엽니다.

활동회원은 물론 후원회원 여러분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4차 전체회원 정기회의는 [이성애의 원인팀]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이성애의 원인팀]에서는 이성애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으로 "사랑의 정체"를
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사랑이 뭐예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도 진행하였고,
10월 중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4차 전체회원 정기회의 시간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수다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사랑이 뭐예요?"입니다.

[이성애의 원인팀] 활동가 수현님이 "사랑이 뭐예요?"라는 짧은 발표를,
활동가 박김수진이 "무성애"에 관한 짧은 발표를 합니다.
진행은 우야님이 합니다.

4차 전체회원 정기회의에 참석하셔서 [이성애의 원인팀]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종종 메일과 문자로도 홍보하고,
전체회의 날이 다가오면 참석자 확인 차 문자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원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뵙요!

감사합니다!!!

**** 2014년 마지막 전체회원 전체회의는 12월에 여는 총회입니다. 총회는 단체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12월 총회에는 모든 활동회원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차 정기모임에서 참석 회원들과 함께 2014년
총회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는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아직 시간과 장소는 미정인데요, 확정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비록 사무실도 없고(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ㅋㅋ),
회원수도 아담하지만요, 나름 회칙도 있는 등록 단체랍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는 것이지요. ^^

총회는 그간 진행했던 정기모임들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1년의 활동 내용을 정리/공유하고요,

팀별 2015년 활동계획도 함께 세우고 공유하는 일,

회칙을 수정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있는 날이니 모든 활동회원(정회원)의 참석이 필요한 회의이
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관련 소식을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다고 제 번호번호 수신거부하고 그러지 말아 주세요. ^^;)

감사합니다!

[2014년 총회 안내]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총회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회원 카페 공지 참조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2014년 총회에서는

1. 사업 및 회계보고, 회칙 개정
2. 내규 공유 및 수정
3. 2015년 팀별 사업계획 확정 및 공유

등의 작업을 합니다.

모든 의결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활동회원(정회원)에게만 있으나
회원가입을 한 후원회원 여러분의 참관은 가능합니다.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꼭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활동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총회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생애기록아카이브팀에서 부산 생애기록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일시 : 2014년 1월 10일

작성 : 벗들

“나는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나는 특별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수도권에만 단체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해요~

레즈비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들의 역사를 만드는 일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절대절대 빠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자신의 능력·여건에 맞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과 모임은 부산에서 할 것이며 간혹 서울 활동가들과 조인도 할 것입니다.

부산 사시는 가슴이 따스한 많은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로 오셔서 둘러 보시고

활동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가는 연중 모집합니다. 언제든지 자원해주세요.

굳이 활동가 신청이 아니어도 오셔서 구경들 하세요.

교육사업 연구출판 영상기록 소모임 등등 많은 활동들을 하며 읽을 거리도 많답니다.

활동회원 신청은 여기로 ☞ <http://blog.daum.net/lesbian2013/165>

저는 생애기록아카이브팀 팀장 벳들이었습니다.

많이많이 퍼뜨려 주세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생애기록아카이브팀 팀장 벗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다른 레즈비언들은 어떨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있는데 다른 레즈비언들은 어떨까”

“나 아닌 다른 레즈비언들의 삶이 궁금하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곳이 생애기록아카이브입니다.

「다양한 레즈비언들의 삶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

「나의 기록이 모여 우리의 기록을 만들어 가는 곳」

여기가 생애기록아카이브입니다.

소소한 이야기부터 한 사람의 생애까지 우리의 역사가 있는 생애기록아카이브입니다.

활동회원 신청은 여기로 ☞ <http://blog.daum.net/lesbian2013/165>

〈생애기록 부산팀〉 세 번째 만남

일시 : 2014년 4월 2일

장소 : 기장 설빙 커피숍

참석 : 벳들, 앤드

작성 : 앤드

다음은 회의록이라고 적은 글인데 거의 수다 수준입니다. ㅎㅎ
공개할 하려고 하니 좀 민망하네요.

(편의상 A-앤드, B-벳들)

A: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고민한다.

B: 동생과 많이 가깝게 지냈고, 동생은 언제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

A: 진작 언니에게 얘기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기엔 다소 늦은 것 같다. 나의 정체성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서 갈등이거나 고민이지 않은데, 진지한 성격의 언니가 너무나 힘들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싶어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B: 그들을 생각한 다기 보다는 나 자신이 편해지고 싶어서 오빠나 동생에게 이야기해야하지 않나 싶다. 오빠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해줄 것 같으나, 동생은 포비아(?) 경

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

A: 지난 번 주제로 글을 써 놓았는데, 빨리 보내주겠다. 누구에게도 딱히 못 다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B: 나도 누구에게 써볼까 생각해 보았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A: 이제 이선희를 보면 B님이 생각난다.

B: 너무 어릴 때부터 이선희를 좋아했다. 팬심이 연애감정과는 다른데, 스스로도 신기하다 여겨진다.

A: B님 덕분에 이선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선희가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고는 생각한다. 그리고 약간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B: 이번 ‘내가 쓰는 기록’ 관련 지난번에 한다고 했던 것들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일도 많았고, 몸도 안 좋았고, 또 막판에는 팬질을 하느라 바빴다. 어제 카페에 들어가 보았는데 특별히 보고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번 달에 글도 적고, 주변에 있는 지인을 섭외하도록 하겠다. 4월 26일에 있을 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A: 나도 그 회의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시기 즈음에 서울에 갈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나,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부산 팀원은 없었는지?

B: 없었다.

A: 옛날에 학부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3년 전부터 부산에 들어와있다 들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닿아 처음으로 그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가 학창시절 여성 위원회 등 활발한 활동을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통해 당시 이쪽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상당수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 (그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끝수 레

즈비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결혼을 하더라고...)

B: 결혼한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카페도 있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바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타깝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방에서 마약을 했는데, 그들이 동성애자였다. 사실 이런 일은 특별히 그들이 동성애자인 것과 상관이 없으나, 기사에는 그것을 동성애자들어서 그런 것인 마냥 제목을 선정하고 기사를 적는다.

B: 이번 주에는 ‘내가 쓰는 기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 4월 26일 모임은 장소 섭외 중이라고 들었다.

A: 언제 우리 집에서 회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B: 밖에서 볼 때 이 카페가 조용해 보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럽다.

A: 사실 직업상 커밍아웃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셔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커뮤니티에서 부모님이 받게 되실 일들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예전에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많이 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뽀뽀하는 것을 교회 사람이 봐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그 분이 교회 내에 소문을 내지는 않아서 그렇게 지나가기는 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B: 대학교때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활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 굉장히 당황했었다. 동생이 어머니께 말한다고 협박(?) 했었음.

A: 나는 교회 커뮤니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다.

B: 부산에는 기독교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교회의 압박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다시 '남녀 간의 사랑'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분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프라이드 강한 사람이 좋은데...

그 후에..이선희 팬들에 대한 이야기, 키우는 강아지 수여니 이야기, B님의 직장생활 이야기, 남녀임금차이에 대한 이야기 등이 오감.

〈생애기록 부산팀〉 네 번째 만남

일시 : 2014년 8월 29일

장소 : 기장 엔젤리너스

참석 : 벳들, 앤드

작성 : 벳들

단 두 사람밖에 없는 부산 생애기록팀 회의가 두 명임에도 시간 조율이 안되어 몇 개월 만에 회의를 가졌어요. 이번주도 회의를 못할뻔 하다가 오늘 급하게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가졌답니다. 회의 참석은 벳들, 앤드님과 앤드님 애인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회의 장소는 기장 엔젤리너스였고 부산팀 회의는 역시나 수다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이야기는 몇 개월 만에 만난 것이라 근황토크를 하었어요. 앤드님은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고 그 와중에도 애인님을 만나셨어요.^^ 벳들은 회사 업무가 부쩍 많고 바빠져서 늘 야근과 주말 근무로 피곤과 스트레스를 달고 지냈답니다.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두 분이 잘 맞는 건 뭐냐는 벳들의 질문에 앤드님은 싫은 모습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하었어요. 100가지의 모습이 좋아도 한 가지가 맘에 들지 않으면 힘든 관계도 있는데, 싫은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벳들의 반응이 있었답니다.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앤드님은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한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하었어요.

두번째 이야기는 부산 생애기록팀이 담당하고 있는 내가 하는 기록에 관한 얘기였

어요. 첫번째 주제인 못 다한 이야기는 6명의 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글을 모집하면서 느낀 건 글 잘 쓰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 벋들은 자기가 쓴 글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해요.

내가 하는 기록 두번째 주제를 정하는데 아이디어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커밍아웃 같은 이야기는 흔한 주제이니 이후에 너무 할 아이템이 없으면 그 때 하기로 남겨 두고 다른 새로운 주제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앤드님 애인님이 주변에 결혼을 준비하고 직접 결혼을 한 지인들이 많다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앤드님과 벋들 주변엔 그러한 지인들이 거의 없기에 너무 한정된 주제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을 하다가 경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동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주제라면 누구나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록 두번째 주제는 레즈비언들의 동거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과 구체적인 내용은 벋들이 구상하여 추석 후에 홍보를 하기로 하었어요.

세번째 이야기는 생애기록팀의 원래 목표인 생애기록에 대해 개인 목표를 다시 인지하고 남은 기간동안 목표달성을 해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연인이어도 되고 셀프 인터뷰이어도 되고 대상과 형식에 구애는 없으니 자유롭게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앤드님과 애인님은 평소에 서로 자기 얘기를 먼저 많이 하려고 다투는(?) 일이 많아 서로 인터뷰를 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얘기를 하었어요.

네번째 이야기는 연구소 일정 공유였어요. 1. 박김수진님의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라는 책 출판 2. 교육사업팀의 네번째 Luseful 학원 "레즈비언, 동물과 함께 살기" 9월 27일 토요일 6시 3. 레즈비언 칼럼 게재 시작 4. 활동가 100문 100답 인터뷰를 위한 100문 모집

다섯번째 이야기는 활동가 충원에 대한 것인데 앤드님과 벳들이 새로이 알게된 지인들에게 권유해보기로 하였어요. 무슨 다단계 같기도 한데 다단계처럼 나쁜게 아니니 지인들의 지인들 같은 방식으로라도 한번 충원 해보자고...

여섯번째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았어요.

한 달에 한번은 너무 잦은거 같으니 두 달에 한번으로 주기를 바꾸고 다음 회의는 10월 11일로 정하였답니다.

회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앤드님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건 기억하는게 줄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이가 적을 때는 매순간 순간 많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기억하는게 줄어들어 그냥 지나치는 시간들이 많아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좀 슬픈 말이라고 벳들은 덧붙였습니다.

〈생애기록 부산팀〉 다섯 번째 만남

일시 : 2014년 10월 11일 7시

장소 : 앤드님이 사는 곳

참석 : 벗들, 앤드, 옥상별빛

작성 : 벗들

생애기록 부산팀의 다섯 번째 만남은 앤드님이 새 멤버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한껏 기대를 부풀게 했어요.

앤드님 집 근처에서 밥을 먹은 후 앤드님 집에서 회의를 하기로 하였지요. 참석 인원 세명 외에 앤드님 애인님과 옥상별빛 애인님도 같이 자리를 하였어요.

첫 번째로 새 멤버가 들어오게 되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옥상별빛님은 앤드님 애인님 지인으로 저희 단체에 대해 듣고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단계식 홍보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네요.

닉네임을 하나 만드시라고 하니 한 때 커뮤니티에서 쓰던 옥상별빛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옥상달빛을 좋아하여 만들게 된 닉네임인데 본인 스스로도 달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조금 민망해 하시더라구요. 달빛이 아닌 옥상으로 불러 달라고 하시기에 꼭 그러기로 했지요^^

두 번째로는 새 멤버도 들어오고 했으니 단체 소개를 간단히 하였어요. 단체 취지, 단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 생애기록팀에서 하는 활동 등을 설명을 하였어요.

첫 시작인 만큼 옥상별빛님이 의지를 불태워 주셨어요. 느슨하다 못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멤버들에겐 조금의 자극제가 되었지요.

세번째는 연구소 일정공유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앤드님 애인님이 저번 회의가 생각이 나셨는지 수진님 책을 주변에서 많이 읽더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한마디 거들었지요.

10월 25일에 있는 4차 전체회원 정기회의 일정을 공유하였어요. 앤드님이 확정은 아니지만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꼭 한번 참석하고 싶고 수진님도 만나뵙고 싶다고 하네요.

회의 진행 중에 앤드님 애인님이 제가 회의 진행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옥상별빛님이 다음 회의부터 서기는 돌아가면서 하자고 제안을 하였어요. 앤드님이 원래 서기는 본인이 하기로 하였는데 라면서 제가 올린 회의 후기가, 잡담만 하고 헤어진 거 같은데,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말을 적은 건 아닌데 무언가 거창한 회의를 한 글 같다고 하였어요. 저보고 계속 서기를 하란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하였네요.^^

네 번째는 내가하는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였어요. 제가 9월 중에 홍보글도 적도 해야 했는데 이러 저러한 핑계를 하지를 못했어요. 홍보글은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고 팀원들 주변 지인들에게 글을 하나씩 부탁하기로 하였네요. 주제는 레즈비언의 동거와 결혼에 대해서이고 이 주제 안에서 경험담이나 평소 가졌던 생각들을 형식과 내용의 제한은 두지 않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 팀원이 충원 되었으니 모임 때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어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각자의 의견을 듣고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지 제가 제안을 하니 모두들 찬성을 하였답니다. 다음 모임 때부터 진행 할 계획이고 첫 번째 주제는 소위 말하는 티부나 걸커, 왕부들에 대해 가지는 커뮤니티 내 혐오에 대한 것입니다.

이반 클럽에서 티부의 참석을 제안하는 파티를 열기도 하고, 티부의 가입을 제안하는 커뮤니티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연세대 동성애자 모임 컴퓨터더홍보글에서 티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글이 게재되어 논란이 되기도 한 걸 보면 이러한 현상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었어요.

제가 최근에 걸커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었어요. 트위터에서 이선희를 검색하니 누군가가 히든싱어 이선희편 방청객들 중엔 걸커가 많다는 트윗을 남겼길에 걸커가 뭐지 궁금해 하니 트친 한 분이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이라는 뜻이라고 알려 주었다고요.

옥상별빛님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였고 앤드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하었어요. 오로지 겉모습만으로 성향을 판단하게 하는 단어이고 그러한 모습을 가졌더라도 꼭 동성애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편견을 내재한 말이라는 데에 다들 동의를 하었어요. 이선희 광팬인 제가 히든싱어에서 비추어 주었던 걸커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은 기혼자라는 얘기를 해줬답니다.

요즘 한창 이선희에 빠져 있는 제가 이선희 콘서트에 관한 얘기들을 잠시 하었어요. 이선희 콘서트를 가면 관객 90%가 여성들이고, 그 여성들 중 80%가 40대 이상인 분들이고, 그 분들이 콘서트 내내 스탠딩을 하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팬인 나조차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전했어요.

손짓, 몸짓 하나에 광란의 분위기가 되고 온갖 비명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재미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러한 팬심들은 어떠한 감정일까 궁금하기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었어요.

앤드님이 그건 집단 효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자신도 예전에 관심도 없는 연예인을 지나가는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기에 따라 간적이 있다는 얘기를 예로 들었어요.

앤드님이 요즘에는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지나간 일화 하나를 얘기해 주었어요. 어릴 적에 언니와 길을 가는데 언니가 차에 치일 뻔 한 걸 앤드님이 언니를 잡아당겨 모면을 했었고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똑같이 언니가 치일 뻔 하고 앤드님이 구해준 것으로 남아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앤드님이 우연히 어릴 적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앤드님이 차에 치일 뻔하고 언니가 구해 준 걸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때 두 사람의 기억이 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 했었다고 믿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하였어요.

(이 글도 순전히 저의 기억에 의존하여 쓰고 있는데 앤드님 이야기가 헛갈립니다. 차에 치일 뻔한 것이 맞는지, 앤드님과 앤드님 언니의 역할을 내가 바꿔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이야기가 조금 틀리더라도 맥락만 이해해 주세요.) 결론은 우리의 기억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생일자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하였는데 옥상별빛님 애인님이 빠른 생일자라서 옥상별빛님이 동갑임에도 언니라는 호칭을 하였어요. 그런데 둘의 생일 날짜 차이는 한 달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앤드님 애인님과 옥상별빛님 애인님은 같은 연도에 학교를 다닌 또래인데 생일 날짜 차이는 훨씬 많이 나는 거였어요.

먼저 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생활도 먼저 하여 더 많은 날들을 보냈으니 언니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도 이야기 주제로 정해서 해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하였답니다.

이렇게 짧은 회의와 긴 수다로 다섯 번째 만남은 마무리를 지었고, 다음 모임 날짜는 연말 각종 모임들을 피해 12월 6일에 하기로 정하였어요.

[생애기록 서울팀] 2014년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이며,
장소는 미정입니다.

장소는 확정하는 즉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모임에는 고곰님, 우야님, 나비님, 씨앗한콜님, 월님, 러수님, 박김수진이 함께합니다.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신입회원 세미나와 생애기록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기획하려고 합니다.

생애기록 서울팀 활동가는 연중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홍보 시작합니다.

2월 5일에 뵙겠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생애기록아카이브팀에서 서울 생애기록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나는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다양한 레즈비언들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느리지만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해요~

레즈비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기록의 시작은 활동가 자신에서부터, 활동가 옆의 친구와 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들의 역사를 만드는 일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절대절대 빠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자신의 능력 · 여건에 맞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모임은 월 1회 갖습니다.

활동과 모임은 서울에서 할 것이며 간혹 부산 활동가들과 조인도 할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많은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로 오셔서 둘러 보시고
활동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가 모집은 연중 진행합니다.

굳이 활동가 신청이 아니어도 오셔서 구경들 하세요.
교육사업 연구출판 영상기록 소모임 등등 많은 활동들을 하며 읽을 거리도 많답니
다.

활동회원 신청은 여기로 ☞ <http://blog.daum.net/lesbian2013/165>

〈생애기록 서울팀〉 1차, 2차 회의 후기

지난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서울 토즈 신촌본점에서 〈생애기록 서울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첫 회의는 모든 팀 활동의 후기를 정리해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던 시점 이전에 열린 회의여서 오늘 이렇게 2차 회의 후기와 함께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첫 회의에는 기존 생애기록 활동가인 월, 려수, 박김수진과 새로운 생애기록 활동가인 유경, 씨앗한톨, 나비, 우야가 함께 하였습니다. 기존 기록 활동가인 월과 려수님은 정기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시지만, 첫 회의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동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모임에서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소개, 회칙과 내규 공유, 기존 활동가 소개, 신입 활동가 소개, 생애기록 방법과 활동가 별 기록 시기 계획 등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생애기록의 경우, 활동가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부담이 없는 횟수로 정하였고요, 이러한 팀 활동 특성 상 팀원 충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격월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2차 회의는 2014년 4월 6일 일요일 3시에 있었는데요, 우야, 유경, 은영, 박김수진이 참석하였습니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 사이에 나비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기로 하였고요, 다른 팀 활동을 고민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은영님은 1차 회의 이후에 우리 단체 내부 활동가를 대상으로 팀원 모집을 했

을 때 새롭게 결합하셨고요. 씨앗한톨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차 회의에 불참 하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진기 :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생존전략을 찾았어요."] (<http://blog.daum.net/lesbian2013/207>)]를 기록/공유해주신 유경님께서 첫 번째 생애기록의 과정에서 고려했던 부분, 소감 등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유경님은 기록 과 기록을 위한 인터뷰는 그 사람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 궁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첫 질문에 이어서는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위한 것이든, 공유를 위한 것이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에 관한 관심과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만남의 시간과 자리를 기록이라는 결과물을 위한 시간과 자리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 시간과 자리 자체의 의미가 더 빛이 나기도 하지요. 기록은 어쩌면 그 뒤에 얻게 되는 또 다른 보물일 테고요.

유경님의 이야기에 이어 간단하게나마 동성에 관련 개념 등 동성애자 정체성에 관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움직이는 정체성, 열린 개념으로서의 동성애/동성애자 정체성, 필요에 의해 채택 가능한 하나의 정체성으로서의 동성애자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유경님은 하반기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김수진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록 작업이 있습니다. 은영님은 7월 말까지 첫 기록 작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아님은 기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 중이고 특별히 탈반한 레즈비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탈반에 관한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생애기록 서울팀 정기회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입니다.

〈생애기록 서울팀〉 3차 회의 후기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생애기록 서울팀]은 총 세 명의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함께 활동하던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활동을 중단하고, 우아님, 은영님, 박김수진 이렇게 셋만 덩그러니 남았네요. ^^; 아무래도 직장과 학교에 나가면서 활동을 병행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 사이에 회의 일정들을 몇 번 잡기는 하였지만, 일정조율이 어렵고 변동사항이 많아서 3차 회의를 2014년 8월 28일 목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우아님, 은영님, 박김수진. 이렇게 셋이 서울 마포에 있는 카페 〈어슬렁정거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선 기록 활동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는데요, 박김수진은 〈제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은 정확히 알 의무가 있어"〉라는 생애기록을 완성하여 업데이트한 상태이고, 9월에 또 다른 레즈비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은영님은 파트너를 인터뷰했습니다. 많이 가까운 사이여서 그런지 아니면 인터뷰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질문이 풍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추가 인터뷰의 필요성을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아님은 인터뷰 제안을 하고 싶던 친한 친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터뷰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다른 친구를 인터뷰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이고 조만간 인터뷰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두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단체 활동가 인터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애기록팀 팀활동가 충원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단체 활동가 인터뷰는 <100문 100답> 형식의 질문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카페 게시판에 <100문>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시물을 작성해 올려두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100문 100답>을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의논해 보기로 하였고요.

활동가 충원은 다시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결합해 활동해주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팀과는 달리 생애기록팀은 연중 활동회원 가입을 기다리는 팀이니 조만간 다시 활동가 모집 홍보를 게시하기로 한 것이지요.

생애기록 서울팀 회의는 2-3개월에 한 번씩 엽니다. 4차 회의는 2014년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다시 열리고 하였습니다.

제트 :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은 정확히 알 의무가 있어”

이름 : 제트

생년 : 1976년생

지역 : 서울

종교 : 없음

기록연도 : 2014년

기록자 : 박김수진

■ 수진 : 레즈비언으로서의 제트에 관한 생애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말해줘.

▶ 제트 :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여자 아이였어. 나중에 나
이가 들어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6학년 때 만났던 그 여자애를 유달
리 좋아했어. 특별히 개만 좋았던 거야. 그때의 나의 감정은 단짝 친구, 둘만의 단짝
친구를 하고 싶은, 사춘기라 그런지 감정이 애똥하고 그런 게 있었어. 그런 마음이
중학교 때도 이어졌어. 중학교 때에는 여자애들만 있으니깐 그게 왜 남자 애들이 없
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여중 여고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 애들 사이에서 보이시한 애들에 대한 인식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 쉽게 말해
서 남자 같은 애들을 좋아하는 현상이 생기고, 나도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
각했던 것 같아. 일단 남자 애들은 부담스러웠고,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찌질해 보였
어. 어렸을 때에도, 대화도 안 되고, 남성 존재에 대한 거부감, 불편감, 혐오감이 지속

적으로 되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여자 애들하고 잘 지냈어. 그런데 2학년이 올라가면서 1학년 때 친했던 애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 중에 더 특별하게 친하게 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친밀함에 뭔가 연애라는 단어를 붙이는 애가 나타났어.

■ 수진 : 상대가? 초등학교 때 네가 좋아하는 애가 나타났다고? 개는 너를 안 좋아하고?

▶ 제트 : 개도 나를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좋아했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는 되게 애똥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개는 그렇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 졸업할 무렵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거든. 아무튼 여자 애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여기에 연애니 자기 자신을 마누라니 그렇게 지칭을 하고.

■ 수진 : 진짜야? 너 정말 좋은 환경에 있었구나!

▶ 제트 : 그게 뭐가 좋은 환경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의 지지배가 완전 발랑 까졌었어. 그게 그렇게 세팅이 되었었어. 어떤 애가 이 놀이에 충실했던 애인거야. 본인도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건 애한테는 조금은 힘들지만 즐거운 놀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애랑 나처럼 비슷한 애들이 주변에 몇몇 더 있었어. 그래서 애가 마누라, 원래 이런 식으로 지칭을 했는데, 그게 진지한 지칭이 아니었어. 겉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농담인거 알지?’라는 것을 깔고 얘기하는 분위기였어. 그런 농담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다른 애들하고 파트너를 바꾸니 뭐니 이런 얘기고 하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2학년 때 굉장히 나는 덩치가 크고 나랑 어울리는 애들은 소위 뒷자리에 앉는 애들이고 앞자리에 앉는 어떤 애가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나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 표현을 “나랑 친해지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애도 있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네 뭐야? 레즈야?”라고 표현하는 애도 있었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일종의 친밀한 사람 관계라 이 관계가 친밀하게

평화롭게 유지되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애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이 상황을 즐기기도 했었어. 나에게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었어. 어떤 순간에는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 연애 감정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보통 단짝 친구 여자 애들끼리 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농담 식으로 흐르기는 했었는데, 어느 날엔가 이렇게 여자 애들끼리 이런 방식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나는 그런 말을 알지도 못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이 레즈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앞자리의 그 애가 골수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든, 그런 애가 가장 먼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단어를 툭 내뱉었었고, 두고두고 애가 생각이 나. 오히려 옆의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애가 생각이 나는 거야. 주변의 어른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애의 엄마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여자 애들끼리.” 이런 말을 했었나봐. 개도 나처럼 머리가 짧았었는데 엄마가 머리를 못 기르게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머리가 짧은데 개는 머리가 길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엮이게 되니까 애네 엄마가 머리를 못 기르게 하는 거야. 엄마가 뭘 우려를 했었는지가 보이는 대목인거야.

■ 수진: 사귄 게 아니잖아?

▶ 제트: 응. 사귄 건 아니야. 중학교 때 기억이 사실은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약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때 애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불을 질렀다는 생각이 들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이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낀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애는 알았고, 다른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들, 이 관계가 너무 괴로웠어.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관계가 3각, 4각, 5각 막 그랬었어.

■ 수진: 진심과 장난의 경계에 있는 놀이었구나.

▶ 제트 : 어! 애하고 나하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연애를 했어.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앞뒤 옆으로 앉아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수학여행 갈 때 옆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수학여행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뽀뽀를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고 이런 편지를 쓴다든가 친한 친구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는데 애가 다른 학년이 되니까 다른 애한테 그랬었어. 그리고 나도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애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말하자면 연애를 해보려고 잘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 근데 나중에 좋아하는 관계들이 당신 말대로 진심과 장난의 경계에서 있었는데, 관계들이 엷히면서 인간관계가 지긋지긋해지는 상태가 된 거지. 중2, 중3에 올라가면서 이 무리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던 애가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애가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가 돼.

■ 수진 : 6학년 때 네가 좋아했던 애가 그 무리에 합류를 한다고?

▶ 제트 : 어. 왜냐하면 나랑 친하게 지냈던 애가 1학년 때랑 6학년 때, 이 친구랑 같은 반이었어. 2, 3학년에 올라가면서 이 모임에 오게 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걸모습도 희한했던 게 애는 커트 머리를 한 몇몇의 아이들과 단발머리 새침데기 몇몇의 아이들, 이렇게 돼. 그 와중에 3학년 선배 언니를 내가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그랬었어. 시기를 달리하며. 그러고 나서 뭔가 학교와 인간관계, 엷히고설킨 인간관계가 커다란 짐처럼 다가왔고 이러저런 이유로 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김정고시를 선택을 해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시간을 2-3년 정도 가지게 되었어. 95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5년 여름에 6학년 때, 중학교 때 이 동일인물 이 친구가 95년 여름에 내 삶에 다시 등장을 해. 애가 집안 환경이 되게 안 좋았어. 집에 돈은 있었는데, 엄마가 재혼을 거듭하는 분이였고 폭군이야. 딸들을 종처럼 부리고 “내가 너희들을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식이고. 그 여름에 개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만나게 돼.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름 교복을 입고 우리 집에 놀러왔어. 내가 호적상 77년생이거든. 그래서 나랑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고3이었어. 95년이 수능 2년차였었지. 애가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고 굉장히 힘든 학교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되게 못했어. 고3인데 방향을 할 것 아니야, 돌아

다니다가 나를 만나러 온 거야. 같이 만나서 팔빙수를 먹고, 정말 그냥 친구로 만난 거지. 나는 이미 대학에 들어가서 이미 95학번이고, 동기들은 고3인 상황. 나는 휴학을 하고 집에서 알바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고.

■ 수진: 어머, 애...낭만적이다!

▶ 제트: 하하, 뭐가 낭만이야. 들어봐, 이게 낭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다가 연애니, 마누라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장난으로 웃어 버리는 거야.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

■ 수진: 귀어구나. 진정한 귀어구나.

▶ 제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걸 공유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해 여름부터 애하고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 그러다가 거의 그때도 수능이 11월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을, 약간 두툼한 외투를 입고 다닐 무렵에 애네 엄마한테 전화가 와. 애가 집을 나갔다고. 어렸을 때부터 애네 엄마는 나를 공부 잘 하는 애로 좋게 봤어. "우리 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였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동시에 애도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일단은 애네 엄마한테 전화를 받아서 무슨 상화인지 알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만나러 갔어. 가서 보니까 애가 집을 나와서 남자 친구랑 어느 카페에 있는 거야. 그 남자애는 애를 너무 좋아했고, 끌려 다니는 마음 착한 애였어. 남자애가 집에 들어가라고 설득을 했었고. 아마 수능 끝나고 다음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애를 내가 A라고 할게. 이 여자친구를. A가 엄마의 그 폭력적인 것들이 겁이 나니까 막상 집은 뛰쳐나왔는데 들어가기가 겁나니까 머뭇거리고 있던 거야. 그래서 나와 얘기를 하면서 실컷 돌아다녔어. 카페에서도 얘기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설득을 해서 "내가 같이 들어갈 테니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날 밤늦게 같이 들어갔어. 엄마가 소파에 앉아있고 거실 바닥에 둘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 수진: 넌 왜?

▶ 제트: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엄마가 하는 얘기를 같이 들었어. 이 엄마는 폭군적인 스타일인데, 딸을 야단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활용하는,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기 위해서 되게 심하게 야단칠 때에는 둘이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분위기가 그랬어. 이 엄마는 그 얘기 끝에 “다른 친구 만나지 말고 애하고만 놀라”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나는 이미 대학생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A를 나한테 거의 전적으로 맡기는 식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어. 내 앞에서 내 칭찬을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뭔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내 인생이. 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이 마음을 못 잡고 막 이려고 있는데, 애는 이미 대학생이고 그러니 옆에서 조금만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일단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서를 쓰는 기간, 1-2주일간을 개네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 무슨 정의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애를 이 엄마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 한 동네 사는 친구여서 애가 안 됐으니까 또 가출했다고 하니까 애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옆에서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원서를 백만 개를 사들고 다니면서 대학에 내고 눈치작전해서 내고 이런 것들을 둘이 같이 했어. 그 와중에 뭔가 사단이 벌어진 거야. 애는 남자 친구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한지 얼마 지났을 때 밤에 애가 나한테 “참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친구인데 나랑 프렌치 키스를 하는 꿈을 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해.

■ 수진: 그 전에 그런 코드가 없었는데 갑자기?

▶ 제트: 둘 다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관계가 계속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부터.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하고는 약간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단짝 친구라고 하기에는 둘 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 19, 20살이었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남자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나의 눈치를 살폈어. 남자 친구가 처음에는 스킨십을 굉장히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되게 내버려 뒀어. 남자 애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못 하게 하고, 그런 게 있었어. 어쨌든 그날 밤에 난생처음으로 여자랑 잔거야, 내가. 그리고 애가 남자애를 정리하는 수순을 밝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둘이 잤잖아. 그러니까 둘이 되게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공유했던 것 같아. 그 남자 애를 말하자면 차고, 이 남자 애는 되게 술 먹
 고 나한테 전화하고, 나랑 사귀는 걸 모르니까. 애가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하소연
 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어. 애는 어느 전문대에 들어갔어. 비서과에 들
 어갔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애랑 같이 있으려고 집에서 독립을 했어. 집을 나와서 그
 때부터 내가 독립생활을 시작한 건데, 집을 나와서 멀지 않은 곳에 단칸방을 얻어서
 어느 정도 살았어. 몇 개 월 정도. 같이. 처음에는 내가 얻는 방에 일주일이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내가 따로 사는 집에서 잔다고 하면 자기네 엄마가 말리거나 반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자고 그렇게 살다가 애네 엄마가 세를 싸야하는 코딱
 지만 한 시영 아파트가 있었어. 이것을 나한테로 떠넘기는 거야. 그래서 “너희 둘이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그 단칸방에서 나와서 이 아파트로 들어와라”, 그래서 겨우
 겨우 꾸며놓은 거기를 싹 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로 들어갔어. 둘이 같이. 양쪽 집안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룸
 메이트가 된 거야.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 그래서 단칸방에서 아파트까지 살았
 던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였어. 살고 있던 기간에 애는 엄마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
 고 이 엄마가 약간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전화해서 성질부리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
 고, 애는 또 무서우면 벌벌 떠니까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서 같이 야단맞고, 둘이 집
 안 청소 다 하고 약수터에서 물 길어다 놓고, 같이. 그 생활을 반복을 하고 나는 계속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애는 집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 장만하고
 음식을 한다든가 같이 음식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1996년 여름에,
 내가 원래 내 근거지가 나고 자란 곳이 수원인데 수원에 사촌언니가 살고 있어. 사촌
 언니가 되게 큰 음악 학원을 해가지고 레슨 하는 애들을 상대로 해서 과외를 하는 자
 리를 마련해 주었어. 액수가 되게 컸어.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려고. 애들이 많았
 어. 그래서 여름방학 한 달 기간 동안 내가 수원에 와 있기로 했어. 그런데 애가 떨어
 저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 힘들어 했었어도 어차피 생활비를 내가 벌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참자, 해서 수원에 왔어. 계속 과외를 하고 애한테 편지를 쓰고,
 우편으로. 개는 부산에 있고, 나는 수원에 있고. 그러다 애한테 쓴 편지 중 하나를 사
 촌언니가 뒤져서, 남의 물건을 잘 뒤지는 사람이었어. 일기 같은 거 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짜증나.

■ 수진 : 내가 그러잖아.

▶ 제트 : 아, 진짜 싫어. 편지를 이 언니가 보게 됐어. 굉장히 적나라한 편지였어. 누가 봐도 이거는 사귀는 줄 알아. 연애편지. 이걸 이모하고 얘기를 하고 이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애네 이상하다고, 이렇게 된 거야. 21살 때구나.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됐잖아. 그래서 엄마가 당장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애를 만나러 바로 가지 못하고 우리 집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거의 취조를 당했어. "도대체 애에 대한 너의 마음은 뭐냐, 진실을 밝혀라!" 완전히 나를 닦달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극구 부인한 거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때의 엄마의 표정과 나의 그, 내가 완전히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 하잖아, 그렇게 됐을 내 얼굴과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나는 나대로 계속 같은 말 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 장면, 그때 방, 가구, 이런 것만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심정이 그 집에서 엄마랑 얘기를 끝내고 나서 애랑 같이 살던 그 길을 어떻게 왔는지, 엄마 있던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거의 울면서 거의 기어갔었던 느낌이야, 아파트까지. 들어가자마자 둘이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 너무, 내가 애한테 했었던 말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울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둘이 되게 되게 많이 울었어. 그러고 나서 애가 강아지를 한 마리를 사달라고. 그래서 되게 그거 가지고도 애하고도 옥신각신 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되게 무서웠거든. 생명체를 덜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워낙에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름에 무슨 애견 샵에 가서 새끼 피그를 한 마리를 사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보고 나는 다시 수원으로 간 거야. 수원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이 친구가 되게 많이 하소연, 부탁을 하고 그랬었는데, 견디기 힘들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사가지고 애랑 같이 일단은 있어라, 라고 하고 나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수원 애들이 5-6명인데 어쨌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갔어. 가서 그 언니와 이모를 만나야 하잖아. 꼴도 보기 싫고 그런 마음인데 또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들킬까봐 마치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취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일부러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 마음속에는 속상한 것을 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때 당

시에 그 여름에 그 일과 함께 기억나는 게 그때가 여름 무슨 아시안 게임인지, 올림픽인지 무슨 그런 기간이었는데 24시간 잠도 안자고 계속 텔레비전 보고, 먹지도 않고, 과외하고 텔레비전보고 그러다가 내려왔어. 강아지랑 셋이 잘 살고 그랬었어. 그렇게 가을 학기 접어들고 가을이 지나면서 내가 지쳐갔어. 나는 돈 벌고 공부하고 너 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애네 엄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쌍소리를 나한테도 욕을 하는, 나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입에 나오는 욕을 내 앞이라고 참지 않는 거야. 그거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애네 엄마가 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애한테 너 집에 들어오라고. 애를 조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애한테 중요한 것이 지금의 분리된 생활이라는 것을 아니까 뺏는 거야. 애는 학비가 큰돈 들어가는 건 엄마한테 타 쓰고 그러니까. 엄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지. 먹고 자는 것만 나와 같이 하지, 엄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엄마 때문이라도 둘이 같이 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야. 그 무렵에 우리 집에서도 내가 물결이 점점 안 되게 변했나봐. “얼굴이 왜 그러냐? 그렇게 살 거면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됐어. 그때 내가 못 이기는 척, 그 말을 따르고 싶었던 거야. 애를,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버겁고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어서 내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잠깐만 들어갔다다 다시 나와서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애는 내가 자기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애 입에서 나와서 나한테 확 박혔어. 애는 어떻게 받아 들였나하면, 각자 집에 들어가도 나는 우리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애는 배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각자 집에 들어가면 헤어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애가 집에 들어간 후 얼마 안 돼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냐?”며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애가 나한테 “먼저 배신한 게 누구데 그러냐?”고 그랬었어. 그리고 당시에 만났던 남자들, 애가 다니는 데가 비서과라고 했잖아. 외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그 과 친구들 사이에서 통용이 되었고 그리고 엄청 소개팅을 서로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소개팅 닥치는 대로 다 하고 그 얘기를 또 나한테 다 했어. 왜냐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애를 계속 찾아갔었거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미치겠는데도 내가 계속 애를 찾아갔어. 그 와중에 애가 어떤 남자애랑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거야. 21살에서 22살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31세인가 하는 사람하고. 경찰이었고, 차도 있었고, 차로 데려다 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다 얘기하고 그랬어. 그래서 애네 집에 같이 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집에 거의 기어서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목구멍에 찬 지경에 더 이상 그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남자가 애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1997년 2, 3월 그 즈음이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한 게 내가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울다 지쳐서 잠들고 주섬주섬 챙겨서 학교에 가고 그렇게 지냈어. 그러다가 봄이었는데, 한 동네에 여전히 살잖아. 버스 정류장에 학교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 돌아 봤더니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난 거야, 애는. 머리부터 다 바뀌었어. 파마하고 염색하고 화장 엄청 하고 이따만 한 힐에 미니스커트에 향수 냄새, 개가 그때 뿌렸던 향수 냄새를 지금도 어디가다가 맡으면 당황해. 당황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나도 느껴, 지금도. 왜냐하면 그때 애가 “어머, 제트야~” 그러면서 와서 팔짱을 딱 끼는 거야. 나는 거의 시체처럼, 그때 당시의 기억이 별로 없어. 이불 뒤집어쓰고 울고 그랬었던. 팔짱을 끼는데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러는 거야.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갔을, 뺨만 앙상해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됐었거든. 근데 그 부르는 목소리에 일단 얼었어. 누구 목소린지 알았던 거지. 알았는데 그 목소리가 상쾌 발랄,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움. 일단 얼었는데 애의 냄새와 옷차림 이런걸 보고 완전히 얼음이 되가지고 끼고 있는 팔짱을 내가 이렇게 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건물 뒤고 돌아가고 그 뒤에 애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엄청 또 울었어. 길바닥에서, 건물 뒤에서.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애하고의 끝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아. 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애와의 만남은 마지막이었어. 그러고 나서 몇 달 정도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애가 나랑 사귀기 시작할 때 만나던 그 남자애를 만나게 되었어, 내가. 애하고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어. 애들이 같이 만나던 친구들의 무리가 있었어. A의 여자 친구들, 남자애의 남자친구들의 무리.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애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여름 있잖아, 내가 그 강아지를 사주던 그 여름 무렵에 이 남자애를 통해 그 시기에 애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서 이 남자애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파트에 같이 살 때, 가을 무렵이었는데 애

가 학교를 가려고 나한테 흰색 블라우스를 다려 달라고 했어. 그 흰색 다려서 줬더니 그 진한 색 청바지에 약간 굵이 있는 구두에 그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옆으로 매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 내가 그 다림질을 해줬던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애는 소개팅을 했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남자가 그 여름에 이 얘기 뒤에 한 말이 한날은 어디 어디 변화가 술집에서 애를 만났는데 무슨 아저씨들을 하고 소개팅을 하고 있더라면서 애 옷차림을 묘사를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살의에 불타가지고 또 한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어. 매일 매일 죽여 버린다고, 이러면서. 속으로, 이 분노가. 이 애와 있던 얘기를 이렇게나마 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최근에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다른 누군가와 친분을 맺을 때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닌지, 제대로 관계를 끌여가지 못한다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 진심으로 이 사람이 좋은데 나를 다 뭔가 드러내거나 보여주거나 그런 거에 내가 흡족할 만큼 내 진심을 다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게 있는 거야. '이런 뒤통수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남자. 상담을 하면서 그게 되게 원형처럼, 나에게 자리 잡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나마 자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예전 같으면 20살 때 처음 애인하고 만났고, 같이 살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상세한 묘사는 나 스스로도 사실은 덮어 두고 안 꺼내보는 거 있잖아. 사실 지금도 얘기하면서 몸이 좀 떨리거든.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여자를 안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 수진: 얼마나 싫었겠어!

▶ 제트: 그때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본다거나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일단은 피해갈 생각만 하잖아. 딱 보니까, '여자?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자를 사귀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어. 한 2년 정도를. 여자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랬어. 일단은 혼자 숨어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1998년 무렵,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 97년 한해는 내가 다시 집에서 나가 혼자 살면서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면서 난방이 잘 안 되는 허름한 집으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서 추위와 싸우며 술, 그때부터 술, 담배, 배고프고 춥고, 그때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서 최소한 생

계를 유지하기 위한 과외 딱 하나 이 정도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돈 있으면 책 사고, 술사고, 소주랑 담배 사고, 배고프면 소주 먹고, 추우면 소주 먹고 자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 시기가. 그해가 그렇게 끝나는 시점 겨울 새벽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서관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남자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중의 어떤 선배하고 실제로 한 달 정도 사귀었었어. 사귀기도 하고 그 선배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3명. 근데 뭐 연애가, 연애가 연애가 아니지. 일단은 그냥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썽 모르겠어. 여자 친구가 있었다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어. 하지만 몇 달 안 됐어. 서울에 2001년 11월인가에 올라왔거든. 졸업하고, 그때 즈음에 마지막으로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을 사귀었을 때 그 사람이 끈질기게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던 건데 사귀자고 말이 나온 그날, 집 앞까지 쫓아와서 내게 뽀뽀를 하겠다며 나 진짜 머리통 뽀뽀하는 줄 알았어. 너무 불쾌하고, 하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서울로 올라오고 거의 잘됐다, 나는 빠빠이를 하고, 서울로 와서는 단편영화 만드는 것 이런 거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 연애와 상관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두 번째 여자친구, 애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 영화 찍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었어. 그 사람의 경우 어떤 강의를 듣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종파티,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이 사람이 눈에 들어 온 거야. 눈에 들어왔어. 말을 되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말을 잘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관심이 생겼어. 그 후에 무슨 영화제, 하이퍼텍 나다에서 무슨 영화제를 해서 거기에 갔다가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연락을 자주 하게 되고, 둘이만 따로 만나고 그랬어.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귀자고 내가 먼저 얘기했어.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고. 남편이 있는데 별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 그걸 아는 상태에서 사귀자고 얘기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점들이 크게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어. ‘문제가 될까? 아니, 문제가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전혀 몰랐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어. 2002년이었으니까 27, 28살 정도에 있던 일. 내 눈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비쳤었나 하면 굉장히 명석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 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결혼생

활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고 아이는 생겼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보니까 본인은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정체화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비춰졌던 거야.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어. 오히려 ‘결혼을 해서 경험을 해봤는데 정체화를 했다는 건 더 그것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게 매력적인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잘 사귀었고, 다만 아이가 있었는데 케어가 필요한 나이였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큰 문제는 아니었어.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문제가 있었고.

■ 수진: 그 집에 전화한 적도 없고, 놀러간 적 없어?

▶ 제트: 전혀. 놀러 가는 건 꿈도 못 꿔었어. 그 집에 출입금지, 이런 느낌이 은연중에 있었어.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이 애랑 같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 그때, 헤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랑 애기랑 같이 외국에 가도 되겠느냐며 내 동의를 구하는 일이 있었어.

■ 수진: 너한테 같이 가자는 얘기는 없었고?

▶ 제트: 응. 그런 건 없었어.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했었지. 본인이 외국으로 아 이랑 같이 가는 걸로 결론을 냈고 계획을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가 자리를 잡을 테니 나한테 오라고 제안을 했었어. 그리고 출국을 하는 날, 언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 출국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있고, 무슨 영화냐? 가족들이 다 있고, 그 모습을 건물 밖에서 유리창으로 보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그런 어떤 심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고? 죽으러 갔냐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지속되는 관계에서, 이 지속되는 내가 '도대체 언제 헤어져야 해? 나 언제 헤어지지?' 이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었던 것 같아.

■ 수진 :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된 거야?

▶ 제트 :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길지는 않았어. 나는 지속적으로 패닉 상태였어.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너무 헤어지고 싶었어, 사실은. 이 사람이 외국에 가야 한다고 그 출장 갔다가 입국할 때의 그 상황, 거의 그때부터 내가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명확한 인식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어. 굉장히 남편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거야.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의 태도도 스트레스였고, 남편 관련해서도 한 마디 말을 못 하게 했어. 그래서 그 언젠가부터 이 사람에게 아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선불리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어쩔 수없이 1순위 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항상 아이의 스케줄이 먼저 세팅이 되고 나는 2순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 언젠가부터 되게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행복해 지는 거는 이 관계 속에서가 아니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한 나는 웃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와중에 애하고 그 사람이 간 나라에 가게 되었어. 일주일 동안 애하고 셋이 같이 놀고 그랬어.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외국에 가서 아이의 적응문제 때문에 한참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참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마치 내가 그때 느꼈던 참담한 심정, 갔다 왔을 때 느꼈던 참담한 심정이 뭐였냐면 나는 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나 필요한, 그런 때에만 그 사람을 위해 쓰이는, 이용당하는 느낌에 시달렸어. 그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당시에 내가 일하던 곳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묻쳐있는 상황인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만하자.”고 했어.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그만하자.” 그러고 전화를 끊고, 그 사람으로서는 날벼락이지.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잘려진 게 되었을 거라고 짐작해. 나는 뭐만 기억이 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 우리 관계에서 문제시될 법한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어. 나는 하고 싶어도 못 했고, 언젠가 한 번 신촌 오거리 어딘가에서 밥을 먹다가 그런 서운한 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근

데 밥 먹다가 인상 구기고 가방 챙겨서 울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쫓아 나가서 “왜 그러냐? 얘기를 해봐라.”고 말했더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며, “서운하다.”며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 울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와 비슷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내가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어. 당장 뭔가 갈등의 소지가 불거져서 싫은 소리 하고 울고불고 마음 아프고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런 갈등 상황을 그냥 여기에 집어넣고 나는 뒤로 나 혼자 푹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 하지 않고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니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걔 개 집에 들어가고 나는 내 집에 들어가고 나는 소주 마시면서 속상해서 울고, 그러니 애는 모르지. 이런 식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 그랬지.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를 전화상으로, 그것도 전화상으로 하고나서 5,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잘 되고 있는 거야? 인터뷰?

■ 수진: 그럼, 그럼.

▶ 제트: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얘기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너무 가깝기도 하고 되게 만났던 기간도 가장 길었고 이 친구가. 햇수로 5년, 만으로 4년 몇 개월 이랬어. 그리고 햇수로 5년째 되는 그 해에는 너무 애하고 헤어지는 과정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완전히 끝장을 보고 헤어졌거든. 정말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 애하고는 더 이상 아니구나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거의 이혼도장 찍으며 마음을 담은 도장을 딱딱 찍고 돌아섰어. 카페에서. 되게 좋은 점도 많았었고, 이 친구하고도 한집에 같이 살았어. 2년 정도.

■ 수진: 네 인생에 이제 와서 생각할 때 첫 연애가 연애 놀이 함께 했던 첫 대상자야?

▶ 제트: 응응.

■ 수진: 그리고 개도 그렇게 생각할까?

▶ 제트 : 잘 모르겠다. 진짜 잘 모르겠다. 내가 자꾸 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되게 친구들하고 친하게 그러고 놀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 수진 : 그 후에 만난 적 없어?

▶ 제트 : 중학교 졸업 후에 빠빠이 했는데, 그 후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 수진 : 그럼 그 친구들 중에 엘이 없는 건가?

▶ 제트 : 없는 것 같아. 다들 소위 “장상적인 길”을 찾아 갔어. 누가 뭐 한다더라, 누가 결혼했다, 애 낳다 이런 소리들.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 내가 검정고시를 하면서 혼자 지냈을 때도 연락하면서 지내던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사귀었었고, 이런 것을 공유하던 친구였는데, 개도 결국 “정상적인 삶”을 찾아서 가더라고.

■ 수진 : 학교에서 그런 놀이를 하던 당시에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은 더 없어? 선생님들이나? 그 한 애 빼고는?

▶ 제트 : 개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나는 건 없어. 학년이 바뀔 때 친한 애들을 다른 반으로 찢어 놓고 그랬어, 일부러. 어떤 여자 선생님들에 의해서. 근데 그게 “재들 이상하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깝게 지내고 학업에 방해되고 반 분위기 망친다는 의미로.

■ 수진 : “레즈냐?”라는 말을 듣고도 찢리고 그러진 않았겠다.

▶ 제트 : 내가 비난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거슬렸어.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 놀이고 문화니까. ‘뭔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정도. 오히려 나이를 먹어서 그

망할 년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았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 수진 : 첫 애인이었던 애 말고 그 두 번째 진짜 첫 애인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

▶ 제트 :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굉장히 숨기고 싶어 했던 사람. 한편으로 개가 나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친구처럼 친하게 했었던 것은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글썄, 뭐였을까 싶어. 개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손쉬운 상대가 나였던 것 같아. 내가 그 용도를 다 끝마쳤을 때, 그런 용도로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시점에 개는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남자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나와서 관계가 필요가 없었던 거지.

■ 수진 : 같이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뭘 했어야 했어?

▶ 제트 : 돈 받으려면 더럽고 치사하고 일을 해줘야 하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 학비는 어쩔 수 없지만 일상에서 뭔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다 했던 거지. 일종의 역할을 나도 충실히 하려고 했었고.

■ 수진 : 사회에서 말하는, 주로 남성들에게 기대하는 뭐 그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나 역할을 한 적이 없는데. 능력도 없고 말이지.

▶ 제트 : 내가 계속 뭔가 남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어.

■ 수진 : 반갑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여자애는 너랑 같이 살던 그 시기를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때의 너를 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물을 수는 없겠지만.

▶ 제트 : 지금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고, 궁금하기도 않고,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말하자면...“그게 뭐?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뭘 일이 있었냐는 듯.

■ 수진 : 그렇게 첫 번째 연애를 끝내고 남자 사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잖아. 그게 괴로워지기 시작한 건지, 정체성 문제를 생각했었는지? 두 번째 연애를 하면서.

▶ 제트 : 현실에서의 삶은 여자 친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고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살거라는 것은 있었지. 그래서 "정체성", 뭐, "동성애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피해 다녔어. 실은 나는 중학교 때부터 피해 다녔던 것 같아. 개한테, 이상한 기독교인인 개한테 뭐야, “레즈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레즈”라는 단어에 꽂혀서 “동성애자” 이런 단어가 어디에 나오면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고 거기에 빨려 드는, 궁금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막 피해 다녔어. 예를 들면, 씨네 21 등 영화잡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런데 나오면 정독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 마디도 못 했어. 궁금했지만 내가 일부러 찾아보고 그러지 않았어. 나와 있는 걸 나 혼자 열심히 읽을 뿐. 그때 당시에는 여자니 뭐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삶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돈 벌고, 중간에 아우팅 당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울며불며 그 순간들을 모면하기만을 바랐던 게 전부였던 것 같아.

■ 수진 : 회피와 관심이 비등비등하게 존재했어? 아님 뭔가를 더 눌렀어?

▶ 제트 : 아니야. 회피가 더 컸었다고 생각해. 이미 대학생이었고,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혼자 숨어서라도 공부할 수 있잖아.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궁금하기는 한데 그것이 정작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와 분리해서 떨어뜨리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아는 양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서울에 와서 정말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 그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거든? 이제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것,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 크게 개

의치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공기 중의 하나잖아. 그게 서울에 와서 슬슬 가능해졌던 것 같아. 레즈비언 인권운동 단체라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지. 두 번째 애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단체에 찾아가고, 정체화하고 있던 중이었던 기간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 수진: 너 남성혐오가 있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니?

▶ 제트: 복합적인데 엄마한테서 항상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랐어. 외할아버지, 외삼촌, 아빠를 포함해서 남자라는 존재는 쓰레기. 이 양반들은 다 살림 때려 부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고. 엄마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남자들. 엄마한테서 그 남성 존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 결정적이었던 건 첫 번째 스무 살 때 사귀었던 애인과의 스토리에서 이 남성 존재와 나 혼자 내면에서 대결을 시작했던 것 같아. 열등감과 혐오감이 딱 붙어 있어. 오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 안정적인 직업, 차가 있고, 결혼만 하면 딱 되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가진 사람.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

■ 수진: 지금은 어때?

▶ 제트: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조금, 내가 자각하고 불필요한 부분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 남성들이 이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절하는 경향이 있어. ‘지가 남자인가 프리미엄이 있었지’라고 쉽게 생각해. 남자들이 상처 받고 약한 측면이 있는 걸 애써 안 보려고 해. 내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 정도가 좋아진 거지.

■ 수진: 두 번째 연애를 하면서 갈등은 없었어? 여자를 안 만나겠다고 하다가 만났잖아.

▶ 제트: 있었지. 굉장히 두려움도 컸고, 그때 당시 나의 상태가 일단은 심적으로 뭔가 큰 우울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한 편

으론 괴롭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머리 삭발도 해보고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서 남편 영화를 같이 만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해방감도 있었고. 그렇게 조금 좋아지려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났던 거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동성을 만난다는 두려움 보다는 그 순간에 그냥 ‘이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나 아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게 또 뭔가?’ 했지.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 보다는 생각을 했지. 그때는 이미 내가 뒤늦은 정체화를 이제 시작을 해서 “나는 엘이 맞나 봐.”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내 입 밖으로 내고 받아들이기 무렵이었어. 그때 고민은 여자냐, 남자냐, 왜 또 다시 여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엘인가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런 시간을 보냈어. 만나서 시작할 당시에 그렇게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

■ 수진 : 인권단체에는 어떻게 찾아 간 거야?

▶ 제트 : 이 애인이 먼저 회원이었고, 나는 온오프를 통 틀어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술 먹고 노는 환경을 좋아하지 않고, 안 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모임보다는 다른 것을 원했었는데 두 번째 애인이었던 사람이 거기를 소개해 준거지.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가 엘을 처음 본 케이스야.

■ 수진 : 어땠어?

▶ 제트 : 약간 지하로 내려가서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당신도 처음 만났고. 들어가는데 뭔가 들어가기까지 가슴 두근거리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 그런데도 지하로 되어 있어서 뭔가 내가 맞게 찾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 문을 열기 전까지. 뭔가 007작전 하듯이 전화로만 장소를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뭔가 위험한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오히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되게 어린 여자 애가 앉아서 뭔가 물어보고 되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

고 그랬었고. 뭔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뭔지 모를 불편감을 안고 작성을 하고 닉네임 쓰는 란에 한 번도 닉네임이란 걸 써 본 적이 없기에 옆에 놓여 있던 담배 이름 쓰고 그랬지. 그리고 신입회원 세미나 할 때 가서 보니까 웬 아줌마가 앉아서 나를 들볶는 거야.

■ 수진: 혹시 그 아줌마가 나야?

▶ 제트: 응. 말 좀 해보라고 난리.

■ 수진: 커뮤니티 생활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단체 회원 활동만 했던 거야?

▶ 제트: 응.

■ 수진: 다른 엘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된 거야?

▶ 제트: 그 놀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다른 엘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었고,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어디인가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던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그냥 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외국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게이 어찌고 그런 거는 있으니까. 게이들은 미국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한국에 거의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런 존재가 있을까? 했지. 나중에 내가 살고 있던 부산에 어떤 영화를 단편 영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잠깐 어울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쉬쉬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상태였어. 내가 어떤 애인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시기였어.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 했어. 그 공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때문에 신선함을 느꼈어. 좋은 신선함은 아니었어. 뭔가 두려운 두근거림이 있었어. "저기가 게이 극장이다, 저 극장에 가면 게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라고 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모이던 사람들 중에 여자가 있었는데,

술 한 잔 씩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확 달려드는 경험이었어, 뽀뽀하려고. 그게 되게 불쾌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 확 피해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자리를 떴던 경험이 있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 하여튼 두려움이 계속 있었고, 혼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혼자임을 본의 아니게 고집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와서 애인을 만나게 되고 애인과 둘이만 관계를 맺고 이러다보니 뭔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 때 숨기고 감추고 은유적으로 돌리고 이런 거 말고, 애인과 생긴 문제를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 학교에 게이 친구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하는 근본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굉장히 애 써서 부가적인 설명을 백만 가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 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

■ 수진: 필요를 충족했어?

▶ 제트: 아니. 완전히 다 충족하지는 못 했다는 의미이고, 완전히 충족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떠나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차이, 요새 나이 들어 생각하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는 아니었고. 하지만 엘 이슈나 정체성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는 있었던 것이지. 그 안에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정형화하는 말들 있잖아, 부치냐 펌이냐, 이틀테면 피로서의 정형화된 모습이나 성격이 농담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때의 내가. 그런 구분이 없는 곳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구분이 있었어, 뚜렷하게. 그 와중에 내가 불편했던 것은 나에게 비라는 역할이나 그런 구분이 생기고, 웬지 그거에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 지금 어떤 장면이 생각이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본인의 삶이 나처럼 뭔가 죽을 등 살 등 하지 않고 되게 뭔가 가십거리고 되게 웃긴 소재가 되고 그런 것들에 약간의 위화감도 느꼈었던 것도 같고. 하지만 재미가 없지는 않았어. 맥락을 따라가면 재미있었지만, 뒷맛이 씹쓸했던 요소

가 있었지.

■ 수진 : 지금도 엘 관계를 맺고 있잖아? 왜지?

▶ 제트 : 이유가 뚜렷한데, 내가 나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가장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인거지.

■ 수진 : 우리가 함께 친목모임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왜 이런 모임을 할까? 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경험을 모두 했었는데 말이지. 왜 우리는 이런 걸 할까? 알다시피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 제트 : 하하하하. 가끔 재밌어. 누군가 그랬잖아? 일종의 보험이라고. 그것도 일부는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

■ 수진 : 우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험인데?

▶ 제트 :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것.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로 병들어서 죽는 것, 만약에 엘 친구들이 없으면 그리고 나에게 애인이 없으면 나는 엘이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나의 일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교류하는 것 없이 나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을까?

■ 수진 : 무연고사나 고독사에 대한 공포, 늙어가는 시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

▶ 제트 : 응. 분명히 있지. 외로움과 나이 듦에 대한 불안과 공포. 사람이 살면서 본인의 선택으로 철저하게 혼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계의 질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양질이 있으면 좋겠다, 영화 등 관심사보다는 내가 솔직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자연

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조금 더 본질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해.

■ 수진 : 학교 친구들하고는 어때?

▶ 제트 : 여자 애들은 해테로 친구고, 남자 애는 게이 친구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만났던 애인이 이 친구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하고 어느 지점에선가 소원해 진 게 사실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고.

■ 수진 : 어떤 사람에게 커밍아웃하는 편이야?

▶ 제트 : 나는 지극히 내가 이야기 했을 때 이거를 친밀감 있게 수용해줄 수 있을만한 사람들에게만 했던 것 같아. 확신이 생기면, 예전에 대학 친구한테 덜컥 이야기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어서. 학부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 연애를 안 하던 시절에. 왜 그랬을까? 휴지기에. 그랬는데 그 친구도 좀 감이 없었고, 내가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분명히 내가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라고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에 “그래서 너는 결혼은 안 하니?”라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었어. 커밍아웃 할 당시에도 입술에 침이 마르고 두근 두근 거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는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느꼈고 안심을 하고 시간이 지난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일을 계기로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단체를 찾아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원 친구들에게도 여자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게이 친구에 얘기를 하고, 개랑 나랑 활발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저 친구와 많이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채 참 좋은 애인 것 같다고 여겨지는 애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그게 끝인 것 같아. 양적으로 더 많아지지는 않았고.

■ 수진 : 더 믿을만한 사람들에, 그 믿음에 대한 네 마음이 확실할 때, 솔직하게 너를 다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 제트: 응.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받아줄 것 같은 친구들한테만 커밍을 했지.

■ 수진: 20년 영상 기록 프로젝트도 하잖아?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커밍아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당분간 커밍아웃 범위는 현재 상황에서 유지될 것 같아? 아니면 확대할 것 같아? 더는 없어? 부모님, 가족, 친구들... 커밍아웃에 관한 현재 네 입장이나 생각은 뭐야?

▶ 제트: 막연하게나마 소망이 들어있는 건데, 저 사람은 웬지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커밍아웃을 해야지, 받아들이던 말든 그건 니네들 몫이야 라고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은 정확히 알 의무가 있어, 라고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외국에 나가 산다면 엘지비티 프렌들리한 곳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완전 오픈은 아니겠지만 그런 소망, 희망, 실현가능성이 더 낮지만 그런 게 있어. 현재 내 삶의 주변에서는 굳이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어. 오히려 애인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서 숨기려고 하고 이게 노출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뭔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짐작을 한다거나 알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몸을 더 숨기게 되는 것 같아. 움츠러들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야.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관계가 묶여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될까봐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걸 100번에 한 번 살짝 드는 생각인데, 애인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나 혼자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을 텐데. 마음도 몸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져버리는 것 같아.

■ 수진: 그러면서도 엄마한테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 제트: 응. 있어.

■ 수진: 자, 우리가 하고 있는 20년 촬영을 모두 마쳤다고 가정해 보자.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한다고 할 때?

▶ 제트 : 그게 20년 후라고 할 때하고 12년 후라고 하는 건 다른 것 같아. 8년 전에는 ‘당연히 하지.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후라고 생각하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 그런데 적어도 12년 후, 딱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딱 까는 건 못 하더라도 몇 년 묵혔다가 하든지, 하여튼 중국에는, 죽기 전에는 까보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 그 시점에도,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시점에도 상황 때문에 안 된다면 굉장히 슬픈 상황이고, 12년 후라고 생각하면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12년 후에는 가능하게 만들자는 생각이 들기도 해.

■ 수진 : 꼬마가 제일 어린데, 고등학교 때 시작했잖아. 그런데 보면 꼬마는 될 것 같아. 가루와 타지오님도 될 것 같고, 나도 될 것 같아.

▶ 제트 :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죽기 전에 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 수진 : 아실 텐데, 뭘 굳이.

▶ 제트 : 하하하. 그래도 지금은 막연하게나마 짐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그래도 내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어.

■ 수진 : 왜?

▶ 제트 :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어. 될까? 엄마가 소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라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있어.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 수진 : 남은 질문들은 내 개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맥락 없이 막 물어볼게. 아까 커뮤니티 활동 얘기하면서 노후 문제도 생각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살

고 싶어?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 연애도 하고 있고, 나이도 곧 40이고.

▶ 제트: 여전히 내가 그 동안의 연애에서 힘들어하던 문제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어. 그래서 이룰테면 애인이 선 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쥐고 싶지 않은 것들을 현재에도 정말 눈앞에 놓여 있는 과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으로부터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놓여날 수 있는, 선을 봐야한다 등 그 비슷한 종류의 것들, 동성애자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느끼고 고민하지 않는 시기를 맞이하고 싶어. 그런 시기를 맞고 싶고, 그런 게 있게끔 하고 싶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 마음 편한 느낌을, 죽기 전이라도 한 번쯤 느끼고 싶어. 먹고사는 문제 등 다른 중요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만 신경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한 번 가보기나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게 소망이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엘 친구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건 정말 막연한 건데 입양을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된다면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좋겠고, 입양을 해서 강아지나 고양을 키우는 것도 좋겠고 내가 아닌 다른 생명체를 정성들여 양육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혼자여도. 나는 좀 현재의 불안이 커서 그런지 뭔가 행복한 미래나 불행한 미래든 미래를 그리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나의 상태에 대한 지표일 수 있겠지만 그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 소용 없는 것 같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좌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우울하지.

■ 수진: 만약에 동성간 결혼 합법화가 만들어진다면 생각 있어?

▶ 제트: 응. 나는 생각 있어. 어렸을 때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제도결혼은 되게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제도화된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 개인으로 치자면 결혼이라는 그게 합법화되든 되지 않던 서로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고 혹은 법률적으로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견고해지는 하나의 장치라고, 긍정적인 장치라고 생각할 해. 영원히 지키자고 굳게 하는 약속 같은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

■ 수진 : 나이 들면서 이전에는 엘이라서 힘들게 느꼈던 것들을 덜 생각하고, 덜 보고, 덜 느끼다보니 그만큼 고통이 줄고 그만큼 무감한 채로 산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너는 어때?

▶ 제트 : 나도 줄어들 줄 알았지. 줄어들 것을 기대했고.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점점 뭔가 자신이 없어지고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사실 되게 마음도 안 좋고, 요즈음에도 불과 어제만 해도 나는 왜 엘이 됐을까...진짜 안 하고 싶다...그런 생각을 했어.

■ 수진 :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있었구나.

▶ 제트 : 응...너무 이게, 참...내일 모레 사십인데, 아...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 이슈에 관한한은 내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정말...아무것도 쫓지 않고 허공 중에 훌쩍 벗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지금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응 :
“난 예수가 좋아.
응, 정말 예수가 좋아, 난”

이름 : 응

생년 : 1982년생

지역 : 서울

종교 : 없음

기록연도 : 2013년

기록자 : 쏘머즈

1. 녹음본 이용 관련 동의

쏘머즈(이하 쏘) : 2013년 5월 18일 생애기록연구소 인터뷰 1 응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녹음본, 음성 자체를 아카이브화 시키려고 해. 이거 원본을 우리가 보관했다가
올리는 거에 동의하는지…?

응 : 녹음본 자체를 사이트에 올린다고?

쏘 : 이거 녹음본은 보관했다가 정리를 해서 올릴 수도 있어.

응 : 네.

쏘 : 이거 지금 인터뷰한 거는 원본을 쳐 가지고, 물론 내가 정리는 하겠지만, 생애기

록연구소에 바로 올리게 돼. 그래도 되겠어?

응: 네.

2. 인터뷰

쏘: 그러면 먼저 L로서 정체화한 과정?

응: 확실히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고 그게 어색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하진 않았어. 그냥 매력을 같은 여학생들한테... 남학생들하고는 노는 건 재미있었는데 매력을 느끼거나 한 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내가 레즈비언이구나.'라고 정체화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고 거기에 이름이, 나 같은 사람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은 중학교 때 들어서 알게 됐어.

쏘: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용어를 알기 전에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거야?

응: 응.

쏘: 다른 사람들이랑 사실 다르다고 느낄 수는 있잖아.

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질 못 했고.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구별화 하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냥 나는 재가 좋아 뭐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었어. 그게 가능했던 거는 어쩌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나랑 똑같이 여자를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르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중학교 때 들어서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분류가 되고 그래서 보통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함에 있어서는 다르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쏘: 그러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스스로 엄청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

응: 응.(웃음) 그건 좀 다행인 게 그 친구한테 감사하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레즈비언은 아니고 트랜스젠더인데. 근데 개랑 나랑 단짝이 되고 고3 졸업할 때까지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개랑 나랑 같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낸 것 같지 않아. 중학교 때 가끔 종종 힘든 건 있었지만. 나는 레즈비언 섹스에 대해서 몰랐고 그 때 당시에 내가 사귀던 애는 성교를 하고 싶어하는 애였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 욕구는 채우지 못하겠다 라고 개가 판단이 들어서 나랑 헤어졌는데 그게 이유가 그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힘든 게 있었어. 그 아이하고 헤어진 게 힘들다기 보다는 왜 내가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하듯이 여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식의 어려움이 있었지.

쏘: 중학교 때?(웃음)

응: 응.(웃음) 참고로 말하지만 내가 다닌 중학교는 굉장히 똥통 학교였고 이미 내가 다닌 중학교에선 성적인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 그리고 내가 다닌 중학교는 굉장히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였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부모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애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택하는 애들도 있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쏘: 성적으로 프리했어?

응: 날라리 학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똥통 학교라고도 하고 굉장히 좀 희한한 학교였

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해 보면.

쏘: 그러면 왜, 일찍 정체화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사실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아니면 ‘부모한테 들킬까’ 아니면 학교에서 따를 당할까봐 뭐 이런 걱정을 하잖아.

용: 근데 내가 되게 일찍부터 운동을 했었고 특히 격투기 운동을 잘 했었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를 시킨다거나 나를 놀린다거나 그러니까 내 앞에서 대놓고 놀린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 다만 내가 여중, 여고를 다녔고 내가 되게 보이시했기 때문에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는데 나한테서 거절을 당한 애들이 내 앞에서 좀 싫은 말들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냥 개네들이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 때문에 했던 말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학창 시절에는 별로 상처를 입히지 못했어. 기억이 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한 번 나랑 내 애인이랑 운동장 벤치에 점심시간에 앉아 있는데 2층인지 3층인지 창문에서 누가 레즈비언이라고 소리를 댄 질렸던 거 그거 하나가 좀 기억이 나는데. 물론 내가 위로 바로 뛰쳐 올라가서...

쏘: (웃음) 응징했어?

용: 응.(웃음) 찾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보복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애들이 놀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 학교에 유명한 레즈비언이 나랑, 나랑 친했던 개랑 커플들이 있었는데 개도 나랑 똑같이 격투기 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나는 그래도 평소에 폭력을 자주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개는 학교에서도 맨날 싸우고 애들 때리고 하는 애였기 때문에 개나 나한테 누가 놀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

쏘: 힘으로 제압한 거네?

용: 응, 힘으로 제압한 거지.

쏘: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응: 응. 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말하자면 어렸을 때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뭐 돈 아니면 폭력 뭐 이런 것뿐이고.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는 행사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다는 게 애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 재한테 함부로 얘기하거나 놀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애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 아, 한 번은 일이 한 번 크게 벌어진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땐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수학여행 때 애들이 방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나를 좋아하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내 애인은 아니었고. 걔가 키스를 막 했는데 나는 취해가지고 걔가 키스를 하니까 막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야.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이 학교에서 돌아다녔고 나를 유난히 싫어했던 어떤 애가 그 사진을 일부러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는데 내가 그거를 조금 뒤늦게 알게 된 거야. 며칠 후에. 걔가 나랑 다른 반이었는데 내가 철저하게 응징을 해 가지고 사진도 뺏고, 근데 사진에 찍힌 나랑 그 다른 애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 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냐 했는데 걔는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내가 그 사진을 빼앗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걔한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협박을 했어. 걔가 ‘우리 오빠한테 일러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결국 걔네 집에 찾아가서 걔네 오빠를 만나고. 걔네 오빠한테 네 동생이 이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빠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냥 얘기가 그렇게 끝나버렸어. 그런데 그 애가 사실 인기가 있는 애도 아니었고 다른 학생들도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일부 그 사진을 본 애들이 ‘레즈비언이다, 레즈비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난 별로 개의치 않았고.

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림 이미 넘어가면서 다른 애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어, 나는 중학교를 조금 특이한 데를 갔었고 고등학교는 다시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된 거야. 내가 중학교를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질 않고 저쪽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간 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또 새로운 공간이었고, 나한테 있어서는. 보통 그 고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많이 올라왔고. 나는 예고를

가려고 그랬는데 예고에서 떨어지고 뽕뽕이 돌려가지고 그 학교로 가게 된 거야. 근데 다행인 것은 나랑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중학교 때는 나랑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서 개의 친구들하고 내가 금방 친해지게 됐어. 다들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애들이 알게 된 것 같아. 학내에서 연애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알게 되는.

쏜: 근데 그러면 너는 괜찮다고 쳐도 상대방은?

용: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귄 애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 고등학교 기간 동안.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스물두 살 땐가 개가 한 번 우리 집 앞에 찾아왔었는데 개랑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 연애를 약 1년 정도 했고, 아 1년 좀 넘게 했고 뭐 고3 들어서 헤어지고 고3 때도 그냥 만나긴 만나다가 개가 재수를 했고 난 대학에 갔는데 개가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만나고 지냈어. 심지어 개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개 남자친구랑 나랑 술도 마시고 놀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스물두 살 땐가 그쯤에 개가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너랑 사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기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때는 좀 어안이 병병했고. 좋아서 사귄 건데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근데 뭐 어쩔겠어. 그리고 개 이후에 사귄 애는 개가 되게 강하게 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또 그 이후에 사귄 애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둘 다 되게 조심을 하고 다녔어. 그래서 아마 아무도 몰랐을거야, 개랑 나랑 사귀는 거.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개랑 나랑 사귀었다는 거를. 정말 손에 꼽는 애들. 개 친구들도 모르고 내 친구들만 조금 알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는데. 대학교 올라오고 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 애인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약간 그런 데에 있어서는 무심정한 편이었어. 누구를 좋아하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아, 오늘 너 되게 이쁘다.’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애정 표현을 하는 거를 별로 주저하지 않는 편이었고, 하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들다보니가 내 파트너들, 내 애인을 생각을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지. 아무래도 젊었으니까 별로 힘든 걸 몰랐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힘

들었던 거는 엄마, 아빠가 알게 된 거...

쏘: 언제 알게 됐는데?

용: 2002년? 아니 2001년? 내가 집을 나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 때 되게 힘들었고 학교도 휴학을 했고 뭐 엄마, 아빠가 나의 행적들에 대해서 궁금해 했던 거 같아, 내가 집을 나와서 사는 동안. 언니한테 이제 나의 친언니한테 캐묻기 시작을 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 그니까 용이가 여자를 사귀느냐, 언니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 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뭐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아빠가 불쾌하다, 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좀 그 때 기분이 나빴지만 속에선 '니가 불쾌하면 어찌겠어?' (웃음) 아니 아버지가 불쾌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생각도 없었고. 어, 그런 거니까, 뭐 어찌겠어. 그런 식이었고. 아버지는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쏘: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용히 넘어간 편이지, 불쾌하다, 라는 표현으로 끝냈으면...

용: 그리고 사실 부모님보다는 엄마의 동생인 이모가 먼저 알게 됐고 내가 이모한테는 커밍아웃을 했었고, 이모는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어. 그거를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니가 나한테 얘기를 해 준 거는 니가 그만큼 나를 믿고 있다는 얘기니까 고맙다, 얘기해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몇 번의 놀리는 상황들? 그 때 나랑 내 애인이랑 이모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우리 엄마가 같이 있었고 아빠도 같이 있었는데 어...계속 나보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모가 내 애인한테 니가 술을 많이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용한테 입으로 전해 줘라 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 사실 아버지 말고는 뭐 가족에 있어서는 싫은 점은 없었어. 나쁘거나 상황이 힘들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 특히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는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여성 운동을 했고 그래서 언니도 여자와 한 번 사귄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언니도 뭐 아군이라면 아군이니까, 가족에 있어서. 나를 가장 괴롭혔던 거는 사실 나의 성정체성은 아니고 언니랑 자꾸 비교되는 상황들, 학업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공부를 잘 했

고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거에 의한 집안에서의 무시? 뭐 엄마, 아빠 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들이 그렇게 구별짓고 학업에 따라서. 그게 아마 나한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계속해서 입시와 학업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또 어차피 언니랑 계속 비교되는 상황이니까 학교 시험을 치고 한 번도 성적표를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질 않았거든.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안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또 애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를 안 보여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나는 그냥 공부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어. 못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항상 평균 이상은 늘 하는 편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내가 스스로 약간 내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래 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은 너 상고 가면 어떡하니 라고 자고 있는데 내 귀에다가 속삭여 가지고.(웃음) 그래서 내가 다음날 나 상고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해 버려 가지고. 그랬더니 엄마가 상고만은 안 된다, 예고를 가는 게 어떨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미술을 했고 미술을 하고 나서는 약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해진 느낌이었어. 특히 고등학교 때는 예체능계한테 요구하는 학력 수준이 충분히 내가 최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아는데 우리 때는 좀 예체능계하고 그냥 인문계하고 배우는 게 약간 달랐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한숨 돌렸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내가 실기를 잘 했기 때문에, 실기를 잘 했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도 좀 덜해진 느낌이 있었고 편하게 놀았지.(웃음) 그러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놀고, 우리 때는 내신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됐으니까. 내신 같은 거 입학 때 전혀 지장 안 주니까.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학교 일찍 끝나지, 미술학원 안 가도 되지 막 열심히 놀고. 하하. 고등학교 땐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 뭐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학업 고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굉장히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돈도 꽤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항상 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은 크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정체성의 불편함, 어려움 이런 거 느끼는 거는 그냥 어쨌을 때 어쨌을 때 어쨌을 때 가끔 가끔 가끔 가끔이지 그게 항상 나를 괴롭히거나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어 그러진 않았어.

쏘: 좋네.(웃음)

응: 응.(웃음)

쏘: 그럼 대학 가서는? 대학 가서는 뭐 관련해서 활동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

응: 으응. 일단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는 그 때 막 인터넷이 생기고 쓰고 딱 그럴 해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궁금했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가 되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작은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일단 나 같은 친구가 있었고.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나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인터넷상의 이반 모임들, 이반이라는 말도 그 때 처음 알게 됐는데. 레즈비언, 게이를 위한 이반 모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데에 여러 군데 가입을 했고. 학교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에는 동성애자 모임이 있었어.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모임이라고 하면은 레즈비언 모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친목 동아리였어. 그래서 여러 같은 레즈비언인 선배들하고 술도 마시고 레스보스 가고 라리 가고. 그래 가지고 막 신세계를 알게 됐지. 레보, 라리 막 이런데 가니까 엄청 많은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때는 약간 말하자면 켄처 쇼크를 느꼈지. 아, 이렇게 많았구나 그 때 딱 깨닫게 된 거.

쏘: 그래서 열심히 놀러 다녔어?

응: 응!(웃음) 열심히 놀고 뭐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맨날 채팅하고. 그 땐 채팅 많이 했으니까 채팅하고. 그러고 나서 언니가 나를 고등학교 때부터 여성주의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고3 때 내 생일 선물로 준 책이 '이갈리아의 딸들'이니까. 막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막. 자연스럽게 언니가 하는 여성 운동에도 여기저기 같이 갔고. 어, 한 번은 학내에서 우리 학교가 총학생회는 뭐 전학협하고 한총련이 번갈아가면서 항상 총학생회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동성애자 문제라든가 성차별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게 주제화하거나 하지 않았었어. 나는 언니한테서 자꾸 접

하고 듣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대처럼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총학생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동시발생적으로 그 때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때 내가 있던 이반동아리가, 학내 이반동아리가 계속 그거를 친목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인권운동 쪽으로 나갈 것이냐 마찰이 있었고 나는 그냥 친목으로 두자, 나랑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은 이걸 인권운동으로 하자 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일단 동호회 사람들, 동아리 사람들을 다 만나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든지 말든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인권운동으로 하자는 애가 우리 동아리 이름을 걸고 무슨 행사에 이름을 올려버린 거야.

쏘: 동의 안 받고?

응: 응. 그래서 내가 그거 땀에 화가 좀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나와 버렸고. 내가 그 때 연애를 했나 연애를 했다가 헤어졌나 뭐 이래 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유아무야되고 대신 이대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지.

쏘: 수렁에 빠진거지.(웃음)

응: 응.(웃음) 뭐 처음에 A라는 사람, 언니 친구였는데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주 보다가 친해지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 그래 가지고 학내에서 내가 활동하던 것들은 전부 다 중지가 됐고 휴학, 휴학, 휴학, 휴학 이러다가. 사실 전공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했었어. 어, 나는 되게 순수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다니는 학과는 순수미술을 하는 계열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뒤늦게 아마 내 동기들 졸업할 무렵에 나는 자퇴를 했고 자퇴를 하고 어떡할까 이러고 지내다가 부모님이 알아버렸고, 자퇴를 한 사실을.

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자퇴를...

응: 응, 얘기 안 하고 자퇴했지. 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퇴를 했던 것 같아. 니가 노발대발... 부모님이 알게 되어 가지고 뭐 엄마가 고졸은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수능 공부를 하게 됐어. 아, 그 사이에 내가 한예종에 가려고 한예종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몇 가지 큰 실수를 했어. 포트폴리오만 내고 실제 작품을 가져가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실수를 해서 결국 들어가질 못 했고 엄마가 갑자기 수능을 치라고 했고 수능 공부를 해 가지고 수능 공부 한 몇 개월하고 다시 대학에 입학했고. 이번에는 인문계열로 입학을 했는데 미대 다니다가 인문대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쏘: 과제가 없어서?

응: 응!

쏘: 없다가보다 작업하는 과제가 아니어서?

응: 그리고 일단 나랑 동기들, 그리고 나의 선배라고 해봤자 다 나보다 되게 어린 애들이었고. 그리고 나는 책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이었고 그래서 인문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거는 정말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가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나는 나랑 저 애들이랑 같이 상대평가를 한다는 게 그 애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학교 시스템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리한 시점에서 나는 대학을 다시 다니게 된 거였지. 그래서 굉장히 4년 동안 빠르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끝낼 수가 있었고, 복수전공하면서. 인문계 대학을 다니다보니까 여러모로 또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도 가게 됐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서 뭐 정체체성과 관련해서는...

쏘: 여전히 힘든 거 없고?

응: 응, 여전히 힘든 거 없는데. 근데 나이 들고 나서야 힘든 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연애를 하면은 긴 전망을 보지 않잖아. 이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할 것 이다 라든가 평생 같이 하고 싶다 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냥 ‘아, 우리 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뭐 말만 이러는 정도였지, 그 이 한국 사

회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우리가 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십대 후반 정도가 되니까 그 현실이라는 데에 딱 부닥치게 되더라고. 특히 내가 무슨 레즈비언하고만 사귀다거나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잘 돼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사귀 애인 중에서는 동성애자였던 애인은 정말 별로 없고, 둘? 별로 없고 나머진 다 이성애자인 사람들하고 연애를 했는데. 한 번은 3년간 연애를 했는데 개는 이성애자였고 나랑 사귀면서 개는 정체성의 혼란을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바이인 거 같아, 이렇게. 근데 개랑은 굉장히 즐겁게 연애를 오랫동안 했었고 개와 나는 이제 개가 나보다 네 살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것들이 얘기가 된 상태였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보다는 개가, 이제 개도 나이가 스물일곱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왜 남자친구 없냐, 혹은 누군가한테는 애인이 있다 딱 얘기를 해 놓고 누군지 보여주진 않고 그런 상태였는데. 왜 보여주질 않느냐, 왜 애인이 없냐, 너도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개가 계속 듣고 있었고 나야 집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없었고. 근데 개가 그런 식으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나는 우리 둘이 생활을 같이 하려면은 일단 경제적인 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담감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둘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동안 개는 다른 고민들을 하고 계속 맞서야 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안 되겠다 라는 것으로 관계가 끝이 나게 되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개는 커밍아웃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개가 용기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탓할 수도 없는 이런 사회였고. 나는 커밍아웃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었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라, 모르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쏘: 애인이?

용: 아니, 내가 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출구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

이 들었어. 애랑 나랑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둘이 함께 하려면 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다른 구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애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뭐 그런 것들이 좀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개한테 커밍아웃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개의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개가 나를 위해서 가족들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그러면 개가 겪을 고생들이 흰하기 때문에 그건 또 나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뭔가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되게 개나 나나 힘들어하던 중에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어.

쏘: 그게 언제쯤이야?

용: 어... 2010년에 쫓이 났고, 2008년부터 2010년? 처음에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즐겁게 했어. 1,2년 동안에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하다가 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고 그 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조금 편했던 게 나는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학원에 결국 들어갔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개는 직장을 다니게 됐고 직장 내에서 계속 그런 눈치들을 받는 상황이었어. 소개시켜줄게, 뭐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런 제의들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었고, 개는 계속 표현을 모호하게, 회피하거나 그러는 일이 많았고 아마 거기에서 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개한테 미안하기도 해. 내가 괜히 사귀었나?(웃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쏘: 아무래도 나이 들수록...

용: 근데 개랑 사귀면서 제일 슬펐던 거는 개가 언제 어디 밥 먹으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가 나를 딱 보고 용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슬프더라.

쏘: 슬프지.

용: 그게 막 계속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물론 나는 나 닮은 애가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개가 그런 말을 하니깐 나도 개를 닮은, 미니어처 개. 그리고 개랑 나랑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됐지. 그 전엔 생각을, 아이를 누군가와 같이 키운다거나 하는 생각을 전혀 해 보질 않았는데 그 말이 갑자기 그런 것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괜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괴로워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느껴지게 되지.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그런 것들이 엘워드 드라마가 나왔고 미국에서. 그것들이 시즌에 시즌을 이어서 나왔고 거기서 레즈비언들이 삶을 이끌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잖아. 결혼을 하고 입양도 하고. 물론 헤어지고 별 추잡한 일 다 일어나고 그러긴 하지만 거기에 커플이 있고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제지를 하고 부모들이 막 난리를 친다거나... 있었구나, 테니스 선수. 꼭 그런 삶이 일단 하나 보인 거잖아. 가능성으로 보인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지.

쏘: 그렇지.

용: 엘워드가 없었더라면.(웃음) 엘워드 같은 거 만들라고, 아마.

쏘: 잠깐 끊었다 할까?

(잠시 후)

쏘: 아까 마음 아픈 얘기, 마지막으로 하다 말았어. 그리고 나선 연애 안 했어?

용: 했지.(웃음).

쏘: 그 때는 어땠어?

용: 그 때는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못을 박았어. 개가...개도 이성애자였고, 모르겠어, 개도 아마 나랑 사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개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렸나 두 살 어렸나 그랬으니까 개도 나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할 나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니가 남자친구가 생긴다거나 뭐 결혼할 만큼의 상대자가 생기면 헤어지는 걸로 합의를 하고 연애를 시작을 했어. 근데 개가 굉장히 연애에 미숙한 아이였고 그런 반면 나는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해 본 사람이니까 연애에 있어서의 예의라든가 혹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나는 되게 익숙해 있는 상태에 개는 그렇지 못했고 그게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여성주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그 아이는 전혀 그 아이는 여성주의자라고 말하기는 거시기한 아이였고. 그런 데에 있어서 싸움이 좀 있었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얘기라든가 외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나는 그런 거를 용납하기 되게 싫었던 거야. 그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묻고 그래선 안 된다 라는 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개는, 개가 학력 그렇게 좋지 않은 애였는데 나는 반면에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서는 자기를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개의 자격지심이 조금 더 심해지고 그리고 개가 밤마다 카톡으로 날 괴롭히고, 의사소통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11개월 사귀고서는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연애에 대해서 당장 생각이 없고. 사실 연애에 대한 생각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든가 봐도 될 것 같아.

쏘: 많이 질린 거 아냐?

응: 응, 질렸어.(웃음) 고문을 좀 당했지, 카톡 고문.

쏘: 근데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쩌다 그렇게 맨날 이성애자들만 만나?

응: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구 좋아하는 게 꼭 동성애자만 좋아하게 되진 않더라고. 그리고 난 또 누구 좋아하면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자주 보고 만나고 내가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성애자들하고도 연애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물론 나도 동성애자랑 연애하고 싶지.(웃음) 내가 연애하는 대상이 동성애자였으면 싶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쑈 :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 만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 뭐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아?

용 : 그렇진 않아. 어, 뭐 헤어지고 나서의 개의 어떤 연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아닌 거고.

쑈 : 그러면 지금 대학원에서도 다 커밍아웃한 상태야?

용 : 어, 커밍아웃을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뭐 일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미 한 상태였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다른 대학원생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게 철학이고 대학원 정도를 다니고 있고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체로 머릿속으로는 호모포비아는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근데 무방하더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 근데 간혹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라는 사람이 좀 간혹 있었고. 근데 그 대학원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이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커밍아웃을 안 해. 또 어련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전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가끔씩 농담조로 남자친구 어쨌거니 그런 얘기 하면 내가 딱 듣기 싫다고 끊어버린다거나 발언의 수위가 조금 안 좋다고 느껴지면 화를 내고 대화가 끝나는 편이라서 딱히 커밍아웃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친한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리고 대체로 그런 학생들은 한국 내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전공, 철학 쪽에서도 나의 세부전공들은 그게 정말로 텍스트에서 다뤄지고 있기도 하고.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도 계속해서 동성애 얘기를 계속 꺼내고 막 이 중에서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사람 손들어 봐 이런 식의 발언들도 있으니까. 학생들은 대체로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쑈 : 어찌다 보니 지금 학업과 굉장히 밀착돼 있네?

용 : 어, 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버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여성주의적이고 젠더 관련한 그 쪽으로 학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정치철학을 하고 싶고 그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다루어지겠지만 내가 일부러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할 생각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간혹 다루어지기는 하고 있고 뭐 학생들이 그런 데에 있어서는 많이 깨어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상황들, 내 주변 상황들은 상당히 나한테는 좋은 환경들을 계속 만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중, 여고, 여대를 다녔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표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지 않으니까. 종교적으로 심취해 있어서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또 그런 얘기를 꺼내면 나도 반박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반박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일단 이십대 초반에 학습을 해서 배웠다는 것도 사실 다행이야. 뭐 막 누군가가 어쭙잖은 논리를 끌어다가 성경도 끌어다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뭐 나도 나름대로 다 반박할 수 있고. 일단 그것도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를 습득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나보다는. 나는 “저런, 저런 나쁜 사람!”(웃음) 뭐 이리고서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설득이 전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연을 끊어버리거나 안 보거나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온통 주변에 호모포비아들이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자꾸 농담조로 나오고 비하하는 말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나랑 다르게 어떤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말을 막 꺼내서 두둔하면서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나는 일단 학생이고 그런 이점들이 좀 있는 거 같고 내가 그런 이점들을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어쨌면.

쏘 : 생존본능인가?

용 : 어, 왜 내가 굳이 직장생활을 해야 돼? 그 머릿속에 그려진 그 직장생활들 있잖

아. 아, 난 공부나 해야지. 애들이 막 ‘너 공부 계속하다가 뭐하려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되지. 문제는 뭐 경제력이지만. 학생들 가르칠 수 있고. 또 항상 나는 과외하는 학생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일단 개네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과외하는 학생이 여자애든 남자애든 간에 기본적으로 호모포비아는 아니었음 좋겠고. 더불어 제노포비아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루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하고 애들이 눈치를 채고서는 저 선생이 레즈비언이라고 아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그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한 명 한 명들을 좀 잘 설득시키고, 가치의 방향들을 이상한 쪽에서 보다 수용적인 편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기준에 갖고 있었는지 간에 이런 식의 수용들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좋은 거는 개네들이 조금 더 커서 호모포비아인 친구나 제노포비아인 친구나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개네들이 좀 개네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원하는 바고. 그게 내 돈벌이이고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쏘: 무슨 과목하지?

용: 보통 사회탐구나 논술이나 언어 하는데, 나는 텍스트를 같이 읽는 거를 좋아해. 애들이 이런 것들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조금 같이 읽고 특히 논술 같은 것들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언어할 때는 일단 한국어 어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애들이 많이 부족해서 일부러라도 그런 걸 좀 하는 편인데. 그 때는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텍스트 가져가서 읽으면 되니까. 애들은 할 수 없이 읽는 거고.

쏘: 읽다가 세뇌당하고?(웃음)

용: 응(웃음), 읽다가 세뇌당하게 하는 거지. 뭐 마르크스도 읽고 칸트도 읽고 길리건 이런 것들도 좀 읽고. 그리고 뭐 제노포비아랑 관련된 텍스트들도 많으니까 그

런 것들도 좀 읽고, 제노포비아도 내 관심사 중에 하나야. 가능성이 없는 소리긴 한데 어느 순간에는 인류의 어느 역사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국가 선택의 자유까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점들을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상한 찬양과 반면에 이상한 혐오감, 비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얹혀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했을 때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또 역사 공부하면서 깊게 느낀 거고, 그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주의를 주려고 노력을 하지. 뭐 특히 성과 관련된 것, 성폭력, 성추행, 뭐 이런 거. 남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남자 학생인 경우에는 ‘니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타인의 신체를 니가 마음대로 만지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매번 강조하려고 하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반응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대체로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여태까지 가르친 학생들은. 그래서 그게 잘 먹히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건 굉장히 다행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있으니까 애들이 잘 하니까 애들을 좀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교화시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좀 그런 거. 항상 ‘칸트는 위대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의 생각을 가져오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지는 않는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뒀라’ 뭐 이런 것들. ‘네가 너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봐도 되는가?’ 그게 정말 칸트의 생각이라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 싫어’ 하는 거. 사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제 논리를 파고들어가면 결국은 좋아, 싫어인데 그런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의 자유로운 삶의 전망을 해칠 수 있는가. 은근히 칸트가 가르치는 척 하면서, 칸트도 가르치면서 얘기도 하고. 막 여러 사례들을 끌어다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애들은 여러 사례들이 나오면 재미있어 하니까. 그런 걸로 가르치는데 재밌는 거 같아. 보람도 있고.

쑈: 삶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있구나?

응: 응.(웃음)

쏘: 개들이 잘 자라가지고 진짜 네 말대로 친구들한테도 한 마디라도 더 해 줄 수 있고...

용: 그리고 은연 중에 어떤 혐오감이 생기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런 게 싫는데 왜 싫을까요?' 그러면 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게 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지.

쏘: 그렇지, 굉장히 긍정적이지.

용: 말 안 하고 그냥 꿈 하니 있다가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발전해서 온통 머릿속엔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지. 학생들하고는 늘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래야 애들이 속에서 나랑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쏘: 그럼 일단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애들을 가르치긴 하겠네?

용: 응. 그거 말고는 별로 돈벌이가 없어, 사실.

쏘: 공부도 계속 할 거고?

용: 응. 하려고는 하는데 힘들어.

쏘: 공부는 어느 쪽으로 계속 하고 싶어?

용: 계속 정치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뭐, 잘 모르겠어, 내가 학자로서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자신감이 없어.

쏘: 길이 너무 험난해서?

응 : 음... 길이 험난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학자로서 진골,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교수직이 없다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힘들지. 뭐 기껏 해봐야 번역...

쏘 : 연구원. 그것도 자리 좁잖아.

응 :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 가르치는 일로 어느 순간에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아니면 로또가 당첨 돼서 그런 걱정들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웃음)

쏘 : 모두의 바람이지.(웃음)

응 : 아, 근데 로또 당첨 돼도 애들은 가르칠 것 같아. 가르칠 수 있는 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 내가 과외 선생이잖아. 사교육이잖아. 더 좋은 거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돼 가지고 내가 안 가르쳐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좋지.

쏘 : 사실 그, 뭐 언어, 사회탐구, 논술 이거는 사교육으로 분류가 되지만 네가 그 사이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교육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더라도 사실은 배워야 할 것들이잖아.

응 : 응,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사교육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을 때 그런 거를 어떤 통로로 배워야 될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배워야 돼.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 간혹 사회문화에서 기능론과 갈등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나는 갈등론자야.’ 딱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너네들은 너무나도 기능론적인 입장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얘기들만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갈등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그런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거야. 그건 좀 악순환인데

그걸 좀 어떻게 바꾸느냐도 문제야. 교사의 어떤, 교사가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를 할 수 있다, 가 지금 한국 사회잖아. 근데 꼭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 교직이수를 하지 않고서도 일단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나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거든. 교직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 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범대 들어가서 교육학을 배우고 나온 사람들, 만약에 윤리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윤리를 가르치는 거 하고 철학을 석·박사를 났은 사람들이 애들 가르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야. 깊이나 다룰 수 있는 논의의 장이라든가 예시라든가 그리고 어떤 관점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조금 요원해 보이고 그런 통로를 여러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이 열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되게 균형 있는 관점들을 학생들한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가족 이런 거 애들 가르칠 때도 내가 가르치지만 한심스러운 거 있잖아. 친족 외우고 있고 가계도 나오면 남자, 여자, 자녀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남자가 네모고 여자가 동그라민데 남자 네모, 동그라미가 두 개야. 나는 또 머릿속으로 레즈비언과 어쩌다 보니 엮어지게 된 남자, 이 사람이 바이이든가 정자 기증자라든가 이런 걸 딱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딱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일처다부제, 아니면 일부다처제 이거를 그린 거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는 거는 요게 고작이구나... 그리고 뭐 일처다부제가 가능한 상황인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뭐 일부다처제가 가능한 상황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 놓은 거야.

쏘: 무슨 과목이나?

용: 사회문화! 그러니까 애들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뻔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 차이. 나는 또 그걸 보면서 흥분하면서 애한테 가르쳤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왜 안 가능해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봐. 동성애자의 삶이라든가, 왜냐면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만약에 만약에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 아이가 받을 상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일부에서는 그러게 왜 입양해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 상처를 주는 거는 기존 사회지 그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가족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배웠으면 좋겠고. 제노포비아 이런 거 잘 안 배운다고. 그것도 배웠으면 좋겠고. 아, 요새 배우더라고. 요새 이상한 과목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생활과 윤리였나. 뭐 여러 가지.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동물학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애들 손으로 이뤄지는 것도 많고. 왜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지, 애들이. 학교에서.

쏜: 지금 당장 가능한 건 방과 후 교육...

용: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 과외 선생님들 중에서 나 같은 선생님들이 몇이나 있겠냐만. 나는 우리 대학원 친구들한테 과외를 하게 되면 너네들도 나처럼 이런 얘기해 주는 건 어떻겠느냐면서 몇 번 얘기는 해 보긴 했는데 어떻게 가르칠 진 모르지. 일단 항상 과외 선생님들은 입시, 성적에 굉장히 매이고 있고 그게 일단 매이면 과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으면 “자, 니가 여기, 여기 잘 읽고 문제 풀어 오는 거야.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해 줘도 돼, 이런 데는. 이런 걸 내가 얘기해 줘야 돼?” 일단 이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바꾸기는 힘들어 보이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물론. 좀 머리가 말랑말랑한 학생들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커지고 세대가 좀 바뀌면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나 여러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나 뭐 아무튼 억압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관용적인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참 암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뭐 인류의 역사를 짚아 봤을 때 아주 대놓고 억압하고 이런 사회에서 조금은 대놓고 없고 교묘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뭐 정치 참여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넓혀 가고 있고 또 차별성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아무튼 인류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반동적인 힘은 잠깐 잠깐씩은 있을 수 있어도 인류사 전체로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제도가 먼저 갈 수는 있으니까, 어쨌면. 사람들 의식보다 제도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동성결혼이나 그런 것들이. 뭐, 가능하지 않으면 이민.(웃음)

쏘: 가능하면, 만일 가능해지면 하고 싶어?

용: 결혼을? 어...만약에 애인이 있고 그 사람과 나의 삶을 함께 하고 싶다, 둘이. 물론 나는 항상 오픈 메리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어. 뭐 아주 너랑 나랑만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삶을 함께 하고 싶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몰라도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왜냐면 어떤 제도적인 방패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은 게 그냥 연애 상태에서는 헤어지는 게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만약에 제도적으로 묶여 있으면 헤어지기 전에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게 어쨌면 결혼이 가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는데 만약에 뭐 내가 경제적으로 유복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배우자보다 일찍 죽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배우자한테 온전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서 찬밥 신세가 된다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나의 배우자가 죽었는데 나는 그냥 장례식장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가는 사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는 싫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게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결혼 제도,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 물론 레즈비언도 이혼할 수 있지.(웃음)

쏘: 그럼 이혼해야지, 하게 되면 해야지.(웃음)

용: 뭐 무결한 존재가 아니고.

쏘: 결혼 제도에 편입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그 반대급부도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애기 다 나온 거 같은데? 내가 굳이 말 안 꺼내도?(웃음)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지금 상태의 용으로서.

용: 일단 그래도 유독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난 성정체성을 굉장히 일찍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닫는 과정에서 그렇게 심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되게 운 좋게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고 학생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 나의 환경이 그러니까 레즈비언으로서 그런 괴로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게 그게 다행이지. 그리고 그게 특수한 경우인 거고,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고.

쏘: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교회 오래 다녔잖아. 그 때는 어땠어? 중고등학생 때였잖아.

용: 아, 찢찢 거렸지. 그런 얘기 나오면.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나의 반응은 항상 이거였어, ‘어쩔 건데? 이미 있는 거 니네가 어쩔 건데? 니네가 인정하고 자시고 지랄이나?’(웃음) 근데 간혹 그렇게 물어봤어. 내가 처음에 미대에 들어갔을 때 나는 미대이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개방적이라고 어렵פות이 그냥 짐작했던 것 같아. 들어가자마자 커밍아웃을 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학과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수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한 번 듣게 됐지. 동진테나보다 나이는 더 많았는데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에이즈가 어찌고저찌고. 그래서 뭐 ‘이성애자는 에이즈 안 걸리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레즈비언 섹스에서는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거의 없으며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내가 그냥 한 마디로 물어봤어. ‘당신은 동성애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을 하나, 둘 중에 뭐냐?’ 그랬더니 틀리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길래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1년 후쯤에는 자기가 먼저 와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 ‘애인하고는 잘 지내냐?’ 뭐 그 사이에 나의 영향은 아니었겠지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미디어라든가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식이 좀 변화한 것 같더라고.

쏘: 개도 좀 특이한 케이스다.

용 : 응. 그래서...아, 근데 질문이 뭐였지? 이래서 메모를 해야 돼. 너 처음에 질문한
 게...? 아, 종교! 내가 고3 때까지 교회를 꾸준히 다녔지.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재밌었어, 성경 읽는 거는. 일단 신이 굉장히 광폭하
 다는 것과. 어, 정말. 구약 읽으면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지. 그리고 내가 딱 찾
 은 거는, 중고등학교 때 찾은 거는 굉장히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성경
 에 보면 ‘남자가 여자와 눕듯이 남자와 눕는 것은...’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어, 어디
 지? 레위기? 레위기 18장 28절이었나? 뭐 아무튼 나오는데 남자라고 써 있잖아. ‘어,
 이걸 게이만 해당이 되네. 게이는 내가 상관없고. 나는 여자니까 상관없네.’라
 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감리교회가 좀 장로교보다 조금 약간, 그나마 약간
 진보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
 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뭐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의 성정체성이
 악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 습관적
 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고, 교리는 정작 몰랐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문제는 나
 중에 다 커서 신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들
 이 있지. 왜 성서를 그렇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왜 너는 조개도 먹고 게도
 먹고 문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으면서, 비늘 없는 생선 막 먹으면서 왜 동성애 보고만
 뭐라 그러냐. 성경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나는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인
 간을 굉장히 자연으로만 편입시켜 버리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인
 간은 생식하고 재생산하고 그러한 역할만 갖고 있는 동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신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저런 사고로는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까 되게 걱정이 되고. 언제나 그래도 항상 내가 봤을 때는 넓은 의미에
 서 기독교인들이 유념을 해야 될 거는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신
 약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 거기
 에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알고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건 정말 좋은 말씀 아니냐. 난 예수가 좋아. (웃음) 응, 정말 예수가 좋아, 난. 항상 빈자
 들에 앞섰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었
 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되게 싫어하셨으며(웃음), 어, 그렇잖아, 성경에 보면 동전 바

꾸는 거 그런 거 되게 꽤썸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 예수는 참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독교인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거지. 예수가 좋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왜냐면 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종교는 엄마가 집사고 언니도 기독교인이긴 한데 집에서 종교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니까.

쑈: 그것도 다행이지.

응: 응, 다행이야. 항상 누누이 종교 선택의 자유는 가져야 된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네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불교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싶거든 스무 살이 넘어서 심사숙고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종교를 선택해라 이런 식의 집안이었으니까. 가끔 아닌 집안들 많잖아. 부모님들 뭐 다 신자고 아주 독실하다고 독, 실, 하, 다 얘기를 하는 신자고 그런 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 것 같아. 커밍아웃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마. 죄악이라고 보잖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쑈: 근데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까?

응: 그 사람들한테는 의무거든. 어떻게 내 자식을 지옥에 떨어뜨려. 자기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어떻게든 천당에 가게 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거야. 구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반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 입장이야 뭐 그렇지. 그런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인위적인 건 아닌지 봐야지. 하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인류는 그렇게, 인류사는 그렇게 발전하는데 왜 항상 하느님은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꽉 막혀 있고.

쑈: 일단 지금까지, 서른두 살까지의 응, L로서의 응의 뭐랄까 삶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굴곡을 겪은 거 말고 정체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막 괴로움을 겪었거나 그런 거는... 좀 남들보다 덜하다...?

용: 응, 남들보다 덜 했고. 그리고 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애인과 헤어지면서 결혼을 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헤어져야 한다는 그 상황에 딱 직면을 하니까 그 때서야 이제 막 내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힘들구나, 불편... 불편하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어...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권리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지. 물론 레즈비언들, 게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고통이라면 고통이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지 몰라.

쏘: 일단 생존이니까, 그건.

용: 그렇지,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꾸잖아.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을 접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웬지 내가 이렇게 레즈비언이어서 결혼 못 해서 슬퍼, 라는 거는 투정부리는 게 될까 봐 무섭기도 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내 일이니까 힘든 거지.

쏘: 그리고 사실은 카테고리도 약간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용: 뭐 물론 나도 참 가난하기도 해.(웃음) 그건 내가 자초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쏘: 한국 사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이잖아.

용: 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힘든 사람들이 또 있지. 그리고 동성애자 사이에서, 내에서도 보이더라고. 그런 거, 뭐지, 가난한 사람들 피하는 거, 커뮤니티 내에서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유에 들어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냐. 몸매 딱 재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아, 애네들도 똑같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리고 뭐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되게 힘든

거 아마 느낄 거 같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한국 사회에서 살고 그래서 피로움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왜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땐 나... 내가 되게 축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막 괴롭다거나 그런 거를 다시 누차 생각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아마 내가 기억 못 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은 많을 거야. 그래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지. 즐거운 일 많았고 행복한 일 많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아마 남자랑 연애했으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난 조금 이성애자들이 불쌍한 그런 경우도 있어. 이성애자 여성들이 좀 불쌍한 거지. 이성애자 남성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저런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나, 그런 생각. 혹은 내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낀 적도 분명히 있고, 아, 나는 애가 하고 싶은 말 뭔지 다 알아 들겠어, 또 애가 뭘 원하는지 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누차 말하지 않아도 막 알고 있고, 가족 내에서의 뭐 그런 것도 대체로 잘 알게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아는 것들. 그런 점에 있어서 연애할 때는 상당히 즐겁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아마 이성애자 여성들은 모를 거야.(웃음)

쏘: 그게 앞으로도 잘 누릴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응: 그렇지. 아마 그게 샘나서 (웃음) 그렇게 싫다고 발버둥치는 것일 수도.

쏘: 끝?

응: 응, 수고했어요.

쏘: 수고하셨습니다.

행자: “난 무소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름 : 행자

생년 : 1984년

지역 : 서울

종교 : 없음

기록 : 월

기록일 :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내가 행자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봄, 락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그해 여름 어느 락 페스티벌에 같이 갔고, 행자가 일했던 편의점 골목을 자주 지나게 되면서 가까워졌던 것 같다. 그러다가 근처 사는 친구들끼리 서로를 ‘동친(동네친구)’이라 부르며 편하게 자주 만나 친해졌고, 행자와 나는 동갑내기 동친이 되었다. 앞으로 나는 동친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하려 한다. 동친들 중 행자를 첫 인터뷰이로 정했다.

〈 소개 〉

월 : 소개 먼저 할까?

행자 :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현재 금속공예 공부하고 있는 30살 여자, 행자입니다. 본가는 대전이고, 서울에 공부하려고 3년 전에 올라왔어.

< 정체화 과정과 첫 번째 연애 이야기 >

월 : 벌써 3년이구나. 우리가 만난 것도 3년이구나. 대전에서 지낼 때부터 정체성을 알았지?

행자 : 어. 나는 그걸, 디게, 나는 자연스럽게 접했다고 해야 되나, 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 같아.

월 : 언니가 이쪽인가?

행자 : 우리 언니를 정말 의심을 했는데, 언니가 성격이 별난 구석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부터 주변에 이쪽L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

월 : 언니도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다 알았는데 언니는 아닌 거지?

행자 : 응, 아니었던 거야. 우리 언니도L친구들 연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랬지.

월 : 언니는 연애를 안 했겠네?

행자 : 우리 언니는 연애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 20살 때쯤에 시작을 했어.

월 : 그럼 너는 언제 정체성을 알게 된 거야?

행자 : 일단 중학교 때 이미.. 내가 또래보다 쪼만해서 애들이 날 많이 챙겨주고, 귀여워 해 주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잘 해주던 인기 많은 아이가 있었어. 개한테 약간 뭔가 모를 두근거림이 있었던 거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감정을 알고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의 친구! 그때 동경 이런 거라고 생각하다가 고2 때 진지하게 써클 선배의 친구를 좋아했어. 고2 때?

월: 고2 때 스스로 인정을 한 거네?

행자: 어. 생각을 했을 때. 그때도 내가 사람 자체를 사귀다거나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해 볼 때 정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성격, 스타일의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나는 여자에게 더 끌리는구나 이거를 고2때 느꼈어. 그때 알았지. 고2 때.

월: 알고 나서는?

행자: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그 전부터 이미... 환경이 아주 좋았어. 그러면서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 친한 친구와 감정 때문에 힘든 건 있었다. 우정으로 좋아하는 건지 그 이상으로 좋아하는 건지... 한참 후에야 깨달았지만 뭐.

월: 언니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지? 언니가 2살 많지?

행자: 어.

월: 그럼 그 다음에 뭐 누구를 좋아하거나 만나거나 했어?

행자: 그때.. 음.. 동경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게 된 사람이 고2때 선배인데 그렇다 해도 연애에 대해서는 스무 살 넘어서까지 생각이 없었어. 누구를 사귀고 이런 건 전혀. 약간 어두운 사춘기를 보내서 남을 챙겨주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달까. 나 스스로 챙기기도 벅찬데 그 옆에 애인을 챙기는 게 너무 그랬던 것 같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네.

월: 그럼 대학교가서는?

행자: 대학교가서도.

월: 대학 때 이쪽 친구들이 있었어? 대학교 안에?

행자: 과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동아리 생활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검도 동아리. 검도만 하진 않고 운동권... 운동권 동아리(웃음)

월: 두 가지 운동을 하는 동아리...(웃음)

행자: 맨날 맨날 그거 하러 막 지역별로 돌고 하느라고 연애 생각을 또 안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고3 때 알게 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개한테 고백을 받고, 나는 당연히 연애에 생각이 없으니깐 거절을 하고 드문드문 연락을 했었는데, 웬지 모르게 그 친구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게 있어서 쪽 연락을 이어오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운동생활에 빠지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그러다 내가 졸업할 때 쯤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개가 처음 만난 애?

월: 같은 고등학교 나온 거야?

행자: 아니. 개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애였는데.

월: 지역은?

행자: 대구. 그래서 내가 대구 사투리를 좋아해.

월: 그럼 어떻게 만났어? 개는 대구에 살았어?

행자: 계속 대구에 살고, 대구에 놀러가서 보고. 그리고 내가 애한테 마음을 조금 열었던 게 졸업식 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부모님 말고 친구들한테 나 졸업한다고 얘기도 안 했을뿐더러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졸업식에 참석도 못 하고 동아리 사람들하고 시간대도 안 맞아서 혼자 동방에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가 내가 졸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말을 하자마자 개가 바로 대전으로 왔어.

축하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그거 보고서 약간 마음이.

월: 그럼 졸업은 전라북도에서 있는 학교에서 하고, 대전에서 만난거야?

행자: 어. 동방에서 연락을 받고 나도 바로 대전으로 가서 개를 만난거지.

월: 그럼 겨울에 만났겠네?

행자: 응. 스물하나 겨울에? 그 전에 몇 번 만나고 개가 대전에 한번 오고.. 계속 내가 대구를 내려갔었지, 그 후에.

월: 개랑 사귀 거야?

행자: 어, 사귀 건데 사귀 것도 진짜 웃겨. 얼떨결에 사귀었어. 그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특이케이스인 것 같아. 연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생각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그런. 그때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하는데 개가 두 번 정도인가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 그때마다 거절을 하고, 그러면 딱 한 달만 사귀 어보자 말하길래 딱 한 달쯤이야 뭐 그래. 한 달 사귀고 나서 뭐 아니다 이야기하면 되니깐 생각에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갔지. 그러면서 사귀게 된.

월: 얼마나 사귀었어?

행자: 오래되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게 있어서.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그것도 또 사연이 있는데. 글썸 그래도 한.. 1년은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은 안 난다.

월: 그 사이에 헤어지기도 하고 연락두절도 있었던 거야?

행자: 오래되어서 기억도 안나.

(휴식)

행자: 그때 한참 사이, 사이 많이 했을 때. 개네 아버지한테 애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발각된 일이 있었던 거야, 애가 만나던 애를. 그래서 아버지가 상대 여자애를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그리고 개는 그 학교 그만뒀다고 했나? 중학교였나? 전학을 갔나? 아무튼 쯤 그런 게 있었어. 애네 아버지가 약간 그런 분이신거야. 근데 애랑 연락이 끊긴 게 나랑 주고받은 문자를 동생이 소리 내어서 읽었던 거야. 남동생이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애가 그걸 혼자 수습을 하면서 당분간 연락을 못 할 것 같다고 했어. 그제 한 달? 두 달? 정도 그러고 연락이 되었어. 개가 공부 하다가 취직을 했는데 바쁜 거지. 그때는 개가 일을 하던 때라 통화가 뜸해지고 메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개가 연락을 잘 안하는 거지. 연락이 끊겼던 거 같아. 그런데 보니깐 내가 개네 집 주소를 모르는 거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대구를 드나들었는데도 개네 집에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지. 연락을 언젠가 하겠지 했는데, 미니홈피를 뒤적이다가 개 것을 알게 됐어. 그런데 방명록에 어떤 남자애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거야. 친구겠거니 했는데 A형의 성격으로 다 뒤졌어, 정말 집요하게. 막.(웃음) 그 남자애랑 그 남자에 친구들이랑 내가 만나던 애랑 개 동생 것이랑 다 들려가지고 다 조합을 해봤지, 날짜 비교해가면서. 했더니 나랑 연락이 끊기는 시점과 뭔가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면서 애 여동생이 남자애한테 형부라고 하고, 서로 잘 때 자장가를 불러주고 뭐 그런 글들을 찾아낸 거지. 애 여동생은 같이 만난 적도 있고 내 존재를 알고 나를 좋게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때 진짜 뒤통수를 맞은.. 그래서 개한테 몇 번 계속 메일을 보냈는데 개가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었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비꼬아서, 그때 내가 잘 비꼬는구나를 알았는데, 육한 거지, 막 비꼬아서 퍼부었어. 정말 길게. 메일로. 그리고 개랑 그렇게 끝이 난거야. 끝이 났는데 한참 후에 연락이 왔어. 개가 미안하다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니가 다시 돌아오겠냐 그런. 막 울면서. 그런 내용들의 메일들을 보내더라고, 몇 개월 지난 후에. 나는 순간 육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누그러들어. 별로 신경 안 써. 그때는 마음이 좀

풀려있는 상태?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만나자 했는데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이 예전 같은 상태가 아니었지, 예전만큼 큰 마음이 아니었지. 개가 먼저 니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예전만큼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말하길래 그래 우리 헤어지자. 개가 거기에서 좀 놀라했어. 그렇게 해서 완전히 헤어진 거? 그랬네.

월: 그게 스물 셋, 넷쯤이겠네?

행자: 그쯤이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헤어지고 두 번째 사람을 만났잖아.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 후에까지도 난 두 번째 만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고 애에 대해서만 더 생각이 났었어. 근데 또 놀라운 건, 웃긴 일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랑 헤어지고서도 애한테 드문드문 연락이 왔었어. 연락이 와서 이거는 개가 거짓말을 한 것 같긴 해. 애가 약간 쫄, 뭐랄까 와일드한 성격? 욕 잘하고, 애가 검도를 했었어. 막, 그, 또래 남자애들하고 쫄 싸우고 다녔었어. 스타일이 딱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후배랑 인가 술을 마시다가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합의금을 여기저기 빌리는 중이라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돈 20만원을 빌려줬지. 근데 그 애가 들었을 때 애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 못 받을 거 알고 보내주고. 또 한참 지나서. 이거는 이 연락 후로 애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자기가 애를 지워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걸 나한테 할 소리냐고. 진짜. 그래서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아.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개는 그렇게 해서 끝났다. 내가 알기로는 애가 애기들을 진짜 좋아해. 진짜 이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가 왜 그렇게 몸을, 아니 그러면 잘 해서 하지, 몸을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개를 지우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때 엄청 실망을 했어. 지금 가끔 궁금하기는 해.

월: 아. 그렇게 연락이 끊겼구나. 너의 정보력이면 찾을 수 있겠어.

행자: 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동생 이름까지 알고 있어.(웃음) 개가 두 살 연하였는데 어른스러운? 살짝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연하를 좋아하나봐. 그랬나봐. 그래서.

월 : 그럼 개 만날 때 그때도 피어싱샵에서 일했어? 학교 졸업하고서는 거기에서 일한건가?

행자 : 내 전공이 귀금속보석디자인인데 나랑 그렇게 맞지는 않았던 거지, 귀금속은 아니었어.. 그래서 동아리 생활에 더 빠졌던 거고. 졸업하고 대전에 오자마자 알바를 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데에 알바로 시작한 거지. 한 다섯 번 퇴짜를 맞았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사장언니가 봤을 때 나같이 어두운 애가 할만한 게 아닌 거야. 사장언니가 나한테 늘 하던 말이 그 당시 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나는 나를 썩썩하게 밝아지고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두웠나봐. 아무튼 그렇게 알바로 시작해서 잠깐 있을 거였는데 오년 넘게 했지. 서울오기 바로 몇 주 전까지 일했었지. 그곳은 나를 많이 성장시켜준 곳?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할 수 있게끔 해준 곳인 거 같아.

월 :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났잖아? ㅎㅎ.

행자 : 그랬지.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

행자 : 성장과정에 이것도 넣자. 이거는 대학교가서 좀 많이 극복을 한 문제인데 내가 원래는 아버지랑 중학교, 초등학교? IMF가 언제 터졌지? 우리 중 1,2학년 때지? 내 기억으로 아버지랑 6학년 때까지 되게 친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IMF가 터지고 아버지 사업도 주저앉게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디게 힘든 일이 있었지.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여자가 생긴 거야. 내가 중2 때쯤. 그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했었어. 우리 언니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텐데 나만큼 깊이는 모를 걸. 나는 집에 있으면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있었어. 무슨 얘기를 하나. 민감할 때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전남에서 혼자 스물세 살에 올라오신 거거든,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아버지는 해외로 나가시고, 엄마가 호랑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 할머니가 주변에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싫어하셨거든, 맨날 남이야기 하고 그런 걸 싫어하셔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혼자였어. 외롭잖아, 스물셋에 왔는데. 그래서 쪽 계속 그렇게. 그래서 엄마가 친구가 없어, 대전에. 근데 아버지 친구분의 아

줌마랑은 친해. 그래서 그분 딱 한분 계셔. 엄마가 그분하고 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 그런 거 옛들고, 우리 엄마가 술을 한잔도 못하시는 걸로 아는데, 너무 속상해서 소주 한 병을 드신 거야. 그걸 아버지가 알고서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또 싸우시고, 내가 없을 때 싸우셨겠지. 그걸 난 옛들어서 안거지, 통화를. 그리고 아무튼 뭐가 디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게 된 것도 그 부분이랑 지금은 안 그러신데 당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아! 여기에는 외가 쪽 집안 문제도 있었다. 복잡했어, 암튼.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벽이 쳐진 거지. 고등학교 때 좀 심해졌었어. 그러면서 더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지게 된 거? 물론 대학교 때에는 그 벽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사라졌고, 그런데 이게 또 사춘기 어두운 거랑 맞물려서 성장과정이 아무튼 그랬었어. 내가 일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와 더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았어. 고등학교 땐 부모님 사이는 그렇게 한번 폭풍우가 지나가고 잘 됐어, 물론. 잘 됐는데 난 사춘기가 오면서 엄청 어두웠었던 거지. 그때 또 막 별게 유행했었어, 고등학교 때. 막 시체사진 이런 거, 엽기. 내가 또 그거에 빠진 거야. 마음 둘 곳을 거기다.(웃음) 선배들 메일에 심한 사진, 태그 이런 거 많이 써 가지고 열자마자 시체사진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수신거부까지 당하고 그랬었어. 당시 내가 즐겨가던 자살사이트가 뉴스에 나오고, 아무튼 친구랑도 엽히면서 애매한... 난 애를 친구로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그런 거? 애는 날 뒤로 생각하는가 그런 거? 내가 짝사랑하는 선배에 대한 마음도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그때 더 밑바닥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그때 염세주의 이런 것도 유행을 했었어.

월 : 그때 또 세기말이었잖아.(웃음)

행자 :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정말 다니기가 싫었었을 때였어. 그래서 그... 되게... 음... 뭐랄까... 내가 학교를 가면 죽어가고 있는 느낌. 너무 갑갑하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나를 자퇴를 시켜달라, 나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날 일단 절에 좀 보내달라, 평화를 얻고 싶다 그러면서 집에서 알아보고 하다가 잘 안되어서 병원에 보내줬어. 병원을 재미로 다녔어. 야자도 하기 싫은데, 고2때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자를 빠지고, 재밌는 게, 병원에서 테스트 하는 게 재밌는 거야. 테스트하고, 상담하고, 약 주는 건 안 먹고 그 재미로 다니고 했었는데. 내가, 이젠 또 그 전일이다. 약간 뒤죽박죽이야. 고1 때니까 우리 언니는 고3 페이지. 그분들이 내가 가입한 씨클 선배였어. 내가 씨클 했던 게 영화 만드는 거였어. 청 소년 영화제 출품하고 그런 거 해서 씨클 활동을 좀 열심히 하긴 했다. 근데 그 친구, 언니의 그 친구들이지. 선배들이 담배피고 그런... 이쪽...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 튼...

윌 : 주로 이쪽?

행자 : 어.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나봐. 선배잖아.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지. 그런 선배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니깐...

윌 : 너네 언니도 같이 했었어?

행자 : 아니. 그냥 언니 친구들이었어.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가 내 가방을 뒤진 거야. 걱정... 근데 그걸 보면 뼈뺏어지잖아,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안 보기 시작했어. 집 계단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고,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야. 한참 보니까 아버지고... 마주쳤는데... 그 정도로 약간 쏘 그랬었어.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러다가 요 근래 작년? 작년쯤인가 부모님도 늙으신 거지. 아버지도 옛 생각이 많이 나시나봐. 나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너 어렸을 때 널 좀 더 이해를 하고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야... 참 그랬었어.

윌 : 그렇게 마음을 풀었구나, 한참 지났지만.

행자 : 그래서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없었어. 딱 살아도 삼십 넘어서는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학교도 가기 싫고 하니깐. 그리고 그때 진짜 안 먹었을 때니깐. 엄마가 과일 먹으라고 주면 방충망 사이로 쪼개서 버리고, 진짜 안 먹었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도 엄마가 하는 말은 나를 생

각하면 항상 가슴에 못이 박힌, 너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데 그때 대못을 박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맨날 상처... 막... 그때 울고 싶었는데 너무 다 울어버린 거야.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그런 상황? 또 울고 싶어서 몸에 상처도 많이 내고 그랬었던 거 같아. 엄마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런 걸 엄마가 지켜보고 그러면서 내가 대학도 안 가겠다 하고 보다 못한 엄마가 대학 안 가도 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학 안 가도 되니깐 제발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쯤 내가 아버지를 싫어했다고 했잖아,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대학을 선택한 거야. 과를 선택해야 되니 그나마 선택한 게 귀금속이고 그래서 익산으로 갔네.

월: 그렇게 집에서 나왔군.

행자: 그렇지. 음. 성장과정은 이정도?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좀 더 가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구멍이 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갔었던 거 같아.

<두 번째 연애>

행자: 두 번째 사람한테는 미안해.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이기도 한데,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일하던 데 단골이었다고 했잖아. 나 학생 때 거기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던 언니였어. 이 언니가 나한테 너무 잘 해주는 거야. 어, 좋다, 잘 해주니깐. 스타일도 되게 좋았거든. 아 좋다 그러다가 그 언니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 그만둔 거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거지.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어떻게 또 그때는 사이트가 몇 개 있었잖아.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사진을 봤나. 한 5,6년 정도 지난 후인데, 낮이 익은 얼굴인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다시 알게 된... 연락하는 동안 내가 언니들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서 막 잘 지내고, 내가 어떻게 알게 된 언니랑 서로 아는 사이인거야. 그때 진짜 완전... 와... 근데 알게 된 언니가 이 언니를 좋아했어. 그런데 이 언니는 나를 좋아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둘이 사귀게 되었어. 나도 마음은 살짝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와 잘됐다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셋이 만나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헤어졌어. 헤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먼저 고백을 하고 사귀었어. 이미 언니들을 따르라 한다고 했잖아. 헤어지고

한참 후에 들었던 생각인데, 나는 이 언니를 그냥 좋아했었던 거 같아, 언니로서? 언니로서 그냥 좋아했었던 거 같아. 물론 애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 아주 약간.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애인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초반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내 살길을, 내 생활로 돌아가는 그랬던 거인거야. 그때 알았어, 내가 그런 거인 거구나.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싸운 것도 일방적인 거? 언니 혼자. 갈등이 왔을 때 나는 왜? 왜 화를 내는 거지? 이런 생각? 왜 이해를 못 해주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나는 싸움을 자꾸 회피하고 그 언니는 애기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고, 그니깐 아마 혼자 답답해하고 힘들었겠지. 왜 자기 혼자 열 내고 자기만 잘못된 거냐고...(웃음)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어. 그런 점에서 나도 좀 지쳤지. 어... 어느 순간 또 스킨십 욕구가 사라졌어. 그러니깐 스킨십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언니가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또 싫은 거야. 왜 꼭 그게 필요한지 몰랐다 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면서 조금씩 틈이 생겼던 거 같아. 그리고 보니 내가 스킨십을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언니를 그만큼 애인으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 같아. 세번째 사람을 만나면서 알았는데.

월: 얼마나 만났지?

행자: 일 년 반.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디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금방 피곤해지는 거야. 오늘 날도 좋은데 어디 가자, 산책? 이러면 이 언니는 피곤해하고, 그것도 안 맞았어. 그래서 같이 어딜 간 적이 없었다. 항상 집 근처? 이 언니를 만나면 할 말도 없어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 서로 말없이 있어도 좀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불편해 지기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친구 얘기 하게 되고, 친구 연애 얘기를 하면 우리 얘기는 안 해? 하면서 싫어하고 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겠는 거야. 이 언니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계속 만나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그렇게 이어가던 와중에 2월말쯤에 지금도 연락하는 동생인 어떤 남자 손님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내가 L이라 커밍아웃 했지. 몇 년 후이긴 했지만. 그때 내가 한참 일을 하면서 이걸 관두고 딴 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라서 나한테 뭔가 변화가 오던 시기였던 거지. 컬러리스트 공부도 하고 이것저

것 알아보고 하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책을 알아서 나한테 선물해주고. 뭔가 내가 애를 마음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서 그래서 삼 개월? 이 개월 만에 급속도로 친해졌어. 애가 이 개월 안에 떠난다는 걸 아니깐 애를 더 자주 만나고, 같이 놀러가고. 언니랑은 안 그랬는데. 웬지 애랑 있으면 되게 편한 거야. 그리고 애가 꿈을 찾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야. 그런데 옆을 보니깐 이 언니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또 내 이상형이 그런 거거든.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언니가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다 무슨 일로 싸우게 되었는데 내가 일하던 중이라 문자로 주고받는데 싸울 필요가 없겠더라고. 나는 헤어질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싸워서 뭐하나 싶은 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월: 그래서 결국에 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구나.

행자: 어.... 통보를 한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아닌 거 같아, 통보하는 건. 그래서 통보를 하고 헤어지고...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후련한 거야, 가벼운 거야. 친구랑 영화 보러 다니고. 뭔가 좀 더 내 개발에 힘을 쓸 수 있고. 뭔가 디게 너무... 흥가분하다는 말은 좀 그렇다. 이별은 뭐 다 똑같이 그런 부분은 있지,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은 그런 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고 언니도 헤어진 후로 아무 연락이 없길래 잘 지내는구나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내 친구한테 연락해서 내 소식을 물었더라고. 그건 한참 후에 알았어. 그렇게 해서 끝났지.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 첫사랑이 계속 생각이 났지. 지금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냥 가끔 궁금한 거? 그래서 언니들은 아닌가보다... 언니들은 아니다...

월: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지.(웃음)

행자: 내가 그, 안 그런데 은근히 애교 섞인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데, 웬지 언니가 그러면 아... 뭔가 그랬어, 불편했었던 거 같아.

< 세 번째 연애 >

행자: 그러면서 세 번째를 만났지. 헤어지고 쫓 있다가. 세 번째도 이제 손님이지. 내가 애의 애인도 알고. 애인이랑 둘이 같이 왔었는데. 내가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은 그 애인이었어, 이나영 같았거든. 애는 별로 그랬어. 손님으로 개 스무 살 때부터 알았으니깐 사귀었던 것은 아마 사년 후? 애 사귀었을 거야. 개랑도 진짜 인연이었던 거 같아. 내가 AS를 해주는 데 완료문자를 사장언니 핸드폰으로 보내는데 이 친구가 내번호로 보내달라고 했었거든.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깐 내 번호로 보내주고 왔다 갔다 두 번 정도 하고 딱 끝났어. 난 연락을 안 하니깐 번호 정리했는데. 내가 번호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 있지, 그게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 갑자기 딱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그게 미유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 연락을 난 줄 알고 나한테 한 거지. 그렇게 되면서 연락이 시작이 되었어. 동생으로 지내다가 조금씩 내가 마음이 살짝... 어라? 그러다가 개도 마음이 커지고 그때도 나는 사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지. 왜냐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건 지금도 변함 없어. 굳이 헤어질 건데 왜 사귀나 그런 생각도 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애랑 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무섭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지. 그러다가 설득을 당했어. 설득당해서 사귀게 되었다.

윌: 개는 몇 살 연하지?

행자: 빠른 87.

윌: 그 언니는?

행자: 그 언니는 2살 많았고. 이 친구의 전 애인을 내가 알잖아, 뭔가 죄짓는 기분? 그때까지 전 애인이 개를 못 잊어 하고 있었거든. 그 둘이 한 삼년? 정도 만났다고 했나, 삼년 반? 나랑 같이 사귀기 전에 연락이 되고 있을 때 전 애인이 나를 되게 싫어했어. 나한테 그 여자라고 했어. 둘이 같이 있다가도 내가 연락하면 나한테 오고 그랬었거든. 개를 육 개월 만났는데, 2년 반을 못 잊었었지. 근데 추억이 되게 많아. 그

렇게 개만큼 나를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그랬었어.

(휴식)

월: 우리 세 번째 연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행자: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마음 크기? 나는 개를 만나고 헤어지면
서 더 이상 연애를 안 해도 되겠다, 나는 할 만큼 다 한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별 후유증이 너무 크게 와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거라 또 연애를, 또 안
해도 되는 거 같아.(웃음) 아무튼 세 번째 만난 애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디게...
언니 같은 거? 어쩔 때는 언니 같고, 동생 같은 모습도 있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나한
테는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거 같아. 물론 내가 막 이렇게 기대고 그런 부분들은 없
는데. 그래도 뭔가 심적으로? 두 번째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생활이 중요했
었는데, 개한테는 다 맞춰줬던 거 같아, 내가. 일 끝나고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개가 부르면, 집으로 오라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하면서
도 거기 가는 버스를 타고 있고. 그렇게 개한테 많이 맞췄다. 뭐 말로는 내 생활이 없
어서 힘든 것 같아 말은 했지만 좋았던 기억이 많네.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생각을
했던 거 같아.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하지?

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어?

행자: 헤어지게 된 건.. 확실한 그건 없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나 때문에 헤어진 거
같아. 개도 어렸지만 나도 많이 어려서 극복을 못한 것? 그리고 내 자기에. 때문에 헤
어진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고 쌓여가서 결국에는 애가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 안 해. 말을 잘 안하니깐... 이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상처를 받
을 거야, 그러니깐 어느 정도까지만 애한테 해야지 그런 부분들? 결국에 그런 부분
들인 거야, 내가 애한테 대했던 부분들이. 마음을 완전 다 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애를... 그때 내가 정말... 감명 깊게 파니핑크 영화를 봤어. 그걸 보면서 파니와 오르
페오의 관계를 꿈꿔왔거든. 내가 느낀 그 관계는, 그게 막 그런 사랑 그런 거에 관한

영화는 아니잖아. 근데 파니가 오르페오로 인해서 변하게 되고, 사랑에 조금 더 적극적이 되고, 그런 부분이랑 파니와 오르페오의 그 우정. 그 우정 안에 사랑까지 있는 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연인간의 사랑도 거기에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모든 걸 포괄한 오르페오 같은 애를 나는 만나고 싶다. 영향을, 그로 인해서 내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막... 그 둘이 같이 살잖아. 꼬옥 안고 자고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도 오르페오는 못 잊어하는 아나운서가 있잖아, 게이. 근데도 그런 정체성을 떠나서 그 안에 사랑... 그런 관계, 사랑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설득을 당한 게 애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 야, 자기가 오르페오 같이 될 수 있다고. 왜냐면 개랑 나랑 우정은 깔려있는 상태고, 호감 그런 감정도 있어서. 진짜 웃겼던 거는 설득을 당하는 데 개가 한 말 중에 거기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두 관계, 파니와 오르페오 관계에서도 분명히 둘이 잤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정도 있고 그 안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귀어도 된다, 나는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설득을 당했어.(웃음) 어. 그래서 아 애랑은 그러면 그렇게 친구, 그런 감정까지 같이 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귀게 된 거긴 한데.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뭘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그만큼 나한테 큰 의미의 존재였다는 거지. 개랑 만나면서 두개를 같이 했어. 애인으로서의 모습도 있고, 친구가 필요할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대해주고 같이 잘 해 나갔는데, 문제는 그걸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런 관계에 집착? 감정을 가뒀었다고 해야 되나... 음... 뭘 말인지...

윌: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관계를?

행자: 어, 그랬던 거 같아.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데. 우정과 연인을 통합해서 잘 이렇게 버무려서 가면 되는데 그걸 너무 나누려고 한 거? 그래서 조금씩 빼그덕거린 그런 게 있었... 그랬던 거 같아.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애도 어디에 맞춰야하나 감정이 헛갈려져서 애인도 뭇도 아난... 아무튼 내가... 그것도 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 내 힘든 얘기를 안 하지. 그때 내가 외박을 정말 밥 먹듯이 했어. 집에 가서 가방놓고, 택시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니까 나 잠깐 친구 좀 만나

고 올게 해서 갔다가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고. 엄마가 좀 많이 힘든 시기였어. 아마 갱년기가 왔었을 거야. 진짜 막 우울해하잖아. 그때 엄마가 일도 했어.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는 손끝 하나 안 하시는 분이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밖에서 힘들게 하니깐 집에서는 쉬고 싶은 거겠지.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언니는 고시원에 있을 때였어. 아무도 엄마를 안 도와주는 거지.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나는 집에도 안 들어와. 우리 아버지가 외박을 진짜 싫어하시는데 맨날 맨날 애들하고 술 마신다 안 들어가니 엄마는 내가 집에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소파에서 조마조마 마음 졸이시고, 또 개 존재를 엄마, 아빠도 아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엄마가 디게 개를 좋아했어. 잘 챙겨주고. 그래서 막 개랑 내 친구랑 다 아는 사이니깐 개네들하고 논다고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깐 점점 엄마랑 언니가 애인을 안 좋게 생각하려하고... 어느 날인가는 언니가 집에 좀 들어오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때 또 엄마 몸까지 안 좋아진 거야. 언니가 말해서 그때야 알았어. 갑자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지. 근데 개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였어... 음... 친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실 때였나? 개 친한 친구. 막 무슨 암이셨었나... 그 정도로 큰 그거였던 거지. 근데 난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애가 맨날, 자고 가라 자고 가라.. 인제.... 개는 내가 집에서 자고 갔으면 하는 거고, 나는 외박이 안 되니깐 가야 해 가야 해 막 말로만이지만...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 그날은 뭘 일이 있었나, 아무튼 애랑... 뭘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애네 집에 갔던 거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가서 나는 잠깐 있다가 언니한테 그 소리를 들었으니깐 오늘만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나는 애가 그냥 뭘가에 화가 난 줄 알았어. 내가 뭘을 잘 못 해서 애가 화가 난 줄 알고 있었는데, 집에서 같이 술 좀 마시다가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는 가야 된다고. 엄마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나는 가야 된다, 오늘은 들어 가야 된다. 개는 오늘만은 정말 안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잡으면서 되게 힘들어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왔어, 미안하다, 내가 가야 된다. 그게 되게 미안해. 지금도 내가 미안한 부분인데. 그렇지, 개는 그... 원래 부모님이랑 살다가 자취를 하는 건데, 그 기분에 혼자 있기 싫은 건데 외롭고 또 외롭고 우울하고.. 옆에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필요한 거였을 텐데... 그런 마음 있잖아, 그거를 바랬었는데 내가 그걸 못 해준 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짐작에 뭐 때문에 화가 났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알았

다면 옆에 있어줬을 텐데... 내가 나와서 가는데 개가 뒤따라 나왔어. 그리고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안아줬어, 안아주고, 그런데 애가 우는 거야,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 후에 개가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안아주고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나 가아 된다 그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가버렸대. 여기서 애가 약간 마음을 닫았다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내 상황을 얘기했었으면, 개 상황을 물어봤었으면 하는 후회가 있지.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 또 일이 있었어. 친구가 놀러왔어. 개의 절친. 서울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해서 내려왔어. 근데 그때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날인 거야.. 내가 일 끝날 시각쯤에 아버지가 시내에 나와서 소주를 드신다는 거야, 혼자. 그래서 갔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되게 속상해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 IMF때 아버지가 크게 벌이던 사업이 완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엎어지니 아버지도 살 희망이 없어지신 거지. 벼랑 쪽으로 차를 몰고 가시다... 바로 코앞에서 자식들 얼굴이 스치면서 급 핸들을 돌리셨대. 그 얘기를 그 포장마차에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뭐... 왜 죽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시면서... 이런 아버지를 두고 내가 개한테 갈 수가 없는 거야... 같은 시내에 있긴 있었지만. 개 절친은 나를 보러 왔고... 얼굴은 그래도 봐야 되잖아, 내가 언니를 불렀어, 언니가 와서 내가 자리를 잠깐 떴어. 그렇게 잠깐 보는데 서운해 하는 거지.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같이 더 있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가려고 하나. 내가 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계신다, 드시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

윌: 그게 쌓였구나.

행자: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둘을, 친구한테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계시니 양해를 구하고, 개를 두고 아버지한테 갔어. 막 연락이 오잖아, 언니한테, 너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가고 약간 그런 일들이... 맞아. 응. 내가 조금씩 마음을 닫고... 어... 이게 내 문제점인거 같어. 내 상황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거. 고쳐야 하는 점인 거 같어. 아무튼...

윌: 너가 알고 있으니깐...

행자 : 헤어진 거는 뭔가 조금씩 축이 왔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느낀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애랑 떨어진 느낌이다? 연락은 원래 계속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애도. 근데도 다른 뭔가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다가 애한테 그 당시 힘든 일이 있었거든. 과외를 하는데 돈을 떼이고, 혼자 인제 지하에서 고양이랑 사는데 곰팡이 막 피고, 물세고, 그니까... 집에서는 애가 자취 하는지를 몰라. 어디 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그런 줄 아시니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생활비도 없고 모든 게 꼬여버린 애가 디게 많이 좌절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 나는 애를 쉬게 해주려고 거기 어디지? 장태산이었나? 장태산 휴양림? 휴양림에 가자. 가서 애랑 얘기를 진지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갔는데, 내가 술을 또 너무 마신거야. 얘기도 못하고 잠만 잤어. 대화를 하러 거기 간 거였는데 뺏어버린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인가 되곤 후 부르더니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더 이상 연인의 감정이 없다 말하더라. 그래서 잡아봤지. 몇 번을 잡아보고 그랬는데 결국엔 개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나는 서울에 올라오고, 그렇게 된 거? 근데 그 잡았던 것도 최선을 다해서 잡지 않았다는 걸 얼마 전 알았어. 말은 후회하지 말아야지...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끝까지 내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내 자존심을 챙겼단 걸 깨달았어. 배려랍시고 돌아선 것도 내 용기 없음이었고...

월 : 개랑 헤어지고 거의 바로 서울에 온 건가?

행자 : 헤어지고... 내가 개랑 7월쯤 헤어졌을 거야. 플라시보가... 8월에 내한을 왔니까... 한 달 동안은 헤어지고 나서도 같이 영화도 보고, 사귀기 전처럼 친구처럼 지냈던 거지. 그러면서 계속 나는 개한테 내 마음을 표현을 했고, 어... 개는 완전 애인 같은 그런 관계를 원..... 온전한 그런 애인사이를 원했던 거 같아. 근데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는? 못 하는? 그리고 개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랬어, 나한테. 이젠 자기 애 부분인데 내가 변하도록 노력하겠다, 변해보겠다 했는데 사람은 안 변한대.(웃음) 어. 그래서 막 그 한 달 동안 만나서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미 헤어지고 난 뒤 뭐 노력을 해. 그렇게 되다가 어... 찾아가서 한바탕 울고, 얘기를 막 했지. 진솔한 얘기를 했지. 담아두고 있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 그래... 니가 원하는 부분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 맞는 거 같다. 넌 날 친구로 만나고 싶어하고 난 널 애인으로 만나고 싶

어하니.. 더 이상 내 생각만 안하겠다. 내가 돌아서겠다. 그러면서 친구로 계속 지내
자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긴 거야. 6월? 7월! 연락 끊긴 건 8월!

월 : 개는 왜 연락을 끊었을까?

행자 : 내가 몇 달 전에 개를 만났잖아. 물어봤어. 잘 기억은 안 난대. 근데 그 때 당시
자기 상황도 그렇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처한 상황이 너무 그래서 그
런 것도 있었고, 웬지 나한테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어... 음... 더 이상 나한테
뭘 해줄 수 없는? 자기는 이제 아닌데 내가 자꾸 원하니가 뭔가 나와 연락을 끊어야
겠다 생각을 했었대. 근데 잘 된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힘들어 하면서 여행 계
획을 세우다 갑자기 서울에 오게 된 거니까. 한 6개월? 맞나? 6개월 정도 만에. 맞네,
6개월. 6개월 만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지. 아! 그리고 말해줬어. 잡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내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먼저 포기
하고 딱 그만큼의 마음을 숨기고 또 도망친 거지. 정말이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개를
만나 얘기하면서 비로소 조금은 알았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후회 없이 솔직하고 또
솔직하고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하는지.

〈 서울 〉

월 : 여행을 가려다 여행을 안 가고 서울에...?

행자 :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걸 2년 전부터 난 이걸 하면 안 되
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장언니한테 계속 사람을 구하시라 2년의 기간을 드린 거야.
그러면서 계속 내가 뭘 해야지 되나 생각을 많이 했지. 그런 와중에 개를 만났고,
만나는 도중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 현재가 너무 행복하니까. 사귀기 전에는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 나는 뭘 해야 되나. 헌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애
랑 헤어지고 이제 이걸 그만 두겠다 한 게 몇 개월 안 남은거지. 본격적으로 나는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일단 인도를 가서 생각을 좀 해야겠다 해서 친구랑
준비하는 와중에 인도를 1월에 가기로 했어. 그러다 12월 정도에 갑자기 나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금속공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여행갈 돈으로 방 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어. 정말 갑자기. 하하.

월: 그러네, 갑자기. 그래서 2월쯤에 올라왔나?

행자: 2월 말에 올라왔어. 으흐흐. 연애는 뭐 그렇게. 세 번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연애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아.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월: 그럼 뭐가 중요한 것 같아?

행자: 내 인생.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근데 어... 연애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막 사람을 만나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오면 그냥 만나게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야, 연애는. 하고 있는 걸 잘 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거?

< L이라서... >

행자: 힘든 점. 힘든 점은 그 당시에는 그거가 힘들었어. 세 번째 만난 애랑 헤어졌을 때에는 친구 말고는 내가 사귀었던 걸 모르잖아, 힘든 걸 표현할 수 없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든 점이었어. 막 일을 하는 중에 손님 귀를 봐주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근데 언니한테 말은 못 하고. 혼자 화장실가서 울다가 아무렇지 않게 내려와서 일하고. 부모님한테도 연애한 사실은 모르시니까. 그냥 나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든 점 보다는 안타까운 점? 그런 거. 손주.

월: 손주?(웃음)

행자: 어, 손주. 그게 안타까운 거 같어. 주변의 시선 이거는 크게... 내가 하고 있는 쪽이 예술 쪽 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같은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없는 거 같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손주. 안타까운 거.

월: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구나.

행자: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L이라서 좋은 점은 모르겠어. 그냥 굳이 L이라서 좋은 점... 그냥 좋은 점은 좋은 점인데 왜 L이라서 좋은 점? 그건 모르겠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고 딱히 L이라 하여 느낀 게 없네.

월: 그래, 그건 그냥 썼어.(웃음) 그럼 서울에서 사는 건 어때?

행자: 좋아. 근데 나이 들어서 서울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뭐 서울에서 사는 거 좋지. 잘 맞는 거 같어. 음. 혼자 사는 것도 좋아. 가끔은 부모님하고 살고 싶기도 하지만 혼자 살아서 좋은 거 같어.

월: 동감.(웃음)

〈 우정 〉

행자: 친구! 음... 난 요런 생각 해. 다 때가 있는 거, 때가 있달까. 예전에는, 아마 예전에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을 거야. 문자였나? 지하철타고 가다가 5년 후에 우리는 어떨까 이런 거? 어디서 들었는데 친구의 주기가 5년이라는 거야. 자기의 환경이 바뀌면서 같이 하게 되는 친구들도 계속 바뀌어 가는, 거기에 맞는 더 어울리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 더 멀어지게 되는 친구가 생기고... 한참 너네랑 친해질 때 그게 너무 슬펐어.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음... 지금 다 때가 있지. 하하, 때가 있지. 옛날이었으면 친구 관계 그런 것도 짐작같이 애랑은 꼭 끝까지 알아야지 그런 거 있잖아, 애랑은 정말 오래 갈 거야, 애랑은 헤어질 수 없어 뭐 이런.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결혼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개네들과 많이 멀어지게 되고.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큰 비밀을 공유했던 아이도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그냥 친구도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는구나.. 멀어지게 된다고 해서 아쉬워 할 것도 없고,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인연은 거기까지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해. 언젠간 너를 비롯 모두와 멀어지기도 하겠지. 언젠가는. 그런데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대전에 정말 소중한 친구도 지금은 난 서울에 있고 난 내 친구들 생기고, 걔 개 친구들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 개가 들으면 되게 서운해 하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도 인정을 할 거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사알짝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 내가 친구를 소중한 게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월 : 미래를 기약할 수 없지.

행자 : 맞아. 근데 그게 절교를 당해서 갑자기 끊기지 않는 이상 서서히 멀어지는 거잖아. 그런 거 인거 같어. 관계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 무소유. 어어. 나는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 꿈 〉

월 :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행자 : 그거 되게 갑갑한 문제다, 답이 없는 문제다. 하하.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월 : 바라는 거? 꿈? 하고 싶은 거?

행자 : 음... 일단은 하고 있는 거, 학교를 들어가야겠지. 학교를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지. 작업을 하겠는데, 어... 해외로 나가야 하나. 해외에다 터를 잡아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음... 모르겠다. 이진 학교 들어가 봐야 진로 이런 건 잡힐 것 같고.

그냥 꿈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친한 친구들과 타운을 만들자. 그래서 막 각자 작업실 이렇게 있고, 카페도 있고, 그담에 너도 거기 너의 합주실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약간 떨어져 살아야 돼. 떨어져 살면서 각자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체험학습 같은 거 있잖아, 주말마다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는 거야. 금속공예 만드는 거 강습 이런 거... 또 누구는 바리스타 강의 막 이런 거 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어.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살면 좋을 거 같아.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거기가 커지겠지. 뭐 그런거? 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게 꿈. 꿈이네.

윌 : 좋겠다. 오호호.

행자 : 절대 가깝게 옆으로 붙으면 안 돼. 웃음.

윌 : 개인 공간은 확실하게?

행자 : 어. 호호. 좋다. 이렇게 그러면 끝?

윌 :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행자 : 어... 음... 좀 이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꿈꾸진 않아. 오르페오 같은 그런 걸 꿈꾸진 않지만 그....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 여기다 그 얘기해도 돼?

윌 : 어.

행자 : 저스트 키즈 책을 읽었는데, ‘지움’ 같은 건데 그 책에 나오는 패티 스미스와 로버트 같은 관계가 내게도 생겼으면 좋겠어. 그건 참 아무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없는 행운 같아. 아무래도 하고 있는 쪽이 예술 쪽으로 되다보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와 안식처가 되는 영혼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 음... 서로의 세계를 알아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연애로만

바라보는 사이 말고. 물론 각자에게 다른 연애상대가 생기는 거 상관없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을 놓아야지 비로소 외로워지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관계를 찾으려니까 외로워지는 거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 으흐흐.

월: 하지만 너는 마음속에 무소유도 갖고 있잖아.

행자: 어, 난 무소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월: 그 정도면 됐지, 뭐. 바라는 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행자: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월: 행자 얘기하느라 고생했어!

행자를 ‘여행자님’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다. 그로부터 친구가 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인터뷰하면서 참 새로웠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하다고 느끼는 지금의 느긋한 행자가 되기까지 시간을 잠시나마 함께 여행한 기분이었다.

행자는 인터뷰할 당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원생이 되었다.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을 축하하며. 행자, 원 없이 작업해!

나와 하우스 메이트 제제의 일상

이름 : 제제 혹은 꼬마

출생연도 : 25살(1989년생)

지역 : 서울

종교 : 현재는 무교

직업 : 대학원생

인터뷰한 사람 : 고리 혹은 Ssem

인터뷰한 날 : 2013.06.01

제제와 나는 하우스메이트다.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던 내게 친구가 제제를 추천했고, 나는 어쩐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삼주 쯤 지났다. 한 집에 사는 특권으로 제제의 일상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후에는 제제의 동의를 얻어 제제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원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밀착해서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미행은 처음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을 때 인터뷰와 함께 계획했던 것이다. 연극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사람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이 글은 생애사 연구라기 보단 내게 흥미로운 인간에 대한 주관적인 관찰기이다.

제제가 교복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였다. 제제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즈음에 제제가 출연한 [out- 이반검열두번째이야기][1] 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상담소 내에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제제가 대학에 가고 내가 상담소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못 본 채 몇 년이 지났다.

인터뷰는 그 공백에서 시작한다. 인터뷰한 날은 2013년 6월 1일. 퀴어퍼레이드 당일이었다. 그리고 하우스메이트 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함께 홍대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집까지 걸어와 집에 필요한 물품을 적어보고 간단한 청소 후에 마주 앉았다. 연대기별 생애사보다 소소한 일상이 더 궁금했다. 인터뷰는 중구난방으로, 그러나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인권 운동하는 고등학생. 그 이후.

고리(이후 고) : 사실은, 제가 제제를 그래도 자주 본 게, 대학교 들어갈 때였죠~

제제(이후 제) : 네

고 :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스쳐지나가듯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다양한 혼란의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영화도 찍었었고, 또 뭐, 부모님에게는 아우..팅도당했나요?

제 : 음...

고 : 커밍아웃을 한 건가요?

제 : 그렇죠, 커밍아웃이었죠. 물어보셔서 대답을 한 거죠.

고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 버려서 평범해진. 그때는 담배 피는 고등학생이었잖아~(웃음)

제 : 그렇죠, 그렇죠.. 인권 운동하는 고등학생

고 : 네, 인권 운동하는. 근데 그 이후에 생은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때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됐는지, 대학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 : 대학생들이요? 어.. 일단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중학생 때였는데.. 그것도 사람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일반에 대한 관심이 그 때 있었다기보다는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 예서 배우다보니까 사람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냥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그래서.

고 : 중학교 때?

제 : 아니요, 그건 대학교 때. 처음에는 저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러다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서, 저도. 그런 공부를 계속하게 된 거 같아요. 대학원 온 것도 그렇고.

고 : 자기 자신이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혹은 관심이 어떤 부분에 갔어요?

제 : 어.. 그때는 성격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 전부터... 직접적으로 고민한 건 그때였지만 그 전부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난 뭔가 남들과 다른 거 같다.. 그런.. 삶이 부대끼는 느낌?- 이 왜 어디서 오는 건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 같아요.(웃음) 원래 중학생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줄 알기 때문에.. ㅎ

고 : (웃음) 중2병.

제 : 그렇죠.

고 : 그래서 대학 가보니까.. 상상했던 거랑.. 비슷했어요?

제 :과는 잘 모르겠고, 학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엘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녀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물론 당연히 시선이나 그런

건 있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엘 친구들도 너무 너무 많이 사귀고. 지금 친구들이 다 대학교 친구들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나의 특별함이, 특별하지 않아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때는 처음 엘 인권 운동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삶이, 어떤 면에선 편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허무하고 그런 시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20살 때.

고: 20살 때? 흐흐 뭐든 빠르네요~

제: 후후 네. 그래서~ 음.. 굉장히 기대를 갖고 들어갔었는데, 약간 열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오히려. 감정이 약간 없어지는 느낌?

고: 아, 진짜?

이 모든 생을 다시 한 번!

제: 네. 어.. 그러다가.. 약간 실존주의 이런 거 공부하다가,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사는 게.

고: 아, 정말?

제: 네.

고: 오, 정말?

제: 음.. 네..

고: 실존주의를 공부하니까 왜 사는 게 좋아지던가요?

제: 실존주의를 공부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고, 그냥,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런 허무한 느낌들이..

고: 어차피 사는 건 사는 것일 뿐이야, 이런 거? ㅎㅎ

제: 안 좋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포용할 수 있는?

고: 음..

제: 니체의.. ㅎㅎ.. 그 차라투스트라..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의 무게였는데.

고: 뭐의?

제: 늦은 밤에, 이렇게.. 악마가 찾아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을 무한 반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생을 다시 한번 다- (반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처음에 그 말을 읽었을 때는, 약간 안 좋은 시기에 읽어서, 무슨 이런 거지같은 소리가 다 있나.. ㅎㅎ /네.. 푸하하/[2] 하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시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일상을 살면서, 그냥 걸어가다가도, 이 모든 게 다시 한번 반복 되도 좋겠다라는 생각.

고: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제: 음..그... 러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잘 모르겠어요. 다시 잘 모르겠네요.

이 생이 다시 한번 반복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25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제제는 자기가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산다고. 하지만 그 일상은 다시 한번 반복 돼도 좋을, 그런 밀도를 가진 일상이다. 집 안에서 제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조용하고 간결하다. 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 같은데도 식사를 하거나 집안의 일을 처리할 때에 조금해하는 느낌이 없다. 제제가 정리한 개

수대 위에 그릇들은 어딘지 모르게 정갈하게 놓여있어서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생각한 적이 있다.

파주

고: 아.. 그럼 꽤 오랜 기간 좋은 기분이었던 건가요?

제: 음.. 한 스물 세 살부터, 네 살까지..

고: 음.. 호호

제: 제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믿는데.. 사주를 보러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때, 그러더라고요, 23살 ~4살 때 참 좋은 시기고.. 25살 때 안 좋다..안 믿어요, 안 믿지만.. 호..재미있으니까요~

고: 호호 네..

제: 그니까.. 교환학생 가서.. 그때는 돈 안 벌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참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다시 돌아와서는, 그때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일만 했거든요. 파주에 가서... 육체노동,하고.

고: 뭐, 했어요?

제: 짐책하는 일 했어요. 파주에 교보문고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수레 끌고다니면서- 리스트에서 책 50권, 실어가지고 오고 막 그런 거.

고: 왜? 돈이 필요해서?

제: 돈이 필요했는데 과외, 이런 건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다른

식의 알바? 서비스직은 제가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하고... 컴퓨터로 돈 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료정리하고 그런거요? 그렇죠. 그런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화이트칼라의 노동에 대한 죄책감.

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했어요?

제: 반 년하다가, 학교 한 학기 다니고, 다시 반 년.

고: 정말 오래했구나~

제: 네. 거기에서 살고.

고: 파주에서요?

제: 네. 되게 좋았어요.

고: 좋았어요? 아..

제: 네. 굉장하.

고: 그때가 23살, 24살. 23살 때 교환학생 갔다가 24살 때 그렇게 지낸 거예요?

제: 네.. 그때 그런 책 읽으면서.. 아, 좋았네요.. 아~ 돌아가고 싶어요.

고: 육체노동 했지만, 그 때가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음...

고: 힘들긴 했을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제 : 힘들죠. 힘들지만.. 그..

고 : 단순한..

제 : 약간 해탈하는 느낌이 그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한 일이고, 내가 한 시간 일해서,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좀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1,2년. 일해서 돈 좀 벌어놓고 공부하면서는, 공부만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일을 보지 않을 때 대부분 제제는 과제나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집에는 도서관에서 느껴지는 집중된 고요함이 흐른다. 그 고요 옆에서 이리저리한 일을 하면 고요함에 감화되는 것 같아 좋다. 같이 살기 전부터 제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파주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제제를 보니 어떤 몰두와 선택이 느껴졌다.

미래는 6개월까지만

고 : 근데 꼬마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제 :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ㅎ네..

고 : 공부에 어떤 게 좋아요? 어떤 점이? 뭘 알고 싶어요?

제 : 그냥..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심리학이나 여성학, 사회학, 이런 거니까.. 심리학은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는 느낌이고요. 여성학이나 사회학은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뭐, 경영 이런 거.. 가끔 수업 들어보고 그러면 되게 재미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 :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겠네요? 좋아하니까?

제: 네... 공부만 하며 살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죠.

고: 보통.. 공부를 계속하면 교수나 강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심리니까 심리상담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제: 그렇죠.

고: 혹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제: 미래요? 미래.. 미래는..

고: 몇 년 후의 미래까지가 자기 미래라고 느껴져요?

제: 미래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거요?

고: 음.. 대충.. 가늠이 된다...

제: 6개월 이후.. (웃음)

고: 하하하..아

제: 미래를 잘 생각 안 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 그래요?

고: 네... 생각해봤자 뭐 해~

제 : 그렇죠? (웃음)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꿈을 가져야된다..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근데.. 제가 아까 MBTI 얘기하다가 J라고 그랬잖아요. 계획 세우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유연해진 편인데.. 항상 경직돼서, 계획을 세우면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러느라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6개월, 한 학기 단위로만 생각하자.. 해서 6개월 이후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고 : 그렇구나.. 그럼 미래의 꿈,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겠네요. 6개월까지만..

제 : 네.. 왜냐면, 그 때가선 관심 있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고 : 그러면 앞으로 6개월간의 관심사는 뭐예요?

제 : 앞으로 6개월이요?

고 : 혹은 현재가 6개월 안에 들어있다면, 요즘에 제일 관심사.

제 : 일단..음.. 공부를 사실 열심히 잘못하고 있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웃음) 하고 싶고요~ 참, 모범생 같지만..

고 : 아니,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는데요. 아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 그래요? 그리고.. 생활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꾸려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웨어가) 되게 새로운 도전인데..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 괜찮을까.. 뭐.. 음.. 그래서..네.. 재밌게, 건강하게 생활을 꾸려가는 거..

집을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제제를 만났을 때 집이 한강과 가깝다는 얘기에 제제 얼굴이 환해졌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얼굴이 인상적이어서 ‘한강 좋아해요?’ 라고 물었다. 제제는 이사하고 며칠 뒤, 옷장이나 가구보다 먼저, 자전거를 샀고 난 그 선택

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제제에게 중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가르는 선은 어떤 것일까.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가르는 것과 가구를 갖춰 사는 것의 차이.

주거 변천사

고 :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하우스메이트니까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집이 아니어도 몇 살 때가
지 부모님 집에 살았어요?

제 : 어..열여덟 살?

고 : 열여덟 살?

제 : 학교를 좀 멀리 다니게 되서.. 일산에 살았는데, 서울학교를 다니게 되서 고시원 같은 데 졸라서 나와서, 공부하겠다고.. 학교 근처에서 살았고, 그 이후로는 집을 구해놓고, 잠깐 들어가서 살다가,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 나가서 살아보니까. 친구랑 집을 구해놓고, 집이 구해졌으니 나가 살겠습니다, 말했죠.

고 : 그러면 주거 형태는 어떤 것을.. 변천사.

제 : 음.. 처음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건데, 원룸 식으로 해서.. 한방에 부엌이랑 화장실 있고, 그런데서 한 일 년 반 정도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고시원 살다가, 교환학생 가서 기숙사.. 혼자서.. 한.. 그 뭐라 그러죠? 룸메이트 없는 형식, 아무튼..

고 : 일인실..

제 : 일인실! 살다가 다시 고시원..

고 : 일인실 썼어요? 되게 좋다..

제 : 그렇죠..ㅎㅎ미국이란 좋은 나라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엔 다시 고시원.

고 : 파주에 있을 때는요?

제 : 네, 그때도 고시원에 살았어요. 고시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어요. 적어도 네 군데는 살아본 거 같아요. 고시원을.

고 : 저도 되게.. 그.. 20살 때 서울로 오면서 되게 단출한 살림살이로 왔거든요.. 필통 하나랑..

제 : 진짜요?

고 : 이불이랑 옷이랑..

제 : 아..

고 : 뭐.. 없으니까요, 그 정도 왔는데.. 뭐만 하려면 없는 거예요. 손톱깎이도 없고, (웃음)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서 사는 건데..그렇죠. 그렇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점점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젊었을 때 살았지만, 이제 반지하 싫고, 원룸도 별로...힘들고.. 계속 그렇게 되던데.. 꼬마는 계속 고시원에 그래도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제 : 네~

고 : 그럼 되게 불편한 게 많지 않았어요?

제 : 불편한거요? 제가 좀.. 적응을.. ㅎㅎ 잘, 모르겠어요. 적응을 잘못 한다고 생각하

는데.. 살다보니까, 다 괜찮아지는 게..

고:아...

제:그니까 젤 최악이었던 게 파주에서 그 땐 남녀 공용 고시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난방도 아예 안 해주고.. 옆방에는 아저씨가 살고..막 화장실을 같이, 밖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데.. 아저씨들이 화장실에 똥 싸놓고.. 약간.. ㅎㅎㅎㅎ

고:아...음...

제:고시원엔 웬만하면 바퀴벌레가 없거든요? 근데 거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그냥.. 처음에는 아.. 정말, 이거 너무 한다 생각했지만 살다보니까..

고:정들었어요?

제:그냥,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고:아..

제:그냥, 그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산다는 거 자체가.. 만족이 되면, 그냥 어떤.. 으
ㅎㅎ.. 곳이라도 괜찮은 거 같아요.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면.

고:으음..

제:ㅎㅎ근데 여기서(현재 집) 살다보면 여기 밑으로는 싫어질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 데요..ㅎㅎ

고:계속 인제... 조.. 좋게 살아야죠..

제: 아...

고: 네...

제: 조.. 좋네요.. 그렇게 된다면.

고: 그니까..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중요한 게 다르니까요. 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 전 주거가 중요해요. 의식주 중에 주거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님의 보조를 받지 않고 20살에 마련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은 좁은 자취방이나 고시원이다. 그 곳에서도 결국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상황에 대한 긍정이었을까, 아님 견디는 데에 익숙해져서일까. 이사 온 첫 날 제제에게서 유난히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오랜 고시원 생활에서 생긴 습관일까 잠시 생각한 기억이 난다.

혼자라는 것

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그 걸 아예 안 받았었어요? 계속?

제: 음.. 20살 이후로는..

고: 진짜 어려웠겠다..사립학교 다녔잖아요.

제: 근데 학교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요.. 4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였거든요.

고: 왜? ㅎㅎ왜? 뭔데?

제 : ㅎㅎ

고 : 수석이었어요? 과수석? 그 조건 때문에 결정했다고 그랬던가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제 : 네... 그것도 되게 컸어요.

고 : 아..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00대를 샀다고 했나?

제 : 어.. 여러 군데 넣어보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전화해서 그 거 줄 수 있다고해서.. 네..

고 : 흐허허허

제 : 그 거 없었으면 아마 부모님한테 의존을 해야 했겠죠? 제 맘대로 못 살고?

고 : 그래도 학비 아니더라도 진짜 힘들잖아요...저는 되게 오랫동안 부모님의 보조를 받고 살았거든요. 알바 해야 되잖아. 생활비 없으니까..

제 : 그렇죠.. 그래서 과외.. 과외를 계속하고..

고 : 음..

제 : 전 진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정말.. 이생에 단 한 번에 예외가 있다면.. 과외인 거 같아요.

고 : 저도 진짜 싫어요.. 정말 정말 싫어요.

제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되는.. ㅎㅎ

고 : 저도 되게 비슷하게 과외가 아닌 어떤 것이면 좋다..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도 많이 했었는데..

제 : 어떤 점이 그렇게 싫으세요?

고 : 과외요? 우선, 사교육에 내가.. 음.. 그렇죠! 복무한다는 게 참을 수 없고.. 크흑

제 : 맞아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고 : 그쵸, 그게 제일 참을 수 없고, 아이에게 사기 치는 기분들고...

제 : 음... 맞아요, 맞아요, 정말..

고 :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과외 가르치는 행위 자체는 싫지 않은데요..

제 : 아.. 그래요?

고 : 네.. 물론 아이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엄청 나지만, 그건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사교육 자체가 싫어서.. 싫더라고요, 진짜.

제 : 진짜.. 그래서 그 느낌이 들었나봐요. 파주에서 일할 때.. 이게 정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 말고는 해본 게 과외밖에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고 : 저도 빵집 같은 데서 일해보고, 비디오방.. 음, 그랬다면서요? 서빙도 하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음..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되게 독하게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거 같아요.

제 : 맞아요. 자기가 하는 게 있으면서 다른 걸 하려면, 과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고 : 그렇구나.. 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 같은데.. 그래도.. 과외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되게 아끼면서 살아야 했을 거고, 고시원도 그런 이유였을 거고.

제 : 뭐, 네.. 음..

고 : 근데 되게 어릴 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떨어졌어, 아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손 벌릴 사람이 없다.. 이런 기분이 감당이 되요?

제 :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조금.. 제일, 많이 무서운 거 같아요. 음.. 엘들이 많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다른 엘들도.. 음.. 믿을 구석이 없다라는 거? 지금이야 그렇지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죠.. ㅎㅎ..

고 : 뭐.. 크게 아픈 적 없었어요?

제 : 네...

고 : 다행이네요. 술을 줄여야겠어.. 건강하게 살아야지..(웃음)

제 : 그렇죠..50살에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되게 많이 하는데요..

고 : 금방.. 금방와요 50살...

제 : 그래요?

고 : 그럴 거 같아요. 저는 이제 17년 후면 50살인데요?..

제: 그렇군요.. 저는 이제 반납했어요. 딱 온 만큼...

고: 음.. 근데,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그니까 -기쁠 수 없다- 이게 너무 큰 짐이었을 거 같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뭐, 가족을 만들고 싶다거나, 뭔가 그런 욕구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 볼 계획이 나?

제: 아..기쁠 대를 만드는 거요? 음.. 모르겠어요. 의존하는 게 너무.. 정말.. 싫은 거 같아요. 음.. 아무리 뭐.. 새로 만든 가족, 그건 사실 상상이 잘 안되고요.

고: 네..

제: 만약에 지금 당장 정말 많이 아파서..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너무.. 그리고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몸을 스스로 못 움직여서.. 밥을 먹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ㅎㅎㅎ

고: 음..

제: 그러느니 차라리..

고: 깔끔하게.

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들 때면 정말 빨리 가야겠구나, 이렇게..빨리가 아니라 적절할 때...

고: 죽어야겠구나..

제: 네..네..

고 : 그것도 괜찮네요.. 죽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데.. 나 중에-그런 두려움이 들 때 있잖아요.. 네.. 그 때 되면.. 그러면.. 음.. 뭐..

제 : 죽어야지..

고 : 네..흐.. 죽지 뭐..

제 : ㅎㅎ... 슬프네요.

고 : 그런데.. 음.. 꼭 그런 방법만 있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 그니까.. 다른 방법을 활동가로서 혹은 어떤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그런 정상적인 시간에 맞춰서 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돼. 혼자서 여미지 못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대안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고 : 네.

제 :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니까 50살에 죽는 게 별로 나쁜 생각 같지가 않아서..

고 : 음...

제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제제나 나나 웬지 모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하우스 웨어를 선택했지만 이런 주거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실험인지도 모른다. 고독과 고립 사이

가 아직은 멀어도, 나이50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우스메이트와 곱둥이

나 역시 혼자만의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누군가와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외로워졌고, 사람이 사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다.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대소사에 신경 써주고, 작은 일들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우스메이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제와 집을 구한 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나눴다. 인터뷰에서도 자연스럽게 공동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실험은 성공하고 있을까.

제: 물리적으로 뭔가 공유하는 게..

고: 네...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땀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해야겠다고..

제: 네.. 저번에 말씀했던 것 같아요.

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도시를 건설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하다보면 뭔가 다른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하지 않을까..

제: 음..

고: 그래도.. 꼬마님이 밤에, 곱둥이[3]를 발견하고, 아직은 친하지 않아서 나를 깨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뭔가 더 건딜 수 없는 게 밤에 일어나면, 내가 옆방에 있고, 깨울 수 있는 거고.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 맞아요..

고: 네..

제: 맞아요..

고: 네.. 그렇겠죠.

제: 사실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약간.. 한 번,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자고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게 참.. 괜찮은 일일까.. (웃음) 난 고시원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고: 으허허

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길 듣고.. 저도.. 한번 정말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곱등이.. ㅎㅎ 얘기 나왔으니까. 한 새벽 두시 반이었는데요. 옛날에 혼자서 살던 거기였으면 아마 밖에 나가서 pc 방에 있거나, 해가 뜰 때까지 몇 시간동안 그 시체를 쳐다보면서.. 그.. 그랬었거든요.

고: 아...

제: 어, 근데 이제 옆방에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시체를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고: 오- 좋다..

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고: 저도 그래요.. 이상하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사람이 뭐가.. 주변에 있다.. 이게 되게 다른.. 네, 그 느낌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 : 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고 : 네.. 고시원에서 옆방에 누가 있어 너무 싫은 그 거랑, 좀 다른..

제 : ㅎㅎㅎ.. 네..

고 : 그렇구나.. 어쨌든 나도, 되게 두려움이 있었던 게, 나 성격이 이상해서 다른 사람을 견뎌낼 수 없을 지도 몰라.. 하는

제 : 저도 딱 그거였어요, 딱.

고 :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제 : ㅎㅎ 아직은? 두 주 됐으니까?

고 : 아직은~! ㅎㅎㅎ 모르죠~ ㅎㅎ나중엔 막, 역시, 견딜 수 없어..그럴지도 모르죠.

제 : 모르는 일이죠..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혼자인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시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혼자 있을 권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조건.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제제 개인적으로는 50살에 죽어도 상관없지만 대안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녀에게 레즈비언 활동가로서의 책임감이 엿보였다. 제제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마다 상담소 회의에 간다. 그녀에게 엘이란 어떤 의미일까.

엘이라는 것 ? 레즈비언 조기교육

고 : 네. 그래서.. 제제..는 뭐예요? 왜, 엘이 뭐예요?

제:엘이 뭐냐고요?

고:아니, 인생의 역사에서 어떤 어떤 순간에 그것이 어떤 걸 결정하거나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음...

고:우선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거였고.

제:그렇죠. 그리고.. 종교? 종교가 좀 컸던 거 같아요. 음.. 제 부모님이 일순위로 생각하는 게 사실 종교고, 그것밖에 없는데, 저도 되게 어렸을 때 굉장히 독신했거든요. 보통 그런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랬는데, 이제 양립할 수가 없다고 배우니까요, 처음에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를 선택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종교를 버리고, 이거를 선택하게 됐으니깐, 이만큼, 그만큼 이게 더 중요했던 거 같아요. 그만큼 중요했던 걸 버리고 선택한 거니까.. 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같은 엘이거나 다른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냥 나의 여러 가지 뭐. 내가 학생이고 다른 것이듯이 그냥 나는 엘-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와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엘의 의미가 더 커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학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살기로 생각한 거나 음... 그 모든 것들, 또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를 선택하고, 그 모든 거에 다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고:근데.. 나두..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는 여자에 있었거든요, 엄청..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근데 내가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몰랐어요, 엘이라는 거를.

제:아...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그냥.. 난 재가 좋아..

제 :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고 : 네, 재를 좋아하는데 친해질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울 뿐이지..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약간 거기에 대한 포비아가 있었던 거 같아요. 만화 중에 남자 같은 여자애가 나오는 만화가 있었어요. 매일 종이배에 노트 써서 주던 여자애가 그게 너무 재밌다면서 그걸 나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난 너와 친구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 : 아이고..

고 : 으..ㅎ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근데 되게 웃겼던 건 그런 식으로 말해 놓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애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개를 좋아하는 건 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 : 그럼 그런 모순되는 것들이.. 전혀 안 부딪혔어요...?

고 : 음...그래서 나는 왜 재가 좋을까.. 그런 생각 안했던 것 같아요. 아예..그건 그냥.. 아예 미숙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게.. 난 켈 좋아해. 이런 감각이 아니라, 아.. 그냥 끌리는 거 있잖아.

제 : 끌리는 그 상태 자체로 있는 거예요?

고 : 근데, 꼬마는 어땠는데요? 누가 좋았어요? 15살 때?

제 : 어..... 그 전부터 좋았죠. ㅎㅎ 제가.. 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애가 이름이 00[4]였어요, 김00.. ㅎㅎㅎ

고 : 크흐흐

제:제가 만날 너무 좋으니까 000라고.. ㅎㅎ

고:나.. 별명이 000이었거든요.

제:개 울고, 막.. 초딩이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고:머리 잡아당기던 남자애 같은 심리군요.

제:저도 그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서점가서 책을 보는데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책,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동성애 파트가 있었는데.. 동성애란, 동성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요런 설명이 있었어요.

고:음..

제:아.. 난 동성애자인가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하다가 저도 약간.. 4학년 이후로 포비아가 많이 생겨서.. 뭐.. 그렇죠.. 그때,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고:꾸준히 계속 누군가를 좋아해왔군요.

제:그렇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많은 엘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엘인가?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잘 안 그랬던 거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안 좋아하고 싶었던 그런 갈등... 이.. 네.

고:으음..

제:왜냐면 왜 저는 그걸 자각을 일찍 했었냐면.. 제 어머니가 되게 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의심을 했어요-

고:아.. 진짜?

제 : 네, 제가 알기도 전부터 의심을 했는데..

고 : 아.. 신기하다~

제 : 왜냐면 전 약간 좀 남자에 같은..그니까 약간.. 부치, 전 부치가 아니지만, 어쨌든.. 부치.. 정체성을..

고 : 부치가 아니에요?

제 : 부치는 아닌 거 같아요. ㅎㅎ

고 : 어, 이 따 그거 얘기해봐야 되겠다. 후후

제 : 부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장해온 그 서사가 있잖아요, 뭐.. 나는 장난감 총을 갖고 놀았고, 바비 인형 싫어했고, 치마 입는 거 싫어했고.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 남자팬티 입겠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 : 아~

제 :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고 : 어.. 여자답지 못하다..

제 : 그렇죠..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어보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고, 제가 포비아가 심할 때는 그런 거 진짜 싫다고 말하면 고맙다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씩.. 줌.. 그 개념을 줌, 일찍 터득하게 되었나봐요.

고 : 아, 진짜- 그런 환경이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애를, 여자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내가 동성애잔가 아닌가.

제 : 그렇죠.

고 : 저는 엄마 아빠가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아파 있었을 거고, 애들끼리 막,

제 : 여중, 여고였으니까요..

고 : 네, 여중 여고였으니까 언니들 좋아하고, 농구부 언니들 선물주고 그래도, 뭐.. 엘이다 이런 게 없었어요.

제 : 다른 친구들도 그랬어요? 학교 전반적으로?

고 : 호호.. 인간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제 : ㅎㅎ 그렇구나..

고 :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선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제 : 그럼 언제.. 했어요?

고 : 대학 와서~, 대학 와서 애들이 얘기 하니까.. 뭐.. 여성주의 공부하고..세미나 하고, 이러면서~아, 그렇구나. 그런가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 : 그런 거였구나~

고 : 어, 옛날 생각도 해보고.. 그랬구나~ 내가 개한테 되게 나쁜 짓을 했었네.. 그러면? 막 이려고.. 그러면서 인제..

제 : 아.. 아 진짜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고 : 일기장에 보면 막 누가 좋다고, 그 때는 막 이름도 못쓰고,

제 : 아니셜..

고 : 약자로 막... 흐하하 그래놓고두 그런 생각은 아예 안했던 것 같아요.

제 : 오...

고 : 왜냐면 남자에 대한 관심도.. 음.. 그니까 남자를 만났거나 이성에 대해서 되게 활발했으면, 상대적으로 생각해봤을 텐데, 여자를 좋아했을 때,

제 : 애초에...

고 : 거기에 대해서 아예 무던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거의.. 조기교육을 시켜준 거네요.

제 : 그러네요.. 허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아.. 저는.. 미국.. 아니 캐나다에서 몇 년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고 : 그래요.. 언제? 아 초등학교 때.

제 :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

고 : 아.. 그래서 서점에 그런 책이 있었나요?

제 : 그런가봐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어.. 6학년 언니들이
ㅎㅎ 여자 친구 막 학교에 데려오고 그런 일도 있어서..네.

부치 or 팸

고 : 음.. 아까.. 부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ㅎㅎ /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 : 음... 어..... 어...허허. 부치가 아닌.. 아닌 거 같다는.. 너무, 그.. 처음에 제가 부치라
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랬

을 때, 친구들이 이제, 넌 너무 여성스럽다고.. 했을 때 그게 싫었거든요. 아 난 부치
맞는 거 같은데, 왜..사실 부치, 팸 이런 개념 자체도 구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굳
이 나누면, 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굳이 나뉘도, 부치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ㅎㅎ 약간 줌.. 하아..너무 구려서 약간 이걸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ㅎㅎ

고 : 구린 걸 표현해줘요~ 그게 재밌잖아요. ㅎㅎ

제 : 그니까 성격이 수동적인 편인데요- 연애를 했을 때도 리드를 당하고.. 리드를 당
한 쪽이 팸이잖아요.. 그렇죠?

고 : 리드 당하는 부치가 엄청 많대요..

제 : 아, 그래요?

고 : 네~

제 : 그럼 그 사람들은..

고 :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세보이고 이러는데, 둘이 딱 되면 관계에서 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남자 여자도 그렇잖아요~

제 : 하긴, 그러네요..

고 : 네~. 그래요? 리드 당하는 거가 더, 좋아요?

제 : 좋...

고 : 굳이 말하자면

제 : 좋은 건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던데요? 저 기질상 편한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되게 수동적인 게 나쁜 거라고 사실 생각은 안하는데, 좀 수동적인 성격이라서요. 야구를 할 때도 캐치볼 할 때 던지고 받잖아요? 받는 게 훨씬 재밌어요. 던지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고 :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부치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 네.

고 : 그럼 또, 팸.. 이라고, 느껴져요?

제 : 팸, 팸이요?

고 : 네

제 : 팸.. 팸도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리한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J라고..ㅎㅎ

고 : 전천?

제: 네.. 그렇죠.

고: 전천. 맨 처음에 상담소 갔었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부치라고 그랬었는데..

제: 아, 그래요?

고: 제가 머리 짧고 막 그래가지고.

제: 아, 기억나요. 그랬던 거 같아요.

고: 나도 막 그래야 되는 줄..

제: 약간 시크하게 앉아있고 그랬죠? ㅎ

고: 네.. ㅎ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왜요?

고: 몰라요..

제: 부치가 돼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고: 워낙 여성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말괄량이 그런 느낌이었지, 부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스포츠머리 하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어.. 근데 거기 가면 웬지 부치가 되야.. 왜냐면 주변에 이성애자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니까 웬지 내가 이 사람들 이랑 다르고, 이 사람들이랑 뭔가.. 뭔가를 이렇게 건드려 내려면 내가, 뭔가~

제: 아.. ㅋ 어떤 느낌인지..

고 : 뭔가.. 부치가 돼야 될 거 같다는 느낌을 몹시 받았나봐요. 그리고 뽀은 되게 싫고.

제 :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거 같아요..

고 : 그래서 약간.. 더 그렇게 학습한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나한테 되게 잘 맞는 옷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 나, 리드를.. 막 하고, 막.. 뭘 해야 되나?

제 : 그렇죠. ㅎㅎ 그럼.. 뭐예요?

고 :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뽀은.. 또, 뽀이래요 나보고, 또- 시간 지나니까.. ㅎㅎ 그냥 워낙..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리드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대상이 되는 것도 좋고.. 뭐..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게 된 지 몇 년 됐어요.

제 : 음.. 맞아요.. 그렇죠..

고 : 네! 그리고 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 : 안 나누는 게 제일..

고 : 네, 왜냐면 되게 상호적인 거 같고, /맞아요, 정말/ 또 이렇게 뽀 부치가 아닌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연애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없는 거구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일 뿐이고, 연기할 필요 없는데.. 연기해야 될 거 같잖아, 막.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구분이 편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거에 되게 잘 맞는 사람도 있긴 있는 거 같아요.

제 : 음.. 맞아요.

고: 나는 되게 여성스런 사람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제: 있더라고요. ㅎㅎ 반대로, 반대도 있고.

첫 번째 연애

고: 내가 안 본 사이에.. 어떻게, 사랑은 많이 꽃피웠어요?

제: ㅎㅎ 저도 20인 인터뷰[5]할 때마다, 연애 얘기 물어보시면, 아.. 없다고, 또 없다고.. 그 다음 년에도, 음.. 지금은 일단 없는지 꽤 됐고요. 한 1년 반? 음..

고: 음.. 그렇게 끊임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럼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네.. 그게 막 엄청.. 사.. 사랑이 아직 뭔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사랑까지는 아마 아니었을 거 같고.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매력적인 사람도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매력적인 점을 발견해서 좋아하는 거? 그러다가 이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면, 또.. 금사빠구나? 헤헤헤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고: 좋아하는 건 내 맘이니까.

제: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많죠. ㅎㅎ

고: 아니, 딱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엘이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그렇고, 예쁜 애들도 많고, 눈길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랬을 거 같은데, 어땠

어요? ... 한 번 놀아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ㅎㅎ

제 : 약간.. 약간.. 조금.. 설렘.. 나에게도..

고 : 그렇죠?

제 : 그 전까지 연애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연애라는 게 뭘까. 그래서, 바로.. 거의 바로 사귀었죠. 한 4월? 3월에 입학하고 한 4월쯤에? 되게.. 약간 멋있는 선배 언니가 있었는데 과에서.. 그니까 과대표 막 이런 거 하는 학생회 선배? 그 선배에게 홀라당 뉘여서..으허허

고 : 아.. 그쪽에서 먼저 대시를 했군요?

제 : 그니까 그 선배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다른 선배가 흘려줘서.. 근데 그 때는 제가 막 부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고백을 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고 : 크흑크흑.. 아... 맞아!

제 : 그렇죠.

고 : 네-

제 : 그렇게 했었고, 해서 한 일 년 정도 사귀었는데요, 그게 좀 제일.. 길고 정상적이고, 연애스러운 연애였던 거 같아요. 유일하게. 그 이후에는 음.. 두 번 정도 더, 연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연애를 하면, - 제가 친구들에게 항상 나는 연애고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 네. 막 도망가고, 막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고 : 그럼, .. 재밌어 지네요, 얘기가..흐

제: 재미 하나도 없어요...흐

고: 길고..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연애의 그 내용물은 뭐였어요? 연애라는 게 뭐였던
가요?

제: 어...

고: 연애에서 일어나는 행위, 나, 마음.

제: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막 좋아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되게 궁금하고, 그렇게 멋
있는 선배가 나를 좋아해준다니 신난다, 그런 마음에 사귀었는데, 이제, 그 분이 약
간.. 심리학.. 적으로 말하면, 저는 회피 애착 유형이거든요. 헤헤

고: 흐하하 뭔가 전문적이다.

제: 그 분은 약간 불안정 애착이었는데, 둘이 상성이 안 맞아요~

고: ㅋㅋ

제: 왜냐면 회피는 도망가려고 하고,

고: 그러네요

제: 불안정 애착은..

고: 계속 옆에 있으려고 하고..

제: 네. 떨어져 있으면 너무 힘들어 하고.. 근데 저는 연애가 뭔지 모르니까.. 원래 연
애라는 건 24시간 붙어있는 거구나.. 원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막 집에 못 들

어가고.. 원래 그런 거구나, 약간 생각을 했죠.

고: 아..

제: 그래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고: 아, 진짜?

제: 그리고 그 분이 되게 강하게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만큼 도망가면 막 이만큼 끌어당기기 때문에 연애가 좀 성립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때는 너무너무 밋고, 연애가 끝난 다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어떻게 나의 일년을 이렇게...막,

고: 막.. 엮어매가지고..

제: 그렇죠, 막 엉망진창으로.. 그 땐 생각했죠, 만들어놓을 수 있었을까..

고: 그래서 20살 때 불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애가 가능했던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 그.. 일학년 때 수많은 가능성들과 친구들과, 그런 것들을 연애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 어쨌든 강제적으로나마 몰두해서.. 친구도 없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 네..

고: 그래서 일 년이 지나서 딱 돌아왔을 때 느낌이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미웠다

고 :했잖아요~

제 :네.. ㅎㅎ 해방감.. 음.. 되게 정 없죠?

고 :아니요! 정없지 않아요~

제 : 하여튼, 21살에 그래서 좀 대학교 일학년처럼 보냈죠. 친구들 새로 많이 만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고 : 아직도 그 궁금증이 여전한데, 연애의 내용물이 뭔가요?

제 : 내용물이요? 내용물이 그래서 뭘.. 내용물?

고 :둘이서 뭐가, 뭐로 시간을..

제 :아.. 시간을.. 어떤 생활을 했나고요?

고 :네.. 그리고 둘의 관계.. 아까 그런 심리적인 용어 말구요..

제 :관계?? 뭐예요 그런 게?

고 :네.. 둘의.. 그니깐 뭐..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아니면 뭐였던 거 같아요? 경험? 새로운 경험?

제 :음... 최선을 다하는 느낌?

고 :크흑.. 아.. 너무 슬프다.

제 :아니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당시에는 재밌었어요. 막.. 재밌잖아요. ㅎㅎ 처음 해

보는 거. 누구랑 그렇게 막, 친밀하게 나의 일상을 말하고.. 막..

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하고..

제: 그렇죠.

고: 학교 가서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제: 공부를 거의 못했죠..

고: 아, 그래요?

제: 둘이서 영화 좀 많이 봤던 거 같고. 그 친구가 영화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뭐 별거 재미없는 거 했죠, 그냥. 카페 가서 얘기하다가.. 야구, 야구.. 그 배팅 연습하러 다니고.. 그런 거?

고: 허허 그렇구나.

제: 음.. 뭐했지? 음.. 그런 거 기억이 잘 안나요, 사실. 뭘 했었는지. 음..그리고 되게 그건 재밌었던 거 같아요. 누
군가에게 그렇게 강한.. 누가 나를 그렇게..

고: 선택해서..

제: 좋아해주는 느낌? 신기하더라고요. 좋고, 당연히 고맙고. 그렇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 그렇죠.

제:저는 그걸 진짜 못 참았어요. 전화랑 문자, 계속 하는 거?

고:네.

제:지금도 친구들이랑 그렇게 많이 전화나 문자 잘 안하는데. 잘 때까지 전화해야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느낌으로..

고:그건 진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느낌이 들 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귀찮고, 의무처럼 되니까.

제:음~ 그쵸. 음..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그니까 연애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은 좋더라고요,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돼서,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하지 만 걸 못해요. 책을 읽다가 주의전환이 잘 안돼서.

고:아~ 그렇다면, 누군가 되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완전.. 완전 집중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 막 우주가 뒤집히는 느낌? 그니까 통제를, 통제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느낌? 너무 궁금해요. A님이 그런 거 궁금해 하지 말래요.

고:왜?

제:너 같은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고:왜?

제:5유형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고 : 왜요?

제 : 어..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잡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놓는 건 건 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걸 지키는 선 안에서 나름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 : 아.. 그렇구나..

제 :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고 : 난 그렇게 생각안 해요.

제 : 아, 진짜요?

고 :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존재를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것과 만난다는 건..

제 : 그렇죠?

고 : 50살에 죽을 거라며? ㅎㅎ 뭐 인생 그렇게 꼭 잡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 : 아, 저도, 저도요. 너무 궁금하고..

고 : 엄청난 행운이죠, 그런 건. 다만, 그걸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영리하게 잘 살겠다, 이런 두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둘 다 이렇게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뭐더러 살아요, 그렇게 살 거면. 뭐 이렇게 안정하게 막 살 거면? 그렇지 않아요?

제 : 저도, 네.. 한번. 저는 그런 안정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활? 안정적이라기보다

는 그냥.. 나의 삶을 누가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지만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고. 있었어요? 고리님은 그런 게?

고: 네, 저는 있었어요.

제: 사람으로 인해서요?

고: 네..

제: 좋은 느낌만은 아닌 거 같아요.

고: 네.. 좋은 느낌만은 아니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고, 인생에서.. ㅎ 하지만 후회하지 않고, 그게 사라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약간 죽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 진짜요?

고: 지금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할 거 같아요.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제: 아, 좋아요.. ㅎ

제제에게 레즈비언이란 종교를 비롯한 많은 것들 대신에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있기 위해 치러야했던 대가였을 것이다. 그런 제제라면 우주가 뒤집히는 느낌을 주는 사랑을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제는 누구나 몇 개쯤 갖고 있는 털거덕거리는 연애의 기억을 들려주었다. 먼저 좋아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회피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에서 도망가는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였다. 감정의 크기가 다르거나 원하는 게 다를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형

고: 아하하하하 그랬구나.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거 같아요?

제: 음... 저는 어른스러운 사람.

고: 음.. 어른스럽다는 게 뭐예요?

제: 어- 흐- 심..심리학.. 메타 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니까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람?

고: 음~

제: 어떤 상황에서 되게 아이 같은 사람들은 나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거, 혹은 뭐 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데, 조금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음- 이 상황 자체도 조금, 위에서 관망하듯이 볼 수 있고, 이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거요.

고: 나 상담.. 할 때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제: 왜요?

고: 너무 심하다고.

제: 너무 심하다고요?

고: 너무- 공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막.

제: 아~

고: 내 생각엔,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으음~

고: 근데, 아, 나, 왜 인터뷰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지?(웃음) 미치겠네.

제: 좋아요, 좋아요~

고: 근데,

제: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고: (하하)요즘에 생각하기에는~ 어린애같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제: 으음~ 그 사람한테는?

고: 네, 이렇게 관망하는 건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조하고,

제: 상황에 몰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고: 네……, 왜냐면 나의 감정보다는 상황전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고, 막 살아내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걸돈다? 그런 게 되게, 많은 거 같아가지고..

제: 아~

고: 그리고 언젠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삶을 이렇게, 얼마나 잘 음미하는가-, 에서, 어린 아이가 훨씬 더, 잘 음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니까 관망하는 자들은 음미

한다기보다는 그냥 바라보는,,데. 그래서 손해 거 같아요.

제 :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충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흐
흐

고 : 어, 예

제 : 어쨌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고 : 그거요?

제 : 예!

고 :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정
말 어린애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고.. 다들 이렇게....아, 그걸 현명하
게 해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제 : 현명하게 해내는 사람?

고 : 예~흐흐

제 : 음.. 그건 당연히 그렇고, 애초에 그게.. 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내 주변만 그런가? 하하하

고 : 해해..음. 그렇구나.. 어른스러운 사람? 지금은 주변에 다, 친구들이 나이대가 어
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어릴 때부터 활동했고..되게.. 그래서, 더, 상대적으
로 그런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40세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인제,
다른. 흐흐

제: 어린 애들이 좋을까요?

고: 음.. 좋을 수도 있죠.

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분을 좋아해 본 게 44살, 되는 분이었거든요

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음, 그래요?

고: 저도, 되게 조금 더 어릴 때에는, 20대 후반이었을 때는, 나이 많은 언니랑 만나고 싶단, 35쯤 되는..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크흠, 33살이 되버렸어. 크흐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나이 많으려면 이제,

제: 아아아.. 40대가 넘어가고..

고: 그래서 더 이상 언니를 만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흐흐흐

제: 너무 슬픈 애긴데요?

고: 찼.... 그렇죠, 그렇군요.

제: 그런데 이제, 약간, 그렇게 어른스러운 분들은, 약간, 연하의 매력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좀.. 어... 약간 발랄하면서... 어.. 약간, 호기롭고, 그런, 그런.. 그런.. 느낌?

고: 귀엽죠, 그래도.

제: 그러니까요, 약간 그렇게-. 근데 제가 그런 게 안돼서, 잘 안 먹히나봐요. (웃음)
그래서 어린친구들이 좋아해주세요.

고 : 아... 그런, 그런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 그런가요?

고 : 예~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애아. 내가 보기엔 나이 많이 먹는다고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 : 음~, 그래요?

고 : 네, 나는 아직도 정신연령이 아직도~ 되게..

제 : 훗, 애예요?

고 : 네, 애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어떤 책에. 청소년기에 읽은 책에, '비밀을 알려줄게, 사실은 절대 어른이 되지 않는데, 어른이 되는 척만 하는 거야.'

제 : 훗

고 : 이렇게 쓴 책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거 같아요.

제 : 으음~

고 : 아주 천천히 자라는 거 같아요, 정신연령은.

제 : 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별일 없이 산다. 하루하루 즐겁다.

연애애기를 지나 질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생보다 하루를 들여다보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제제의 일주일은 어떻게 채워져있을까.

고 : 예...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에..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요즘에... 일상은 어떤가요? 일주일을 어떤 식으로 사시나요?

제 : 저의 일상이요? 저의 일상.. 어, 그냥.. 진짜 되게 재미없는데? 그냥 학교 갔다가..조교를 가거나, 학교를 갔다가 수업을 듣고.

고 : 술은, 언제부터 마셨어요?

제 : 술은, 처음에 배운 거는 상담소, 움 언니들.. 처음, 그 때 막, 맥주 마시면서 배웠고요.

고 : 그 때 같이 마셨던 거 같아, 미성년자 때.

제 :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뭐 조금? 조금씩? 음, 많이 안 먹었던 거 같아.

고 : 근데 이제 진짜 술 맛을 아는 사람이 됐나요?

제 : 헛..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한 23살 때까지만 해도, 술자리가 좋은 거지.. 소주 마시면, 막.. 하으..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시면 맛있어요, 술 자체가.

고 : 어~ 정말?

제 : 네.

고 : 혼자 포장마차 가시는 걸 보니까... 진짜로, 술 맛을 아는 사람이 된 거 같아.

제 : 술맛을 아는데? 알콜의존.. ㅋㅋ 그래서 되게, 자제하려고 노력은 나름 해요. 그래

서 기록을 하거든요. 며칠.. 마셨는지?

고: 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같아요?

제: 네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그니까 3일에 한 번씩 마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지켜져요. 이번 달에는.. 그니까 5월에는 한 18번?

고: 5월에? 아.. 이틀에 한번보다 좀 많네요?

제: 그렇죠. 그니까 그게 별로... 흐 안 좋은 거 같아서... 네..

고: 네~ 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기만 알겠죠. 꼬마가 그런 거 같으면 그런 거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딱, 일정한 삶을 살잖아요. 공부되게 열심히 하고 과외하고. 그래서 낙이 없어서 그런 가?

제: 술이요? 술을 마시는 게?

고: 네. 그 외에 다른 취미나.. 그런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제: 좋아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고: 추천해달라고 해도, 추천도 안 해주더만...

제: 왜냐면.. ㅎ..제가.. 되게, 가끔씩 추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고: 하하하

제: 그리고 음악 틀어주는 술집 가서 네가 음악 들어봐.. 하며는.. ㅎㅎ, 이게 네가 튼

거야? ㅎㅎ그러면서..그래서..

고:술 마시며 듣기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음악? ㅎㅎ

제:그런가봐요.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고:소설책도 읽어요?

제:소설책, 네.. 저는 한국소설 좋아해요.

고:어떤 작가 좋아해요?

제:어떤 작가요? 작가는.. 음.. ㅎ 황석영, 음.. 정미경..

고:황석영씨를 좋아하다니.. 그렇군요

제:네.. 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난감해요. 오랜만에 친구만나서 너 요새 뭐하고 사니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제가 술 마시는 걸 즐긴다고 말해줬는데, 그 느낌이 묘했다. 마주앉아 술을 마셔보니 조금 더 단단해진 말투와 함께 고등학생이 아닌 20대 중반의 제제라는 게 실감이 났다. 술을 마시면 조금 풀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행복의 효율성

고:나는 그냥 구체적인 하루가 궁금했어요.

제:구체적인 하루요? 으음..

고:네. 나중에 미행 할 거지만.사실은 이렇게 복기하려고 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밖

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모양새는 아니..아닌 거 같아요. 보통, 정말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 하루를 어떻게.. 느끼나.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 : 음..저는 사실 되게 하루하루 되게 재밌-거나, 되게. 지루하진 않아요. 재밌는 날도 있고, 굉장히 힘든 날도 있고, 그..느끼는 폭이, 지루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ㅎ 주변에 재밌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루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 : 아, 진짜? 자기가 지루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제 :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기할 게 없긴 한니까, ‘그냥 똑같지 뭐, 그냥 재미없어.’ 그렇게 말은 해요.

고 : 그니까. 나는 그게 보이는 거랑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 : 으응~

고 : 되게 재밌게 사는 거 같은데 되게 재미없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 비법이 난 궁금하네요.

제 : 뭐요?

고 : 매일매일을 재밌고, 힘들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사는 비법. 아까 얘기한 거겠죠?

(핸드폰이 울린다)

고 :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제 : 네. 아까 얘기한 뭐요? /응?/아까 뭐 얘기했죠?

고 : 아까.. 그..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지금..아까 차라투스트라, 그 얘기 하면서 [6].

제 : 네..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그리고.

고 : 예쁜 거? 어떤 거?

제 : 버스타고 갈 때 제일 좋아하는데요, 길가.. 하늘 색 바뀌는 거 그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간판 이런 거.

고 : 되게 행복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거 같아요.

제 : 좋네요.

행복에도 효율성이 있다면 작고 익숙한 것 속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별일 없이 살지만 매일매일이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다.

영화와 랩

처음부터 제제의 요즘 일상이 내 관심사였지만, 그래도 그녀가 출연한 영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얘기를 하면 제제는 굉장히 쑥스러워한다. 예전에 영화 보러 갔다가 샀던 <out>의 ost를 갖고 있다고 하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니 세 명의 소녀들의 고민과 아픔이 처음 영화를 보고 들었을 때, 그대로 느껴진다. 고통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삶을 사는 게 과연 중요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다. 자신으로 있기 위해 세상과의 부대낌을 택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감수하는 사람이 주는 감동이 있다.

고 :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대개 지금 친구들이 다, 동아리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랩하는. 그리고.. 랩하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ㅎㅎ

제 : 아이고, 정말..

고 : 그리고, 어, 몇 살이었지 그 때? 어쨌든 되게 어렸을 때 영화를 촬영 했었고 저는 거의 그 때 시점에 보고 조금 더 몇 번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찍고 많은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 : 네

고 : 그 이후에 대학가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제 : 네

고 : 영화를 찍은 선택이나, 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이후에 그 영화가 어떻게 남았어요?

제 : 으음~~

고 :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제 : 그 영화가요?

고 : 네~ 노래도 되게 좋았고,

제 : 그냥, 그.. 영화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냥..이전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 목소리잖아요, 10대 여자애들이, 그걸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상영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도 많았고.

고 : 맞아요, 그랬었던..

제 : 천재 어머니 막.. 오셔가지고[7].

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같다.

제: 예, 그렇죠.. 네.. ㅎㅎ 남, 남은 거요? 하아.. 너무, 글썄요-

고: 되게 쑥스러운가봐요? 영화 얘기하면-

제: 네-

고: 왜 그래요? 왜 쑥스러워요? 자기 고백이 있어서?

제: 그냥 그 때 너무 어렸.. 어서요. 네. 옛날 일기장 읽어보면 되게.. 오글거리고 막..
막.. 너무 유치해, 막 이런, 그런 거 같이.

고: 으음~

제: 그 때는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네. 지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거?

고: 그 이후에 영화를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났죠?

제: 네.

고: 꼭 그 영화가 상영될 때가 아니라도 몇 년 지난 후에도.

제: 네

고: 그 영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어땠어요?

제: 그냥 미친 듯이 민망해하면서. ‘아, 몰라~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ㅎㅎ

고 : ㅎㅎ

제 : 봤다고 하면 사실 반갑긴 하죠. 그래요, 민망하네요.

고 : 그렇구나..랩은.. 계속 할 거잖아요?

제 : 그래요? ㅎㅎ

고 : 아니에요? ㅎㅎ 나중에 저랑 한번.. 앙상블 해볼까요?

제 : 뭐 어떤 식으로요? 노래?

고 : 노래.. 노래에다가 랩 입혀서..

제 : ㅎㅎ 재밌겠네요.

고 : 근데, 계속 할 생각이 있어요? 랩이요? 뭐 취미로라도..

제 : 으음.. 음..더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하는 거에 연연을 안 할 수 있게 되면 하고 싶어요.

고 : 음.. 지금은 연연하는구나.

제 : 그런 거 같아요. 동아리 하면서.. 네. 그냥..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고 : 아, 평가해요?

제 : 그런 과정들이 힘들어서요..

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나도 학교 가서 되게 싫었던 게 평가하는 거였거든요. 되게 위축되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제: 맞아요. 재미가 없어지는 게.. 그렇죠.

고: 아- 되게 엄격하구나~ 평가하고, 막..

제: 뭐 그렇진 않은데요.. 그냥..

고: 그래서,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제: 그렇다기 보다는.. 좋은 평가를 더 많이 해주죠.. 격려하고, 근데, 이진 정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저희 밑에 기수랑 저희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저만 그 친구들과 만나고 그랬는데, 근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요.. 저희에 대한- 그게 좀.. 내면화됐나봐요. 그래서..

고: 음...그렇군요. 아.. 언젠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제: 그러게요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약간 슬퍼요. 좋아하는 거를 잃어버린 거 같아요? 사실 개네들이 어떻게 말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그렇죠.

고: 아까.. 그.. 음에...이영언니 만났을 때도.. 느꼈던 건데.. 전화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전화할 수 있는 사이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화할 수 없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타이밍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때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 근데 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걸 파악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면. 인제 나중

에 돌아왔을 때, 아, 너무 중요한 거였어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거나..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랩이든.. 음 사람들이든 간에.. 그냥, 뭐.. 미친 척 한번 해보면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고 하니까..

제: 그렇죠..

고: 좋지 않을까..

제: 정말 좋은 조연이네요..

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라이브로. 푸하하

제: 네...ㅎ

고: 너무 감사하구요, 지루했죠?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물어봐서.

제: 그런 게 재밌죠..

고: 좋게 얘기해주시겠지만, 반성을 좀 해보면서, 미행으로 어떻게든 메워봐야 되겠네요.

제: 이거 녹취 풀려면 진짜 힘들 거 같은데요? 한 한 시간 넘었죠?

고: 네, 한 시간 넘었고 아까 한 번 끊겼으니까 한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와~ (박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 바쁜 일과를 보내고 가끔 함께 청소하고 밥을 먹으며 하루씩 산다. 별다른 가구가 없어 단출한 거실 탁자에 마주앉아 잔을 부

딛치며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장을 보면서 개인과 공동의 긴장된 병존을 지켜볼 거다. 나와 하우스메이트의 일상을 통해 또 하나의 레즈비언의 생애는 구성되고 있다.

[1] 여성영상집단 움의 호모 포비아 박멸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인 <Out>은 성 정체성을 고민 중인 세 명의 십대 레즈비언들이 셀프카메라로 직접 찍은 세 편의 움니버스 다큐멘터리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out.or.kr>

[2] 대화중에 짧게 지나간 상대방의 대답이나 반응은 /--- / 안에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3] 제제는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새벽 잠자다가 팔에 올라와 있는 곱등이를 발견한 일이 있다.

[4] 고리의 본명과 동일

[5]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레즈비언 20명을 20년 동안 1년에 한번씩 인터뷰 및 촬영하여 이후 결과물을 내는 작업에 제제가 인터뷰이로 참여함.

[6] 인터뷰 초반에 나온, 이 모든 생을 다시 한번 살아도 좋다는 얘기.

[7] 영화에 참여한 천재님의 어머니가 상영회에 오셔서 관객과의 대화시간에 천재님을 안아주며 화해한 일이 있었다.

진기 :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생존전략을 찾았어요.”

인터뷰 날짜: 2014. 2. 21. 금요일.

인터뷰이: 진기

나이: 25

생년월일: 1990. 3. 20

종교: 없음

인터뷰어: 홍시

남성역의 작은 카페에서 진기를 인터뷰했다. 나는 1월 말 즈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주의 세미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하면서 사는 그녀의 삶이 궁금했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잘 하는 그녀에게 무언가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것은 고맙게도 인터뷰를 허락해 준 그녀와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한 것의 기록이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이야기를 그려낸다는 것은 사실 이런 짧은 단편으로는 끝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것은 늘 가시화되지 않는 레즈비언의 삶이 작은 한 파편으로라도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레즈비언인 그녀의 현재를 기록하면서 나는 그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 한 사람의 삶은 그가 살아가는 시대를 고스란

히 반영하고 진기의 이야기 역시 그렇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세대가 바뀔 때 즈음이면 이곳에 적힌 이야기는 생애사라는 말 그대로 사료가 될 것이다. 그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읽히게 될까. 최명환씨의 삶을 읽어내면서 나는 협소하게나마 그 시대를 상상한다.

그것처럼 진기와 내가 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홍시(이하 홍): 먼저 진기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별명을 쓰는지 궁금해요.

진기(이하 진):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제 이름(본명)이 되게 예뻐요. 성소수자 활동 하면서 이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워낙 이(반) 문화 안에서는 닉네임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더 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름을 쓰면 성을 쓰냐, 안 쓰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불릴 이름을 정한다는 것의 의미도 있었어요. 제가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2007년 즈음인데요, 그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헤어지자고 했다가보다 호모포비아였어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은 존재니까 헤어져야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야겠다. 그게(호모포미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서 편견들을 바뀌야겠다, 세상을 바꿔서 그녀를 나에게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이어서. 당시 친구들이 워낙 같이 다니니까 커플 같다고 놀리면서 그 친구 이름 한 자랑 제 별명 두기에서 하나씩 따서 진기 커플이라고 불렀어요. 그 때 사명감에 넘쳐서 만든 닉네임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는 없어졌지만 계속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홍: 지금도 연락해요?

진: 연락 끊긴지는 5년 된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 같았

지만 남자를 엄청나게 만나면서 잘 살고,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홍: 그런데 그 친구가 호모포비아인데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진: 그때는 사귀는 줄도 모르고 사귀는 것? 좋으니까 계속 다니는데 그리고 장난처럼 사귀자고 하는데 어느새 보니 스킨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여서. 이후에 우리가 사귀는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호모포비아가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 너는 왜 그러냐 우린 왜 그러냐 이렇게 됐고.

홍: 그때가 2007년이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홍: 그전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 그전에는 정체화를 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수 박지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가 남들처럼 남자 연예인 안 좋아하냐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긴 했지만 정체화를 할 만큼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이전에는 정체화를 할 만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털털하고 칼,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정도.

홍: 그 친구는 2학년 때 처음 만난 거예요?

진: 네.

홍: 어떻게 좋아진 거예요?

진: 그 때 제가 반장이었고 그 친구가 춤을 잘 추는 친구였어요. 수학여행에서 반 장기자랑 준비해야 되는데 그 때 같이하게 돼서, 그 친구가 춤을 잘 추니까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좀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홍: 언제쯤 헤어진 거예요?

진: 중2때 사귀다, 2년 반을 사귀었죠. 고 1말 이었나 그때쯤 헤어진 것 같아요.

홍: 부모님은 아셨어요?

진: 엄마도 살짝 눈치를 챘던 것 같지만 엄마도 차마 그 사실을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홍: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진: 고3때 커밍아웃은 했어요. 엄마한테. 동생한테는 더 그 전에 얘기를 하고, 아빠 빼고는 알아요.

홍: 엄마한테 말하기로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진: 그냥 엄마는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젠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랑 같이 어떤 인생의 고비를 함께하는지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그냥 너무 당연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통? 해방?에 대한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홍: 그때 누굴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진: 음 그렇게 말하면 그 누구에게 피해가 가니까 레즈비언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다,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련 서적을 찢던 것 같아요.

홍: 그렇구나.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신 거죠?

진: 그날은 받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엄마가 너무 당황을 해서 아무 말 안했던 것뿐 이었는데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홍: 그럼 그 이후로 1년 동안 서로 전혀 대화 안하고 지냈던 거예요?

진: 아니요. 많이 싸우고 한두 달은 내가 얘기 꺼내면 엄마가 화내고, 일 년 동안 거기 관련된 얘긴 못하고 서먹하게.

홍: 동생은 몇 살이에요?

진: 동생은 이제 스무 살.

홍: 동생한테는 언제 얘기 했어요?

진: 동생 초등학교 때? 거의 그 친구 사귄 때부터 장난처럼 얘길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동생이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동생이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서 나와 사이가 나빠지고, 세상물정을 알게 된 것과 겹쳐서 나를 싫어하고, 싸울 때마다 레즈년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런 얘기들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애인이랑 쇼핑도 가고 잘 지내고 있어요.

홍: 그 당시에 엄청 상처받지 않았어요?

진: 그 당시에는 엄청 상처였죠. 동생이랑 나이차이도 많이 나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을 거의 업어 키웠어요. 둘이서 항상 시간을 보내고 둘이서 놀고 그랬는데 그런 동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 생각. 올 것이 왔다는 생각도 들고.

홍: 동생이 그런 발언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 미안하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건 니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동생이라 롤모델이 필요한데 제가 전형적인 언니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 애인을 롤모델로 삼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홍: 처음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진: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제가 학교에서 아는 척하고 다니는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신문 같은데 청소년의 동성연애가 우정을 착각한 것이다, 일탈이라는 기사가 당시에 많이 나서 그런 기사들 읽고 학교에서 누구 선배가 누구 선배랑 어쨌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그런 것을 인용하면서 호모포비아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랬던 나와 어 나도 그렇네, 사이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 여학교였어요?

진: 여중, 여고였어요.

홍: 괴리감을 느끼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진: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니까. 그런 와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존재가 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일종의 생존전략을 찾았어요. 그 친구의

생존전략이 회피와 호모포비아였다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공부를 하자, 인터넷을 찾아들어갔던 거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비정상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좋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홍: 혹시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있어요?

진: 음, 첫 번째 친구랑 사귄 때 그 친구가 섹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넌 남자다, 넌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다, 니가 남자면 좋을 텐데. 네가 나를 임신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관계를 외부에서 인정하게 될 테니까, 뭐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남자여야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남자가 될까. 죽고 다시 태어나면 될까 그런 마음에 자살시도도 해보고. 근데 그 이후에는 페미니즘도 만나고 내 몸을 긍정하게 되면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게 되었죠. 그때를 돌이켜 봐도 내 몸이 싫다거나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 다기 보다는 남자답다고 얘기하는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홍: 그렇구나. 커뮤니티 활동도 했었어요?

진: 제가 대구에서 살았었거든요. 대구에서는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인권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찾아간 게 한국엠네스티 대구 지부였어요. 거기 산하기관으로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알게 되면서 여성주의 영화 찍고 그런 것들 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성소수자들 만나게 되고, 대부분 성인이었고 나이대가 아무리 비슷해도 대학생이었어요. 거기서 또래는 못 만났고 2007년에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이카나 루시페르같은 친목위주의 커뮤니티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커뮤니티가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라틴이었고요. 그러면서 또래 청소년성소수자를 많이 만났죠.

홍: 모임은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서 한 거죠?

진: 네. 고등학생 때 주말에 엄마를 속이면서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새벽부터 도서관간다고 하고, 처음에 제가 아는 사람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 올리고 자료 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한명 두 명 가입을 해요. 그때 가입해서 만난 사람들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모를 처음 아니 이반 놀이터를 처음 했을 때 친구사이에서 제안을 했어요. 청소년성소수자 관련 사업을 하고 싶는데 이쪽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홍: 그때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였어요?

진: 그때 회원수가 350명 정도 됐고 그때 온 사람이 못해도 30명 많으면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모하면 적으면 10명 정말 많았을 때 100여명이 오기도 했고요. 정모는 계속 스터디 모임위주로 하다가, 이반놀이터는 강연, 우리끼리 공연을 한다든지 영화제를 하는 일 년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맨 마지막 이반놀이터 때는 180명까지 왔었어요.

홍: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진: 장소는 연대, 이대, 한양대 등 아름답게 빌려서 했어요.

홍: 고등학교 때는 활동하느라 바빴겠네요?

진: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홍: 그때는 만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진: 처음 2007년 여름에 이반놀이터 하면서 서울에서 첫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마음

에 드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때 만나게 되었죠.

홍: 얼마나 만났어요?

진: 그리고 쪽 만나서 정말 쪽 만나서. 2007년 여름에 사귀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제가 서울에 대학을 왔거든요. 2011년에 그 친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2012년에 제가 일본에 따라갔어요. 2013년 겨울까지 사귀다가 잠깐 헤어졌다가 지금 아마도 다시 만나는 상태. 그렇게 치면 7년 됐나. 헤어지고 다시 만나긴 만나는데 헤어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게 완전히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약간.

홍: 최근에 만난 적 있어요?

진: 지금 그 친구가 계속 일본에 있다가 2월에 잠깐 왔다가 남미 여행 중이에요. 설날에 잠깐 봤던 것 같아요.

홍: 다시 만났을 때는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진: 다시 만나기까지 많은 과정이 좀 필요했죠. 아무리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일종의 권력관계가 생기니까 그런 관계를 다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헤어짐에 이르게 된 것들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홍: 멀리 살아서 만나기 힘들겠어요.

진: 그래서 2011년에 일본을 일곱 번을 갔어요. 일본에서 2012년 1년 살았고, 1년 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니까. 2013년에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 총여 활동들도 하고 바빠서 많이 가지는 못했고.

홍: 그런데 아빠한테는 성정체성에 대해 전혀 말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진: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밀고 집에 내려가고 그러는데 애가 곱게 시집가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은 있겠죠. 확실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애길 못한 이유는 아빠가 집에서 가장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굳이 더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해방이 되는 느낌이어서. 이제 더 이상 평생 커밍아웃 안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정도의 해방감이 느껴져서. 아빠는 상처만 안 받게 잘 지내자는 생각.

홍: 그렇구나. 그럼 머리를 짧게 자른 건 언제부터였어요?

진: 재수할 때, 원래 항상 그러고 싶었는데, 머리가 무거워요. 확 자르고 머리가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삭발을 하고 오면 안 되니까 못하고 재수할 때 미용실가서 민 거죠. 나는 너무 즐겁고 신나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밥도 안주시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머리는 그래도 내가 가장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건드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잃지 않는 선에서.

홍: 머리 때문에 차별 받거나 불편한 건 없어요?

진: 제일 불편한건 공중 화장실이죠. 다니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맨 처음 머리를 밀었을 때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성들이 공포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살잖아요. 몰카, 성폭력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경계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고 그래서 생긴 노하우가 뭐냐 하면 화장실을 잘 골라서 가야해요. 동대문이나 고속터미널은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무조건 말을 거세요. 여기 남자화장실 아니라고. 처잔데 총각인지 알아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그런 게 귀찮아서 주로 홍대화장실을 가야해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움찔 하긴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올 곳에 왔다는 아우라를 풍기며 들어가면 가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요. 이어폰이나 모자를 쓰면 안돼요. 모자를 쓰면 수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이

어폰을 끼면 재가 정신없어서 여기 들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내가 올 곳에 왔다는 눈빛으로 가야돼요. 직장 같은 거 구할 때 과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는 직업이니까 선생님 정말 보이쉬 하시네요, 하는 정도가 끝이고 별말은 하지 않는데 식당보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여자 같지도 못하다면서. 일본에서 일할 때 한국 식당에서 식당보조를 했었는데 사실 일본 애들은 워낙 스타일자체가 자유롭고 그것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게 예의 처럼 돼 있는데 그럼에도 식당 주인아주머니는 한국인 같은 마인드여서 많이 괴롭히셨죠. 너는 왜 그렇게 여자 같지도 않게 해서 다니냐면서 손님들한테 애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냐 하면서 짜증도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홍: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요?

진: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넘겨요. 택시나 화장실에서는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니까 넘길 수 있는데 일자리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는 사람들은 딱히 대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될 일 같지도 않고. 저도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죠.

홍: 혹시 부치나 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 부치나 펌이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모방하고 이성애를 모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일종의 포지션이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부치를 남성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은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를 부치라고 정의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스타일처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 앞으로도 인권운동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진: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내가 뭘 하고 싶은 지를 생각하면서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

면서 했기 때문에 인권운동을 한다고 말하기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당사자 운동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인권운동이기는 한 것 같네요. 즐거운 한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즐겁고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도 같고.

홍: 주위 사람들은 알아요?

진: 웬만큼 커밍아웃한 친구들은 알아요. 고향 친구들, 동생도 대충 알고. 재가 뭘 하고 다니는구나. 엄마는 커밍아웃하고 일 년 정도 싸우고 난 뒤로는 서로를 다치게 하지 말자는 조약이 생겨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엄마가 까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총여 하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딸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좋아해서 총여 한 것도 그런 것처럼 보여서 딸이 출세를 하려고 레즈비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말하던 깨어있는 여성, 급진적이고 사랑도 자유롭게 하고 기존의 여성성에서 벗어난 그런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홍: 애인이랑 데이트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진: 맨 처음 사귀 친구랑은 교복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스킨십을 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맨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소문도 빨리 퍼지고 그래서 힘들었고요. 서울에서 만난 친구는 한 달에 한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고. 서울이 대구랑 다른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서울이 인권운동 단체수가 많고 활동이 많은 것도 있지만 서울에서 이런 머리를 하고 다녀도 쳐다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구는 이런 머리로 고속터미널에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느껴지는 분위기가 확실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홍: 중, 고등학교 때 학교에 소문나고 그러면 힘들지 않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불러 간다거나. 진: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반장이었고 전교회장에도 나갈 뻔하고 성적도 괜찮아서 선생님들한테 총애를 받았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애들이 타 일렸어요. 재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애들아, 이렇게. 애들이 괴

롭히기는 많이 괴롭혔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밥을 혼자 먹고 그랬죠. 가끔 폭력도 있긴 했지만.

홍: 어떻게 괴롭혔어요?

진: 가끔 폰을 뺏아서 통화기록, 메시지 보거나 반에 돌리면서 놀리고 세워놓고 뺑 돌아가면서 사랑이나 우정이나 얘기를 해봐라면서 폭언도 들어가고 살짝 폭력도 행사되고 그런 정도의 괴롭힘?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는데 사귀던 친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홍: 그런 것 치고는 꽤 오래 사귀었네요?

진: 제가 좀 끈질겨요. 한 일 년 정도는 정말 정말 잘 지냈어요. 우정인지 사랑인지 모를 때, 그 이후에 주위의 압박이나 그 친구의 호모포비아가 심해지면서 엄청 많이 싸우고 서로 칼 들고 싸울 정도로 그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그 친구도 하루하루 죽고 싶고 나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커뮤니티도 없었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폭력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지기 쉽지 않은,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친구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헤어지는 1년 반의 과정 속에서 그 친구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사귀기면서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든 2년 넘게 만났으니까 제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동성애, 성소수자 관련한 얘기, 커뮤니티 만드는 얘기를 하면 넌 아직도 그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나미가 떨어졌죠.

홍: 대학 다니면서 커밍아웃 한 적 있어요?

진: 대학에서는 타지에 와서 부모님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생활해야하는 상황이었어서 누구 만날 시간이 없었죠. 대학의 구성원들이랑 친하지도 않았고요. 미팅, 새터 같은

대학의 문화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끼어들 수도 없어서 커밍아웃 할 만큼 친해지지 않아서 커밍아웃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성소수자활동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거였고.

홍: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직은 어떻게 맡게 된 거예요?

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성소수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일해 왔고 청소년성소수자 문제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고 지금은 대학생 커뮤니티들에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반놀이터나 2010년 차별금지법 이슈 나오면서부터 활동하고 만나고 연대하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홍: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진: 시간이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 활동이 잠을 자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생활의 일부 같은 거라 시간을 할애해서 힘들다기 보다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말이 안 통할 때 힘들죠. 말이 통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는데 안 통할 때.

홍: 급여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원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는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직책이에요. 활동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봉사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홍: 엄청 바쁘겠네요.

진: 2010년에 서울 올라온 첫해잖아요 그때 만나던 친구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방학이긴 했지만 그 친구 간호를 해야 했어요. 크게 다쳐서 잘 움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하루에 과외스케줄이 4, 5개씩 잡혀서 한 달에 과외를 8,9개를 하는. 새벽에는 택시타고 병원에 가서 간호하다 6시에 나오고 잠은 이동하면서 잠깐잠깐 자고 그때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돈 문제를 떠나서 너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만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여유로워요.

홍: 앞으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주저 없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 일본에서 1년 동안 동거를 해봤잖아요. 같이 사는 게, 정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걸 몇 년 동안 바라왔던 건데 힘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일본어를 잘 못해서 일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렇고, 어떤 정리의 기준이나 생활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걸 맞추는 것도 힘들고, 당연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같이 살고는 싶지만 꽤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예요. 서로의 공간이 존중될 수 있고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홍: 혼자 자취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좋은데 외롭긴 하죠. 일이 바쁘고 집에서 자는 것 밖에 없긴 한데 집안일이 밀리고 설거지나 음식쓰레기가 여름에는 특히 제때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고, 아픈데 내가 죽 끓이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하긴 하죠. 근데 뭐 누구나 자길 보살피 줄 사람에 대한 판타지는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니까. 그런대로 살만해요.

홍: 지금 전공하고 있는 파이낸스경영은 원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진: 전공은 금융 쪽인데 원래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서. 자동차 산업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신기해서.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려면 경영학 과를 가야하지 않을까 해서 갔고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회계나 금융위주로 들어야 해서 좀 힘들어요. 마케팅을 들으면 전공이 인정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련해서 일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다들 취직이 안 되

니까 어디서든 일하고 돈 벌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홍: 취업하면 지금 하는 활동들하고 병행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진: 이사는 일선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뒤에서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고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활동보다는 병행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홍: 오늘 개소식 하는 별의별 상담소는 어떻게 알게 된 곳이에요?

진: 2013년 초에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때 10회기로 받고 쉬다가 지금 두 달 전부터 받기 시작해서 이번 주가 10회긴데 너무 좋아요. 상담 받으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처음에 받을 때는 이걸 왜 하나 싶고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예요. 자기표현 잘 안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전에는 나 혼자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좋았고. 나의 연애,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을 관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판단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고.

홍: 상담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진: 기본적으로 워커홀릭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내 생활이랑 일이랑 밸런스 맞추기가 힘든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1년 동안의 동거를 마치고 서울이라는 불안정한 공간에 정착하는 문제가 연애의 문제랑 결부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받게 되었어요.

홍: 연애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 제 인생에서 연애를 한 기간이 안한 기간보다 많아요. 심지어 그 중 한명은 내 인생의 1/4을 연애를 했어요. 되게 사람만나기 힘들죠.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죠. 좋은 사람 아니어도 만나면서 좋은 사람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헤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사람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홍: 애인 보고 싶지 않아요?

진: 처음에 만날 때부터 대구, 서울 이렇게 만나서. 서울에 있을 때도 1년 반 있었던 건데 6개월은 아프고 그 이후엔 일본에 있고. 그냥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이고 워낙 둘 다 자기 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서울에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끔씩 만나서 확 열심히 만나고 연락 자주하고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홍: 그렇구나.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요. 정리해서 다시 보여 줄게요.

진: 네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거나 메일 보내거나 해요.

진기와 인터뷰를 하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의 삶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다. 결국 분류나 정리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진기가 걸어온 시간들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녀가 말하는 ‘지금’을 글로써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의 기록이 더 많이 쌓이고 특정한 관점에서 그 삶들을 관통해내는 것을 주제로 잡는다면 다른 차원의 글도 분명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진기가 들려준 그녀 스스로의 삶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스물다섯의 ‘지금’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진기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또 그녀의 삶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짧디짧던 그 시절, 너무나 성숙하지 못했던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생애기록팀에서 준비하는 2014년 내가 하는 기록 첫 번째 못 다한 이야기 첫 글은 부산생애기록 팀원인 앤드님이 써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써보려는데, 나는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 고민 고민 끝에 떠올린 사람은 사실 8-9년 전엔가 너를 만나고 있을 때 (너 몰래) 채팅으로 알게 됐던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짧지 않은 글을 써놓기까지 했었는데, 정작 그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떠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글을 모두 버리고 이렇게 너에게 글을 쓰는 쪽을 택하게 됐어.

지금이라도 너에게 나는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어제 있었던 일이나 그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너 역시도 고민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 거야. 얼마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야.

너에게 우리의 이별은 어떤 의미였을까? 적어도 나에겐 내가 했던 이별 중에 가장 무난했던? 혹은 차분했던 이별이었어. 그때 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느 지점에서든 타협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던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은 우리를 헤어짐이라는 (어쩌면 그 언제가 됐든 한 번쯤은 일어날 일이었을 지도 모를) 결론으로 몰아갔었지.

그래도 우리가 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카페에서 너의 큰 눈에 고였던 그

렁그렁한 그 눈물이나, 학교로 돌아와서 통신사 직원한테 걸려온 전화에서 네가 커플요금제를 해지했다는 통보를 들었을 때의 슬픔, 그리고 충격은 아직도 나의 기억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나는 언제나 건잡을 수 없는 (성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사로잡혀 연애를 시작하곤 했었는데, (네가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외였지.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나로서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곁에 두고 싶은 애완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걱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일까? 너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나의 연애 중에 가장 길었던 관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로 유지되었었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넌 언젠가 내 눈 앞에서 결혼이란 걸 하게 되겠지? 그리고 모두가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알고 있듯이, 난 너의 가까운 친구 명분으로 결혼식에도 참석하게 되겠지. 난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너다운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어.

헤어질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었지만, 사실 난 언제나 너의 어머니나 언니가 너무나 (이 표현 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지만) 무서웠었고, 그 때문에라도 너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 (어쩌면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너와 헤어질 땐 네가 나와 있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와 있을 때 (적어도 어머니의 핏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테니) 더 행복할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이 (거지같은) 시스템에 속하게 되는 것이 행복할거라고 확신을 했던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사람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답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들이 머리를 어지럽히네.)

너와 함께 했던 4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헤어진지도 이제 5년이 지나가버렸네. 글을 마칠 때 즈음이 되고 보니, 이 짧은 글로는 그때 너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도저히 다 정리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너의 기억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색깔로 남아있을까? 난 아직도 비 오던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비에 맞지 않겠다는 걸 핑계 삼아 서로를 꽤나 꼭 끌어안은 채) 바닥 공사로 엉망이 된 학교 앞 길을 함께 건넌 그 날의 눈부신 기억이 너와의 시간을 증명하듯 선명하게 떠오른다. 가끔 꺼내볼 수 있는 추억으로 소중하게 간직할게. 젊디젊던 그 시절, 너무나 성숙하지 못했던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건강하고~!

Conceal! Don's feel! and Let it go!

파다

Conceal! Don's feel! and Let it go!

한국에서 무려 1000만의 사람이 본 미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다. 엘사는 선천적으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실은 오직 어린 여동생 안나만 안다. 둘은 애기시절 함께 눈을 만들고 놀다 안나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 부모는 엘사의 능력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 그 시선은 곧 엘사가 엘사 자신을 보는 시선이 된다. 결국 엘사는 자신을 숨기고 살게 된다. 성장하는 엘사는 점점 커지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부모는 장갑으로 그 능력을 막는다. 엘사는 그만큼 상처를 입는다. 그런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방패가 사라진 것이다. 영화는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엘사가 동생 안나의 사랑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문득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아니 어쩔 한국의 LGBT들은 모두 엘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숨겨야한다'

내가 처음 사랑을 느낀 순간 속으로 했던 말이다. 13살 머나먼쑹바강 빅뚜이를 닮은 소녀, 누군가 그 애를 괴롭히면 내가 가서 때려줘야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겼다. 선

과 악이 없는 순수한 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을 숨겨야만 했다. 13살 눈에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이상한 것이었다. 그때 레즈비언이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첫 사랑이 지나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다. 길으론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사춘기에 오는 반항은 내게 사치였다. 그 보단 도대체 나란 사람이 왜 이리도 이상한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참으로 외로운 시간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걸 말 할 수가 없었다. 학습된 공포 때문이었다. 사회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결합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기에 나는 내적으로 혼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종교를 버려야 했고, 중2때 좋아했던 친구에게 고백했다 왕따를 당했다. 그때 나는 나의 성적정체성이 공포라는 사실을 배웠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그들과 다르면 버려진다는 사실을.

나의 사춘기는 멈췄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도피처가 되어 준 건 공부였다.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들과 내가 같은 세계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평범한 친구로 기억되었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20대엔 다행히 인터넷이 생겼다. 그래서 레즈비언이 무엇인지 부치가 무엇인지 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적어도 나의 남성적인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21살, 나는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인정했다. 친한 친구들에겐 커밍아웃을 했다. 그리고 내 안의 갈등은 사라졌다.(물론 아직도 내가 100%여자라고 느끼진 못한다.)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자유로웠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졌다. 대학생의 특권답게 내가 여자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세상에 나온 후이다.

세상의 눈엔 나는 남성적인 여자이고 서툰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처

녀이다. 나는 여전히 남성적인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아줌마 소리도 듣는다.

놀랄 때도 있다. 아줌마와 남자를 오고간다는 사실에.

두렵다. 혹시 레즈비언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게 될까봐, 친구를 잃게 될까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화가 나기도 한다.

13살 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단지 세상이 조금 씩 변했을 뿐이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성적지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은 아니다. 국민의 90%가 동성애를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다. 500년의 유교문화가 있는 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십자가로 덮힌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나는 살아내야 한다. 갑갑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한국 국민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홍석천과 하리수가 TV에 나와 방송하는 모습을 20년 전에는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용기 있게 세상에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부쩍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을 사는 LGBT들에겐 그 행동으로 너무 잃을게 많다. 얼마 전 조디포스터가 커밍아웃을 했다. 50대가 되어 공식석상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여배우의 '프라이버시가 커밍아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에 위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한 자유를 꿈꾼다. 내가 어떤 모습이건 내가 나로써 온전히 세상에 받아들여질 날을. 그리고 두 세계를 살아가는 이 괴리감이 사라질 날을.

한국의 모든 LGBT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사랑하고 행복했음 한다.

엘사의 Let it go를 마음껏 부르고 싶은 밤이다.

꽃꽂한 짝사랑의 추억에서 성숙한 관계로...

벗들

14살 중학교 입학식후 첫 등굣길. 학교를 가기 위해 탔던 버스 안. 그 비좁은 버스 안에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 왔어요. 살짝 졸고 계셨던 거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계속 눈길이 갔어요. 눈이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탄창을 피우기도 했죠. 그 날부터 저의 학창시절은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시죠. 등굣길 버스 안에서 항상 선생님을 만났고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선생님 수업 시간을 내내 기다렸어요. 일부러 선생님과 마주치기 위해 선생님이 잘 다니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기도 해봤고, 선생님이 제 옆을 지나가시면 괜히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곤 했어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100미터 밖에서도 선생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 먼 거리부터 제 가슴은 쿵쿵 쿵쿵 뛰기 시작했었죠.

한 번은 하굣길 버스 안에서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가는 일이 있었어요. 10분 남짓한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선생님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후로 하굣길 버스 안에서 가끔 나란히 앉아 가면서 선생님이 들려 주셨던 이야기들을 전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조그만 스침조차도 고스란히 저의 기억 저장소에는 있어요.

중학교 시절엔 선생님은 늘 저의 설렘이 대상이셨고 동경의 대상이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엔 힘들어 하는 저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힘들 때는 언제나 선생님

이 생각났어요. 반 친구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 힘들다는 얘기를 올면서 전화로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 때 선생님은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이후에도 그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물어봐 주셨죠.

소심하고 소극적이기만 했던 저의 학창시절 때 제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선생님이예요.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나 따랐는지..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궁금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았고 그냥 설렜고 그냥 관심을 받고 싶었고 그냥 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풋풋한 14세 소녀의 풋풋한 첫사랑이자 짝사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 감정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참 신기할 따름이어요. 그 만큼 순수했고 순진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선생님과의 관계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물론 저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었죠. 잇을 만하면 연락드리고 잇을 만하면 연락드리고...이런 저의 부단한 노력 말고도 선생님과 우연한 만남이 참 많았어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고 저를 발견하시기도 하고, 새벽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반대쪽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서로 절대 만날 거 같지 않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면 집회현장에서도 만나기도 했었죠. 그러한 만남들을 보면 선생님과 전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고 혼자 좋은 해몽을 해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20대를 훌쩍 넘기고 부터는 선생님이 우러러 보기만 하는 스승이 아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옛 추억을 얘기하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인간관계의 고달픔을 얘기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 관계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구나 느꼈죠.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 오면서도 선생님은 언제나 제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

요는 없지만 그래도 커밍아웃이란 걸 해야겠단 다짐을 했어요. 선생님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나 봐요. 최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니 또다시 선생님이 생각나고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직 만나 뵙질 못했네요. 머지않아 만나 뵙게 되면 꼭 커밍아웃을 할 거예요. 저의 진심을 선생님은 분명 아시리라 믿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챙겨주고 기억해 준다고...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늘 든든한 사람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학창 시절엔 단지 짝사랑 같은 작은 사랑의 존재였지만 지금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의 학창시절 고백부터 지금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고 편한 언니 같은 분이시라고... 제 얘기를 다 들려 드리는 날까지 언제나 건강하시길 그리고 좋은 우리 인연도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기억 못할 언니에게.

조각배

기슭으로 달려드는 모기떼에 당한 것처럼 언니를 보자마자 내 마음은 언니만을 향해 통통 부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 크면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은 남자랑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따금 부드러운 여자애들을 변태 같은 눈으로 보는 내 자신이 싫어 더 깊은 자기혐오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왜곡되어 드러난 열등감이 라고 치부했었죠. 애써 난 동성애자가 아닐 거라고 부정해오며 살았던 시간들을 언니는 단박에 부숴버렸어요.

종교고, 윤리고 따져 볼 새도 없이 그냥 매일 언니가 보고 싶었고,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런데 언니에게 난 그냥 손님일 뿐이었고, 그랬네요. 난 한 번도 무얼 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의 가학적인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무서워서 그렇게 숨죽여 살기만 했는데, 언니를 본 순간 내가 그렇게 추하게, 개처럼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빠에게 대들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덜 불행했으면, 이맘때쯤 언니를 만날 줄은 미리 알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예쁘고, 더 밝고,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언니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언니 주위를 맴돌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날을 억울해 했어요. 따지고 보면 어쩌면 언니는 그냥 처음부터 여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것뿐일 수도 있는 데도요.

생각할수록 재밌는 건, 난 언니의 일상에 작은 파장 하나 일으키지 못하는 아주 먼

타인인데, 나에게 언니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언니 때문에 여성주의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이쪽 사이트에 가입했고, 이쪽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게 너무나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지금의 애인도 만나게 되었고요.

첫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겐 미안했지만, 언니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를 볼 때는 무엇을 고민해볼 틈도 없이 모든 마음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그렇게 언니가 내 인생을 거쳐 가면서 나는 사랑의 열정을 그리고 확신이 무너지고 체념이 오는 순간을, 또 사랑이 추억이 되는 과정까지도 모두 겪어가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장난스러운 눈빛, 해맑은 웃음기 같은 것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나, 시원한 향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그 때는, 언니의 짧은 한 마디 인사나 눈웃음에 갇혀 내 하루하루는 온통 뜬구름 속에 마비되어 있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짝사랑의 절망감도 열어지고, 환상도 희미해지더군요. 이젠 내 곁에 있는 애인-내가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는-의 아름다움이 더 따뜻하게 다가와요. 그러나 사랑을 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니 가족들과 부딪치기도 하고, 세상의 시선에 눈치를 보기도 하다 보니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직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 건지 두려운 날도 있어요.

언니를 기점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서, 때로는 잘살고 있는 건지 걱정이 드는 걸, 언니 탓을 할 순 없겠죠. 아니 오히려 언니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의 걱정이 많이 덜어지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나 순수하게 갈구했던 제 마음이, 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 더 빠르게 쿵쿵거렸던 심장은 내가 가진 마음이 비윤리적이거나 비종교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랑뿐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되니까요. 나는 내 사랑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고 되뇌 수 있는 체험적인 근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갈망을 따라

가는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서 정말 고마워요. 너무나 갈망해 용기가 절로 나는 마음을 가져보게 한 것도 고마워요. 덕분에 난 더 과감하고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한 번도 감내해보지 못한 방황과 모험을 자처하게 하고, 그 속에서 애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돌아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의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가물가물해진 언니! 언니에게도 나에게 언니 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사람이 있나요? 모르겠지만, 그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나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언니도 쉽지 않은 세상살이,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길 바래요.

언니를 첫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은 어떤 여자애가.

그대와 나 사이에는 섬이 있다.

자네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중-

그대와 나 사이에 추억이라는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있다.

그대에게.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 흘렀다.

철없이 날뛰던, 무엇이 되겠노라, 어떻게 살겠노라, 다짐하던 때가 꼭 어제인 것만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대에게 닿지 않을 글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몇 자 눌러 적는다. 오랜 외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그대와 연락이 닿기만을 기다리다 우연찮게 연락처를 얻게 되었지. 전화기를 들었다 댔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그대 번호 눌렀다 취소하기를 수백 번, 그대를 확 흔들어 버리고 싶은 마음 하루 수천 번, 보내지 못한 문자는 보관함에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그대에 대한 그리움

은 커져만 가고 떨리는 마음 애써 누르며 지내기를 수개월을 넘기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적응하기도 전에 서로에게 빠져 철없이 지냈던 20살. 무엇을 해도 예쁜 나이, 꽃 같은 나이에 사랑하고 사랑했었지. 등교하는 날보다 그대 자취방에 가서 뒹구는 날이 더 많았고, 어쭙잡은 요리솜씨 발휘하며 서로에게 먹여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토라지고 그러다 다시 웃고, 대밭을 끼고 산책했던 일이며, 임신한 사람처럼 꼭 순대가 먹고싶다고 때를 쓰는 그대를 위해 칠흑의 어둠을 뚫고 순대 사러 간일이며, 나에게 먹여주고 싶다고 김밥 만들어 쓸다가 손가락까지 쓸어 피범벅인 도마를 만들었던 일, 장 중지 같은 작은 그릇하나 사면서조차도 신혼부부가 이런 기분일까 하면서 행복해하던, 용돈 차곡차곡 모아 내 옷사주던 그대 마음, 영화관에서 아슬아슬 하게 했던 뽀뽀, 폭우 쏟아지는 날 라디오에서 ‘여보게, 저승갈 때 무얼 가지고 가나?’ 책 광고 혹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는 수험서 광고 때 공포에 가까운 목소리가 무섭다고 내게 안기던, 햇살 좋은날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가난한 처지 한탄하며 이다음에 돈 벌면 정동진이며, 땡 끝이며 여행하자고 지도에 동그라미 그리던,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여자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밤새 응원했던 우리…….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부모님께 거리낌 없이 나를 소개하던 그대, 비 소리를, 안개꽃을, 라일락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대…….

정신없이 그대에게 빠져있을 동안 몇 개의 F와 함께 성적포기도 되지 않는 학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그대는 나랑 먹고 놀고 뒹굴며 거의 나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장학금까지 받더군.) 어차피 학교적응도 못했고 적성도 맞지 않는 과를 때려치우고 싶었어. 그대도, 부모님도 모르게 휴학을 하고 적잖은 방황을 하다 언니한테 들켜 뒤늦게 다시 수험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대와 헤어지게 되었지. 그때 그대가 내게 준 편지-얼마 전 시골집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흔적조차 없이 타버렸지만- 우리 추억 다 가져가……. 다시는 돌아보지 마……. 라는 글귀가 아직도 가슴을 후린다. 그대가 나에게 봄비처럼 젖어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었어.

철학을 접하고 역사를 알고 사회학에 눈을 뜰 때 즈음 학교생활도 차츰 적응되었고,

학생운동을 가멸차게 시작할 무렵 내 오빠에게 학생운동 주도 배후인물로 수배령이 떨어졌고, 얼마지 되지 않아 구속되었지. 당시 학생운동하다 구속되면 거의 모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었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부모님께서도 나를 예의주시하고 계셨고, 나 또한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에 조용히 지내며 적극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었지만 소극적이거나 학생운동계열에 몸담게 되었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대에 대한 내 마음도 차츰 희미해지더군. 그해 9월 광주 망월동 5.18 묘지 참배를 하러갔다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 졸업과 동시에 헤어지긴 했지만.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반도를 휩쓸 무렵 그대의 친구로부터 그대 소식을 들었어. 27살 즈음부터 시작된 방황, 직장동료로부터 사기도 당한 상태라 그대에게 초라하고 모자란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숨어버렸어. 그 뜨겁던 월드컵 열기도 나의 방황을, 자격지심을 잠재울 수 없었어. 혹독한 방황이 시작되었지. 사각의 방문을 열면 세상 사람들 모두 뽁뽁 숨어버려 나 혼자 버려진 듯한, 어디엔가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술래가 된 듯한, 수십억 인구 중 단 한명이라도 내편이 되어준다면 설령 술래가 된다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숨바꼭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살의 내가 그대를 떠난 후 그대 심정이 내가 느꼈던 술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대 편이 되어주지 못한 내가 미웠고, 감기몸살에 누워있는 그대 이마를 따뜻이 짚어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김밥 쓸다 엄지 끝 살집이 잘려 나갔을 때 꼼꼼히 약발라주지 못함에, 한 번 더 꼭 안아주지 못함에, 가슴 치며 후회했고, 지금도 후회한다.

서른이 훌쩍 넘고 나서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삶의 여유가 생길 때 즈음 그대는 이미 외국으로 떠나고 없었지. 싸이월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그대가 내게 먼저 연락을 했을 때 난 끝나지 않은 진행형 사랑이라 여겼고, 그댄 이미 끝났다고 선을 그어 그 선을 넘지 말라했지- ‘네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라는 쪽지 글은 무슨 뜻일까? 그대가 말한 ‘너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동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성애를 뜻하는 것인지 지금도 궁금하다-

불현듯 찾아온 또 다른 사랑은 먼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대 생각, 또 다시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더군.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하고, 삶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할 때 시작한 사랑이라 행복하더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사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려하고 믿었지. 몇 번의 해를 넘기고 서로에게 익숙해 질 때 즈음 그 분이 이별을 고하더군. 현실의 벽이 무섭다고, 이대로 살기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잡을 수가 없더군. 사랑에 있어 나는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객체임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어. 살다보면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에 아프지만 어쩔겠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중-

그대와 나 사이에 추억이라는 섬이 있다.

나, 이제 그 섬에서 나오려고 한다.

내게만은 피해 갈 것만 같은 마흔을 맞이하고 걸어온 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그대의 추억과 내 추억이 부딪힐 때, 꽃 같은 20살의 우리를 그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커서만 껌박이는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사람의 뇌가 컴퓨터 기능처럼 delete 버튼 하나로 저장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대는 우리의 추억을 어떻게 할까? 흔적도 없이 지우고 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좋든 싫든 그대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 지울 수 없다는 것만으로 인간의 뇌구조에 감사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듯이 내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소중한지 않는 추억 없다. 다시 열 손가락 깨물었을 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 중 가장 눈부시고, 찬란하지만 가장 아픈

사랑은 그대이다. 그대, 내 첫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끝사랑도 아니다. 그대에게 반하기를 몇 초, 사랑하기를 1년뿐이지만, 그대를 잊기에는 평생이 걸릴 것 같다. (과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질책할 것 같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산도 금방 변하는 이 시대에 나라고 변하지 않았을까? 적잖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발전 중이네. 질책 마시게.)

더없이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나날이 성장하는 요즘 날의 내 삶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더 행복하고 더 찰랑이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 누군가가 그대이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그대를 흔들고 싶지 않다. 그대 또한 행복하고 찬란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터이니, 그대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다. 다만 그대를 너무 이른 나이에 만나지 않았나, 내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맘때쯤 그대를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내 살아온 생의 반을 진행형이라고 믿었던 그대와의 사랑을 이제 중지부를 찍고자 한다. 그대 아닌 사람들을 만나 사랑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와의 사랑이 진행형이라고 여겼던 내 어리석음을, 언제 돌아가더라도 나를 반길 것이라고 믿었던 내 이기심을, 추억의 섬 가장자리만 맴돌 거리는 바보 같은 이 미련함을, 변치 않을 사랑이라 믿었던 혼자만의 착각을 그대와 나만의 섬을 떠나면서, 20년이 지나고서야 버린다.

끓는 주전자 안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의 수분으로 변해 비 되고, 눈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 시내를 이루고 강을 만들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대, 그대 마음, 그대 사랑, 그대와의 추억이 내 삶의 바다를 이루고 추억이라는 섬까지 형성시킨데 큰 역할을 함에, ‘그대’ 존재만으로 감사하다.

그대……. 부디 행복하시라.

그대와 나 사이에 섬이 있다.

아주 가끔이라도

그 섬에 들러 주오.

언니, 언니. 나의 그대였던 언니.

14.05.22

Y

언니, 오랜 시간동안 나의 그대였던 언니.

연락이 끊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년을 못 본 나의 그대였던 언니.

나의 침대를 모두 사랑과 동경으로 채웠던 그대.

언니를 혼자 오랜 시간 짝사랑했고 그 후에는 동경했고 그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던 오랜 기간을 지나, 이 모든 것을 깨닫고서도 언니에게 내가 언니를 좋아했다, 많이 사랑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못해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어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만나 어렵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내 앞에서 울었을 때가 생각나요. 언니가 잠에 잘 들지 못해 언니 집에서 언니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집에 갔던 기억도 나고. 사랑과 동경이 모두 끝나고 도 언니 연락만 오면 그렇게 설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요 몇 년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언니에 관한 건 거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 기억력 진짜 안 좋은데, 언니 처음 본 날, 언니에게 처음 했던 말, 꽃을 전한 날, 언니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 날도, 언니가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것도, 모두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간 것도. 같이 유람선 탄 거 기억나요? 나 정말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해봤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대로 시간이 끊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

덕분에 경험해 보았어요.

함께 걸으면서 봤던 언니의 옆모습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단점까지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다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언니가?아무리 올려다봐도 닿지 않을 것 같던 언니가- 어느 날 내가 손 내밀면 닿아 잡힐 것 같은 사람이 되어있어 두려운 적도 있었어요. 아주아주 크게 느껴졌던 그대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 되어 부서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기 전후였겠죠. 당시 사랑과 동경의 모든 시간이 지났지만 언니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10대 시절 내가 알던 언니는 아주 크고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간 또한 잘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언니에게 고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뻥 차이고 말았더라도 아마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삶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시간들, 그 경험들, 감정들 충분히 소중한 아름답고 지우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닿지 않더라고 이런 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후에, 언젠가 언니에게 내가 언니는 오랜 시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언니는 진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무튼 언니, 언니는 지금 여자를 만나는지 남자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니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일을 하지만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니 곁에 있는 부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언니를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피해가지 않는다면 강

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언니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아한 마음이 크고 길어서였을까요. 아직 그러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언니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연락하면 꼬맹이-라며 “넌 이제 몇 살이니?”하고 벌써 그렇게 됐냐고 놀라고도 여전히 꼬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언니에게 꼬맹이인 귀여운 동생이자 친구로 언니와 계속 지내고 싶어요.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달까.

언니, 언니. 나의 그대였던 언니.

이렇게라도 전해요. 많이 사랑했어요.

아빠에게 : 2013년 3월 10일, 박혜정

아빠. 이제 저도 30대 중반이니 아빠보다는 아버지라는 말을 써야 할텐데 아버지는 너무 어색해요. 그냥 아빠라고 할게요. 이 편지가 아빠에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편지를 쓰는 게 힘들긴 해요.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편지를 썼던 게 언제였더라. 4년 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 생일이었던 것 같고, 아빠한테 커밍아웃한 해였거나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내가 기대한 것보다 성숙하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밤 9시가 넘어서 아빠가 전화를 했지요. 우리가 어릴 땐 딸 셋 중 날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일 멀게 느껴진다고, 서로 좀 더 노력하자 하셨지요. 내가 느낀 거리감을 아빠도 느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어디서 이런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어릴 땐 아빠와 나의 세계 사이에 별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책 읽는 사람은 아빠랑 나뿐이었고, 그래서 나는 아빠 책장에서 많은 책들을 꺼내보면서(김현희의 '이젠 나도 여자가 되고 싶어요'를 비롯해) 나의 세상을 넓혀갔어요. 아빠가 사셨던 아라비안 나이트 무삭제 전집을 내가 보고 있는 걸 알고 아빠가 '너한테는 아직 그 책이 좀 이르다'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요. 중간 중간 야한 장면이 나와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한 부분을 빼면 아빠와 내가 별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거리낄 게 없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에 가서 사회과학 도서를 많이 읽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알게 되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아빠가 세상을 보는 시각은 많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는 경상도 중심의 지역의식을 갖고 계시고, 역사와 정치를 보는 관점이 저와 많이 다르지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빠와 별다른 견해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 주제로 토론해 본 적도 없지만 '여자는 이래야 돼'하는 등의 말씀을 한 번도 안하신 걸 보면 딸만 셋 가진 아빠로서 성차별적인 의식은 갖지 않으려 나름 노력하신 것 같아요.

나는 아빠 세대는 당연히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래서 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최대한 미뤘고, 그러다 5년 전에 커밍아웃했을 때, 내가 아빠 앞에서 너무 많이 울면서 이야기해서인지 아빠는 "왜 울고 그러냐. 네가 행복하면 됐지."라고 하시곤 헤어지기 전에 내 손도 꼭 잡아 주셨지요. 그게 너무 힘이 많이 됐고, 한편으론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면서 딸을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 다음 해에 했던 영화감독과의 인터뷰에서는 "마음 정리가 됐다. 이 아이들은 전생에 부부의 인연이었을 것이다.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잘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아빠가 내가 이성애자가 되길 원한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언니나 동생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올 때 내가 해니씨와 함께 나타날 때보다 더 기뻐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걸 아마 제 자격지심일 거예요. 동성애자라서 아빠를 실망시켰다는, 그 실망감을 없애지 못할 거라고 느끼는 데서 오는 자격지심.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집에 갈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커밍아웃하고 나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전보다야 가벼워 졌겠지만, 여전히 편하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함께 울고불고 싸우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일까요. 커밍아웃의 과정을, 그 과정에서의 상처 치유를 각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해지고 불편해진 것일까요.

완벽한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다들 세대 차이라는 게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저도 확실히 알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려 노력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아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한 덕분에 큰 다툼이나 상처 없이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앞으로 저도 더 노력할게요.

2013년 3월 10일

박혜정

To. 엄마 : 2013년 5월 27일, 이정인

엄마 이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저했는지.
출근할 때나 집에 돌아와서 언제나 살가운 인사 나누며 얼굴 마주하면서도
정작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못하고 나중으로 밀어두고 있었어.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결혼하라는 그 혼한 삶은 소리도 안하고
삼십 몇 해를 혼자 지내는 줄 아는 나를 보며 엄마 마음은 어떨까.
많이 걱정하고 있겠지. 별이도 시원찮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하고.

그런데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비밀이 많아졌다고. 그게 엄마 불만이었잖아?
지금까지 이십여 년 동안 말 못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남자가 아니라.
엄마 딸은 여자를 좋아해. 친구처럼이 아니라 연인으로.
몇 번의 연애를 여자들과 했고. 지금 애인과는 사귀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참 믿음 가는 사람이라 요즘 나는 여느 연애 때와 달리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
아쉬운 건 일 때문에 외국에 가 있는데 머지않은 때 돌아올거야.
얼마나 좋으냐면 애인이 한국에 다시 오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을 만큼.
내가 애인이라고 소개하지 않더라도 엄마는 웬지 느낌으로 알거야.
엄마 마음에도 차는 사람일거야.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지.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게 일반적이니까. 낯설 수는 있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야.
아. 이런 건 이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충만할 수 있다는 기분은 정말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든든하게 기분 좋은 것.

똑같은 봄별이 그리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시원한 여름 그늘조차 새로워지는 느낌.

사랑이. 그 느낌이. 그 감정 변화가 신기할 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 나는 혼자 사는 것보다 마음 맞는 애인과. 여자와 살고 싶어요.

그게 나를 살리고 엄마 딸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그래서 엄마 아플 일 정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하고 받아줄 것 같아. 엄마한테 축하받고 싶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

가끔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나도 사랑한다고 축스럽게 말하지만
실은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온 마음을 다해 대답해. 내 마음 알지?

엄마 사랑해요. 나의 또 다른 사랑도 엄마가 감싸줬으면 좋겠어.

2013.5.27

From 엄마와 그녀가 함께 식사할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엄마, 딸

사랑하는 엄마: 2013년 6월 첫 날, 유빈

엄마, 안녕?

당장은 가 닿지 못할 편지를 쓰려니 많이 어색하네.

엄마와 아빠의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생일 등

크고 작은 날들마다 카드도 많이 쓰고 편지도 종종 쓰는데

이번만큼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편지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말들을 엄마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

엄마, 십여 년 전 엄마가 무심하게 내게 했던 질문을

아직도 난 기억하고 있어.

“너, 동성 연애하니?”

하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엄마는 아침부터 알아볼 게 있어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난 엄마 등 뒤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엄마의 표정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때 엄마 목소리는 마치 “오늘 늦니?”와 같은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듯 했지.

나는 무슨 소리야, 라고 어이없다는 듯 대꾸하고는

허둥지둥 학교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

사실 그 날 학교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 때

“응!”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동성연애’는 잘못된 표현이야,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 엄마.

그 때 나 연애 중이었어.

엄마에게 당신 딸은 십 몇 년째 솔로이지만

나는 최근 몇 년간을 빼면 지속적으로 연애 중이었다고. 흐훗.

그렇기 때문에 난 더 놀랐겠지.

엄마는 늘 나에 관해서 기민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척 하는 것들도 많았으니까.

엄마가 그렇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때 뭔가 알고 물어 본거야?

십 년째 궁금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 더더욱.

있잖아, 엄마.

엄마가 친한 친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어.

친구가 아닌 연인이.

크리스마스에 왜 데이트를 안 하고 늘 친구들이랑만 노냐고 타박 했지?

도리가 없잖아, 엄마에겐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야.

그래도 난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물론 엄마와 나누는 하루하루의 한 구석에 커다란 비밀을 묻어두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데,
무슨 말을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엄마와 일상을 이야기해야 할 때는
내 인내심과 연기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 속 기쁨이 가득한데,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보여 주고도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는 한없이 아쉽기도 했고.

하지만 난 여전히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왜인지 알아?

십여 년 전 엄마의 목소리.
무심했던 그 목소리 때문이야.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혀 알 길은 없지만
추측하건대 내가 아는 엄마는,
그 질문을 그저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야.

그런데 그런 평온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면
언제가 될지 모를 어떤 날에 내가
“엄마, 난 동성애자예요.”라고 입을 떼었을 때
적어도 숨을 고르는 시간은 가지고 나서 무슨 말을 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런 때가 와서
애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으로 봐선 영 요원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

나는 내 권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만큼만이라도 계속 할 거야.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이런 중요하고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훗날에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그 날이 오면
십 년 전 그 때처럼 무심하게 물어줘.

“파트너하고는 잘 지내니?”

이렇게 말야.

2013년 6월 첫 날,
언제나 당신을 믿고 있는 딸, 유빈.

엄마 : 2013년 6월 16일, 공지훈

엄마, 전 언제나 엄마한테 숨기는 것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엄마한테 말씀 못 드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엄마,

저 사실은 연애해요.

그런데 사귀는 사람이 여자예요.

언젠가 엄마 아빠가 방송뉴스에 나온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선진국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있대요. 동성애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엄마아빠한테 제 연애를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숨기고 지내온 걸 용서하세요.

엄마, 저도 왜 세상 많은 여자들처럼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좋아할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10년 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좋아하지 않는데도 다른 여자들처럼 남자와 결혼하며 살게 된다면 전 아마 큰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 어리석게도, 엄마를 벗어나고 엄마 말씀을 거슬러야 제 꿈을 이룰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30대에 들어서서 생각해보니 엄마는 늘 제 편이셨어요. 제가 애인과 싸우고 집에 돌아와 침울하게 있을 때 무슨 일 있냐며 그래도 친구를 이해해주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놀라면서도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안 믿으시다가 이젠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엄마는 결국 날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하시는 걸 알아가요.

엄마, 저는 가족들이 이런 저를 이해 못한다고 해도,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사귀는 친구를 가족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시시콜콜한 연애얘기들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제 애인을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엄마, 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을 하지만,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잘 살 거예요. 엄마아빠한테 효도하고, 동생 더 잘 챙기고, 조카가 생기면 많이 예뻐 해줄 거예요. 저한테 좋은 엄마가 되길 바라셨지만, 전 좋은 딸, 좋은 누나, 좋은 고모가 될 거예요.

엄마, 제 사랑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잘 응원해주세요. 엄마처럼 밝고 명랑하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2013. 6. 16. 엄마의 밝은 미소를 닮고 싶은 딸 드림.

엄마 닮아 한평생 똥고집 딸 올림 :

2013년 6월 30일 새벽에

안녕, 이여사?

라고 써놓고 하안참을 멍하니 꿈뻑꿈뻑,

뭔 소릴 해야 하나 그러고 있어.

엄마 생신 때도 카드 쪼가리 하나 드리지 못한 한평생이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암튼 운을 떼기가 이렇게 힘드네.

일단 엄마. 청심환이라도 먹고 와 봐.

그러니까 때는 일천구백구십몇년 여름...

엄마도 또렷이 기억할테지만 그 후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개에 대한 너의 감정이 도대체 뭐니?”

그 친구에게 쓴 편지.

사촌이라는 자가 노트를 뒤져서 그걸 발굴(?)해냈고,

절절하게 마음으로 써내려간 내용들이

이모에게로, 다시 엄마에게로 전해진 거잖아.

지금 생각해도 애뜻하고, 힘주어 잡으면 깨질 것 같은

첫사랑을 마주한 나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구역질을 불러일으키는 변태적인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엄마는 내게 물었던 거야.

도대체 너의 속내가 뭐냐고, 마음을 까밝히라고.

몇 시간인지 기억도 안나.

고문에 가까운 그 시간을 무턱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견뎌내었어.

엄마의 기억 속엔 녹초가 되어 그 자리를 떠난 나의 뒷모습이
그 사건의 마지막이겠지만,
집을 나서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부터
눈물에 콧물에 몇 발짝 뿔 때마다 주저앉아 가슴팍을 부여잡고,
새벽이 올 때까지 마냥 걷고 또 걷기만 했어.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 그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벌어진 일들로 이어 붙이는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야.
엄마도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들,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의 존재에 감사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엄마의 딸은 동성애자입니다. 레즈비언이라고도 하지요.”

그 이후로도 나의 삶은 쭉 그랬고, 지금도 그래.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입에 풀 칠 할 돈을 벌고,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
엄마.
나의 삶을,
특히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라는 것은 참 어려워.
‘삶을 나누는 반려자의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30대에도 여전히 질풍노도의 한가운데 있던 천둥벌거숭이 남자가 좋아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그걸 이해하기란 나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험난하고 외로웠던 대하소설 몇 권짜리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좀 다르게 살지 그랬어, 엄마.'하는 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 삼켜 버리는 생각.
그저 엄마의 선택과 그에 따른 삶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금쪽같은 내 새끼”

엄마. 엄마.

내 친구 중엔 나와 같은 동성애자가 많아.
개네 중에 한 명이 올 해 초에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했어.
엄마, 아버지, 나는 동성애자예요, 라고.
그 친구 아버지는 허... 그거참...을 연발하시다가
너도 어쩔 수 없는 거라는데 내가 어찌겠냐 하였고,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어머니가 친구에게 보내신 문자,
앞도 뒤도 밀도 끝도 없는 한 마디였어.
금쪽같은 내 새끼.
그 친구도 나도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나는 또 속으로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어떨까,
우리 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부러움.
엄마 나는 동성애자야.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엄마 앞에서도 푹푹한 척, 잘난 척하며 할 수 있을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서 어버버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정말 이 편지를 엄마한테 보내야겠다,
하고 결심하면서 동시에 엄마가 편지를 펼치면

편지가 불에 타버리는 상상을 하고 있어.

가제트가 받는 비밀지령처럼.....

참 어려워 엄마.

엄마.

나는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해.

그러한 짐작에 그냥 슬쩍 편승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어 볼까 하고

일종의 ‘커밍아웃 시나리오’ 같은 걸 써보고 있어.

말로 할 수도, 이렇게 글로 할 수도 있겠지.

방식이 어찌 되었든,

내가 엄마한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그만큼 엄마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어떤 갈등을 겪더라도 엄마와 함께 하는 삶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라는 걸
꼭 알아주어.

그리고 엄마, 나에겐 좋은 반려자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고 비참하게 늙어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은 기대가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아, 참, 이건 미소를 절로 머금게 되는 좋은 감정들인데

엄마에게 전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

언젠가 이런 얘기들을 두런두런 나누며

웃음 가득한 엄마 뺨에 뽀뽀해드릴 날이 있기를....

2013년 6월 30일 새벽에

엄마 닮아 한평생 똥고집 딸 올림.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에게 : 2013.7.8, 레자

진실하게 편지 써본 건 오늘이 처음이겠군요.

바다의 날씨는 어찌 춥지도 덥지도 않은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렇게 편지를 쓴 건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을 쓰려고 편지를 써보아요.

아빠

아빠는 저에게 좋은 분이셨어요 새아버지지만 진심으로 저를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면서
친아들보다 더 잘해 주셨지요.

시골에서 바다에서 선장 일을 하시면서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여자아이가 “아빠”
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빠는 기분이 좋아서 온 동네잔치를 할 기분으로 술을 드시면
서 자랑하셨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저도 용기를 내어 불러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결정을 하게 된 건 아빠가 저희 엄마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고 하게 되었죠. 험한 바
닷가에서 여자혼자 딸아이는 타 지역에 보내고 혼자 식당을 꾸려가면서 있는데 뱃
일하는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싸우고 시비걸기 일수일 때마다 엄마를 도와주셨고
엄마도 나름 여장부였는데 아빠가 도와주시는 걸 보고 진심으로 받아 드리기 시작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딸이 지금도 좋으신지 장난도 치시고 농담도 하시는 거보면 참 좋아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시곤 하죠. "저 자식 으이고 허구한 날 술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만 그래도 아빠가 좋으신지 매일 매일 술국을 해서 아침상에 놓아두시는 걸 보면 천
생연분인가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런 아빠를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엄마.

우선 27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 이제 61세이시면 벌써 손자 손녀 볼 연세인데 결혼도 안하고 있으니 속상하지?

알아 그 기분. 주위 친구들의 한탄을 듣고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내가 편지를 3년 만에 써보지? 그때는 대충그냥 쓴 편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쓰려니 쑥스럽구먼. ^^

나이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컴퓨터도 스스로 배우시고 스마트폰도 해야 한다면 스스로 터득하고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보면 엄마는 신세대 인가봐. 그런데 엄마 27년 동안 키워온 딸이 고백이 있어서 편지를 썼어. 지금 생각하면 안해도 되는 데 왜 하는 걸까 생각하는데 평생 후회 할 것 같아서 편지를 써봐,

엄마가 그랬지.너무 여자들만 하고 논다고.

"동성연애 하나?"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만약에 그렇다면 니죽고 나살자" 했던 말에 말을 못하겠더라.

그런데 지금 나는 말을 하려고 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고 여자를 더 좋아해.

언젠가는 나도 거짓연애를 하겠지.

엄마가 이 편지를 보지 않는다면

엄마에게 거짓연애를 말 하겠지.

엄마가 그랬지 "다른 집 딸처럼 남자이야기도 하고, 그 남자도 만나보라"고.

근데 그 약속 못할 것 같아.

엄마는 그랬지. "하리수는 나쁜 게 아니라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딸이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당황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내가 애기였을 때처럼 타이르고 이해하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에 존경까지는 바라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조금 해줘.

사랑하는 엄마아빠

이제 세월도 흐르고 날씨도 벌써 여름이야.

여름 날씨 덥지 않게 잘 지내고 다음에도 편지 쓰는 날이 왔음 해.

정말 정말 날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해 ^^

안녕, 사랑하는 우리애기. 내 동생.: 2013.7.8, 하이점

너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다.

사실, 언니가 아주 오랫동안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어.

네가 태어난 지 벌써 21년이 지났네. 그리고 우린 그만큼 함께 해왔지.

우린 정말 그 어떤 비밀도 없는 사이인데,

(무려 내가 담배 피는 것도 스무 살 언저리쯤 고백을 했었는데 말이야.)

차마 너에게 말 할 수 없었던 비밀이 하나 있어.

네가 형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사실 여자야.

언니는 여자와 사귀고 있단다.

10대 때, 어린 네 눈에도 어색해 보였던 내 연애에 대해 네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저 친구라고 우길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너는 너무 어려서 차마 말해 줄 수가 없었거든.

네가 중학생만 되면, 네가 고등학생만 되면, 네가 대학생만 되면,

그렇게 미뤄왔어. 항상 내 눈엔 네가 애기였으니까.

그리고 사실,

네가 열여덟이 되던 해에 말해주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애인이 말리더라.

동생까지 부모님께 거짓말하게 만들 거냐고, 그 짐을 동생에게도 지워줄거냐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언젠가 아주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께도 말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언니가 꼭 너에게 가장 먼저 말할게.

언니도 알아.
너는 언제든 언니 편일 거고,
이 말을 하더라도 너는 나를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오히려 더 행복해 할 거라
는 걸.

하지만 마냥 애기인 너에게
내가 여태껏 겪어져온 짐을 나눠주고 싶진 않아.

사랑하는 우리애기, 동생아 이런 언니를 용서해주렴.

그리고 언젠가 언니가 이 말을 했을 때, 슬퍼하지도 말아줬으면 해.

언젠가...네가 얘기 했던 “형부랑 같이 셋이 밥 먹자”를 실현 시킬 수 있겠지?
그때 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래?

언니가 많이 미안해.
그 다른 누구 보다,
너에게 많이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알아줘.

사랑해, 우리애기.

7월의 비오는 날에, 너의 히어로가.

너랑 나랑은 헤어질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DS

우리에게 너와 나뿐이잖아.

너는 항상 내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잖아.

어릴 때 반항이라면서 친구들과 야산에서 술을 먹고 경찰에 걸린 그 날,

너는 야자 중에 내가 있는 피출소로 뛰어왔지.

내 친구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들은 화나서 내 친구들을 다그쳤지만,

너는 달랐어.

학교부터 뛰어왔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내가 다친 곳이 없는 지 보곤 했지.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집에서 문곤 했어.

"속은 괜찮은지? 나 다시 야자하러 갈 테니까 속 아프면 전화해 약속 올게"

네가 그랬잖아 고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아프면 바로바로 말하라고 그랬잖아.

어떤 잘못을 해도 너는 한 번도 화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여자와 연락하는 나에게 "레즈냐?"고 묻던 네 모습이 너무 무서웠고

나에게 실망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나 레즈비언이야.

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왔던 예쁜 친구도 내 애인이었고,

나랑 대학교 때 항상 붙어 다니던 그 애도 내 애인이었어.

네가 그랬잖아.

여자는 만나지 말라고.

걱정되어 대학원서 쓸 때도 여대는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대를 가지 않아도 나는 여자를 만났어.

여자라서 아니라 내가 좋아서 만나다보니 여자였어.

지난 몇 년 동안 여자는 남자들 만나지 않고 '레즈비언'이라는 걸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

마음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내가 레즈비언인건 변하지 않는 거고

다만 숨기는 것뿐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모습을 감추고 싶지 않아.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당장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니야.

만약에 알게 되어도 최소한 지금처럼 나를 걱정 해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

내 주변에 친하거나 소중한 사람들은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렸는데

너한테만 말하지 못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의심정도는 하겠지.

의심하는 거랑 내가 정확히 말해주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지금마음이 불편해도 너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

네가 이해 해주면 좋겠어.

몇 년이 더 지나고 너 스스로 가족을 만들면
그 때 되면 말할 생각이야.

그 때도 그냥 웃으면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겠니?
아님 다른 부모님처럼 "당장 선이라고 봐서 결혼 해버리라고 애 낳고 살면 다 똑같
다"고 말할거니?
정말 궁금해.

너는 항상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너는 내 오빠고 부모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친구일 거야.
십년동안 부모 없이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네가 나를 생각하고 안아줬던 만큼 나도 이제부터 너한테 잘 할게.

편지에 너라고 써서 미안 ㅋㅋㅋㅋㅋㅋ
너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 동생 썼음!

2013년 7월 22일

DS

아빠에게,
2013년 8월 매우 더운 여름 날,
박제하

안녕 아빠.

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이 편지가 아빠에게 전해지지 못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거참.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 이걸 쓰기로 걱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쓰기로 한 거 얘기를 해볼게.

우선 전해야 할 말이 있네.

엄마 죽었어.

2011년 9월 2일.

아빠도 나도 엄마 보면 옆드려서 빌어야해.

혼자 보냈잖아.

평생 혼자였는데 갈 때도 혼자였어.

뭘 그리 혼자 다 짊어지고 갔는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갈 때까지 다 갖고 갔어.

침엔 많이 원망했는데 이젠 그러진 않아.

어차피 평생을 제 3자로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아빠의 선택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따지고 보면 사랑했던 여자 장례식도 못 온 아빠가 제일 불쌍하지.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아빠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나 레즈비언이야.

엄마는 내가 20살 때 커밍아웃을 했어.

커밍아웃이 무슨 애긴지는 알거라 생각해.

아빠가 잠시 있었던 1년 동안 우리들은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중에 동성애에 관한 얘기는 아빠도 기억할거야.

난 사실 그때 그 얘기가 엄마에게 커밍아웃을 하기위한 포석을 까는 단계였어.

아빠는 내 의중에도 없었지.

다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혈육에게 알려야겠다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없이 사는 것을 내게 선택하게 해주지 않았듯이

레즈비언인 딸을-물론 친권이고 뭐고 개뿔도 없고 그냥 생물학적인거지만- 둔 아
비로 살아야하는 삶을

선택하게 해줄 생각 없어. 이건 강제니까.

그렇다고 굳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진 않아도 돼.

아빠 탓 아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사랑하게 된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에서 내가 레즈비언이 된 게 아니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여자를 좋아하다보니 혼란을 느낀 적도 없어.

마치 엄마가 아빠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냥 그럴 뿐이야.

이런 날 창피하게 여기진 말아줘.

난 창피한 일을 한 적 없고
나 역시 아빠를 창피해한 적이 없으니
날 반대하고 싶더라도 참아.

엄마는 날 인정해줬으니까 알고나 있으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날 반대한다 해서 아빠가 가정을 썩 잘 꾸려 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지금 나는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같이 미래를 약속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다면,
엄마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빠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했어.

엄마처럼 목숨을 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빠처럼 헛되게 걸돌지는 않을 거야.

모습이 아빠랑 판박이기에 적어도 엄마를 더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엄마처럼 몸과 마음을 다하고 싶거든.

아빠는 정말 실수한 게 뭔지 알아?

엄마도 나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끔 보더라도 '함께'하는 게 필요했어.

나야 그렇다 쳐도 엄마 맘은 어떻게 알았냐고?
46년을 아빠만 사랑한 사람이거든.
하긴 몰랐으니 30년을 걸돌았겠지.

쓰다 보니 옥했네, 미안해.

아.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 건데 욕이나 할 걸 그랬나.

읽지 못할 편지라는 걸 알지만 이 말만은 전해졌으면 좋겠다.

옆에 있든 없든 엄마는 평생에 사랑이라고는 나랑 아빠뿐이었어.

엄마 외에는 연결된 거 없는 우리 둘이지만 언제고 나 찾아내면 찾아와.

마지막으로 얼굴보고 엄마 마지막 글이나 읽게 해줄게.

어디에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잘 살아. 아빠.

2013년 8월 매우 더운 여름 날. 박제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까 너무 어색하다 못해 창피하네.

하나 밖에 없는 딸내미 참 다사다난한 사춘기를 보내서 우리 엄마 아빠 속 많이 상하게 했는데…….

근데 엄마 아빠, 엄마랑 아빠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내가 얘기하려해.

사실 나는 그때 알 수가 없었어.

내 사랑이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나라는 사람을 왜 부정 받아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집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 보단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10대 방황기에 있던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사랑만 받고 살던 내가 견디기엔 너무나도 모진 세상이었어.

우연히 당한 준비 안 된 아우팅,

선생님들, 친구들, 학부모가 모두 모여서 나를 원숭이 마냥 쳐다보는데 그 중에 엄마도 있었지.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그 표정,

나는 잊지 못하고 있어, 엄마.

엄마, 왜 그때 반박하지 못 했냐고 했지?

엄마, 그 애 말은 틀린 게 없었어.

엄마, 그래서 나는 반박하지 못 했어.
엄마, 그 애는 내 평생 단 한 번의 사랑이었어.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팔았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사랑 할 만큼,
나는 그런 사랑을 했어, 엄마.

집에 와서 엄마는 나를 몰아붙이듯 추궁하고
엄마랑 나는 평평 울었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죄악"이라고,
"너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거다"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내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보게 될 줄은 몰랐어.
내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전부 내 잘못 같았고 나만 사라지면 될 거 같았고
그때가 아마 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날 같아.

하필이면, 그게 왜 하필이면 내 생일날 그런 건지 모르겠어.
남들 생일날 받는 미역국이나 선물 대신에
나는 내 생일날 첫 사랑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우리 안에 원충이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경멸의 시선을 받았고,
엄마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죽고만 싶었어.
내가 왜 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정말로 나는 죽고만 싶었어.
몇 번이나 다시 깨어난 응급실 천장은 정말이지 하얗다 못해 노랬어.

엄마 아빠의 눈물로 묻어난 그때 그 시간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몇 번이나 놓아버리려 했던 그 순간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왜 삶을 포기 하냐고 힘을 내라며 잡아준 엄마의 그 손.
아이고, 우리 딸 왜 그리 울상이냐고 보여준 아빠의 그 미소.

왜 그렇게 냉정한 삶을 사냐고 그랬지, 엄마?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사냐고 그랬지, 아빠?

나는 사실, 엄마와 함께 웃고 떠들고 울고 아프면서 엄마한테 사랑이 뭔지 배워보고
싶었어.
아빠에게 이별에 아픔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보다 성숙한 사랑이 뭔지 배
우고 싶었어.

그렇지만 흔한 친구에게 연애상담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으로 끄끄 앓다 울다 지쳐 잠드는 날을 보냈었어.

들킬까봐,
실수라도 할까봐,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살려고 했어.

어느 날 내가 술에 진탕 절어서 들어왔을 때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그랬지.
아빠는 멀쩡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지.

"왜 낳았냐?"고 그랬지.

"나를 왜 낳았냐?"고 그랬지.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그랬지.

"이 삶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고,

"어서, 하루 빨리 다 정리 됐으면 좋겠다"고,

철딱서니 없게 엄마 아빠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

그런 나를 보면서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안고 다독여주는 엄마 품에서
나는 다 큰 성인이 되서 목 놓아 펄펄 울었어.

그런 엄마랑 아빠를 보면서 나를 바꾸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

"정상"인 것처럼 머리도 기르고 여성스러운 차림을 하고,

나를 숨기고 또 숨겨가면서 내가 먼저 결혼 얘기도 하고

남자 연예인을 보면서 "잘생겼다"고 "이상형"이라고도 하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쁜 여자에게 돌아가는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또 웃고 나를 전부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 그릇이 작지만 그래도 부모 눈에는 다 보인다"
고,

"그런 식으로 너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나를 버리지 말라"
고…….

미안해 엄마 아빠.

내가 잘 숨길게.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숨길게.

내 평생을 숨기게 되더라도 숨겨볼게.

나중에 내 사랑을 만나더라도...

정말 나중에, 정말 나중에,
불효막심한 소리지만 엄마랑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그 뒤에 만나볼게

정말로 미안해 엄마 아빠.
그래도 내가 참 많이 사랑해요.

-JH-

엄마에게 쓰는 편지

엄마. 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직 엄마라는 호칭을 쓰네요. 그래도 '어머니'라는 단어는 엄마와 내 관계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인지, 엄마에게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아마 2011년 가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를 통해 엄마에게 커밍아웃한 게 2008년이었죠? 그 때 엄마와 단둘이서 두 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하면서, 나는 엄마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엄마는 이해를 하는 듯 보였어요. 적어도, 이해하려는 듯, 또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려는 듯 보였어요. 엄마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전 그 답변으로 만족했어요. 엄마가 내 삶을, 내가 내리는 결정들을 완전히 이해할 거라고 기대할 순 없으니까요. 우린 가치관도, 세계관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그리고 전 그 때 고마웠어요. 엄마가 그 정도로 해주는 게요. 소리를 지른다든가 욕박지른다든가 하는 건 평소 엄마 성격과도 맞지 않지만, 엄마가 울면서 나를 설득하려 하거나 내 마음을 바꾸려고 호소하면 우리 관계가 더 멀어졌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삶을 사는 거고, 그걸 엄마가 싫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후로 조금씩 뒤틀려간 것 같아요. 엄마는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서운함을 표시했고, 우리 가족에 대한 제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2011년 가을에 우리가 엄마아빠집에 갔다가 다친 새끼고양이를 구조했을 때, 엄마는 엄청 흥분해서는 들고 있던 일라스틱 밴드로 나를 때리면서 "미쳤어, 미쳤어! 고양이한테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엄마아빠한테 써!"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매달 용돈을 달라고 하셨고요. 고양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엄마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니까 엄마가 용돈을 달라고 하셨을 때 다른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전에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최소한의 돈만 빌려주라고 조언하시던 엄마와는 매우 달라진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 후, 엄마가 저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드

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작가가 신문에 쓴 칼럼을 읽은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엄마 집에 갔을 때 그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관계를 남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저에게도 애정 어린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기도 해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조금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얼마 전에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엄마랑 단둘이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 때 전, 한국에서 아이를 길러야 할 지 덴마크에서 아이를 길러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우리는 한국에서 기르는 쪽에 더 마음이 기울고 있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한다고 하셨죠. 이유를 물었더니 남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다 사실대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엄마는 남들이 결국 다 눈치 챌 거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 잘못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걸 반대하지만, 정 키우겠다면 덴마크에서 키우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서운했어요. 결국 딸보고 외국 나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영영 안 봐도 괜찮으니, 내 눈앞에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손자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엄마가 우리 아이도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은 엄마가 반대를 하더라도 막상 애가 태어나고 그 애를 보게 되면 애를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 날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생각보다 더 완강했던 엄마의 태도를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나중에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엄마가 우리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할머니는 없는 게 나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에게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빠가 노여워 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에 커밍아웃했을 때 저에게 아빠가 "너희가 애를 하나씩 낳아서 키웠으면 한다."는 말씀을 흘리듯 하신 적이 있어서 저는 아빠가 엄마보다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와 단둘이 있을 때 슬쩍 여쭙봤더니, 아빠는 "너희 나이 들었을 때 생각하면 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싫거든요.

얼마 전에 아빠가 입원해서 우리가 아빠 병실에 문병 갔을 때, 아빠가 잠시 나가고 병실 안에 우리랑 엄마만 있게 된 적이 있죠. 그 때 동생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는 우리 앞에서 동생과 한참 다정하게 통화했고, 우리에게는 따뜻한 말씀 한 마디, 질문 하나 안 하셨어요. 우리는 엄마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덴마크에 와서 내가 엄마한테 처음 전화한 날, 엄마는 저에게 거기 지내는 게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등은 전혀 묻지 않으시고 아빠한테 매달 보내는 돈을 보내고 있는지, 엄마 글루코사민 떨어지면 주문해줄 수 있는지 물으셨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많이 서운했어요. 덴마크 오고 나서 엄마와 하는 첫 통화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엄마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추측으로는, 엄마가 전업 주부로 우리 딸 셋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셨잖아요. 아빠가 바람도 피우고 했는데도 우리들 생각해서 이혼도 안하셨고, 엄마가 부업도 가지는 걸 싫어하는 아빠 때문에 집에만 엮매어서 한평생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엄마를 돌봐드리고 아껴줄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와 동생은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둘씩 낳고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의 기대를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던 제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니, 실망감이 크셨을 테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며 산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고요. 게다가 엄마 건강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관절염 때문에 거동도 힘들시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저의 선택과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조용히 살면서 사람들에게 망신 안 끼쳤으면 좋겠는데 아이까지 낳고 싶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되셨겠죠. 엄마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신데 딸이 걱정거리 좀 안 끼쳤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위해서 제 행복을 포기할 순 없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엄마의 행복을 포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엄마에게 똑같이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저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음 해요.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실 때 제 경제적 능력이 닿는 대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도와드릴 순 없어요. 특히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계속 상처를 주실 때는요. 저도 사람이고, 엄마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도 그만큼 한 발짝 물러나게 되요. 자꾸 상처받기 싫거든요.

엄마가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던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던 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땐, 자라면서는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웃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 엄마에 대한 제 태도를 보면서, 저도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으니, 원가족보다는 제 배우자가 먼저이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가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가끔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나도 나중에 우리 애한테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진 않을까.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떠나보내면 딱 마음줄을 놓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막상 그 때가 되면 나도 엄마처럼 자식한테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실망하면 어떡하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더욱 다짐을 해요. 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다. 나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그 애의 인생이다. 감히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게 아니다.

언젠가는 제 이런 솔직한 마음을 엄마와 나누게 될까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낼 자신도, 엄마의 반응에 상처입지 않을 자신도 없어요. 엄마 말씀대로, 저희 곧 이민 가요. 엄마 말씀 때문은 아니에요. 내 권리가 좀 더 보장받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엄마가 18년 동안 끼워 안고 기른 자식이 이민을 간다니, 서운하시겠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이가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민을 간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 거예요.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가 늘어날 걱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먹한 상태에서 가게 되어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엄마,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

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바라시는 대로 살어드릴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는 것도 제 욕심이지요. 엄마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2013년 여름 혜정이가.

엄마 안녕, 2013.08.12/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 RJ

갑자기 편지를 쓰려니 어색하네. 평소에 워낙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딸이라서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20년 넘게 해왔던 습관 같은 것들이라 고치기가 참 어렵다.

취직되고 몇 달간은 전화도 자주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다. 내가 그렇잖아, 무언가 시작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서 어릴 적에도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었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엄마랑 나는 비밀이 참 많다, 그치? 내가 중학생 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 다이어리에 엄마가 "내 딸, 정말 사랑한다. 엄마 조금만 여행하다가 돌아올게. 밥 잘 먹고 있어"라고 써 놓았던 글이 아마 엄마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밀 고백이었던 것 같아.

어릴 적 우리 경기도에 살았던 때 기억나?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친해진 친구랑 소꿉놀이를 하려고 신문을 구하러 다니다 어느 연립주택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어. 그 당시에는 정말 기분 나쁘고 잘못하는 것 같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두 번 다시는 그 근처에서 놀지 않게 되었어.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건 어린 나에게 엄마는 너무 무섭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혼날 것만 같았어. 나이가 들면 잊힐 줄 알았는데 절대 잊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더욱 이야기하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우리 시골로 이사 갔잖아. 할머니 댁 근처라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 정말 그런데 서울에서 전학 온 탓인지 아니면 내 성격 탓인지 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 자꾸 틀어지고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라던가, 중학교 동창이 하나도 없어. 엄마에게는 반 친구들이랑 다 친하다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왕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 엄마에게 말하면 분명 엄마가 울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

그렇게 힘겹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중학교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정말 커다란 사건이 생겼어.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야. 전학 온 초등학교에서 계속 왕따였던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고 잘 챙겨주는 아이가 있었어. 웃는 모습도 정말 귀엽고 착하고 듬직한 아이였어. 처음에는 그냥 정말 많이 아끼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사랑으로 변해있더라. 그렇게 3년 동안 그 아이를 짝사랑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시절에 난 단 한 순간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알지? 나 여중 나왔잖아.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 나 여자를 사랑해. 여자라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게 된 사람이 여자인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 다 자라지 않았고 철도 덜 든 나라서 그런 어려운 걸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해. 나에게 일어 난 사건들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어릴 적 당한 성추행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여중 여고를 나와서도 아니고, 20살을 갓 넘겼을 적 남자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유치원 시절 부터 내가 좋아하고 질투 나고 나랑만 친했으면 좋겠다고 느낀 아이들은 전부 여자 아이더라. 내 기억에 남자인 친구들은 그저 재미있고 신나게 뛰어놀아주는 그런 아이일 뿐이었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어. 엄마에게 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엄마랑 TV를 보다 같은 성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당황하면서 채널을 돌리더라고. 그 때 느꼈지, 이건 안 좋은 거구나. 다른 사람이 하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 딸이 보면 안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거로구나. 그때부터였어, 엄마에게 비밀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지.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나와 비슷한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도 가고 학교에서 사고 쳐서 엄마 모르게 수습하려고 전전긍궁했었어. 노느라 바빠서 외박은 기본이었고 엄마 얼굴 제대로 보지 못 할 때도 많았어. 남들보다

좀 긴 시간 방황하게 되더라, 내가.

몸이 약한 엄마라서 내가 더 많이 신경써줘야 하는데, 엄마 신경 안 쓰게 해 줘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상처 되는 모진말도 많이 하고 엄마가 죽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인냐며 내 인생은 내가 살 거라고 나쁜 말도 하고... 불효자였어, 내가.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다행이야. 엄마가 나 믿어준 덕분에 늦었지만 정신 차려서 지금은 취직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고 있고 예전처럼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게 되었어. 아직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내성적인 성격도 많이 외향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래도 내 마음은 고쳐지지가 않더라. 정신병인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것뿐이더라고.

미안해 엄마. 여자를 사랑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이런 비밀을 이렇게 엄마에게 편지로 쓴다는 게 참 미안하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마 지금 당장은 말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내 곁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엄마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 줄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해. 엄마, 사랑해. 엄마가 내 엄마라 너무 다행이고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

2013.08.12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 RJ

〈이성애의 원인 연구팀〉 1차 모임 후기

일시 : 2013년 1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참여 : 우아, 수현, 박김수진

정리 : 수현

1. 〈이성애의 원인 연구팀〉 참여 동기

수진 : 동성애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있었다. 연구는 ‘표본 집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표본 집단인 동성애자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 또한 극소수였다. 그러니 동성애의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인 이성애자들을 표본 집단으로 삼고 단일한 정체성의 허구성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정체성은 개인의 생애주기 안에서 선택 혹은 자임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성애의 원인 연구는 정체성이 불변한다는 허구를 해체 하며 동성애의 원인을 유추해내려는 작업이다. 스스로를 '주류'로 생각하는 이성애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이성애의 원인을 묻지 않는가?

수현 : 동성애의 선·후천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영원히 증명되지 않을 것에 대해 많은 질문과 답이 오갔다. 유독 동성애에만 연구가 과열된 까닭은 이 정체성이 비주류의 것이기 때문이겠다. 동성애와 달리 이성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성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성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우리의 현 삶과 동떨어

진 것들이다. 문헌으로 오늘날 한국의 이성애자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야: 숫자로 추상화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에서 현수막을 붙였을 때에도, 통계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러나 추상화된 숫자로 구체적인 삶들을 대변하기는 어렵다.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 삶이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으며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삶들을 담을 수 있는 연구에 함께 하고 싶다.

2. 대략적인 연구 방향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는 느리지만 오래 살아남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활동 회원들이 지치면 단체가 지속될 수 없다. 각자 여력이 닿는 대로 힘을 보태면 된다. 따라서 버겁게 활동할 필요는 없다. 한 달에 한번은 모임을 갖기로 한다. 한 달 동안 각자 준비하고, 모여서 그간 준비한 것들을 공유한다.

소수 인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한다. 2차 회의 전까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성애의 원인 연구를 할 것인지 각자 페이지를 써오도록 한다. 각자 작성해 온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칠 수 있는 부분과 다르게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해진 양식은 없다. 분량도 자유다. 각자의 문제의식을 밝히면서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이후 이성애의 원인을 다룬 텍스트를 함께 다루려 한다. 페미니즘 이론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한 조류에서 이성애의 원인을 연구한 바가 있다. 70년대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을 각자 찾은 후, 텍스트를 공유하고 평가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나름의 가설을 설립해 본다. 우리가 택하게 될 방식은 질적 연구다. 인터뷰 방식에 정해진 계획은 없다. 이성애자 동성애자를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 없이 할 수도 있다. 다양한 표본을 수집할수록 좋다. 탈반한 지인들을 만나서 이성애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을 수도 있겠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성애의 원인을 듣다보면 가지각색일 테다. 일반에서 이반으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다. 페미니즘 때문에 레즈비언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활동가들이 표본이 될 수 있겠다.

모든 행위의 페이퍼가 만들어지면 연말에 따로 무언가 생산해낼 필요가 없다. 편집 디자인만 맡기면 될 것이다. 결과물을 동화책으로 엮어도 좋다. 양식은 자유롭다. 일단은 연말을 목표로 잡고 표본의 규모와 범위를 조정해보자.

3. 정기 모임 시간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후 7시를 정기 모임 일시로 정한다. 다음 모임까지 각자 이성애의 원인이 왜 알고 싶은지, 이성애의 원인을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써오도록 한다. 만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두 시간 전에는 연락을 할 것. 일정 조정을 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이도록 한다.

4. 기타 논의

- 단체 회칙 일독할 것.

- 영어...-_-;;

〈이성애의 원인 연구팀〉 2차 모임 후기

일시 : 2013년 2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참여 : 우아, 수현, 박김수진

정리 : 수현

연구의 범위 : 어디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서구 문화권에는 동성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성애가 주류 문화가 아니었다는 기록들이 있다. 예를 들어, 루이 조르주 탕의『사랑의 역사』에서는 프랑스에서 이성애가 주류 문화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룬다. 그러나 동양권의 자료는 거의 없다. 문화권에 따라 신앙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이 다르듯, 문화가 상이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화에 따라 '동성애'라는 개념이 뒤늦게 발명되기도 한다.

물론 고려시대의 공민왕 때의 사료와 그리스 시대 문화에서 '동성애'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시대의 화랑이었던 사다함과 무관랑의 사례도 한국 문화권에서 동성애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세자빈 봉씨도 비슷한 예다. 그러나 그런 사료들이 발견되더라도, 이성애를 덜 권장했고 동성애를 더 권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또 이성애와 동성애가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는 근거 또한 마련하기 어렵다. 특수한 소수의 사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 텍스트에서 서구의 텍스트들보다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을 동성애의 기록을 찾기엔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 또 적은 사료의 문제도 있다. 국극이나 신여성 자료 등은 페미니즘이나 동성애자 운동 진영에서 늘 거론된다.

이성애의 원인 연구와의 연관성을 찾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드러난 한국 문화권의 텍스트들을 취합해서 우리 시각으로 다시 해석하고 정리하는 하위 연구가 있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어느 시대든 동성애자는 존재했고, 그 사실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 말이다. **대학교 출신 레즈비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 이는 사랑을 규정짓는데 환경적인 원인도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어느 시대의 동성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명명되지 못했으나, 이후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페미니즘 등의 이론을 접한 후에 동성 간의 미묘한 감정을 사랑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니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기에 앞서, 제기해야할 질문은 사랑에 대한 것이 될 테다. 사랑의 개념과 사랑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정의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성애’에서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이성애주의 하에서는 상대방의 성에 의해 쉽게 사랑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정해진다. 그러나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쉽게 인정되는 사랑이 동성 간에서는 우정으로 그치기도 한다. 부산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동반자 살을 한 여여 커플의 경우도 몇 년간의 우정으로 불려졌다. 세대에 따라 ‘사랑’일 수도 있었던 것이 우정으로 머물기도 했다. 4-50대의 세대에서는 우정으로 규정됐던 것이,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구분할 때 사랑이 주로 어떻게 정의되어 왔고 우정과의 경계는 어디이며,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애중심적인 사랑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강압적 이성애주의의 결과로 이성애가 창궐했고 만연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유지될지도 모른다. 이성애는 불멸의 무엇이며 초역사적인 것인가? 강요된 게 아니라는 보장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성애주의의 기반에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과 가부장제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이성애주의가 동성애의 관계 장에서 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치스러움’은 ‘여성성’을 부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노래방에서 부치가 여성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부치가 왜 저래’ 혹은 ‘여자같이 노래 부르지 마’라는

말이 오간다. 부치는 ‘남성성’을 전유하는 자로 규정되기에 몇몇 레즈비언들은 남성 혐오의 연장선에서 ‘타나는 부치(티부)’를 기피한다. 이성애를 규정할 때 강요되는 부분인 1대1 결합 또한 고민해 볼 부분이다. 이성애의 종착점은 결혼이지만, 이것이 동성애에서 꼭 강요되지는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외도를 자주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때, 가부장제를 토대로 한 1대1관계를 벗어난다면 ‘감성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향 :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정의를 알아야 이성애나 동성애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우주적인 작업이다.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적은 없다. 물론 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성애의 원인 연구 팀에서 명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 하게 사랑에 대해 조사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 이성애의 원인을 목적으로, 연결 고리를 염두하며 사랑에 대한 탐구를 해야겠다.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일 년이 부족할 지도 모른다. 이성애의 원인을 넓게 두고, 소주제들은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자. 그 소주제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의 특성은 정치적 시선이 아직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얘기를 하다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격렬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퀴어 이론에서 흔히 얘기되는 ‘정체성의 정치학’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오갈 수 있겠다. 있을 수 있는 모르는 차이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가자.

우리가 하는 작업에서는 압축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적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불가피하게 이론적 논의도 들어가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 안의 이성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와 퀴어 이론을 참고하게 될 수도 있다. 단일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내부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야기를 모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도 기록하며, 이 과정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연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워야 한다. 그게 최우선이다.

‘사랑의 개념’을 첫 시작으로 한다면 ‘사랑과 우정의 경계’, ‘세대에 따라 정의되는 사랑’, ‘한국 문학 속에서의 사랑’ 등이 다음의 논의로 나올 수 있겠다. 2014년에 이성애의 원인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20년간 계속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하의 소주제들은 상황에 따라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소주제를 늘 리더라도 이성애의 원인 연구라는 중심은 늘 유지해야 한다.

‘사랑’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기한을 잡고 연구하는 걸로 한다. 인터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단체 사람들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 ‘사랑이 뭐예요?’라는 주제로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구글 신청서’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 볼 수도 있다(구글 신청서는 일종의 설문조사 형식이다. 나이, 정체성 등만 기입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모아 본 후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예상할 수 있을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3~4월에는 각자 ‘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5~6월엔 각자 인터뷰를 한 후 그에 대한 분석 글을 내어보도록 하자. 가을 정도엔 간담회를 열고, 그때까지 쌓은 것을 취합해서 글을 또 하나 만들어보자. 12월에 ‘사랑’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목표다. 어떤 방향이든 연구하는 과정 자체를 자료집에 신는다고 생각하자.

다음 회의에서는...

사랑이 뭔지 알아보는 걸로 합의를 보았으니 다음 회의부터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 달로는 어려울 수 있다. 4월 모임까지 사랑에 관한 텍스트들을 참고하여 각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기로 한다. ‘사랑이 뭐예요?’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다. 텍스트를 모조리 섭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리스트를 명시한다면 그 자료들을 이성애의 원인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겠다.

다만 글을 쓸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쓰도록 한다.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좋다. 직관적으로 편하게 들어오면 좋은 글을 쓰는 것으로 목표를 둔다. 당장 다음 모임인 3월 17일에는 모두 준비가 될 되었을 테니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갖기로 한다. 그 다음 모임인 4월 20일에는 ‘사랑이 뭐예요?’에 답한 글을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 써온 글은 2월 28일 까지 공식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글을 수정하기로 한다. 이번 회의 결과물을 3월 1일까지는 업로드 해야 한다.

이성애의 원인 연구의 목적(수진 버전)

작성자 : 박김수진

작성일 : 2014년 2월 16일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동성애의 원인 찾기를 시도해 왔다. 이들은 주로 생물학적인 원인들과 사회구성론적인 원인들을 제시한다. 생물학적인 원인들로는 유전적인 이상, 호르몬 이상, 두뇌 크기와 구조상의 이상, 태아 발달 과정상의 이상, 전두엽의 이상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사회구성론적인 원인들로는 부모의 육아 방식, 부모의 가부장성, 부모의 폭력성 등 가정환경을 비롯한 성장과정상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들이 거론된다. 생물학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들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의 손가락 길이가 다르다거나 아들이 많은 집에서 게이가 난다는 등의 허황된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이들 연구 결과가 언론사를 통해 만방에 퍼져 나간다.

그럼, 원인들을 밝히셨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밝혀진 원인은 없다. 특히, 그토록 밝히고자 열망했던 단일한 원인 따위는 없다. 언론지상을 통해 소개되는 연구 정도가 되려면 적지 않은 연구비가 쓰였을 텐데, 이 점도 참으로 안습이지만, 그 따위 허황된 연구를 위해 이용당했을 동성애자들을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고매하신 과학자들께서는 대체로 이런 결론에 합의하고 계신 현실이다.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과학자들 사이의 온전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은 잘 했다. 옳은 말이다.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일 수가 없다. 만나는 동성애자들

에게 원인을 물으면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원인들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한다. 누군가는 “나는 타고 난 것이 분명해.”라고 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타고 났다고 느끼는 것의 원인도, 선택인 원인도 각양각색이다.

무엇보다 어제의 이성애자가 오늘의 동성애자가 되듯, 오늘의 동성애자가 내일의 이성애자가 되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대체 한 번 동성애자는 영원히 동성애자이고, 한 번 이성애자는 영원히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확실적인 사고는 어쩌다 이렇게 만연한 것인지. 물론, 오늘의 동성애자인 나는 영원히 동성애자로 살 것이다 혹은 오늘의 이성애자인 나는 영원히 이성애자로 살 것이라고 확신 또 확신을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들에게 동성애자로서의 삶은 선택이다. 심지어 이 선택은 한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사랑도 움직이는 마당에 어떤 성인 사람과 사랑할 것인지, 즉 정체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믿음은 어찌 가능할까. 아니, 지상천지 움직이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영원성을 가진 것들이 있거나 한 것일까.

그럼에도 인간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 찾기에 골몰한다. 스스로 “이성적인 인간”이라 착각하고 자부하는 인간이라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존재를 견디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원인을, 그것도 단일한 원인을 캐낼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으로 오만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 이를 인간의 순수한 지적욕구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그 지적욕구가 허영이 되고, 그리하여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혹은 논리적인지 않은 원인들로 귀결되더라도 말이다.

문제는 지적욕구의 결과가 대체로 “이상”,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뇌 구조의 이상, 호르몬 이상 등 정상적 규범을 전제 한 상태에서 정상 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현상, 존재들의 원인을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성을 가진 원인들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들 말이다. 왜 어떤 현상과 존재를 정상화하는가? 왜 어떤 현상과 존재를 비정상화하는가? 오히려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은 이것일 텐데 말이다.

동성애의 원인 연구의 경우, 대체로 순수한 지적 욕구에만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연구의 전제는 이성애가 정상이며, 비정상적인 동성애의 원인을 탐구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비정상적인 존재들의 원인을 밝혀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정상적인 존재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일까? 정상적인 존재들을 정상적인 규범으로 전제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들의 비정상성을 드러내어 비정상적인 존재들을 정상적인 존재들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일까? 사회의 동인은 가급적 단일한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그렇기에 정상 규범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비정상화, 타자화하여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화하여 단일한 사회의 동인을 안정화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불행하게도 끊임없이 수많은 돈을 들여 수행한 연구들, 심지어 선량한 시민들이 지불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그 연구들의 결과는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과학자들 사이의 온전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이다. 이 결과의 다른 표현은 “알 수 없다.”일 테고.

동성애의 원인 연구들은 계속되고 있다. 원인 규명의 욕구는 해소되지 못했고, 원인 규명의 필요 또한 여전히 잔존한 모양이다. 이럴 일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 이런 방법 어떠한가? 파도 파도 알아내지 못 하고 있는 동성애의 원인 연구를 잠시 중단하고 온 사회에 더글더글하게 많은 이성애자들을 표본집단으로 두고 먼저 이성애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이성애의 원인을 두고 동성애의 원인을 유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다. 시도해보지 않았으니, 온 나라 과학자들이 이 작업에 동참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다르게 생각해 보기, 다르게 살기, 대안적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찾기, 살기... 아름다운 생각들이다. 이 생각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고, 소위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삶의 단계와 형태에 대한 성찰적인 사고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대안, 용기, 실천들은 현실이 될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는 다양해지고, 생동감이 넘칠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왜 이성애의 원인을 찾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이성애자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스스로 이성애자라는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왜 물어야 하는가를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오히려 어쩔 그렇게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라 주문하고 싶다. 싫다면야 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되돌아보고, 질문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예전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지. 가능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웬만하면 서울 안에 있는 캠퍼스 넓은 4년제 대학을 다녀야 하며, 대학 재학 중에는 진한 이성연애 한 번 정도는 해줘야 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즉시 취업하는 것이 옳으며, 연애를 하던 중매를 통해서든 20대 후반이나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제도결혼에 편입해야 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출산 후 육아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당연한 과정에 포함되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아니, 이토록 당연하다고 얘기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더불어 살아야 할까? 이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당연하니 묻지 않는 것, 위험하다. 이기적이고.

어쩌면 묻지 않았던 이성애의 원인을 묻고, 찾아보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은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될 지도 모른다. 동성애자를 설명하는 개념들에 “선택”이라는 개념이 온전하게 자리할 수 있다면 더더욱.

1994년에 이성애자로 살았던 나, 2014년에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 나. 이는 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1994년의 나는 왜 나를 이성애자로 정체화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아닌가? 앞으로는 어찌 될 것 같은가? 그리고 이 질문은 어쩌면 여전히 이성애자이자 싱글인, 이성연애에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해 살고 있는 내 친구 연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이성애 원인 연구의 목적(우야 버전)

작성 : 우야

작성일 : 2014년 3월 1일

‘이성애’, ‘이성애자’라는 단어는 낯설다. 미디어에서 ‘동성애’, ‘동성애자’라는 단어보다 ‘이성애’, ‘이성애자’라는 단어를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성애는 자연스럽게 문제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하지 않고 ‘이성애’가 당연하고, 자신이 ‘이성애자’임이 당연하기에 ‘이성애’, ‘이성애자’라는 없어도 될 만큼 당연한 단어 대신, 당연하지 않은 ‘동성애’, ‘동성애자’를 문제화 하고 그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동성애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애의 원인을 연구하기로 하고나서 ‘이성애’ 그리고 ‘이성애 원인’을 검색하다가 ‘루이 조르주 탕’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역사>(이규현 옮김, 문학과지성사 펴냄)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루이 조르주 탕은 <사랑의 역사>(이규현 옮김, 문학과지성사 펴냄)라는 야심만만한 책에서, 이성애는 처음부터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에서 동성애를 밀어내고 우위를 차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문학 텍스트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택한 텍스트는 프랑스 문학 텍스트인데,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권의 소략한 불문학사를 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통사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 프레시안 '이성애

이 책을 알게 되며, 이성 ‘애’, 동성 ‘애’를 알기 위해서는 ‘애:愛’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나는 ‘남성’으로 나를 정체화한 상태였다. ‘여성’은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성’ 친구가 있었다.

함께 놀고 싶어서 방과후에 와리가리(테니스공으로 하는 놀이로 철봉이나 전봇대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놀이)를 함께 하기도 하고, 같은 반이었을 때는 그와 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당시 짝꿍을 정하는 방법은 여자아이들이 뒷문 옆에 서 있다가 앞문 옆에 서있는 남자아이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엔 내가 ‘여성’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에 여자아이들과 이상한(?) 놀이를 하는 것도 좋아했다. 서로의 몸을 만지거나 비비며 무언가 쾌감을 느끼는 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놀이를 지속적으로 즐기던 여자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며 어려워졌다. 그 때의 나는 ‘이성애자’였을까, ‘동성애자’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빠졌다. ‘남성’으로 정체화 했지만 ‘남성을 좋아했던 나는 ‘동성애자’였을까 아니면 ‘남성’으로 정체화 했고 ‘여성’의 몸을 좋아했으니 ‘이성애자’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그 당시 제대로 정체화한 것이 아니었다고 치고 ‘여성’인 내가 ‘남성’을 좋아했던 것이라고 보고 ‘이성애’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인 내가 ‘여성’을 좋아했던 것이라고 보고 ‘동성애’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참으로 복잡하다. 어렵다. 여러 기억들이 겹쳐져서 시점들이 섞였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몇 년 이내의 기억들일 것이다. 이보다 더 복잡한 것은 지금의 나의 상태이다.

지금의 나는 ‘여성’이라고 하기도 ‘남성’이라고 하기도 싫다. 아니 한 쪽으로 정확하

게 말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이 지금의 나에게는 그나마 제일 편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여성’으로 정체화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동성애자’일까, ‘이성애자’일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아마도 ‘이성애 원인’을 연구하게 되면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은 ‘동성애 원인’, ‘이성애 원인’이 아닌 우선 ‘애:愛’의 원인을 찾는다면, 아니 ‘애:愛’를 알게 된다면 무언가 풀릴 것 같다. 누군가를 ‘사랑’ ‘이성애’, ‘동성애’로 구분지어지기에 ‘사랑’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성애의 원인 연구의 목적(수현 버전)

작성자 : 수현

작성일 : 2014년 2월 16일

지난주 금요일, 엘렌 페이지가 커밍아웃을 했다. 엘렌 페이지는 사석에서 ‘여성’스럽지 않은 중성적인 차림새를 선호해온 여배우다. 그러한 선호는 종종 파파라치들이 그녀를 조롱하는 기사를 쓰는 소스가 되었다. 그녀는 성정체성을 밝히면서, 지난 몇 년 간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임에도 그녀가 커밍아웃을 하게 된 동인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덜 가혹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엘렌 페이지는 왜 고통을 받아야 했는가? 단순히 보이는 동인이 결단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고통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을 밝히기까지 숱한 고민을 반복했을 것이다. 여배우는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배우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여성성’을 양산하며 이성애자 남성들의 판타지를 채우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렇기에 그녀의 톰 보이 룩이 가십거리가 되고 성정체성은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이다. 불편해서 ‘여성’스러운 옷을 입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동성을 사랑하는 데도, 이성애주의 하에 서는 이것이 이상해 보인다.

이성애주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직관적인 요소는 생물학적인 차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이는 근대자본주의 특유의 성/성별 체계를 내포하며 특히 성차의 이데올

로기에서 부각된다. 근대 이후 대두되었던 성과학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과학의 이름으로 보편화했다. 이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조건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 모성과 연관이 있는 ‘보살핌’은 ‘여성성’으로, 물리적인 힘과 관련되는 ‘강인함’은 ‘남성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의 번식을 위해 이성애만이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정당화되었다. 이 얼마나 천박하고 편리한 사유방식인가.

그러나 ‘매머드의 몸에 난 털은 그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진화된 과정이며,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와는 관련이 없’고 ‘포유류의 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진화의 과정이지만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성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생물학적 양태가 사회의 가치를 항상 내포하지는 않는 셈이다. 문화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가 원시농경 체제에 속하는 세 마을에서 행한 성과 기질에 대한 연구 역시 생물학적 결정론의 좋은 반례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한 부족 사람들은 여남 모두가 ‘여성적’으로 불리는 인성을 가진 반면 다른 부족 사람들은 여남 모두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런데 두 부족은 남성과 여성의 기질을 대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한 부족은 자애롭고 보살피는 성향이 강한 남성을 ‘남성적’인 자로, 다른 한 부족은 공격성이 강한 여성을 ‘여성적’인 자로 규정했던 것이다.

만일 생물학적 결정론에 따라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할 수 있다면 원시 사회라도 통념과 유사한 이분법적인 분류가 이루어져야 했다. 또 ‘본성’에 따른 이성애를 주장한다면 고대 그리스에서 상위 문화로 분류되었던 동성애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이성애의 결과로 인류의 번식이 가능했더라도 인간의 문화가 이성애주의적 이었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성애는 보편성을 획득했으며, 이러한 보편성은 곧잘 절대화된다. 절대적 보편성은 하나의 패권으로 군림한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생물학적 요인들에 무분별한 가치를 부여할 때 이는 주변부를 말살하는 폭력이 된다. 이성애주의 사회의 ‘남성성’과 ‘이성애’는 정당하지 못한 헤게모니다.

여성성/남성성, 이성애/비이성애의 문제가 가치체계가 결부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점은 이성애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성애는 주류의

가치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검토하지 않고도 쉽게 용인된다. 비이성애의 선후천성 여부, 혹은 본질을 따지는 연구는 술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성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주류’가 유일하다. 활동가 한채윤은 “성적 다수자란 없다, 고로 나는 소수자이다”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글에서 이성애자와 성적 다수자를 등치시킬 수 없다고 하며, 다수자의 실체는 없다고 말한다. 다수자는 단지 성적소수자는 아니라는 말의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성애는 다수성 외에 또 어떤 속성을 지니는가? 추상화된 정체성 외에, 이성애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직까지도 없다.

이성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 나아가 이성애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성애라는 추상적인 관념 즉 당연하고 자연적 존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던 이들의 삶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체성이든 초역사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성애주의라는 강박적인 허상을 거둬내야 한다. 이성애주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덜 가혹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엘런 페이지의 말이 훨씬 직관적이지 않은가.

사랑이 뭐예요?(수진 버전)

작성 : 박김수진

작성일 : 2014년 5월 2일

19회 서울인권영화제 자료집에 실릴 <인권해설>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을 했고, 그 중 퇴짜를 맞은(버림받은) 불쌍한 나의 글이 있다.

<레인보우 팝콘> 인권해설

“그런 게 인생이지.”

<레인보우 팝콘>을 본 후 오랜 시간동안 내 마음에 맺힌 한 마디. 사랑이 움직이고 정체성도 움직인다. 아니, 이 세상천지에 움직이지 않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게 인생”이다.

‘그럼에도’ 하나.

영화 속 주인공들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은 약간의 씁쓸함과 쓸쓸함을 남기고 말았다. 어느 주인공의 말처럼 “결혼이 가지는 지지와 허용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위해 제도결혼을 선택해 떠난 나의 이전 연인들과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니.

‘탈반’한 사람들의 과거와 그들의 회고는 마치 아름답고 애잔한 꿈인 것 같았다. 여전히 ‘현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떠난 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 이 자리

에 그대로 남겨진 혹은 남기를 선택한 과거와 현재의 내가 보였다.

‘그럼에도’ 둘.

“나는 이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던 주인공의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남겨진, 현실의 주인공은 그 ‘과거의 관계’들을 통해서 현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테니. 그리하여 과거의 연인들은 이름답고 애잔하기만 한 꿈이 아니고, 이 씩씩함과 쓸쓸함은 주인공과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인생이지.”

다만, 동성 연인을 고려하고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없기를. 억지 찬향이 격으로 제도결혼으로 편입한 것을 두고 온전한 자신의 자유의지이자 선택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줄기를. 다른 그림, 다른 삶, 다른 가족을 상상하고 실현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더 많아 지기를.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다채로워지기를. 모든 것은 움직이니까, 그런 게 인생이니까.

누군가 내게 “사랑이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몰라요.”

나는 늘 사랑이 움직이듯 정체성도 움직인다고 표현해 왔다. 그리고 세상천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해왔다. 음...경험을 통해서도 반복해 온 생각을 통해서도 매번 이런 결론에 이르고 만다. 움직이는 그것을 무엇이라 어찌 정의할 수 있겠나. 그 정의가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럼에도 뭔가 찻찻한 것이 남는데, 그것은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바람’때문인 것 같다. 이는 곧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세상천지 변화하는 것이 없다는 것 알겠는데 그럼에도 내가 하는 이 사랑만큼은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불

가능한 꿈에 관한 이야기다.

입으로는 사랑이 움직이니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에서는 내가 하는 있는 이 사랑만큼은(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일 테지만) 움직이지 않게, 멀리 달아나지 않게 해달라고 실제 없는 누군가에게 빌고 있으니 한심하고 안타깝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은 사랑이 신흥종교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현대인은 사랑에 “걸려있다”는 얘기다. 신과 종교가 있었던 자리에 사랑이 치고 들어와 앉은 형국이랄까.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충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했다(내가 그토록 빌고 있던 실제 없는 누군가의 정체가 밝혀졌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옳은 말씀. 나는 여전히 머리 따로, 몸 따로 분열된 채로 이렇게 낭만적 사랑이데올로기 혹은 사랑 이데올로기라는 것의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닌 우정이고, 이것은 사랑이고, 저것은 자매애고, 그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친밀성이다라는 이분화의 정서적/감각적/감정적 노예. 이러한 이분화는 여러 사람들을 잡아 왔다. 이것은 정상이고, 저것은 비정상이고. 그리하여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며, 이성애가 일반적이냐 동성애는 이반적이라는 등의 그렇고 그런 뻔한 이분법 말이다.

어떤 대상과 존재를 이분화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이다. 무엇인가를 우월한 지위에 앉히고 싶은 의도한 의도에 의한 결과랄까. ‘정상적’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혹은 놓인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 그런데 이 창작물이 여러 사람을 잡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네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네가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고, 그러니 네가 믿는 그 사

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 당장 중단하고 ‘정상인’의 범주 안에 들어와 편히 쉬라고. 이런 악랄한 이분화의 바탕엔 악랄한 의도가 숨어 있는데, 내가 이 숨은 의도에 말려 들어가 있는 꼴이다.

심지어 부처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헤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이 또한 백번, 천번, 만번 옳은 말이다. 애초에 내가 시작한 사랑이라는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아니야! 내 사랑은 영원해!”라고 울부짖는다 해도 끝은 있었다. 아직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가 없다. 교제 3년 정도 되니 다들 “정상적으로 살겠다.”며 제도결혼에 편입하거나,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떠났다. -_-; “아니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있잖아!”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 해도 이는 사실일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죽으니. 물론, “죽어 실재하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해도 너희들이 나눈 사랑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라 말해 준다면... 뭐, 그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일 테지만, 죽음 앞에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내가 낭만적 사랑이테올로기의 노예라는 것, 그 무엇도 죽음 앞에 영원성을 논하는 일을 한심하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최소한 ‘각성’의 가능성이 있는 듯하여. 또 누가 아는가, 내게도 해방의 그날(일종의 해탈)이 찾아올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무질서하다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명확하게)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움직이고, 변화하는 무질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을 리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 속에서 규정하고 명명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가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게 인생이다.”를 믿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나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랑이 뭔지, 낭만적이고도 영원한 사랑 이테올로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떤

날말로 정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정의에 기대하고 있는지, 왜 기대하지 않는지, 원하던 사랑을 했었는지, 하고 있는지, 할 예정인지 등.

궁금한 이유는 아마도 내가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모르는 게 맞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일 리 없는 사랑의 내용과 형식을 무지갯빛처럼 넓고 크게 펼쳐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랑 정의를 비웃고 새로운 사랑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인들에게 독점되어 온 사랑이라는 낱말을 다시 쓰고 싶다. 그렇게 “결려버린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다.

****** 함께 읽어요.**

보스틴 결혼

레즈비언 선택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악녀

사랑은 지독한 혼란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은 왜 불안한가

사랑이 뭐예요?(우야 버전)

작성 : 우야

작성일 : 2014년 6월 15일

요즘은 무언가 궁금하면 그 뜻을 찾아본다. 뜻을 모른 채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어떤 이들에게 ‘사랑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보았다.

1.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2.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3.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4. 열렬히 좋아하는 상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상대를 만나 열렬히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상태. 그 상태를 사랑에 빠졌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상태는 첫 연애를 했던 15살과 29살이 지금은 매우 다른 것 같다.

29살, 현재. 백수로 산지 반년이 되었고, 연애를 그만하기로 했다.

그 반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려니 tvN에서 방영했던 ‘응답하라 1997’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의 10대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그 때의 나를 떠올리게도 했던 드라마. 특히, 마지막 화에서 남자주인공의 나레이션은 나의 첫 연애와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첫 사랑. 저마다의 첫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 사랑의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첫 사랑의 시절엔 영약하지 못한 젊음이 있었고 지독할 만큼 순수한 내가 있었으며 주체 할 수 없이 뜨거운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 젊고 순수한 열정의 시절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사랑은 무모하다. 명확한 계산 없이 순수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던져버리거나 결국 실패 한다. 하지만 그래서 극적이다. 다시는 가져 볼 수없는 체온과 감정들로 엮혀진 무모한 이야기들. 첫사랑은 그래서 내생에 가장 극적인드라마다. -응답하라 1997, 16화

첫 연애를 했던 15살, 그리고 그 첫 애인을 다시 마주하게 됐던 25살. 그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서 다시 설레고 두근거렸지만 서로가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절망했던 그 때. 10대와 20대가 무엇이기에 숫자 하나 변했을 뿐인데 몇 년 간의 삶을 공감할 수 없으며, 만나면 늘 과거에만 머물러 나아갈 수가 없었다. 나와 했던 연애를 동성연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성연애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성연애만 해왔던 그녀와 연애를 다시 할 순 없었다. 나는 아주 잠시 사랑에 빠질 뻔 했지만 사랑에 빠지면 내가 힘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듯 지금의 나는 명확한 계산 없이 순수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던졌었기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통해 한 없이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다.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남는 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버렸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주체 할 수 없이 상대에게 뜨거웠던 내가, 지독할 만큼 순수해서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했던 내가, 그 때도 상대방보다 나 자신이 좋았던 게 아닐지 생각한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15살 첫애인과 25살에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더해보려고 한다. 나와 연애를 이성연애로 생각하며 이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와 마주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 글에도 이야기 했듯이 그 때의 나는 나를 남성으로 정체화 했던 시기이기에 그녀가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의 연애가 ‘이성연애’로 정의 내려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남성’으로 대하는 그녀와의 대화가 불편했고 어려워졌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조건(?) 중 성정체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너무 많은 것이 따라 온다는 것도,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과거 ‘사랑’했던 경험들을 떠오르며, 사람들과 만나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고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주제는 사랑, 이성애, 동성애. 대화 안에서 ‘무엇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내릴 수가 없었고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잡힐 것 같은, 정리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선을 봐서 결혼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소개팅을 할 나이가 아니라 선을 봐야 할 나이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했다.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사랑’은 가족을, 사회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상대방’에게 느끼는 매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비중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TV프로그램 중, 연예인들의 가상 결혼 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 ‘우리결혼했어요’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고, 종편에서는 돌싱 연예인들의 가상 결혼 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 ‘넌과 함께’가 방영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연애 상대자를 찾는 프로그램 ‘짝’은 2014년에 출연자의 자살로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 전까지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듯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의 ‘사랑’은 ‘결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동화의 마지막도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이지 않나.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19금 연애상담 프로그램 ‘마녀사냥’이 일반, 이반에 할 것 없이 흥하고, ‘사랑’노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호모포비아 반대 캠페인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외치고 있는 요즘.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겉으로 보기엔 ‘동성연애’만 해왔던 나, 그리고 동성연애만을 하길 원하는 친구

들은 지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상대방' 자체를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장 큰 것 같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연인'으로 인정받는 것.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성연애를 할 때도 지인들에게 연인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다.

어쨌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으로 되돌아가자면, 사랑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다가 올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에 빠질 것인지, 빠지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 선택(?)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로맨티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랑'이 변한다는 사실과 '사랑 한다'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느낌도 알게 되었다. 누군가와 연인관계를 맺은 후, 100일 그리고 1년 마다 고비가 온다는 것도 한 명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는지 분노했지만 이제 이런 감정에 익숙해져서 재미있다. 「god의 난 사랑을 몰라」라는 노래의 가사.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듯 한사람만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있지 않다는 걸 왜 너는 아직도 몰라/ 왜 내게 그대라는 여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걸 다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명일 뿐인 걸/ 왜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해달라고 해 나는 사랑한다는 말 따윈 절대로 하지를 않아/ 난 사랑을 몰라

누가 정해 놓았는지 모를 '사랑'이라는 정의. 그리고 '사랑' 할 때의 마음가짐. 하지만 조금씩 살아가면서 처음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변하며, 한 사람과의 관계 맺음 안에서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사랑'을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아는 것은 '사랑'은 어떤 형태건, 누가 하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꿈꾸고 있다.

사랑이 뭐예요?(수현 버전)

작성 : 수현

작성일 : 2014년 6월 23일

사랑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다면 깨우친 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아닐까. 쉽다면 쉬운 질문이고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범위를 성애적 사랑으로 한정해도 답하기 쉽지 않다. 질문의 무게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과 맞먹는다. 대개 추상적인 것의 정의를 묻는 질문이 어렵다. 사랑처럼 사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더욱 더. 어느 학자는 사랑을 “communism in capitalism”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이 곧잘 감정의 성역으로 여겨진다는 점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을 해 보았어야 이 질문에 어설프게 토라도 달 텐데 해본 적이 없다.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연애들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 가졌던 감정에 확신을 가진 적은 없었다. 나름 사랑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했던 까닭에 혼란스러워 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 이 애물단지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는지. 그건 또 모르겠다. 정리하더라도 자의적 정의에만 머물 듯하다. 나만의 깨우침이고 개념이며 정의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으니, 권위에 의존해서 공백을 채우려 한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관계를 빌려서(!). 노예는 노예이기 위해서 주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예라고 명명하는 주인이 필요할 테니 말이다. 그

러나 주인 또한 주인이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하다. 노예라는 계급이 없는 이상 주인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주인과 노예, 그 관계망에서 둘 중 하나가 사라지는 동시에 그 관계는 사라진다. 필연적으로 서로 종속되는 것이다. 고로 둘의 관계는 끊임없는 ‘인정투쟁’의 상황에 놓인다. 계급의 문제이자 정체성의 문제이며, 더 거칠게 표현하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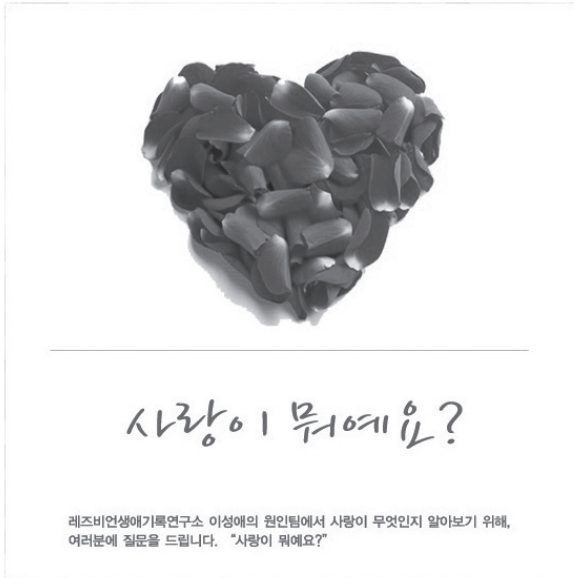
사랑이 인정투쟁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아무에게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굳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과정과 말이다. 물론 이 길에는 욕망과 욕정, 갈망 등 매끄럽다고만은 볼 수 없는 감정의 결들이 섞여 있겠다. 이 투쟁이 승리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할 것이다. 도무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관계가 두 인간(폴리 아모리의 관점에서는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겠다)에만 한정될 수 있을 듯한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앎아 보인다. 어느 사랑은 사랑이라고 명명되지만, 또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니 말이다.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랑 또한 사회적인 규범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자라면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이 구분된다. 좋은 사랑은 결국 결혼이라는 종착점에 닿기도 한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에 일관된 결론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내가 솔하게 고민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명료하게 할지 못하는 상태에서 익숙한 사랑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 지을 뿐이다.

지금 이 글을 급하게 쓰고 있는 중에도 스피커에서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몇 곡 켜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 사랑 노래를 싫어했다. 엄마께 유행가에는 왜 사랑노래가 많느냐고 여쭙보니,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다. 음. 그럴 수 있다. 다만 보편의 무게로 세세한 결들, 개별자들이 지워지지 않길. 나는 내 애인에게도 아직 못한 사랑한다는 말을 그 어려운 말을, 이 어떤 공백에다가 정의내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

[설문조사] “사랑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이성애의 원인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4년 8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구글폼 주소 클릭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구글폼 : https://docs.google.com/forms/d/1_B0AGQsGxZQqiWF5VuebuRQhV2S22MWmVW8wqksiPoc/viewform?usp=send_form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D

※ 설문조사 아이디어를 내고,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는 '이성애의 원인' 팀 활동가 우야님입니다.

[인터뷰-박김수진]

사랑이 뭐예요? : 진님(1978년)

진님(1978년생)

인터뷰한 날 : 2014년 5월

인터뷰 및 기록 : 박김수진

Q : 연애, 사랑 많이 해 봤어요?

A : “연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했어요. 어린 시절, 짝사랑을 포함하면 훨씬 많죠. 심각하게 했던 짝사랑도 있고요.

Q : 이전 연애들은 사랑해서 한 건가요?

A : 네.

Q : 짝사랑도 사랑이었나요?

A :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느낌.

Q : 사랑하는 느낌과의 차이는 뭔가요?

A : 지나보니까 사랑하는 느낌은 좀 더 상호적인 거고, ‘헌신’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설레는 마음, 자극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마음. 짝사랑은 인

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환상’. 뭐 이런 게 아니었겠어요? 혼자만 좋아하는 거니까. 설레고 아프고, 어려서 그랬는지 많이 아팠죠.

Q : 짝사랑,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는 뭐였어요?

A : 일단 공통점은 누군가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좋아하는 느낌이란 혼자 좋아하든 같이 좋아하든. 그걸 넘어 사랑을 할 때도 느끼는 특별한 감정. 지나고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사랑하는 건 조금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고비도 넘어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제 선택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 뜻이 서는 것.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보면 설레고 기분 좋고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짝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상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같았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이건 장점이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본다든지, 다른 사람과 커플링을 하는 걸 본다든지. 뭔가를 할 엄두는 안 냈지만, 그 마음을 배웠던 것 같아요. 고통까지. 짝사랑은 그 아픔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고통은 발생하는데...옛날엔 사랑이라는 것에 굉장히 회의가 많고 인생에 단 한 번 있어야 하는 되게 무거운 거라고 느꼈어요. 사랑이 뭔지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비가 있거나 견디거나 헌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 맞으면 제 갈 길을 가야한다, 이런 관계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이런 데에 더 마음이 가 있었는데, 그게 좋아하는 관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방의 단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나랑 잘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망스럽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치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뜨거운 때, 그런 것만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경험해 보니까 사랑은 어떤 온전한 느낌이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건 되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보는 것 같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나 ‘뭐다’ 라는 확실한 느낌. 사랑을 무거운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감정들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Q : 연애를 네 번을 했으면, 네 개의 사랑이 다 다른가요?

A : 네.

Q : 어떻게, 왜 다른가요?

A : 사람이 다르니까 다 다르죠. 나도 계속 변했고. 그리고 매번 참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연애는 상호적인 것을 경험한 첫 연애였는데, 상호적인 게 뭐냐를 배웠던 것 같아요. 어리버리했죠.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싸울 때는 난감하고, 내 마음처럼 안 될 때는 굉장히 어쩔 줄 모르겠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다가 그 관계에 투신하고 싶지 않은, 나를 지키기에 급급했죠. 서로 좋아해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는 다는 게 처음이라 놀랍기도 했고. 하지만 첫 사랑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어리버리하다가 상처와 분노로 얼룩지고 끝난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 연애도 사실 어리버리 했죠. 두 번째 연애는 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처음 연애가 깨지면 다신 사랑을 못할 것 같았는데, 또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리고 서툴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누리고, 안 되는 건 포기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게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태도로 그 관계나 감정에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도 ‘언젠가 끝날 텐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안 좋은 게 있을 때 스킬이 없었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무작정 막막했던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것이 당연히 있고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문제로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는 다는 것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막 연구하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막 침해받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세 번째 연애는 조금 길게 갔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관계도 오래되고 나도 나이가 들고, 20대, 30대를 넘어 가면서는 이제는 처음의 설레는 감정에 연연해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관계가 되게 안정되고 뭔가를 넘어 서고 좋고 나쁨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나오고 나 혼자만의 뭔가를 찾는 폭풍 같은 20대를 보냈는데, 그걸 넘어가니까 나만의 관계,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하

기 시작했고, 그러던 찰나에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이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죠. 어느 정도 내가 준비된 상태,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사랑의 경험과 준비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설레는 것도 순간순간 누리고 기적같이 여기고 고마워하면서 어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관계를 맺는 부분에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관계, 누군가와 삶을 함께하는 관계를 내가 많이 그리워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신뢰가 있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옛날에는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일상처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정말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삶이 온전하다는 느낌. 여기가 베이스캠프 같고, 연애 초반처럼 번개가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불쑥 나타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내 옆에서 저렇게 잘까, 뭐 이런.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덜 방어적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나, 나, 나를 잃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물론 나를 지키려는 순간들도 있지만, 조금 더 투신하려는 마음. 참 좋아요. 이렇게 되려고 수많은 분노의 시간과 괴로움도 겪고 다양한 사람들 만났나하는 생각도 들고. 엄청나게 두 사람이 삶 속에서 결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관계보다도.

Q : 그게 사랑인 건가요?

A : 네, 나한테는 그래요.

Q :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나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해 온 건가요?

A : 네. 사랑의 의미도, 비중도, 내가 붙이는 뜻이 달라졌죠.

Q : 그럼 네 번째 연애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계속 변화하는 게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이 완성일 수 있을까요?

A : 그런 의미에서라면 완성은 없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각자 변화 할 것이고, 언

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 지 알 수도 없고, 희망하는 관계의 상들이 있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나요. 삶은 변화할 거고. 그럼에도 내가 완성 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뿌리를 내린 느낌이 든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이전에는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뿌리를 더 깊이깊이 내릴 일이 있는 것이지 이 뿌리를 내릴까 말까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의 나는 사랑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와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고 염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곁에 있으려고 하고 아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라면 그 사람과의 거리에 관한 문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되게 좋은 형태의 뭔가라고 생각해요. 단 각자의 의미에서 약속에 기반을 둔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만든 틀에 의해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려고 하는 것 같고, 이 공허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연결된 끈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경험, 마음인 것 같아요. 꼭 그걸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요. 누군가에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랑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꼭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 붙이는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경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가족 등 예전에는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지 사랑한다는 마음을 내거나 입 밖에 소리 내어 말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나고 그렇게 마음을 전하거든요, 사랑한다고. 어떤 특별한 유대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꾸리고, 그건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거라고 봐요. 어떤 결속에 대한 지향인 것 같아요. 사랑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 마음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의 위계는 있죠.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만 위계도 있죠. 위계는 a보다는 b가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면 b에게 더 기울죠. 더 강한 결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위계. 나의 결정이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런 위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죠. 어떤 순간들에는 a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Q :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끝날 경우, 슬픔과 분노로 점철된 이별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사랑은 더 완성된 사랑일까요?

A : 그건 잘 모르겠어요.

Q : 하지만 네 번째 사랑을 완성이라고 느끼고, 그런 게 조금씩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A : 하지만 이건 통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나락으로 빠질 수 있죠.

Q : 지금까지 해주었던 모든 이야기가 사랑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A : 생각 스위치를 딱 끄고 달려가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나는 생각 스위치를 끄는 일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생각 스위치를 딱 끄고도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यो, 달려갈 수 있는 것ियो.

Q :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랑,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A : 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인 상대가 필요한 사랑이라면 인연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사랑은 포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하고 손잡고, 애투하고 이런 것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텅없이 같이 앉아 하늘 바라보는 그런 순간도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된 무언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믿어야만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끝.

[설문-우아] 사랑이 뭐예요?

※ 이 설문은 2014년 8월 8일까지 진행하는 "사랑이 뭐예요?" 설문과 별도로 우아님이 진행했던 우아님 지인들 위주의 설문 결과 내용입니다.

류량(26살, L) >

사랑은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족한 부분을 묵묵히 채워주고

사랑하는 이가 슬퍼할 때 묵묵히 옆에서 품을 빌려주고

사랑하는 이에 대해 생각할 때

묵묵하게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랑은

침묵입니다

배호(25살, L) >

사랑은 변명.

네 가슴을 한번 더 만지기 위한 변명

네 다리 사이로 한번 더 들어가기 위한 변명

그러다 결국 뽀뽀하고 버려질 때, 그제서야 진심이 되는 변명

사랑은 그런 변명 아닌 변명.

혜음(22살, L) >

사랑은 나의 일부를 그 사람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아도
다시 찾으려 갈 마음이 들지 않는 것.

히마(29살, L) >

사랑은 책임이다 이거나
사랑은 고통이다 이거나
사랑은 외설스럽다 이거나
사랑은 그리움이다 이거나~

메리(21살, L) >

사랑은 열린문

사자(26살, L) >

사랑은 그 사람 집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나의 일부를 두고 오는 것

※ 설문에 응답해준 사람들 중 심도있는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수현] 사랑이 뭐예요?: J님(1989년)

J님(1989년생, 26세)

인터뷰한 날 : 2014년 6월

인터뷰 및 기록 : 수현

#사랑이 무엇이나는 이야기하기 전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J님께서는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험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인 걸 아셨나요?

- 저는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정체화를 했어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더 어릴 때 이미 알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어린 시절엔 남자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와 게이의 구분도 할 줄 몰라서 '난 남자가 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했죠. 한 때는 저는 제가 바이인줄 알았던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 좋아하고 또래 여자애들 좋아하고 했지만 '레즈비언'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이런 경험이 좀 있잖아요? 남자 애들 사이보다 친밀감이 좀 강한 거요. 예를 들면 우정 반지를 빙자해서 커플링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만 동성애는 비 '정상'이라고 배워서 그런지,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성애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강박적으로 고치려 했죠. 벗어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웃음) 지금은 노트북에 (6색) 무지개 스티커

붙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커밍아웃을 잘 하지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을 짝사랑할 땐 결혼식에 축하 부르고 오는 길에 울고 그랬어요. 당시 타투라는 레즈비언 여성 듀오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 팬클럽 카페 중 몇몇 곳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화 됐었고, 그런 곳을 통해 이쪽 커뮤니티에 접근했어요. 대놓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인 곳에는 가입조차 못했어요. 가입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아웃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긴 한데, 정보를 많이 입력해야 한다는 게 맘에 걸렸어요. 정보가 노출되면 사람들이 제가 레즈비언인걸 알아볼까봐 무서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돌이킬 수 없이 레즈비언이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런 카페에 가입한건 중2 즈음이었어요. 정모를 통해 만난 레즈비언들이 몇몇 있었고 대부분 제 또래였어요. 그때 그 친구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며 불안해했어요.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레즈비언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도 되지만, 한편으로 불안이 증폭되기도 하더라고요. 소수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모였을 때엔 소수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정적으로만 알게 돼요. 가려야 한다,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만 들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상의 결과만 갖게 되는 거죠.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힘겹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부정할 수도 있었던 정체성이잖아요? 끝내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결국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왕부치’였어요.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대학 들어와서 이성애자 남성들(모두가 이성애자 남성이었을진 모르지만)과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 그 친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쪽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더라고요. 제게 커뮤니티 T나 M이나 R 등등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페미니즘 덕분이예요. 여

성주의 교지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뭐랄까. 마지막으로 시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만났어요. 되게 착한 애였거든요. 이 친구와도 못 사귀면 세상에 어떤 남자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성주의를 통해서 예상치 못하게 지금의 여자 친구를 만났고, 그 남자친구랑은 결국 헤어졌죠, 뭐(웃음).

제 애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애인은 정체화한지 2년이 안됐어요. 제기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부터 혼자 공부를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사회주의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인권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도 ‘동성애자로 사는 건 안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대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 레즈야’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런 태도를 보고) 나중엔 저도 영향을 받았죠. 지금 애인과 처음 사귄 때엔 학내에서 손잡고 다니는 게 두려웠는데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너무 편한 거잖아요.

페미니즘을 알게 된 후 퀴어 이론 쪽을 더 공부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젠 이 당연한 모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옳지 못한 건 편견을 가진 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요즘엔 ‘동성애자 더럽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속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웃음). 지금 애인을 만나고 최근 3개월 동안 변화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게 허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자가 싫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가치표현을 하는 것조차 그른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생각을 가족한테 밝히는 게 아직은 좀 두렵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가장 어려운 커밍아웃 이라고 생각해요. 또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 그렇죠. 집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기도 하죠. 가족과 연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44년생이예요. 창씨개명 하던 시기에 사셨으니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심했어요. 엄마는 62년생이예요. 어머니와 저의 나이 차이로 보면 세대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전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1800년대인데, 엄마가 사셨던 동네엔 들어오지도 않으니 완전 촌구석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있으면 결혼하라는 얘기를 몇 번씩 들어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 커밍아웃은 생각도 못했어요. 심지어 여동생한테 말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엄청난 불효라는 생각도 했어요. 엄마가 결혼을 너무 강요하셔서 싸우기도 했어요. 지금은 엄마와 결혼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피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대충 짐작하셨을 걸요? 애가 어릴 때 그런 꼴로 다녔는데(웃음). 아마 언젠가 제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 한 조각으로 모든 퍼즐이 다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성애자라도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 엄마랑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길 바라는 이유에 당신의 잘못된 선택을 보상받으려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예요. 결혼 생활의 불행을 제도가 가부장제 등의 불평등에서 찾지 못하고, 남편이라는 개인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우리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남자의 돈이나 직업 등 조건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네 말 잘 듣는 남자친구를 만나라.’, ‘네가 좀 아까워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을 애정의 종착점이라고 보기 보다는 인생에서 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진짜로 행복하길 바라시니까 ‘착한’ 남자친구를 만나길 요구하시는 거고요. ‘결혼 한하고 늙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진심이신 거죠. 엄마에게 남편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딸 둘 있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결혼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

파트너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말하는 이성애 결혼에서 제가 행복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성주의를 공부한 영향도 있어요. 막말로 내 남편이 정말 페미니스트라면 상황은 훨씬 낮고 괜찮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싶어요. 남편의 가족은? 가정 내에서의 성별 분업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할 행위나 규범들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동성 결혼도 마찬가지로 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남자와의 결혼이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적도 있는데요. 그 친구가 완전 순둥이 타입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비흡연자에, 화도 잘 안내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그 친구가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좋아해주고 나의 편의(?)를 봐주고 했어요. 제가 쓴 여성주의 글도 저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어요. 그런데 개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애인을 좋아하는 느낌과 열정에 그 때의 감정은 미치지 못해요.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J씨는 여자랑 남자를 모두 만나보신 거잖아요? 그 관계에 애정이 있었고, 또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여자친구를 사귀는 때와 남자친구를 사귀는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제가 아는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패드를 준다는데 왜 굳이 계산기를 쓰냐. 아이패드가 완전 개짱이지(웃음). 그냥 정상으로 살아야지 아등바등 했던 게 쓸데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이 너무 편해요. 얼마 있지도 않은 괜찮은 남자들 중에서 내 취향에 부합하고, 내가 원하는 사고를 갖출 것이며. 등등. 파트너를 찾을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한편으론 제가 남성애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랑 사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레즈비언 커플이라도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여남이 손잡고 지나가면 커플이라고 인정받죠. 하지만 레즈비언 커플은 설명을 요구하

게 돼요. 이거는 사실 동성애라서가 아니라, 어떤 ‘정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겠죠. 할머니와 젊은 남자가 손을 잡고 지나간다면 누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관계라는 점에선 노력이 필요하죠.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죠. 그 점이 좀 힘든 거 같아요.

지금 애인은 두 번째로 만난 여자 친구예요. 모든 연인 관계를 통틀어서 처음 사귄 건 여자였고, 또 오래 사귀었어요. 3년 정도? 그 언니와 저는 띠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도 레즈비언이라고 공공연하게 커밍아웃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 언니 행동도 당연히 이해하죠. 비가시성이 편리하기도 하니깐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싶으면 필요에 따라 숨기면 되니까. 예를 들면, 동거를 하고 싶어서 집에 알렸을 때 부모님 입장에선 커플이 동거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같이 살자는 말을 해도 가벼운 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 언니와 사귀고 있는 기간 동안 주변 친구들이 소개팅 해준다는 제안을 수없이 했어요. 물론 하지는 않았죠. 그러다보니 사람들끼리 자기 연애를 얘기하고, 고민이 있다든가 자랑한다든가 그런 사소한데 부러웠어요. 제 연애는 털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점점 인간관계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자아가 분리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한편으로 주말 게이의 삶이죠. 주말에만 정모를 간다든가, 핑크를 간다든가 하는 식의 삶. 당시엔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거리낌 없이 말해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애인과 관계와 이전의 만남과의 차이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진지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함께 이민을 가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동성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해요. 그걸 목표로 이런 저런 미래 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공학사를 따든가 하는 식으로 학력을 쌓아서 해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요. 각자 전공이 인문계이긴 하지만(웃음).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게 위안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잖아요.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다닌 학교는 여고였어요. 미션스쿨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진 않았어요. ‘남자 같은 여자를 사귄 거면 뭐 하러 여자를 사겨’ 뭐 이런 생각?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호모포비아 적인 생각이죠. 당시 저는 저를 제외한 어떤 동성애자를 이해할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동성애는 이성애의 모방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안의 호모포비아는 정말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 자체로 옳지도 않고, 근데 이것도 학습된 거라고 생각해요. ‘재레즈래’라는 낙인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레즈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고.

한번은 한 친구가 선배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게 전교에 소문이 났어요. 상대방은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친구 이상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성애 관계에서 고백을 거절하는 것 처럼요. 근데 그 친구가 고백한 게 지금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동창회 같은데 갔을 때 아직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잔해요. 얼굴이 빨개져서 고백했는데, 진짜 좋아했구나 싶어요. 고백 받은 선배가 멋있는 타입이었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한테 저런다고 소문이 났죠.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혐오가 두려웠고 무력감도 들었지만 티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숨겨야 한다고. 그 정도가 병적이었죠. 당시 친구 중에 게이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를 좋아한다고 말한 애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진짜 절박한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친구의 고백에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어요. ‘어 나도 여자 좋아해’라는 말은 절대 못하고. 일반 애들이 할법한 얘기를 했어요. ‘여중이라서 그런다. 헛갈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은 왕레즈로 살고 있겠죠? 언젠가 만나면 내가 명칭했다고 말해야겠어요(웃음).

제가 겪어서 그런지. 자기가 성소수자인데 호모포비아다 이러면 참, 욕만 할 수도 없고, 욕하면서 잔해요. 답답하고,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도 그렇죠. 왜 그랬을까 싶고, 한채윤씨 글 중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생각나네요. 한채윤씨가 어렸을 때 한채윤씨 언니가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더라고. 그리고 선을 넘지 않고 원에서 나오라고

했대요.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을 지워버리면 돼요. 진부한 얘기지만 그냥 선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걸.

지금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부러워요. 혹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말하는데 J님의 지난 역사들이 모두 담길 것 같기도 한데요.

- 개인이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정의는 감정에 대한 묘사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회적인 규범의 영향도 있겠죠. 섹스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사회적인 규범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어대사전처럼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으로만 정의되는 건 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이 규범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규범인 것 같아요. 그 규범 속에서 어떤 대상을 포함하고 또 배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너무 끝없는 일로 느껴져요. 특히 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성 간의 사랑’으로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사는 나라에 많이 실망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건 일반 사람들이 퀴어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웬만하면 이민을 가고 싶지 않기도 해요. 빠른 시일 안에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해도요. 해외에 가서 이민자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잖아요. 그럼에도 이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내가 레즈비언이기 때문이에요. 제 애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되면 이민 안 갈래?’라고 물으니까 ‘나는 마흔 살 돼서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라고 답하더군요.(웃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물론 어느 수준까지 ‘나아질’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차별은 안돼’ 이런 수준에서만 머물 것인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적어도 차별금지법은 10년 안에 제정되지 않을까요? (웃음)

〈이성애의 원인 연구팀〉

3차, 4차, 5차 모임 후기

3차 모임 일시 : 2014년 5월 2일 7시

장소 : 서울 홍대 카페 어슬렁정거장

참석 : 우아, 수현, 박김수진

정리 : 박김수진

1. 2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팀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수현님께서 새로운 팀장으로 활동합니다!

2. 오늘 회의까지 각자 "사랑이 뭐예요?"라는 주제의 글을 작성, 공유하기로 했었는데요, 준비가 되지않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5월 17일까지 수현님, 우아님 작성 후 카페에 게시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공유는 4차 회의에서 합니다.

3. "사랑이 뭐예요?"라는 주제로 5월에 각 1명씩, 총 3명+6월 각 1명씩 총 3명 인터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지 준비 여부, 인터뷰 진행 방식 등은 각자의 스타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5월 4차 회의에서 방법에 관해 공유한 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6월 인터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월별 각 1명씩이지만, 간단하게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인터뷰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인터뷰 녹취 원본을 1차 편집 후 인터뷰이에게 검토받은 후 재수정, 그 편집본을 회의와 블로그를 통해 공유합니다.

4차 모임 일시 : 2014년 6월 23일 7시

장소 : 서울 마포 옥탑방 상담소

참석 : 우야, 수현, 박김수진

정리 : 수현

지난 6월 23일에는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 인터뷰한 내용을 공유했고요. 제각기 준비한 “사랑이 뭐예요?”라는 글을 함께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 “사랑이 뭐예요?” 인터뷰

먼저, 각자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인터뷰 방식에 대해 간략히 소감을 나눴어요.
(인터뷰 전문은 관련 인터뷰 글을 참고해주세요!)

● 수진 : 익숙한 방식의 인터뷰를 했다. 한 시간 정도 얘기했다.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말미에 “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시작하는 문단, 사실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사랑은 포괄적인 감정”이고 “사랑이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된 무언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열린 결말이다. 인터뷰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열린 결론을 내렸다.

● 우야 : 6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며 물음을 던졌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

엇인가요?”가 질문이었다. 이 단순한 물음에 다채로운 답들이 나왔다. 심오한 답을 하거나 재미있게 답한 사람을 뽑아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 수현: 지인 한분을 인터뷰했다. 페미니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사람이다. 지금 애인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관계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연 케이스다. 사랑이 무엇이라는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차피 다 자의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규범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 사랑은 정의는 내리기 나름이지만 강요되는 사랑은 있는 것 같다.

◇ “사랑이 뭐예요?” 글

“사랑이 뭐예요?”라는 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글을 브리핑하고, '사랑'하면 드는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글의 전문은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 수진님 글은 3차 회의에서 검토했습니다.

● 우야: ‘진짜’ 연애가 뭔지는 모르겠다. 첫사랑은 좋지 않게 헤어졌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응답하라 1997>을 보면 오랜만에 만나도 그 시절의 감정이 보존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딱 내 상황이었다. ‘그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10년 뒤 다시 만나니까 그 친구가 예뻐지기도 했고 (웃음).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는 힘들었다. 둘 다 어렸을 적의 모습과 달라졌다. 그 친구는 이성애자 사회에 익숙하고 나는 동성애자 사회에 익숙하다. 15살엔 내가 남자인 줄 알았다. 그 친구 역시 나와 연애를 얘기할 때 남자친구 사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너무 여자 같았던 거다. 이제 그 친구는 남성상, 여성상이 확실하게 서있다. 예전에는 나를 사람으로서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달라졌다.

글을 쓰며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다. 이성애와 동성애가 맞물리는 부분이 어려웠다. 그 친구와 연애했던 시기가 ‘이성연애’의 시기였다면, 그 친구를 10년 뒤 다시 만났

을 땀 ‘동성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내가 ‘너무나도’ 동성애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요건에 정체성도 있는 건가? 이제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할 대상에서 배제해 버렸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대개 ‘외롭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든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한다. 선을 봐서 바로 결혼하는 건 좋지 않게 본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 자주 등장한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셈이다. 드라마 같은 것만 해도 결혼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존재를 인정받길 원하는 동성애자와 달리 이성애자들은 ‘사랑’ 혹은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진다.

이런 저런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 안에 많은 사회적 의미들이 담겨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을 꿈꾼다고 생각한다. 연애를 하든 않든 누구나 마음속에 사랑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 수현 : 어디서부터 써야할지 감이 안 왔다. 정리되지 못한 생각을 이야기 하자면, 사랑은 감정의 성역처럼 여겨진다. 성스럽고 고귀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난 사랑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거나 알게 되더라도 그건 나만의 정의가 될 것이다. 결국 사랑은 자의적 정의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인정을 받으려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일단 실존적인 고독이 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다. 예를 들면, 타인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주길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대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사랑이 성공적으로 끝나든 끝나지 않든 사람은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후 나눴던 이야기

우야: 사랑하지 않는데 연애는 할 수 있다. 그 연애는 무엇일까? 그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우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더라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 ‘사랑해?’라고 묻고 ‘응, 사랑해’라고 답했을 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게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사랑이 아니라고는 감정을 명확히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인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수진: 사랑은 대부분 자기해석 아닌가? 사람마다 코드와 만나게 되는 시기가 중요할 거다.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그럼에도 사랑이야’라고 말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땐 조금 힘들어지는 듯하다.

우야: 사랑이 뭐냐고 묻는 작업을 이성애자들에게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엄마들이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 ‘사랑이 뭐길래 결혼까지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나?

수진: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마음 하나로 관계가 유지된다. (우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신부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건 어떨까?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이런 사례들로 이성애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확실성(?)등을 얘기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우야: 열다섯 때 행복했던 사랑을 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변한다. 그 때의 감정처럼 마음만으로 상처받는 일은 이제 별로 없는 듯하다.

수진: 나는 20대 때까지 사랑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이었다. 여전히 생각의 기저엔 비판적인 사고가 깔려있다. 그런데 할머니 즈음 돼서, 누군가 ‘사랑이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좋은 거야’라고 답할 것 같다. 내게는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형태가 있다. 변화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우야: 종종 감정의 범주도 애매하다. 난 내 애인에게 무언가를 해 주는걸 좋아한다. 사실 무언가를 해 주는 내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밥을 해주는 내가 좋았고, 그러다보니 ‘내가 애를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연애하는 나 자신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현: 200일 남짓 사귀 애인과 헤어졌을 때 환상이 깨진 기분이었다. 헤어진 다음날 사귀기로 했던 그 장소에 갈 일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다 보니 감정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운 건지 구분이 안 갔다. 감정이 그리운 건지,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추억이 그리운 건지. 사람들을 만났다가 헤어지면 남는 건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떠올려보면 사람은 없고 뼈대만 남는다. 그리고 내 연애의 흥망성쇠는 대개 비슷했다.

◇ 다음 회의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 본 후, 이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랑을 알아야 이성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올 말까지 사랑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 인터뷰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정해진 틀에 인터뷰 양식을 통일할 것인가, 각자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인터뷰어 각자의 방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 우야님의 제안으로, 구글 폼을 열어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닉네임/성향/나이를 묻고 “사랑이 뭐예요?”라는 질문의 답을 받는 것이지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회원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8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 번 더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인터뷰를 완료해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어요. 5차 회의는 8월 21일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5차 모임 일시 : 2014년 8월 21일 7시 30분

장소 : 서울 마포 옥탑방 상담소

참석 : 우아, 수현, 박김수진

정리 : 우아

○ 활동공유

-수진 : 이정인님 인터뷰 카페 업로드

-수현 : 사랑에 관한 인터뷰 진행

-우아 : 설문조사 결과 153명 카페 업로드, 사랑에 관한 인터뷰 진행

사랑은 명명 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다.

사랑의 기준 또한 이데올로기다.

사랑이 이런데 이성애, 동성애의 원인을 말 할 수 있을까.

사랑에 부터 알아 본 것이 좋았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삶도 살 수 있는 것 같다.

누군가 본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활동계획

-다음모임, 9월 11일(목) 진행

: '사랑이 뭐예요?' 설문조사 결과 분류하기

: '사랑'에 관한 인터뷰 업데이트(수현, 음성녹취 편집본 포함)

○ 추후계획

1. 다시 생각하는 '사랑'에 관한 글쓰기 (11월)

2. 설문조사 결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가 모임 갖기 (10월 25일, 전체 모임)

-사랑이 뭐예요?: 수현 담당

-무성애, 사랑하지 않는 삶: 수진 담당

-진행: 우야 담당

〈이성애의 원인 연구팀〉 6차 모임 후기

일시 : 2014년 9월 18일 7시

장소 : 서울 마포 우야님 집

참석 : 우야, 수현, 박김수진

정리 : 박김수진

6차 모임에서는 간단하게 근황을 나눈 후 지는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했던 “사랑이 뭐예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나이, 정체성 등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비슷한 응답을 묶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랑이 뭐예요?”에 관한 응답 특성 때문인지 나이나 정체성 별로 카테고리 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랄까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응답들을 여성과 남성, 10대와 40대, 레즈비언과 게이로 나누어 분류하는 경우에서 있어 특별한 분류가 가능하지 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응답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요.

그러다 우야님이 “ㄱ, ㄴ, ㄷ...”으로 묶어보니 내용 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정체성 등의 분류 시도를 중단하고, 그저 응답 결과를 “ㄱ, ㄴ, ㄷ...” 순으로 펼치듯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개방형 서술식 설문조사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ㄱ, ㄴ, ㄷ...”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결과에 이르니 참으로 기도 막히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는 보기 쉬운 형태로 배치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3일까지 우야님이 작업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짧은 도입글 작성은 박김수진이 하고, 검토는 수현님과 우야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 홍보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는 10월 25일은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4차 전체회의 날입니다. 4차 전체회의는 [이성애의 원인 연구팀]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발제문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논의는 별도의 오프 회의를 갖지 않고, 회원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 논의,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발제는 수현이, “무성애”에 관한 발제는 박김수진이 담당하고, 진행은 우야님이 합니다.

▶ 다음 회의는 2014년 11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이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 11월 9일 회의 전까지 활동가 3인의 두 번째 “사랑이 뭐예요?” 글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뷰-박김수진] 사랑이 뭐예요?: 이정인님(1980년)

이정인님(1980년생)

인터뷰한 날 : 2014년 8월

인터뷰 및 기록 : 박김수진

Q. 연애 경험이 많은 편인가요?

A. 열 번 정도 했네요.

Q. 오...많은 편인 거죠?

A. 대체로 짧게 짧게 만난 편이죠. 제일 길게 만난 게 지금의 연애, 500일 정도 되었어요.

Q. 연애 경험이 풍부한 편이네요.

A. 양적으로 만요.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Q.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교제를 한 거죠.

Q. 사랑이 없는 연애도 가능한 거죠?

A. 가능하죠! “엔조이”요! 하하하하하.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Q. 그런가요? 듣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A.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흐릿하게 다가와요. 내가 잘 안 쓰는 낱말이 “행복”, “사랑”인데요, 행복과 사랑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수위를 사랑이라고 하는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어요. 이 낱말의 의미가 뭔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 같다는 느낌은 또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 연애들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나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반응을 하니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 싶어요. 또 얼마나 재수도 없었겠어요!

Q. 사랑이 뭔데요?

A. 모르겠어요. 그저 무겁게만 다가왔어요. 과거 연애들을 돌이켜 보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기는 해요. 20대 초반에 어떤 언니를 오랜 시간동안 좋아했었는데, 엄청난 열망을 느꼈던 시기였죠. 그 사람만 보이고, 좋아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강렬하고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통 사랑이라고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첫 사랑이 언제야?”라고 물으면 그 때 그 언니를 말해요. 하지만 그건 짝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내 마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동경에 가까웠던 거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요. 당시의 감정을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에 따라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20대 초반과 중반에는 그 “사

랑”이라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비슷한 감정을 30대 초반에 느낄 일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헤어지던 날, 그 무렵에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일종의 공황장애 증상들을 겪었거든요. 20대 초반에 느꼈던 감정들과 비슷한 그런 강렬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Q. 이 인터뷰 질문들도 그렇지만, 너무 모든 감정들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A. 맞아요. 나는 “사랑” 이외의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한 가지 모양일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말하는 건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인지 내가 하는 사랑은 아닌 거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봐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이건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일이 가능한 일 같지가 않아요.

Q. 그럼에도 종종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나요?

A. 가끔씩. 하지만 지금도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요. 얼마 전에 친구가 해 준 말이 있어요. 이성연애하는 친구인데, 빛이 참 좋은 날에 집에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경우에도 그래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TV 시청하면서 둘이 “깔깔깔” 웃는 것도 참 좋고 말이죠. 예전이라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편안함, 굳이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과거의 그 감정들, 강렬한 그런 감정들은 기본적으로 참 불편한 마음 상태거든요. 과도해서 불편한 것, 어

떤 종류의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인 거죠.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해야 할이지, 말아야 할이지,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인터뷰-수현] 사랑이 뭐예요? : 흥님(1987년)

흥님(1987년생, 28세)

일시 : 8월 19일 오후 8시

기록 및 작성 : 수현

흥님과 산채비빔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한 시간이나 늦어서 흥님은 식전에 주전부리로 주린 배를 채우셨답니다. 무례한 행동에 굶은 말 한 마디도 않으시고 환한 표정으로 맞아주신 흥님. 심지어 비빔밥 위의 노른자도 양보해 주셨어요.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고 반주로 농주 한잔 걸친 후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인터뷰 말미의 질문은 “사랑은 뭐예요?”가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담으려면 흥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보게 될지도 몰라요.

- 아…. 안녕히 계세요.(웃음) 음, 저는 ○○산부인과에서 새벽 두시 반경에 태어났고….

그런 것까지 말씀해주시진 않아도 괜찮아요.(웃음)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 회피해주시어도 좋아요. 그나저나 뭘 먼저 여쭙 봐야 하나. 마지막으로 연애하신 게 언제예요?

- 헤어진지가 2년 반 즈음 됐어요. 2012년에 끝이 났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마지막 연애예요.

지금까지 마지막이라는 걸 특히 강조하시네요(웃음). ♀님은 정체성을 L로 규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체성을 알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나요?

- 처음으로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떠올라요. 그 때부터 ‘나 여자를 좋아하구나.’ 했어요. 그 전에는 연애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어린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더라구요. 그런데 다 여자애들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되고 한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잘 맞아서 저를 계속 불러주고 저도 맨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여자랑 사귀다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죠. 말이나 생각으로는 ‘동성애 차별하면 안돼!’ 했었지만 실제로 레즈비언을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요. 충격 받았어요(웃음). 너무 낯설고 생소했어요. 그 느낌들을 떠올려보면 호모포비아였네요(웃음).

얼마 뒤에 다시 그 언니를 만났는데 여느 때처럼 재밌게 놀았어요. 그 언니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이고, 여전히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웠어요. 그 때부터 레즈비언이 제 삶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별 다를 것 없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전에는 관념적으로 알았다면 그 언니 덕분에 삶으로 녹아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느낄 때 여자이더라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게 처음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물론 연애는 못했고요(웃음). 그렇게 감정을 받아들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짝사랑을 하고 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친구하고 제 감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용기가 나서 주변 사람들과도 이 실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밖으로 꺼내서, 앞에 말한 언니를 비롯해서 주변에 함께 이야기 나눌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별 일 아니었어요. 실연당한 게 큰일이었지(웃음). 그 친구들 덕분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저의 한

가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이전에 그 감정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혼란은 없으셨나요?

- 그런 혼란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였어요. 우정인지 사랑인지 고민한 것 보다는, 좋아하고 계속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에 무심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컸는데도 우정, 사랑 같은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까요. 인식 못한 거죠. 제 정체성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너무 좋으니까 ‘어 연애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전애인을 짝사랑하는 동안에는 그 친구가 등이 파진 옷을 입고 왔는데 ‘아, 저 등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웃음) ‘우정인가? 사랑인가?’라는 고민은 안 해본 거네요. 감정을 뒀다가,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니까요. 시늉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시늉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건가요?

- 우선 제가 저의 감정을 존중하게 되었고요. 또 상대방과도 교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혼자만의 것이고 금기시 되었는데, 겉으로 드러낼수록 즈음에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게 느껴졌어요. (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 언어로 감정이 전달이 되는, 잦은 연락과 마음을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 설레서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있잖아요.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교류가 점점 커져서 어떤 땐 말없이도 딱하면 척 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애인과 연애하기 전에 짝사랑하다가 차였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 때 정말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억으로도 남겨져요. 우리가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연애편계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의외로 짝사랑을 많이 하셨네요?

- 혼자 좋아서 잘 쫓아다니네요, 진짜. 그러네, 계속 짝사랑만 하네.

중국에도 연애를 하셨으니 짝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웃음). 연애를 할 때 욕망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후자 쪽이신 건가요?

-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많은 연애관계를 경험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때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드는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음. 연애를 할 때 일단 좋아한다는 감정은 갖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완전히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ㅎㅎ 같은 경우엔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으로 변한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사랑한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기도 하잖아요?

- 저는 하루에 열두 번씩 했어요(웃음). 저는 음 어려웠어요. 그때는 쫓아다니다가 되게 되게 어렵게, 여신님 같은 사람이 저에게 온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랑한다고 했죠. 감정이 컸고 그냥... 확실했어요. 거의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으니까요(웃음). 지금 와서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 돌이켜 보면요. 그 때의 외로움, 어떤 조건과 시기가 맞아서 그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 붓고 혼자서 기대를 키운 과정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대체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건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알맞은 대상을 찾는 건가 싶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시시한 것이 다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충만하고 세상이 아름다웠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 다음에는 다른 연애도 해보고 싶어요. 사랑이 맞나 아닌가 고민하는 그런 연애도요. 불같은 연애도 좋고, 미지근한 채로 꾸려나가는 연애도 해보고 싶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ㅎㅎ님이 하신 연애가 부러웠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 한번 해버리세요(웃음). 전 되려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에 이

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런지는. 전 연애는 특수한 경험이었어요. 되게 멀리 사는 친구였어요. 몇 달에 한번씩 밖에 못 만났어요. 그러니 애뜻하지 않을 틈이 없었죠. 뜨겁게 연애를 하고, 고된 이별을 하고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몸도 아팠었구요.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연애할 때는 냉정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웃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건, 다시 듣고 싶은 마음도 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좋아해줬는데도 제겐 허기가 있었어요. 혼자 쫓아다닌 시간이 강렬해서 더 그랬을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데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이 받았죠(웃음).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요? ‘Power of love’라는 말도 있듯이. 사랑이라는 말은 막연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 음, 막연히 떠올리면 따뜻해요. 말랑말랑해지고. 그게 판타지이지 싶어요. “사랑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까 망설였어요. 처음엔 ‘사랑’하니 연애관계에서의 사랑이 떠올랐고 점점 연애 아닌 다른 사랑까지 넓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동물이나 눈에 안 보이는 대상까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까지 사랑을 상상한다면 그저 따뜻하고 배시시 웃고, 그런 느낌이에요. 마냥 누그러지고 행복하고 마법 같은.

ㅎ님의 연애에서도 그런 마법 같은 판타지가 있었던 거죠?

- 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장면만 삶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 것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어도 세상이 참만한 느낌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상적인 사랑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애관계에서만 국한한 사랑에서요.

- 특별히 생각해놓은 건 없는데요. 그냥 전에 연애할 때 같이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

요. 그 때는 관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편계의 중심에는 존중이 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요. 존재 자체로 내버려두는 거랄까요? 그대로 두더라도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새롭게 뭔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편안한 관계라면 좋겠어요. 저는 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막내여서 그런지. (의원데요?) 알고 보면 저밖에 몰라요(웃음).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럼 다행이구요. 연애하면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좋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운 게 좋았어요. 서로 맞춰가는 길을 찾는 거.

이성애 관계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결혼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건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는 게 사랑의 종착점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웃음). 아, 그 결혼 말고..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퍼스트댄스>라고.

어떤 영화예요?

- 결혼하는 영화예요. 엘 커플이 결혼하는 걸 다크로 찍은 영화예요. 제도결혼에는 비판할 지점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이런저런 비판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크를 보고 '결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라는 애길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에서 부부 주위에 하객들이 모여서 어깨에 손을 얹고 치르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뜻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름다웠어요. 의례를 하면서 기운이 모이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건 중요한 일구나 새삼 떠올랐어요. 평소에 제 정체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난 결혼 안 해.'라고 미리 조금씩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고, 그걸로 제 입장을 공표하다 보니 스스로도 헛갈리고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안 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다크를 보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영화 주인공들의 단단한 관계, 앞으로 살아갈 게 기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라는 건 저런 사랑이지 싶었어요. 저도 안정적인

관계를 꾸리고 싶어요.

최근에 <커피 한잔이 섹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화는 어떠셨어요?

- 영화보기 전에 <<보스턴 결혼>>이라는 책을 봤어요. 읽고 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됐어요. 섹스 없는 오래된 커플을 다루고 있고요. 영화에서 신선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이야기였는데, 다른 두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섹스를 하지 않아도 같이 잘 살 수 있어’하는 느낌이었죠. 저에게는 그랬는데 다른 친구에게는 잘못 사는 모습으로 보였대요(웃음). <<보스턴 결혼>>을 같이 읽었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영화에서 ‘커피한잔을 마신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장면의 비중이 적어서 아쉽기도 했어요. 물론 원제는 이게 아니지만 한역 제목에 굳이 ‘커피’를 넣은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 저는 간단한 의미로 이해했어요. 대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아줌마들 모임에 함께한 적 있는데 부부끼리도 섹스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대화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웃음) 저한테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시콜콜 별 거 아닌 이야기도 서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연애하실 때도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 그렇죠. 끊임없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했어요.

감정에 불편한 지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얘기하시나요?

- 저는 주로 다 얘기했어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느끼는 걸 다 털어놓고 싶었고요. 불편한 얘기 꺼내는 건 어려웠지만 꾸역꾸역 얘기 잘 했네요.

대화에 의미부여하시는 게 있나요?

- 아니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요?) 네, 서로 불편한 지점까지 얘기해야 서로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기 보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숨기는 것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관계에서 기본적이었어요. 그래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저런 말을 해도 여전히 사랑을 정의하기 쉽지 않네요. 사랑이 뭔지 배운 적이 있어야지(웃음).

혹시 영화 〈her〉 보셨나요? “우리는 사랑을 배웠어”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사랑이 학습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요.

- ‘사랑을 배웠어’... 동의했어요? (네 전 그 말에 동의했어요) 명언이네요. 아, 〈her〉 봐야겠다.

하나님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글썄요. 사는 것 자체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배운다면 어떤 면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대답을 하려니 생각이 계속 넓어질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노래나 춤 같은 걸 현대 사회에서는 정해진 틀에 맞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틀 없이도, 원시시대에도 막 했잖아요. 지금의 노래, 지금의 춤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을 배우는 것은 지금 사회의 방식에 맞게 통용되는 걸 배우는 거겠구나 싶었고요. 만약에 수만년 뒤에 인간이 존재한다면, 사랑은 또 다른 방식이 될 지도 모르죠. 연애도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변하려나... 모르겠어요. 배운다고 하면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잘’이라는 기준에 맞는 이 시대의 방식. 근데 이거

너무 넓잖아요(웃음). 잘 모르겠네요. 사랑. 사랑을 배우면 뭘 배울까요?

적어도 저는 사랑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네요.

- 그러게요. 사랑이 뭘까요? (그게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웃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연애에서, 이게 사랑이었을까 고민하는 거. 인과를 밝히려고 하니까 사랑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했는데요. 그냥 그런 것도 사랑이 아닐까 해요. 사랑이 별 거 없는 것 같아요(웃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관계에서요. 거대한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외로웠고, 찢 질하기도 하고, 누군가와와의 관계에서 행복해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흐름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 뭐 있나요? 정의하기 어려운 것도 결국 우리 삶에 닿아 있는 소탈하고 조그만 것들과 연결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거대한 가치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듯해요. 정말 특별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 이라면 가질 수 있는 소탈한 감정일 수도 있는데 왜 이리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 사랑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여서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뭘까 하는 질문을 받은 김에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쪽 생각하다가 사전을 한 번 찾아봤는데, 정의하는 문장 중에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웬지 와 닿았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른데 그 차이가 뭘까? 마음의 크기 차이라... 그런 것 같네요. 많이 좋아하는 것. 여기에다가 서로 존중하는 것. 그 정도면 전 사랑이라고 할래요. 이번에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출근길에 비둘기가 많아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털이 복슬복슬한 개, 고양이들 보면 멈춰서 쳐다보고 그래요(웃음). 어느 날 비둘기 다리에 있는 귀여운 솜 털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혐오하잖아요. 그게 제 안에도 조금 있었는데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고 요즘은 아침마다 비둘기 보고 기분 좋아져요. 어떤 시점에 이런 감정이 커지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둘기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좋아하고 괴롭히지 않고… 지나가는 비둘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웃기겠네요(웃음).

동물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 제 꿈은 양이나 소 돼지 닭 이런 동물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각자 밥을 알아서 챙겨 먹고 저는 같은 집에 사는 인간 한 명. 근데 힘들죠(웃음). 양이 길가에 똥 싸고 소가 밭에 있는 풀 뜯어먹으면서 돌아다니면 마을 사람들이 괴로워하겠죠? 돼지도 한 마리만 있으면 쓸쓸하니까 두 마리는 같이 살아야겠고, 소도 두세 마리. 그러면 집이 난리 날거예요(웃음).

얘기가 삼천포로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여태 이것저것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사랑의 정의를 내려 본다면 어떨까요. 사랑은 뭘까요?

- 어어…. 어렵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서 끝내면 ‘사랑은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터뷰에 나오는 건가요?(웃음) (네네) 한번 요약해볼게요.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괴롭지는 않다. 음, 엄청 좋아하면서 행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늘의 제게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벨 훅스의 <사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사랑을 열심히 정의했고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까먹었네요(웃음). 영향을 받았어요. 나중에 또 인터뷰하면 재밌겠네요. 사랑이 뭔지 다른 느낌이 든다면 다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돌아온 ㅎ’ 뭐 이런 식으로. 말만 많이 하면 될 하겠어요. 직접 경험을 해야지(웃음).

“사랑이 뭐예요?” 설문조사 결과 공유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이성애의 원인팀]에서

지난 2014년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성애의 원인팀]에서는 “이성애의 원인”을 찾기 전에 “사랑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방형 질문지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청하였고, 총 15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15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18일에 [이성애의 원인팀] 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등 정체성 중심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10대, 30, 50 대 세대별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카테고리도 나누어도 의미 있는 변별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런 기준으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떠한 차이나 공통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논의 끝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이 뭐예요?”라는 질문의 응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카테고리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응답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요. 이것이 우리가 시도했던 설문조사에서 얻은 가장 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정의

함에 있어 나이, 지역, 정체성 등에서 의미 있는 변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그만큼 “사랑”은 경계 없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설문결과를 읽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카테고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던 중, [이성애의 원인팀] 활동가 우아님께서 “ㄱ, ㄴ, ㄷ, ㄹ...”로 묶으니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살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개방형 서술식 설문조사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ㄱ, ㄴ, ㄷ...”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결과에 이르니 참으로 기도 막히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정체성 등의 분류 시도를 중단하고, 그저 응답 결과를 “ㄱ, ㄴ, ㄷ...” 순으로 펼쳐듯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쓸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ㄱ)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73>

사랑이 뭐예요? (ㄴ)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72>

사랑이 뭐예요? (ㄷ)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71>

사랑이 뭐예요? (ㄹ)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70>

사랑이 뭐예요? (ㅁ)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69>

사랑이 뭐예요? (ㅂ)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68>

사랑이 뭐예요? (ㅅ)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66>

사랑이 뭐예요? (ㅇ)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67>

사랑이 뭐예요? (ㅈ)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64>

사랑이 뭐예요? (ㅊ) 편 ☞ <http://blog.daum.net/lesbian2013/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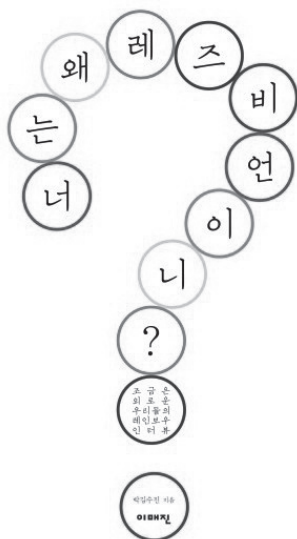
※ [이성애의 원인팀]은 수현, 우야, 박김수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설문조사 기획은 모두가 함께,

설문조사 톨과 결과 이미지 제작은 우야가,

홍보는 수현과 박김수진이 맡았습니다.

[이런 책을 냈어요]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 - 조금은 외로운 우리들의 레인보우 인터뷰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 조금은 외로운 우리들의 레인보우 인터뷰〉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성주의저널 일다〉와 〈이매진 출판사〉에서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낸다는 일은 참으로 뭔가 부끄러운 일이네요. 책을 내고 스스로 책을 냈다며 홍보를 하자니 하기는 해야하는데, 뭔가 창피한 마음이 들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후. _-; 그럼에도 저의 성장을 도와주신 수많은 레즈비언 지인들, 친구들, 내담자들, 활동가들로부터 배우고 느낀 내용들을 이렇게 책의 형태로 남길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감사해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박김수진 드림-

[목차]

들어가며

1부 별에서 온 그대들: 레즈비언 바로 알기

- ▶ 저를 믿지 마세요
- ▶ ‘레즈비언 별나라’에서 파견된 대사?
- ▶ 남자답다? 여자답다?
- ▶ “언어는 의식을 규정하고, 권력관계를 생산한다”
- ▶ 동성애자는 누구일까
- ▶ 동성 연애? 동성 교제!
- ▶ 레즈비언, 게이, 커밍아웃, 호모포비아
- ▶ 누구랑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 ▶ 넷째 손가락이 길면 동성애자라고?
- ▶ 이성애자라면 1번을, 동성애자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 ▶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
- ▶ 레즈비언들은 무엇을 고민하나
- ▶ 레즈비언의 동성 교제와 이성 교제
- ▶ 노란 쟁반이 필요해요
- ▶ 벽장 문 열고 나가기
- ▶ 마지막 강의

2부 내 마음 네가 다 알잖아 - 레인보우 인터뷰

- ▶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내가 왜 불행해?” — 긴 터널을 빠져나온 엄마와 나
- ▶ 극적이지 않은 화해 수만 번 — 언니한테서 온 편지
- ▶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 동생의 기억, 나의 기억
- ▶ 내가 만든 나의 가족 — S와 나, 우리가 사는 이야기

- ▶ 나의 기록, 또 다른 나의 기록 — S가 박김수진을 만나다
- ▶ 지역과 서울의 경계 넘나들기 — 광주 대표 레즈비언 서현
- ▶ 50번의 알바를 거쳐 진정한 독립으로 — 씩씩한 레즈비언 명개의 홀로서기
- ▶ 탈반의 기억 — 쿼어-종교인 지현의 성장기
- ▶ ‘나니까’에서 ‘워커’까지 — 떠돌이 잡문가 캐트펄의 이중생활
- ▶ 60번의 맞선, 60번의 퇴짜 — 서른다섯 교사 레즈비언 로마의 도전
- ▶ 생활인으로, 레즈비언으로 — 공무원 장수생 레즈비언 에림의 선택
- ▶ 연애도 운동! — 여성운동 하는 레즈비언, 아자
- ▶ 무지갯빛 변신 — 연극하는 바이섹슈얼 고리의 과거, 현재, 미래
- ▶ 8년의 연애, 8년의 이별 — 재한 일본인 레즈비언 스즈키의 과거지사
- ▶ ‘타인의 고통’을 고민하다 — 레즈비언 다큐멘터리리스트 이영의 꿈
- ▶ 운동에 경계는 없다 — 전 레즈비언 단체 활동가 3인 3색 토크
- ▶ “회의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소중한요” —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 ▶ 신촌공원에서 만나요 — 10대 여성 이반의 거리 상담가 제이
- ▶ “나에게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아” — 오랜 친구 정현의 조건 없는 신뢰
- ▶ “언니, 정말 결혼하지 마라” — 안쏘니가 꿈꾸는 또 다른 가족

“그냥, 나는 레즈비언이니까. 그게 나니까!”

- 아는 언니들 모였다,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무지개를 띄웠다
- 아웃팅의 공포와 탈반의 기억을 건너 새로 만든 가족 이야기까지
- 조금은 힘들어도 여기 우리 있다고 말하는 레인보우 인터뷰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에게 묻다 -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

한 사람이 있었다. 《레이디경향》과 《주부생활》을 뒤지고 피시통신의 바다를 헤매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정체를 찾아 나선 사람,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별나라에서 온 대사’ 취급을 당한 사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어

느 누구일 수 있는 사람, 바로 동성애자다.

평범한 30대 동성애자 박김수진, 레즈비언 박김수진은 2000년에 레즈비언 인권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성애 칼럼을 쓰고 홈페이지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펼쳤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다른 정체성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 - 조금은 외로운 우리들의 레인보우 인터뷰》는 그런 활동의 결과물이다. 1부 ‘별에서 온 그대들 - 레즈비언 바로 알기’는 동성애 바로 알기 지상 강의 형식을 띠고 있고, 2부 ‘내 마음 네가 다 알잖아 - 레인보우 인터뷰’는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을 만나 이것저것 물어본 20번에 걸친 인터뷰를 정리한 기록이다.

또 다른 나를 기록하다 - 20번의 속 깊은 인터뷰로 우리를 알아가기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를 놓고 소란이 벌어지더니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마찰이 빚어지는 우리 사회를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사람들, 동성애가 무엇이고 레즈비언이 누구인지 궁금한 이들은 이 책 1부에 실린 레즈비언 바로 알기 지상 강의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동성애와 레즈비언의 정의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계, 레즈비언부터 호모포비아까지 동성애 관련 용어의 올바른 정의, 동성애 인구 통계의 문제, 동성애와 종교, 레즈비언의 정체화 과정, 커밍아웃까지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인터뷰는 박김수진이 엄마와 언니 등 가족부터 친구와 지인을 만나 나눈 레즈비언 이야기다. 그중에는 레즈비언도 있고 레즈비언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 동성애와 레즈비언 문제를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이해관계자다. 공식 질문인 “너는 왜 레즈비언이니?”로 시작하는 인터뷰는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며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가 지니는 복잡함과 다양함을 보여준다. 먼저 정체성 문제다. 동성애자를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으로 보는 박김수진은 스스로 동성애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조금 도발적인 이 공식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답하는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동성애 또는 레즈비언이 고

정체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층, 계급,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결이 드러나는 삶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레즈비언들은 한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한다. “그냥, 레즈비언이니까!”

레즈비언들이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가족과 커밍아웃에 부딪히면 다들 쉽게 당당해질 수가 없다. 가족도 “누가 물으면 우리 딸 레즈비언이라고 답할 자신”은 있지만 먼저 꺼내어 말하기는 어렵다. 또 결혼 문제와 경제 문제는 일상을 늘 괴롭힌다. 결혼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에는 맞선을 60번 보고 퇴짜를 60번 놓은 교사 레즈비언 ‘에림’의 경우처럼 가족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며 우회하거나, “나 결혼 안 한다”고 미리 열심히 선언해버린 공무원 장수생 레즈비언 ‘로마’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사랑을 매개로 한 ‘결합’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동성애도 당연히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곤해서 차라리 연애 안 하고 만다는 생각도 해왔다는 여성운동 하는 레즈비언 ‘아자’는 명색이 레즈비언으로서 연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맞받아친다.

때로는 경제 문제도 걸림돌이 된다. 집안 사정으로 50번의 알바를 거치며 진정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명개’는 돈 때문에 연애를 못했고, 돈 때문에 파트너와 다투기도 한다. 광주 대표 레즈비언 ‘서현’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성애자인 척 살아가는 레즈비언의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레즈비언 인권운동가 ‘가루’와 ‘랑랑’은 서울하고 5년, 10년 차이가 나는 지방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운동을 하는 썬인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괴로움을 특유의 열정과 여유로 이겨내고 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소윤’과 ‘려수’도 이런 “활동을 왜 안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단체 활동 자체가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활동인 현실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함께 모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 중에도 소수자는 있다. 이성애자로 살자고 마음 고쳐먹고 동성애자에서 벗어나 ‘탈반’을 감행했다가 다시 레즈비언으로 돌아온 퀴어-종교인 ‘지현’은 기독교인이다가 불교로 개종하더니 지금은 성당에 다닌다. 연극을 하는 바이섹슈얼 ‘고리’는 상식을 깨고 당연한 세상을 뒤흔드는 자신의 연극처럼 정체성을 변화시킨 자

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재한 일본인 ‘스즈키’는 외국인이자 레즈비언이자 계약직 강사이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지를 담담히 전한다.

저 무지개 너머 어떤 나라: 아는 언니들의 그냥 잘 살아가는 이야기

동성애자나 레즈비언이 ‘섹스에 미쳐 날뛰는 변태성욕자’라고 떠들어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하는 일은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꿈이라는 말 앞에 ‘아직은’이라고 적어 넣고 저 무지개 너머 있는 어떤 나라를 꿈꿀 자유마저 빼앗지는 못한다. 아는 언니들의 그냥 잘 살아가는 이야기는 지금도 ‘나는 레즈비언일까?’라고 묻고 ‘나는 누구일까?’라고 스스로 되물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다.

★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동성애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는 ‘선택’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인생이라고 누군가 말하던데요, 왜 이 문제만은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으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본문 40쪽

제 덕분에 그동안 동성애자를 향해 품어온 막연한 혐오나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걸어 다니는 동성애 바로 알기, 걸어 다니는 레즈비언 바로 알기 강좌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보지 않아서, 만난 적 없어서, 대화를 해본 적 없어서 품어온 동성애자를 향한 작고 큰 편견과 고정관념은 직접 만날 기회를 통해 아주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 본문 58쪽

벽장 문을 열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가세요. 다만 이 어려운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려 하지는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

그만 더 용기를 내주세요. 인권 단체의 문을 두드리고, 레즈비언 친목 모임을 찾아 가입하고, 같은 고민을 해온 사람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 본문 100쪽

동물을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로 나누고,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남성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로, 인간을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나누는 분열된 시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 노동자를, 장애인을, 동성애자를 끊임없이 비정상인으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바탕인 이분법을 극복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논하고 소수자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해법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타자화하는 생각을 멈추면 됩니다.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로 끌고와 현실에서 다시 출발해 사고하면 됩니다. 나랑 남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다시 시작하시죠. - 본문 121쪽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내가 왜 불행해? 내 자식 인생은 내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건데, 나는 내가 한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이모든 고모든 누가 물으면 나는 답할 자신 있어. 우리 딸 레즈비언이라고, ‘레즈비언인 딸, 우리 박통’은 어차피 레즈비언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괜히 남 눈치 보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 본문 131~133쪽

우리가 동거하고, 우리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사는 것. 내게 이것이 주는 가장 좋은 의미는 ‘내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가족이죠.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고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그 가족은 내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꾸린 가족은 다르죠. ‘여자 둘이서 가족을 꾸릴 수 있다’는 발상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내게는 가장 큰 변화예요. - 본문 155쪽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고, 그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레이디경향》을 통해서 ‘여성인데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레즈비

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즈비언’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게 아니라, 《레이디경향》에서, 사회에서 날더러 ‘레즈비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레즈비언’인 거죠. - 본문 161쪽

이성애의 완성은 ‘결혼’이고, 동성애의 완성은 ‘연애’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레즈비언 중에는 독신주의자가 있으면 안 되나? 이성애자 중에는 독신주의자가 있는데, 왜 레즈비언 중에는 독신주의자가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연애를 하든, 하지 않든, 연애를 원하든, 원하지 않은 상관없이 스스로 ‘나는 레즈비언이고, 독신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 본문 177쪽

게이 커플이 이성애자인 여성이랑 계약 결혼을 하는 일은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 맞선 자리에 끌려 나가거나 자발적으로 나가는 동성애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뒤 부모님에게 갖은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 본문 212쪽

나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을 ‘레즈비언’으로 부를 뿐이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만들어놓은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등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택할 수 있는 이름이 ‘레즈비언’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레즈비언인 거죠. - 본문 238쪽

‘레즈비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모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랑랑 님의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단체 활동가 중에 ‘운동인 것’과 ‘운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운동인 것’과 ‘운동이 아닌 것’의 경계를 허물 때 진짜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모래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할까요. - 본문 258쪽

‘운’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같은 상황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아우팅당하고 고생하고. 10대 이반이 어떤 분위기의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동성애자들 처지가 이렇게 운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인 거구나’예요. 제도적인 장치 하나 없이, 개인의 운에 따라 고생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고생을 하느냐가 결정돼버리니까요. – 본문 274쪽

진보 진영 사람들이 ‘동성애자? 괜찮아’라고 쉽게 말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 동성애자로 사는 것,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동성애자 문제에 쿨한 척을 하는 게 곧 진보라는 식의 생각, 오만이야. 이성애자로 살아온 내가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순 명쾌하게 ‘나도 레즈비언으로 살 수 있어’라고 대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 본문 279쪽

★ 지은이 박김수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 기록 활동과 강의 활동을, 여성상담공동체 옥탑방상담소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 출처 : 이때진 출판사, <http://blog.naver.com/imaginepub/220107126449>

공지사항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정기 강좌 주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2013년 12월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3, 5, 7, 9, 11월 다섯 번의 정기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공감할만한 주제로 강좌를 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주제의 강좌를 듣고 싶으신지, 혹은 강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 강좌를 기획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강좌 주제 예시

반려동물, 입양에서 무지개 다리까지

아홉 가지 성격 유형으로 풀어가는 인간관계(동거가족, 친구, 직장, 커플 등등)

직장 내 성희롱

동성애 바로 알기 :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반성폭력/레즈비언과 성폭력

호모포비아 물리치기

동물 학대와 여성폭력의 연관성

셀프 미용

연애의 스킬/대화법/동거의 기술

좋은 커뮤니티 찾기

'남친있어요?' 물리치기-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물음의 대답법

위의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적어주셔도 좋고,

새로운 주제, 좋은 의견은 더더욱 환영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이메일(lesbian2013@hanmail.net)로 의견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니다~재밋고 유익한 강좌들 준비하겠습니다:)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블로그에서 보기:

<http://blog.daum.net/lesbian2013/197>

8차 교육사업팀 회의결과

참석 : 규월, 리턴, 박김수진, 려수

일시 : 2014년 3월 4일

장소 : 홍대 카페 어슬렁정거장

작성 : 려수

1. 정기 강좌 사업

1) 3월 강좌: 조이여울님 강의 - “여성주의와 이반감성”

- 조이여울님 강의 내부 강좌 변경에 대한 논의
- 3월 16일 여성플라자 팀원들은 5시에 만나 자리와 다과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14년 강좌사업 재논의

- 동거의 법적보호 보호자로서의 역할 병원, 현실적인 문제들
- 동거와 반려동물
- 동거가족 연애스킬 에니어그램 유연상속 건강권 커리어 노후대비
- 여성폭력과 동물학대
- 입양에서 무지개다리까지
- 법
- 테크

- 동성애바로알기
- 커플 소통의 문제
- 직장내 성희롱
- 연애스킬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5월은 심리상담사가 이야기하는 커플 및 동거가족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강사를 섭외하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7,9,11 강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금전 활용, 레즈비언을 위한 법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강사섭외는 수진님이 진행해주십니다.

3.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야기 회의록을 쓰기로 했다는 사실, 4월 회의록은 려수가 일단 쓰고 다음 회의록부터는 번갈아가면서 쓰기로 했습니다.

4. 기타

- 다음 회의 일정 : 2014년 4월 3일 목요일 6시 예정 (변경가능성 있음), 장소는 추후 결정

- 월 님 안녕 π (월님은 예정되어있던 출국으로 활동을 중단)이라 려수가 쓴 것을 보고 수진이 팀원들에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운다 월 안녕 π_{π} 수진도 다음 회의 때부터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왜 오지 않느냐 다음 회의 때도 함께 하자고 수진을 붙잡는다. 리턴은 특유의 능글함으로 수진을 붙잡고, 규월은 방긋방긋 웃으며 다음 회의는 비육식주의자인 수진을 위해 채식카페에서 하자고 말한다. 나는 우리 팀원들이 참 좋다. $\kappa\kappa$ 수진은 이상한 팀이 다 있다고, 자기는 일이 많다고 열심히 하소연을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수진은 우리 셋에게 이기적이

라고 하였고 우리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교육사업팀으로 정체화하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 때 수진님이 교사팀 신입회원 세미나 진행합니다.

- 우리 엠티도 가요?+_+

9차 교육사업팀 회의결과

참석 : 규월, 박김수진, 려수

불참 : 리턴

일시 : 2014년 4월 9일

장소 : 홍대 카페 커피와사람들

작성 : 려수

1. 정기 강좌 사업

1) 3월 강좌 : 조이여울님 강의 - “여성주의와 이반감성” 무사히 마쳤습니다! 짹짹 짹! 활동가 강좌인 만큼 끝나고 강의가 참 좋았다는 소감이 수진님에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규월님께서 강의 정리안을 올려주셨는데 4월 말일까지 요약정리를 다시 문장화 시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2) 5월 강좌 : 여성상담공동체 옥탑방상담소 수안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강의 제목은 10일까지 정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용은 커피 및 동거가족 의사소통방법과 관계의 만족감 높이기 입니다.

강의 일시 : 5월 11일 오후 6시

20일부터 홍보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 웹자보를 만들기로 하자 수진님이 자신이 만들겠다며 자청했고 려수가 기겁을 하

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규월님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려수는 수진이 만든 웹자보를 찾아 규월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규월님은 지인에게 부탁해볼까요라며 이야기했지만 이미 려수가 활동가 레고에게 메시지로 니가 만들지 않으면 수진이 만들거라며 협박인지 부탁인지 모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결국 웹자보는 레고가 만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19일까지 레고가 웹자보를 만들어주기로 하였고 20일부터 홍보에 들어갑니다.

2. 신입회원세미나(는 리턴님이 불참하셔서 다음 회의 때 진행됩니다.)

3. 기타

- 다음 회의 일정 : 2014년 5월 9일 금요일 6시, 장소는 추후결정

- 려수 활동중단 선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잠시 중단합니다. 하지만 5월 강좌 갈 거예요, 그때 만나요ㅋㅋ 교육사업팀 팀장을 규월님이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리턴이 하고 싶다고 간곡히 이야기한다면 리턴이 맡을 수도...있지만 회의 후 리턴님과 통화에서 리턴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리턴 규월 수진 핫팅입니다!

- 다음 회의 때 질의응답을 녹취하고 요약하는 등 5월 강좌 때 할 일을 분배합니다.

10차, 11차 교육사업팀 회의결과

〈11차 회의결과〉

참석 : 규월, 리턴, 박김수진

불참 : 레고

일시 : 2014년 5월 25일

장소 : 서울 홍대 어슬렁 정거장

작성 : 규월

1) 근황 토크 : 러수님이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를 그만두신 뒤, 레고님이 교육 사업팀에 들어오셔서 활동회원이 4명으로 유지되고 있음.

2) 7월 강좌 : 5월 강좌 후, 7월 강좌에 대해 논의함. 7월 강좌의 주제를 검토하는 도 중에 박김수진님이 7월 강좌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심. 7월 강좌를 계속해야 할지 토론을 계속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레고님과 함께 결정하기로 함.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다음 회의는 부천에서 진행하기로 함.

〈11차 회의결과〉

일시 : 2014년 8월 12일

장소 : 경기 부천 에뛰디에

참석 : 규월, 리턴, 레고, 박김수진

작성 : 박김수진

1. 2014년 9월 강의 기획

- 1) 강의제목 : 레즈비언, 동물과 함께 살기
- 2) 강사 : 동물을위한행동 활동가 제이미님
- 3) 강의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 4) 강의장소 :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
- 5) 진행 시간 : 강의 1시간 30분, 질의응답 및 수다 1시간

2. 준비 일정 및 담당

8월 22일까지 : 강사섭외(제안 강의 내용 전달 및 강의안 마감 일시 전달), 홍보자보 내용 준비 및 전달(담당-박김수진)

8월 26일까지 : 홍보 웹자보 제작(담당-레고)

8월 27일-9월 26일 : 홍보 (티지-리턴, 로다-규월, 기타-박김수진)

* 강의 전 : 강의안 편집(박김수진), 강의안 복사(레고), 강의안 스테이플러 작업(박김수진)

3. 강의 당일 업무 분담

- 1) 집합시간 : 오후 5시(리턴님 제외-리턴님은 회사 퇴근이 6시 이후)
- 2) 강의안 준비 : 레고, 박김수진
- 3) 다과 준비 : 레고
- 4) 강의실 전면 강의 안내지 준비 : 규월, 레고
- 5) 강의 후 정리 : 리턴, 박김수진

4. 기타

- 1) 11월 강의 : 법관련 강의로 기획 예정.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 2) 다음회의 : 10월 초에 해야하고, 9월 말에 다시 정하기

12차 교육사업팀 회의결과

참석 : 레고, 보경, 박김수진

일시 : 2014년 11월 15일

장소 : 서울 홍대 근처 모 단체 사무실

작성 : 박김수진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에 교육사업팀 1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간 교육사업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중요한 활동 목표 중 하나가 활동가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교육사업팀 활동 특성 상 신입활동가들에게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 활동이었다는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입활동가들이 교육사업팀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팀 활동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개인 신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리턴님의 경우에는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후원회원으로 단체에 함께 하시기로 하였고요, 규월님은 2015년에 새로 만들 글쓰기 소모임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교육사업팀은 기존 멤버인 레고님과 박김수진이 그리고 그간 후원회원으로 단체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보경님이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사업팀은 당분간 새로운 활동가 충원 없이 지금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고, 지난 11월 15일에 이 세 명이 만나 2015년 활동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육사업팀의 2015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는 총 네 번의 행사를 엽니다. 두 번은 공개 강의 형식으로, 두 번은 영화 상영회 시간으로 꾸미기로 하였습니다. 행사들의 주제는 법, 인권 등에 관한 것입니다. 2월, 4월, 8월, 10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다음 13차 교육사업팀 회의는 내년 2015년 1월 3일 오후 3시입니다. 13차 회의에서는 2월 강의 혹은 상영회 개최를 위한 기획회의를 합니다.

그간 함께 해주신 리턴님, 규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레고님과 새로 결합해 주신 보경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만나요.

공개 강좌 강의안

(1)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안 공유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첫 강좌 사업, "첫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강의 해주신 박혜정님, 타지오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박혜정님과 타지오님이 작성해주신 강의안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12월 14일 토, 오후 1시

장소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1호

강사 : 박혜정, 타지오

한국에도 아이를 기르고 싶어 하는 레즈비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즈비언이 아이를 갖는 방법에는 임신과 입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입양의 경우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은 만35세 이상의 비혼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이 함께 입양 과정을 거치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공유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입양은 논외로 하고, 레즈비언 임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도 아니며,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조사하고 경험해 본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뿐이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레즈비언 임신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임신의 방법만을 논의하면 현재 가능한 방법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1. 정자 얻기

임신을 통해 아이를 갖는 방법을 ‘정자 기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정자 기증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임신하지만 기증자가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 방법과, 정자 기증자가 단순히 기증자가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공동 부모로서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정자 기증자를 통한 임신

‘정자 기증자’를 공동부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증자는 정자를 기증하기만 하는 사람이며, 기증한 후에는 아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의 정자를 받는 경우에 그 남성의 지위가 기증자인지, 공동부모인지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임신 시도 이전에 명확히 해놓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레즈비언이 부모로서 친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나라의 경우, 사전에 기증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기증자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무로부터도 해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친권이 서류나 개개인간의 계약을 통해 제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는 경우, 향후에 정자 기증자가 마음을 바꿔 양육권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판사는 아이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확인시켜 줄 것이고, 따라서 누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① 아는 사람의 정자

아는 사람(known-donor)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 한국에서 임신이 가능하다.

- *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 *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 *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 * 신선한 정자를 이용할 수 있다.

단점

- * 양육권 분쟁의 요소가 있다.
- * 1년 정도 기증자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 * 기증자의 변심 가능성
- * 성병, 기타 질병 위험성

이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는 경우, 기증자의 기증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증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각종 성병 및 전염병 검사(클라미디아, HIV, B형 간염, C형 간염, 풍진 등)는 물론, 정자의 활동성에 대한 검사를 꼭히 받아야 합니다. (비용 부담은 레즈비언 엄마가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과정을 빼놓고 협상과 계약의 과정을 거친 후, 임신 시도를 몇 개월간 한 후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정자 검사를 뒤늦게 했다가 정자의 활동성이 낮아 임신 가능성이 적거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측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결과 됩니다.

검사를 받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정자의 활동성도 좋다면, 이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신의 방법(직접 성교, 병원에서의 인공 수정, 집에서 하는 인공수정)은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증자가 현재는 정자 기증만 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이를 보지 않거나, 보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괜찮을 수 있지만, 아이가 막상 태어나서 아이를 만나본 이후에 어떻게 마음이 변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증자 본인 스스로도요. 하지만 임신 시도 전에 '최대한 구

체적으로' 출산 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서류나 음성, 영상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차후 양육권 분쟁이 생겨 재판으로 가는 경우 애초에 두 생물학적 부모의 마음가짐이나 약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정자 기증이 말 자체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사실 막상 임신을 시도하면 한 번의 시도에도 성공하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 1년 정도는 정자 기증자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성병 검사를 마친 후에 기증자의 성교 파트너가 바뀐다면, 그 파트너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자 기증을 하기 4-5일 전부터는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자 기증을 하는 것은 기증자의 사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엽산을 섭취하고, 술이나 담배를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출산 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를 생각하면 어떤 기증자가 가장 '안전한' 기증자가 될 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증자가 미혼인데, 나중에 아이를 갖지 않거나 가지지 못하는 경우 기증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는 아이 양육권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증자의 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고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막장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기증자의 마음이 바뀌어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길 원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통하지 않고 레즈비언 부모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오랫동안 알아 왔고, 신뢰감이 두텁게 형성된 사람이 기증자로서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정자 은행

정자 은행을 이용할 때의 장단점은 이는 기증자의 정자를 받을 경우의 장단점을 서로 뒤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

- *성병, 기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
- *양육권 분쟁의 요소 없음.
- *정자 기증자의 변심, 상황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우려 없음.
- *정자의 선택, 확보가 빠르게 될 수 있다.

단점

- *아이가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정자 기증자의 성격에 대한 평가 불가능.
-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 *한국에서 정자은행을 이용하기 어렵다.
- *냉동 정자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에도 몇몇 병원에서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비배우자 인공수정기술은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간에 시술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남편의 적극적 동의하에 시행한다'라고 규정해 놓아, 레즈비언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경우 부산대학병원에 문의했다가 완강한 거절 답변을 들었음)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은 레즈비언의 정자은행 이용이 자유롭지만, 외국까지 가서 정자은행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자은행을 통해 구입하는 정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덴마크의 정자은행(cryos)을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정자은행의 운영 방식은 선진국들의 경우 대개 비슷합니다.

정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자 리스트에 접근해야 하는데, 무료로 리스트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유료 가입을 해야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정자 기증자의 인종,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을 통해 일차적으로 분류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리스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요소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인종이 Asian이라도 출신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익명 기증자(anonymous donor)이나, 오픈 기증자(open donor)이나 하는 것입니다. 익명 기증자의 경우, 기증자의 인종, 피부색, 직업, 학력, 키, 몸무게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만(기증자의 어린 시절 사진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음), 신상 정보는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 기증자는 아이가 18세 이상이 되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그 아이에게 정자 기증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오픈 기증자의 정자를 구입하면,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익명 기증자의 정자보다 약간 더 비싸고 수가 많지 않습니다.

(2) 공동부모(co-parents)가 되는 방법

정자 기증자와 공동부모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교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자 기증자와 공동부모가 되면,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둘인 것보다는 셋이거나 넷이면(그 부모들이 모두 지지적이라는 전제 하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레즈비언이 남성 동성애자와 공동부모가 되는 경우를 외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서로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로 레즈비언 커플이 양육하고, 주말에만 아버지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다 같이 함께 살면서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정 방법

수정의 방법에는 직접 성교, 집에서 하는 인공수정, 병원에서 하는 인공수정이 있습

니다.

(1) 직접 성교

(2) 집에서 하는 인공 수정(Home Insemination)

이 방법은, 레즈비언이 한국에서 임신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자 기증은 여성의 배란일을 기준으로 당일이나 그 하루 전에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배란일은 생리주기를 기준으로 추측해서 배란테스트기를 쓰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은 자신의 생리주기를 지속적으로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통해 확인해서 날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증자를 통해서 정자를 받는 경우, 신선한 정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날에 정자 기증자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기증자가 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으므로, 기증자가 다른 방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기증자에게 집 열쇠를 주고 먼저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시간을 보낸 후 사정을 마치면 전화 연락을 해서 레즈비언 엄마가 집에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증자가 컵에 정자를 받으면, 바늘이 달리지 않은 주사기로 천천히 정액을 주사기로 주입해서 여성의 질에 넣습니다.

(3) 클리닉에서 하는 인공 수정

이는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받는 경우에도 클리닉에서 인공 수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외국의 경우). 기증자가 매달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기증을 하면 정자은행에 보관해놓고(얼려서) 필요한 시기에 수정을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증자가 멀리서 살 경우에 좋은 방법입니다.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얻은 경우, 정자은행에서 클리닉으로 바로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클리닉에서 냉동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인공수정을 하는 날에 녹여서 수정을 해줍니다.

인공 수정에는 ICI(Intra-cervical Insemination, 질 내 수정), IUI(Intra-uterine Insemination, 자궁 내 수정), IVF(In Vitro Fertilization, 체외 수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IVF는 시험관아기라고 하기도 하여, 난임 여성의 경우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해서 정자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보다 흔히 하는 방법이 ICI와 IUI인데, ICI는 질 내까지만 정액을 삽입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인공수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UI는 의사가 정액을 자궁 내로 삽입하여 주는 것이기에 ICI보다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병원에서 하는 경우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Washed Sperm, 즉 씻어낸 정자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정자은행에서 정액을 특별한 기술로 씻어내어 정자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클리닉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ICI나 IUI는 1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며 고통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하는 임신

국내에서 적합한 정자 기증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에 가서 임신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몇 번의 시도 뒤에 임신이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시도를 예상해야 하고(넉넉히 8개월 정도 예상하는 게 더 좋겠지요), 입국해서 검사 받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더하면 최소 8-9개월(에서 12개월까지)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국가의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시술 비용이 비쌉니다. (한 사이클, 즉 1개월 간 배란 모니터링 및 인공 수정 시술 비용이 캐나다의 경우 100-150만 원 정도, 덴마크의 경우 8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처음 검사 비용, 상담 비용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고, 9개월간의 체류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자 구입비용은 기증자의 신상 정보 포함 여부, 정자의 활동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한 병(0.5ml)당 110,000원에서 800,000원 정도 합니다. (한 배란 사이클당 정자 한 병을 쓰는 경우도 있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병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이나 캐나다, 덴마크 등은 무비자로 3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그 후에는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관광 외에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가면 해당 국가의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경

우가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인지, 민간의료보험제도인지에 따라 다른데, 전 국민 무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있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가 있으면 똑같이 보험이 적용되고, 따라서 인공수정 시술 및 모든 검사가 무료(정자구입비는 유료)입니다. 이것은 레즈비언이나 싱글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 해당 주의 의료보험이 유학생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의료보험이 인공수정비용을 커버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인공수정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정자은행 이용 가능하도록.

차별적인 의사윤리지침 개정.

결혼 외에 파트너십 인정하고, 결혼한 동성커플 또는 파트너로 등록된 동성커플이 부모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 필요(해외의 경우 결혼했거나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동반자가 출생신고서에 부모로서 기재되도록 하며,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파트너가 일종의 양자로서(step-child) 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 자료

- 레즈비언 임신의 여러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임신 방법 외에도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건강 관리법도 소개되며, 임신 사실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언제 알리는 게 좋은지 등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www.trianglen.com> 덴마크의 인공수정 클리닉.

<http://uk.storkklinik.dk> 덴마크의 인공수정 클리닉. 이 사이트의 '다운로드' 메뉴로 가면 27쪽짜리 영어 매뉴얼(pdf)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응답 내용 요약정리

지난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에 있었던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첫 강좌 사업, "첫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의 후에 강사 박혜정님, 타지오님,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공유합니다. ★★ 기록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교육사업팀] 활동가 월.

첫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레즈비언 임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12월 14일 토, 오후 1시

장소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1호

강사 : 박혜정, 타지오

Q. 가장 어려웠던 부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박혜정 : 내려야 할 결정들이 많다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이성애자들은 자다가 실수로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은데 저희는 결정해야 할 게 많았어요. 여러 선택이 많았고, 저희가 이민 결정하기 전까진 한국에서 낳아서 기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었고 조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아는 지인 중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해주겠다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그 친구가 아직 애가 없었어요, 결혼은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와이프보다 먼저 애를 낳는 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정자은행에 알아봤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안 되는지...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타지오 : 저는 애를 낳겠다는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애를 낳아서 키웠다고 결정하면 어디서 키울 것인가도 수십 번 바뀌고, 표도 수십 번 만들고... 한국

표, 미국 표, 캐나다 표, 덴마크 표...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우리 애니까 차별받는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한국에서 레즈비언 부모의 아이로 자라는 게 더 힘들까, 덴마크에서 소수인종 레즈비언 아이로 자라는 게 힘들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이민자고, 나도 소수자고...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는... 그래서 캐나다를 생각했는데, 캐나다 이민은 실패했구요. 이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구요. 플랜이 A에서 D까지 많기도 했고...

나중에 실제로 애를 낳아서 기르겠다, 어디서 기르겠다까지 정해졌을 땐 정자기증자, 정자를 고르는 단계에서 오픈 도너를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자식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자라니까 모르고 자라는 게 박탈감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나의 생물학적 반응... 그런 옵션을 주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동양인 정자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을 받을 것인지 다른 동양인을 받을 것인지... 그러면서 한국인 정자 기증자를 선택하면 한국은 좁은 곳이고...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친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싸리 동양인 아닌, 백인 정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랬을 때 혼혈 아이를 키우는 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는 동양인인데 자기는 혼혈인... 어디 가나 아이가 혼혈인 것을 알 수 있고... 어디 가면 저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시선들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정자를 고르는 것.

그리고 인공수정하고 두 달 정도 있어야 임신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엔 내 몸 하나니까 막 산 것은 아니어도 술을 안 마신다든지 담배를 안 피운다든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과학계.

박혜정 : 온갖 임신 증상은 나왔었어요, 음악도 바뀌고.

타지오 : 호르몬 때문에 임신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두 주 동안... 참 즐거웠어요, 그때. (웃음)

Q.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택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고민에 치중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누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줄 것인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누가 어떤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인가 선택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혜정 : 선택할 게 참 많은데, 누가 임신할 것인지는 저희는 둘 다 하고 싶어 해요, 둘 다.

타지오 : 원래 저는 애를 낳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요. 낳아주 시면 감사하게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굳이 출산을 해보겠다는 것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책을 읽는 데 한 명이 생모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엄마인 거잖아요. 다른 엄마가 둘 사이의 끈끈한 유대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관계에서는, 7년 정도 되었는데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쪽이 주수입이기도 하고, 제가 주수입이기도 하고. 덴마크에서는 제가 주 수입이 될 전망이었기 때문에 나는 돈만 벌어오고... 그럼 이들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내가 낳아서 던져줄 테니 키우라, 이러면 생모의 관계도 있고 주로 키워주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박혜정 : 이 사람이 외동이에요. 근데 제가 세 살 더 많거든요. 제가 먼저, 최종 결론은 제가 먼저 하고, 서른다섯 넘어가면 노산으로 되거든요. 제가 하나 더 낳고 이 사람은 둘을 더 낳을 생각도 했고.

아이와의 관계는 저희도 별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과 친하고, 저희와 한국에서 한 달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 낳으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플 사이에,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되는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타지오 : 가사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혜정 씨는 놀아주는 것 귀찮아하고, 안아주는 것 귀찮아하고, 대신에 음식이나 화장실 치워주는 걸 더 좋아하고 저는 아니라서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박혜정 : 해봐야 알 것 같아요.

Q. 저는 혜정 씨에게... 임신을 원하셨잖아요, 애인분도 처음부터 동조하셨던 거예요?

타지오 : 저도 임신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낳아주시면 키우겠다는... 격하게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요. 이분은 쉽게 키워지시는 분이셨고... 저는 좀 힘들게 키워지신... 요즘 EBS에 나오잖아요, 나의 트라우마를 애한테 물려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생기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애가 생기면 이분이 주로 혼내기로 하셨어요.

박혜정 : 이성애자들은 진짜 고민 없이 애를 갖고, 낳으면 잘 키우잖아요. 저희 같은 동성애자 커플은 임신에 관한 선택이 많아서...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는 애를 왜 가지려고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생각하면 별 이유도 없어요. 애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찾다고 더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Q. 국내에서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국내 사정은 어떤지, 비용이라든가 형편 등이 궁금합니다.

박혜정 : 국내가, 맘스홀릭인가, 애 있거나 임신 시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보가 많거든요. 난임 부부들이 임신 시도하는 과정이나... 병원들... 어느 병원에 누구 의사가 잘하고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카페에서 많이 알아보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엔 집에서 하는 게... 괜히 병원 알아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단 정자은행은 안 되는 거고, 그걸 되게 하겠다고 막 싸우다 생식력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게 제일 낮고 기증자를 좋은 사람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 카페 가면 어느 지역에 난임과 관련된 걸 잘 한다는 거 참고가 많이 될 거고요. 한국에서도 임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죠. 심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하시려면 집에서 하는 게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외국에선 인공수정이 되는 나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홈 인세미네이션(home insemination)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동영상 많이 올라와요. 자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Q. 인공수정을 한국에서 시도를 했을 때 법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요.

박혜정 : 법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그게 사실 의사들의 지침일 뿐이고, 000 씨 같은 경우에 아는 사람이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시험관아기 한 걸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의사가 있으면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의사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사를 찾는 게 또 스트레스... 막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안 좋더라고요.

타지오 : 레즈비언 의사가 있지 않을까요.

박혜정 : 예, 친구 중에 의사가 있거나...

Q. 이민을 알아봤는데, 덴마크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많은 다른 쉬운 나라들 중에 덴마크여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타지오 :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박혜정 : 나라마다 다른 기준이 있는데, 주로 선호하는 게 기술자거든요. 저희 둘 다 기술이 없어서... 덴마크는 석사 학위 있고, 영어 어느 정도 하면... 저희가 받은 게 취업비자거든요. 3년 받고, 8년까지 연장. 35시간씩 일한 기록이 8년 안에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저희 기준에 맞아서...

타지오 : 덴마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 취업이 안 되어도 언어, 학력, 나이 이런 것들을 봐서 포인트제로 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그냥 비자를 주는 거예요. 와서 덴마크어 배우고 몇 년 안에 취업을 해라... 저희가 이민 가려고 알아본 나라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동선 결혼이 인정이 되는 국가는 덴마크 밖에 없었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취직을 하려면 덴마크어를 배워야 해요. 덴마크어가 어렵지 않아요, 발음이 오묘하긴 한데... 독어 쪽 언어라서 심하게 힘들진 않고 영어랑 비슷한 단어도 많고.

박혜정 : 저희가 3개월 다녀온 이유가 한국에서 살자고 결정한 시점에 임신만 해오자 했었는데 갔다 와서 계획을 바꾼 경우인데. 가서 경험을 했을 때 열심히 하면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지오 : 인종 문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고 코펜하겐에는 중동, 흑인들이 많고 외각에는 백인 위주... 그런 게 좀 걱정되기는 했는데 한국에서 키우는 걸 상상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모든, 애가 하다못해 유치원에 간다든지 거기서부터 애한테 설명해줘야 하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혜정 씨는 애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애가 거짓말하는 건 맘에 안 걸렸는데 제가 제일 그랬던 건 저희 둘 다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애도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는데 둘 중에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전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서 키우고 싶으신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친부모님들과 어느 정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권이 가족에게 넘어갔을 때 애를 데려간다고 하지 않게...

Q. 양쪽 부모님은 아시는지, 커밍아웃을 받아주시고, 임신이 충격일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타지오 : 알고 계세요.

박혜정 : 저는 5년 정도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입장이 달라요. 아버지는 보수적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쿨하세요. 저희 아이 가질까 하는데... 떠났어요. 그랬더니 너네 아이 있어야 한다고, 너네 늙었을 때 생각하면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고민을 가지고 한국에서 키울까 한다 하니 키우지 마라, 할 거면 덴마크 가서 해라 하셔서 속이 상했었어요. 그런 상태예요.

타지오 : 혜정 씨는 세 자매 중 하나여서 나머지 두 분은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혜정 씨 부모님은 손주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저는 외동이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는 어릴 때 커밍을 했어요, 19세였나, 저지르기 식으로...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신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좀 쿨하세요, 두 분 다 미국에 사시고, 제가 교회를 나가는 말든 신경 안 쓰시고...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시는... 그래서 별로... 격한 반응은... 그리고 멀리 있으니 알 게 뭐예요, 비싸니까 전화도 안 하고... 솔직히 어떤 반응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Q. 임신 하게 되면 출산이 있잖아요. 출산의 경우 병원 가서 출산을 하는데 레즈비언의 경우니까 법적인 동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능하며,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제도나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정 : 출산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출산할 때 의사에 따라서 사실 레즈비언이라 하더라도 출산을 시켜주는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출산할 때 들어가겠다, 안 해주면 다른 병원 가면 되고, 출생신고 할 때는 인터넷으로 알아본 거라 확실하진 않은데,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 할 때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생물학적 어머니만 올리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낳았는데 이 사람을 생물학적 어머니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타지오 : 만약에 이 사람이 낳으면 제 자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생모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박혜정 : 우리나라에서 친부모 권리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Q. 입양도 가능한지요.

박혜정 : 입양도 가능하죠.

타지오 : 기관 통해서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니니까...

박혜정 : 친모의 동의를 얻으면 되니까... 저희도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Q.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50 대 50이잖아요, 여자아이일지 남자아이일지. 남자아이이면 어떻게 양육을 하실 생각인지요.

타지오 : 저는 솔직히 딸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세상이 험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혜정 씨도 그렇고 전통적인 여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하다못해 화장품을 사거나... 그런 걱정들은 많이들 하잖아요. 아들이 생겼는데 남성 롤 모델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걸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주변에 한국에도 그렇고 덴마크에 삼 개월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주변에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많이 댈어서 우리에게 하기 힘든 이야기는 저기 가서 할 수도 있고 아이한테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려고요. 한국에서 덴마크로 이민 간 사람은 250명 정도인데 입양하신 분은 몇천 명 정도 되세요.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에게 너만 동양인인 게 아니라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박혜정 : 저희 주변 남자 친구들하고 아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Q.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임신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두 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박혜정 : 저희가 우연히 덴마크를 가게 되었는데 레즈비언이 임신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비용도 그렇고... 캐나다는 보험이 안 되면 비싸더라고요. 덴마크는 보험 때문에 의료 수가가 낮고, 보험이 안 되어도 낮고... 만약에 덴마크에 관심이 있으시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Q. 블로그 운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지오 : 아이의 신상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잘못해서요.

Q.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요.

타지오 : 알음알음... 한국 레즈비언들 중에 한국에서 살기 힘들니까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저랑 가까운 사람 중에 혼혈인 분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소개해주시기도 했어요. 여러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

박혜정 : 우리가 임신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런 사람들 안다 하고 소개해주시고...

Q. 마지막으로 훈훈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기대하는 순간은 언제인지요.

박혜정 : 태어난 순간?

타지오 : 애가 집을 떠나는 순간, 잘 키워서 집 싸가지고 나가는 순간이 기대돼요.

박혜정 : 지금은 저희 둘만 있으니 편하게 다니는 데 애가 있으면 많이 제한되겠죠.
애가 열여덟 살만 되면 바로 내보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타지오 : 그때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Luseful 학원] 활동가 교육 : 정체성의 다양한 함의들

- 강사: 여성주의 저널 '일다'대표 조이여울
- 일시: 2014. 3. 16 일요일 오후 6시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열린마당
- 기록: 규월(교육사업팀 팀장)

1. 레즈비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 레즈비언은 누구인가?

- ▶ 여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다시 말해서 감정적, 성적 매력을 느끼는, 혹은 느끼고 싶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정체화 한 사람
- ▶ 위의 정의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럼에도 이성애자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규정해야만 한다.

2. 라깁, 거울이론

- ▶ 분절적, 단절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아기(자신의 손을 보지만, 그것이 자신과 연결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한다)가 태어나서 '나'를 인식하는 때는 언제일까?
-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 ▶ 그러나 거울 속 내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니다. >> 거울을 통해 나를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닌 비춰진 상, 타인이 인식한 나의 모습을 자신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이다. (비춰진 것, 투사된 것으로만 인식) >> 타인이나 외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언제나 상대적이고 정체성이 불확실한 존

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3. 젠더는 수행하는 것이다

▶ 젠더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젠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존재하지 않고 수행함으로써 구성되는 젠더지만, 그렇다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취급 받지는 않는다.

▶ 젠더가 서로 대등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 같이 행동하는 것, 여자가 남자 같이 행동하는 것은 문제시된다. 이 중 더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 남자가 여자 같이 행동하는 것이 특히 더 용납되지 않는다. >> 남자라는 젠더적 지위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여성)처럼 행동하면 더욱 비난 받는 것이다.

▶ 앞서 언급했듯이 젠더는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그 역할/각본을 수행하며 강화되고 있을 뿐, 젠더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성적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던 10대와 달리, 20대는 오히려 이제 다 ‘정해졌’ 다며 (정체화,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함) 고민하기를 거부한다. 삶의 현상이 한층 더 가까이 마주하며,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파트너, 생계 등)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그때처럼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도 여력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5. 정체성에 기대어서 활동을 할 것인지, 정체성으로 사람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 당사자는 당사자이기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른 활동가도 ‘활동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은 활동가보다 당사자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활동가가 당사

자 앞에서 주눅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같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집단일수록, 자체적인 안전망이나 내적인 힘, 신뢰 등이 요구된다. (폐쇄성을 띠지 않는 범위 내에서)

6. 커뮤니티

▶ L이라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불안정한 인간이기에 오랜 시간 벽장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 이성애 정체성의 동일화, 균질화 된 우리 사회 >> 이성애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 즉 정상이라고 규정하기 위해 여타 다른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 이성애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차이를 차별화하다)

▶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회에서 자란 L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기 힘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커뮤니티와 상담, 기록이다.

▶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특성 상 일정 크기 이상의 규모를 요구한다. >>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들 문화만의 폐쇄성이 생길 수 있다.

▶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탈반’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 커뮤니티 내 포용성, 소속감,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요구된다.

7. L들의 관계

▶ L들도 이성애 규범에 얽매어 있다 vs 그래도 L들은 여자들이라, 동성끼리라 관계가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 L들의 관계성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것도 역시 수행하기 나름이다.

▶ L 커플 중에 오래된 커플 보기가 어렵다. 제도적으로 얽매어 있지 않고, 이성애자들의 사회에서 버티기 힘들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롤 모델의 부족과 이어진다. 제도가 묶어주지 않기에 더 순수할 수 있지만, 관계 유형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거나 고립될 수 있다.

8. 당신은 이 활동의 주인인가?

▶ 여러 가지 활동은 하는데, 자신이 그 활동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시스템이 강한 조직의 경우 즉 관료제가 공고히 자리 잡은 경우, 갈피를 못 잡고 시스템 내에서 자기 스스로를 고갈시키다가 떠나는 경우 많다.

▶ 단체에서 낸 책 등의 맨 뒷장을 보면 연도와 함께 활동 백서가 써져 있다. 이러한 백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 활동들은 분명 사람이 한 것인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 그렇기에 활동가들에게 자기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고, 단체 활동에 대한 백서를 쓰는 것이다. >>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접하기 어려운) 지식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 >> 또한 대나무가 매듭짓고 자라는 것처럼, 한 번 쉬어가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봄으로써 자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 고갈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세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커플 및 동거가족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 방법”

일시 : 2014년 5월 11일 일, 오후 6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

강사 : 수안(여성상담공동체 옥탑방상담소)

▶ 갈등 살펴보기

1. 갈등의 내용 (충돌의 주제)

1)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에서의 갈등

- 생각지 못했던 상대의 모습을 접할 때의 충격과 실망감
-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할에만 충실)
- 친밀감과 좋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 (거리두기)
-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좌절과 질투)
- 성격차이로 인한 오해 (함께 있고자하는 사람 / 혼자 있고자 하는 사람)
- 각자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차이를 비난)

2) 열정에서 유대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

-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낌 (상실감과 슬픔)
-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찾은 확인과 의심, 불신)

- 서로에게 느끼는 권태 (외도)
- 상대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낌 (욕구좌절과 분노)
- 상대를 고정된 틀로 바라보게 됨 (반복되는 충동을 무기력하게 대함)

3) 정체성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

- 동성애혐오, 자기혐오
- 관계를 유지해나갈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낌 (고립되고, 막막한 느낌)
- 세상이 두려워짐 (탈반)
- 커밍아웃 욕구의 차이 (벽장엘, 커뮤니티활동 여부)

4) 단호한 분리를 고려해야하는 갈등

- 폭력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아웃팅협박)
- 반복되는 외도
- 정서적, 경제적 착취 (기혼 레즈비언, 사기, 일방적인 관계)
- 파트너를 병적으로 의심함

5) 관계에서 나의 주된 욕구 살펴보기 _____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의 반응 살펴보기

감정 _____

생각 _____

행동 _____

욕구와 반응의 배경 (성장과정의 경험) _____

2. 갈등의 형식 (갈등을 대하는 태도)

1) 갈등회피유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

2) 갈등폭발유형: 열성적으로 싸우고 화해하는 사람들

3) 합리적 갈등해결유형: 상호만족을 위해 협상하는 사람들

? 나의 갈등 대처유형 살펴보기 _____

상대의 갈등 대처유형 살펴보기 _____

▶ 관계가 갈등을 건디는 힘을 갖기 위한 일상에서의 제안

1. 일상에서 친밀감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짧지만 중요한 표현들 (관계의 적금통장)

- 사랑한다
- 고맙다
- 미안하다
- 상대를 향한 감탄과 칭찬
- 친밀감을 누리기

2. 상대를 역할로서 뿐만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

- 상대는 역할(애인, 친구, 보호자)로서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강점과 취약함을 골고루 수용하기 (더욱 단단해지는 신뢰감)

3. 상대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기

- 고유한 욕구와 성격을 가진 존재
-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
- 차이를 수용적으로 대하기 (안 되는 것은 포기하기)
- 관계에 대한 각자 다른 욕구(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만족하는가)

4. 서로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

- 상대의 성장이 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당신에게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5. 동등한 관계되기

-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 (나의 의존성 살펴보기)
- 삶의 무게 분담하기 (가사분담, 정서적 지지, 경제적 책임 등)

6. 협의하는 관계되기

- 불필요한 '힘겨루기' (서로가 협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 협의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해결점을 찾는 것

7. 갈등을 자연스럽게 친숙한 것으로 대하기 (학습된 무력감 넘어서기)

- 갈등을 개방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 갈등을 통한 더 깊은 이해 (신뢰감)
- 갈등의 내용과 형식 구별

8. 파국적인 싸움은 잠시 휴전

-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내기 (인신공격, 비하, 모욕, 욕설, 폭력, 자해, 헤어지자는 말)
- 잠시 쉬고 각자 숨고를 시간을 갖기
- 다시 대화할 시점을 정해두기 (휴전의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기)
- 스스로 분노 다루기

9. 싸운 후에 사과하기

- 진심이 전해지는 '미안해'
- 미처 표현 못한 나의 본심 전달하기
- 싸우느라 지친 우리들에게 보상행동 함께하기
- 미해결된 갈등은 미래의 과제로 기꺼이 남겨두기

10. 열정에서 유대감으로 넘어가는 과정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 권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니다 (적응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능력의 부작용)
- 다른 형태의 관계로 가는 과정의 상실감과 불안 다루기
- 오래도록 함께하는 관계가 주는 의미 찾기
- 유대감을 높이는 공동의 지향점 찾기 (공통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 삶의 태도, 취미)
- 마음이 변했다면 상대방에게 최대한 빨리 진실하기

▶ 레즈비언 커플과 가족이 세상의 장벽을 함께 넘기

1. 정체성으로 인한 관계의 고립을 벗어나기

- 다른 레즈비언 관계 만들기
- 안전한 관계에서 신중하게 커밍아웃 확장하기
- 우리 관계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있기

2. 정체성 관련 상처를 함께 보듬기

- 이성애중심사회에 대한 분노, 무력감
- 그간에 겪어왔던 상실과 상처 나누기

- 작은 단서에도 촉발될 수 있는 큰 두려움 이해하기
- 일상을 사는 고단함 털어놓기
- 서로를 지지하고 버텨주기

3. 정체성 관련한 자기혐오, 두려움을 다루려는 노력

- 자기긍정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기
- 내안의 포비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4. 레즈비언 커플과 가족이 겪는 특유의 어려움을 함께 준비하고 넘어서기

- 죽음 장면
- 병원 장면
- 거주 관련 문제
- 일상에서 우리들을 어떤 관계라고 말할 것인가
- 상대를 고려한 커밍아웃 (커밍아웃 욕구의 차이를 충분히 얘기하고 상의하기)
- 아웃팅 상황에 대한 대비

5.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일에 관여하기

- 우리관계를 긍정할만한 활동에 참여하기 (레즈비언 커뮤니티 / 동성애자 인권활동)
- 당연하고 주어지는 관계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꾸려가는 관계에 대한 자긍심 (생존)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제안

(일상에서 수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1. 말하기

1) 1인칭으로 말하기

- 비폭력대화법 ('나'의 느낌, 감정, 욕구에 초점을 두고 표현)

아이 메시지(I-Message) vs. 유 메시지(You-Message)

2) 감정을 통해서 표현하기

- 생생하고 직접적인 의사표현도구 '감정단어'

3) 자신의 불만을 간결하게 말하기

- 불만을 말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당성 갖기 (나의 느낌을 인정해주기)

- 듣는 이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 혼합메시지(말과 비언어적 표현의 불일치)

4) 서로에게 '안전함'을 느끼는 말하기 (방어적인 태도 피하기)

-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기 (명령보다는 부드럽게 요청하기)

- 대화가 원활한 환경에서 말하기 (대화를 미리 요청해두기)

- 분노보다는 안전한 감정(두려움, 슬픔, 좌절감)을 통해 말하기

- 비난보다는 상대로 인한 나의 좌절을 드러내기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회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는 나로부터의 변화가 더 쉽다)

5)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 욕구는 대체로 잘못되지 않았다. (실현가능한 욕구 / 좌절되기 쉬운 욕구)

-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표현하는 일의 의미 (자신에게 충실해지기)

-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 욕구의 좌절을 표현하기 (좌절감으로 인한 우울, 분노, 두려움, 슬픔)

6) 현재에 머물러서 말하기

- 과거의 행동을 되도록 끄집어내지 않기
- 생생한 힘을 갖는 현재

7) 독심술(상대의 마음 지레짐작하기)의 함정

- 사람의 마음을 투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확신도 사실은 짐작일 뿐)
- 독심술은 듣는 이를 방어적으로 만든다.
- '상대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2. 듣고, 반응하기

1) 상대의 입장에 서서 경청하기

- 공감
- 나를 잠시 내려놓고 듣기

2) 탐색적인 질문하기

- 개방적인 질문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돕기)
- 상대의 경험에 함께하기 위한 과정

3) 이해한 만큼 되돌려주기

- 당신을 더 가깝게 이해해보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
- 잘못된 이해 바로잡기

4) 수용적인 태도로 듣기

- 평가와 판단 내려놓기
- 수용적인 태도가 나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 상대의 말을 듣고 있음을 표현하기 (언어적 표현 / 비언어적 표현)

5) 단번에 모두 알아들으려는 욕구 내려놓기

- 마음을 한 번에 알아들으려는 욕심
- 나의 틀대로 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
(이해받지 못한 느낌, 원하지 않는 충고, 수용되지 못한 감정)
- 내 경험을 상대의 경험에 선불리 덧씌우지 않기

6)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 문제해결을 위한 상의를 원함
- 감정을 알아주길 원함
- 편을 들어주길 원함
- 그저 털어놓길 원함

7)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무게감 덜기

- 상대의 욕구대로 해줄 필요는 없다
- 상대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좌절)
-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명확히 표현하기
- 당장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미안해', '내가 고칠게', '내가 다 잘못했어'의 함정
- 진정한 신뢰를 얻기 (자신의 한계 드러내기)

▶ 대화법 연습 (이마고 부부치료에서 인용)

1. 반영하기 (그대로 듣기)

반영하기란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말한 사람이 말한 내용(내용, 낱말,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로 시작되는 문장을 시작으로 당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간단히 말합니다. 만약에 문장이 너무 복잡하거나 알아듣기가 어려우면, 듣는 사람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알아들을 때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세심히 잘 듣고 그대로 반복해주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듣는 사람은 비판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단지 말한 사람의 메시지를 반영할 뿐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조차도 표현하지 않아야 하며, 단 한 순간일지라도 순간순간을 오직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메시지에만 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 라고 말했지요."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당신은 ????? 라고 말했지요."

"맞아요?"

"더 할 말이 있어요?"

2. 인정하기 (깊이 듣기)

인정하기는 동의가 아닙니다. 인정하기란 상대방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반영될 때,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눈으로, 마치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듯이, 입장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엔 상대방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

이 "네,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인정하기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당신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내가 당신의 말(입장)을 잘 이해했나요?"

3. 공감하기 (공감적인 듣기)

공감이란 말한 사람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깊은 단계의 대화, 즉 가슴과 가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상대방의 가슴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로가 '치유의 통로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아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라고 상상하니 내 마음도 몹시 아파요."

"당신은 정말 슬펐겠어요." "당황했겠어요." "무시당한 느낌이었겠어요."

예)

사람1 : 조금 좀 주시겠어요?

사람2 : '조금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지요. (반영하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정하기)

당신은 걱정했겠어요. (공감하기)

▶ 참고도서

1. 부부치료, Joe H. Brown?Carolyn S. Brown 저, 김영희?최규련?홍숙자 역, 박학사, 2005
2. 이마고 부부치료, Wade Luquet 저, 송정아 역, 학지사, 2004
3. 자기주장과 멋진대화, 홍경자 저, 학지사, 2006

[네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레즈비언, 동물과 함께 살기”]
강의후기 및 강의안을 공유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네 번째 Luseful(L+유용한) 학원 : “레즈비언, 동물과 함께 살기”]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의는 <동물을위한행동> 활동가인 제이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강의안을 공유합니다.

"레즈비언, 동물과 함께 살기"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

강사 : 제이미(동물을위한행동 활동가)

참가비 : 5,000원(활동회원, 후원회원 무료)

입양에서 무지개다리까지.

하나. 동물을 입양 해야 하는 이유?

둘. 입양의 방법

셋. 펫로스란? 부제: 펫로스를 맞이하는 마음

레즈비언, 동물과 함께 살기.

하나. 레즈비언과 동물
둘. (커플)결별 후 동물의 거주 방향
셋. 반려동물 양육비, 그것이 알고 싶다.
넷. 펫시터 레즈비언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동물을 입양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유기동물들이 늘어나는 이유

1. 동물을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2. 동물보호 인식이 부족하다.
3. 동물병원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다.

퍼피밀(puppy mill)을 아시나요?

퍼피밀(puppy mill) 또는 강아지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대규모 사육하는 농장을 말하는데, 불법 운영이 많아 위생적이지 않아 태어나는 동물들의 질병 문제가 심각하며, 최소비용을 목적으로 하고, 발정 유도제를 투여하여 새끼를 지속해서 낳는데, 이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엔 폐기 된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과잉 공급이 된 개들이 쉽게 버려져 유기 건이 되고, 그에 따른 안락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동물판매규제법 개정과 함께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동시에 새로 태어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입양의 방법

동물단체에 문의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동물단체의 경우 유기견과 학대 견을 구조하여 입양을 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반려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통 학대를 받은 동물들은 주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이 간다. 그렇기에 신중한 결정 후 입양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유기동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주 쉽게 인터넷에서 접속 후 본인 주거 지역과 가까운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아보면 현재 입양이 가능한 동물을 알 수 있다. 10일 공고기한 이후 입양이 안 된 동물의 경우 안락사를 한다. 단체의 번거로운 절차가 싫다면 유기동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입양도 추천한다. (주민등록증만 있다면, 입양 ok)

Pet Loss 란?

Pet Loss Syndrome(펫로스 증후군) 이라고 하여 반려동물의 죽음과 상실감을 펫로스라고 한다. 가족과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의 반려인이 느끼는 우울증인데, 보통 4단계로 감정단계를 본다.

1단계? 쇼크, 상실과 사실의 부정

2단계 - 비통함, 절망감

3단계? 회복기

4단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4단계를 거친 후에도 일상복귀가 힘들다면 심리상담을 요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일상복귀까지는 3-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사람마다 다르다)

Pet Loss 극복하는 방법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부터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 하며 충분히 슬퍼하며 애도하기를 추천한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참여하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주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이

다.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유별나게 행동한다는 식의 따가운 주변 반응들은 Pet Loss 증후군을 더 심각하게 만들며, 반려 인이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Pet Loss에 관한 책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레즈비언과 동물

생태여성주의(Eco Feminism)를 아시나요?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억압 사이에 역사적, 경험적, 기호적, 이론적으로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입장. (생각할 것: 그렇다면 여성주의와 레즈비언, 동물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커플)결별 후 동물의 거주 방향

동거 혹은 연애 중 반려하던 동물의 거주 방향을 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뭐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동물이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경제력

※주의해야 할 점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동물들 입장에서 무력감이나 우울 감이 올 수도 있다. 횡수를 정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채택하여 같이 살지 않지만,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지해주어야 한다.

Pet sitter, 레즈비언? 네트워크 형성은 가능할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동물반려인 네트워크 조직

1. 인터넷네트워크를 만들어 모임을 편하게 조직 할 수 있다.
2. 한국인 정서 상 짝은 모임을 이끌 수 있다.
3. 같은 소수자(여성, 성 소수자)의 시선으로 동물보호 인식이 강하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동물반려인 네트워크 조직

1. 일회성 모임으로 끝날수있다.
2. 동물보호인식이 없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 <동물을위한행동>은 대한민국 최초로 야생동물, 동물원동물의 복지 증진을 시키는 의미에서 만든 단체이다. 제이미님은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중.

▶ 한국의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고소 고발을 해봐야 형법에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은 사는 물건이라 매우 쉽게 사게 되어 있다. 충무로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쉽게 살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하고, 택배 배달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대량으로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은 태어나야 하는 것. 모견을 구입해서 모견을 지속적으로 임신을 시키고 새끼를 뺀다. 이것이 강아지 공장. 강아지 공장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관심이 있으면 쉽게 보인다. 새끼를 빼면 경매장에 보내지고, 경매 후에 애견센터로 보내진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질병’의 문제.

▶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는 물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교환과 환불 뿐이다. 그리고 강아지 공장 안에서 강아지도 모견도 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미는 3-4년 동안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다 죽고 그 후에 개고기 시장으로 팔려 나가고,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 질병은 당연지사. 강아지 공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로지 입양의 방법밖에 없다. 강아지 공장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목표 중 하나. 입양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한 입양, 시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의 방법이 있다. 단체를 통한 입양은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통하면 됨. 시보호소에서 입양에서는 맹점이 하나 있음. 신분증 하나면 원하는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데, 악의로 동물 입양을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

▶ 활동을 하면서 학대 환경 속에 있는 동물이 있더라도 그 동물을 임의대로 빼오면 절도가 성립. 그래서 활동가들은 해당 동물을 주인을 설득해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함. 최근에는 업주들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즉, 어설픈 동물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비를 하여 강아지 공장 창업 및 운영. 이 경우 구조가 더욱 불가능. 합법적이니까!

▶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반려동물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았던 경우에 더더욱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상실감, 고통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 “그만 힘들어 하라.”가 아니라, 충분히 힘들어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 반려동물을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 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합의가 필요 함.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1차 모임 후기

모임 일시 :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참석자 : 은영, 율리, 해환, 입체, 박김수진

(※ 루나님과 허브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1차 모임에서는 ①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 관한 간단한 소개 ②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의 결성 이유에 관한 간단한 소개 ③ 활동회원 소개 ④ 책 읽기 순서와 방법 등에 관한 논의 ⑤ 단체 회칙과 내규에 관한 공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1차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1. 책 읽기 순서와 방법

회의자료로 제시된 내용으로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읽기에 부담이 적지만 좋은 책을 매월 선정하여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 리스트를 회원 카페에서 공유하면서 자료화하기로 하였고요.

2014년 2월에 열리는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2차 모임까지 읽을 책으로 “『페미니즘의 도전-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정희진 저, 교양인”을 선택하였습니다.

2. 모임 후기와 활동 기획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모임 후기를 작성하여 회원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독후감 작성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고, 이후 책 읽기 소모임 운영 과정에서 ‘저자 초대 강좌 기획’이나 ‘쟁점 별 자료집 제작’ 등 추가 활동 기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정기모임 확정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의 정기모임은 매월 네 번째 주 화요일 오후 7시로 정하였고, 장소는 매월 모임 전에 결정하여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정기모임 일시는 2월 25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4. 기타

이 외에 특정 이론이나 사안에 관한 경험과 생각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다 함께 대화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2차 모임 후기

모임 일시 :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오후 7시

참석자 : 은영, 윌리, 허브, 입체, 박김수진

(※ 루나님과 해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에서 선택한 첫 번째 책은 해환님이 추천해주신 『페미니즘의 도전-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정희진 저, 교양인)이었습니다. 세 시간 가깝게 책 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도 나누었고요, 책 내용과 무관한 이런저런 수다도 나누었어요. 아주 짧게나마 후기를 남깁니다. 간단한 독후감들도 첨부하도록 하죠. 다음 책, 두 번째 읽기 책은 벨 훅스의 『행복한 페미니즘』입니다. 3월에 만나욤!

* 은영 :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들이 많이 등장해서 반갑고 읽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잘 읽혀서 좋았다. 저자의 말 중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새로운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다. 동성애자라는 소수자인 내가 또 다른 소수자들의 현실에 무감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 성매매 관련 논의에 관해 자발과 동의에 관한 문제 혼란스러워서 함께 이야기 해 보고 싶다, 모성 이데올로기(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정치학이다)에 관해서도 논의 해보기를 제안.

* 허브 : 두 번째 읽는 것인데, 처음에 읽을 때 기존의 생각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었다. 나의 기존의 시각,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깨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는 그렇다면 나는 깨진 만큼 행동과 일치시키고 있는가에 관해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 소치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일관된 반응에 다른 의견을 내었을 경우,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극대화되는 문제와 폐미니즘을 연결 지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 월리 : 불편하면서도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 불편한 것을 빨리 잘라내고 편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드는 게 불편하면서 동시에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나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이 드는 것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많은 문제들에 관해 생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 피해자중심주의에 관한 논의 제안

* 입채 :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성장. 그런 와중에도 아주 어릴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음. 부당하고, 그런 환경에서 혹은 그런 요구에 따르며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음. 집에서 기대하는 여성상에 어울리는 혹은 맞추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살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매번 그렇게 모든 것에 분노하고 싸우고 살다가는 살기가 너무 어렵고 외로워서 그랬는지, 점점 둥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이네!'하는 생각이 들면서 10년 정도 잊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었다. 1부와 2부까지는 내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들이었고, 3부에서는 평소에도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담겨 있었다.

=> 위안부 누드 문제에 대한 당시의 폭발적인 문제제기, 비판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 수진 : 저자가 책에서 밝혔듯이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경합하는 페미니즘, 모순 속의 페미니즘’이 정확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페미니즘들간의 모순과 경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동의, 동시에 ‘그래서 어찌자고?’라고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는 책 읽기였다. 이런 식의 논의라면 ‘페미니즘과 상대주의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까?’라는 질문이 똥똥 떠다님.

=> 은영님, 허브님, 윌리님, 입채님이 해주신 이야기 주제에 관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나누자. 그리고 모성에 논의와 같이 모임 구성원이 어느 정도 합의/동의할 수 있는 의제들도 있지만, 동시에 성매매 논의와 같이 의견의 첨예한 대립/경합/갈등이 생기는 의제들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의제를 두고 우리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인식/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런 이야기들 말미에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 있는 ‘티부’에 관한 논쟁이랄까, 의견대립이랄까...에 관한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이에 관해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글로 다시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3차 모임 후기

모임 일시 : 2014년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참석자 : 은영, 율리, 허브, 루나, 박김수진

(※ 입체님과 해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에서 선택한 두 번째 책은 벨 훅스의 『행복한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세 시간 가깝게 책 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도 나누었고요, 책 내용과 무관한 이런저런 수다도 나누었어요.

녹음을 한다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 녹음을 하기는 했는데, 웬 잡음이 이렇게도 심한지 들리는 내용이 없네요. _ _ 그나마 노트에 적어 두었던 몇몇 내용만이 기억날 뿐이지요. 이번 주 중에 스마트 폰 수리를 받아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

대체로 이번 책 읽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알 것 같은데도, 활자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번역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일지, 저자의 논의를 낱설게 느끼기 때문인지는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실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의 문제들과 양상들에 집중을 하다보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을 한다거나, 남성을 일반화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고는 남성혐오를 증폭시키는 것이 갖는

문제점들에 관한 비판이지요.

‘성폭력의 가해자는 항상 남성인가?’ 물론 남성 가해 비율이 말 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 문제를 비판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동시에 동성 간 성폭력의 문제, 물론 여기에서의 ‘동성’의 의미가 ‘동성애자’를 의미하지만은 않죠. (얼마나 많은 이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들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여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성애자로 정체화한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상관없이 남성들을 괴롭히는데요!) 여하튼 동성 간 성폭력의 문제, 여성 간 폭력의 문제들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들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회식 문화의 폭력성이랄까, 참을 수 없는 남성중심의 폭력적인 회식 문화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여성인 우리 안의 가부장성이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내면화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성은 이래야 하고, 남성은 저래야 한다는 식의 성별 이분화를 남의 문제, 남성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하는 하는 문제이지요. 또한 일부 레즈비언 커뮤니티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펌과 부치에 관한 이분화 문제, 부치 혐오, 왜곡된 ‘여성성’에 대한 기대와 자각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참,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서 [책 읽기 소모임]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평등한가?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 보자고도 의견을 모았고요.

다음 책은 허브님이 추천하신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4월 모임은 29일 화요일입니다. 모두들 곧 다시 만나요!

[여성학 팀 4차+5차 모임 후기]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고.

모임 일시 :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참석자 : 은영, 윌리, 허브, 루나, 입체, 박김수진

(※ 해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셨습니다)

웃음이 샘솟는 여성학 모임

지난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여성학 팀 4차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윌리님과 수진만이 모임에 참석, 모임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님과 수진이 마주보고 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었지요. 이런 슬프고도 기이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입체님이 야근을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모임에 와주셨어요. 일종의 위로방문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셋이 또 수다를. ^^

그리고 5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여성플라자에서요. 전원참석의 기쁨이. 하핫, 허브님, 윌리님, 입체님, 은영님, 수진이 참석하셨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늦게나마 루나님이 도착하셨고요.

5차 모임부터는 새로운 팀장인 윌리님이 진행을. 출석률 100%라서 팀장이 된 것 같으면서 진행하기가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윌리님이 매우 부끄러워하며 “책 다 읽으셨나요?”라 물었는데, 모두들 지난 모임 전에 모두 읽었던 터라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난리. ㅋㅋ.

기억은 가물가물했지만,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아참, 이 책은 허브님의 제안으로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허브 :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세월호 참사로 취소율도 많고 그래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 배를 12시간을 타고 가야하는 상황. 그런데 등산복 입은 아저씨들도 많고, 배를 타서 그런 것도 있고 불안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으로 인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나를 위한 온전한 느낌의 나의 방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자다가 내가 성폭행을 당하거나하는 공포를 느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누구의 탓인가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걱정과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음.

은영 : 책을 읽다보니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부담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3기니의 분량이 더 많아서 다행이라는 느낌. ^^ 이 작가가 말하려는 것을 거의 중반 지나서부터 이해하기 시작. 중반까지는 읽으니까 읽는데 너무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반부터 맥락을 이해하니까 읽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온전한 자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큰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시대적 배경에 관한 이해가 없어서인지 읽기가 어려웠다. 그저 이런 시절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으로 읽었음. 사실 두 달 전에 읽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입체 : 위낙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작가. 나랑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작가. 사놓고 안 읽고 있다가 기회가 닿아서 읽었는데, 나의 삶은 이 사람 삶보다 훨씬 낫다.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 나도 어린 시절에 분노도 많고, 예민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나라고 달랐을까?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함. 나의 경우에는 저자의 생각과 느낌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함께 분노도 하고 그렇게 읽었음. 버지나아 울프는 자기를 꾸미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척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부분이 좋음.

수진 : 저자가 의식흐름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음. 평소에 장난삼아 폐북에 의식흐름의 기법이라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는 했는데, 그래서 더 반가

운 마음. 탈근대적인 그러한 글쓰기 방식을 저 시절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함. 워낙에 글을 말하듯이 쓰는 편인데, 나의 단순한 사고를 의식흐름의 기법에 기초해 더 막 써야겠다는 생각이. 불일치하고 불명확하고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 명확한 것을 있는 그대로, 흐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그 의식의 흐름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그런 글쓰기.

월리 : 읽은 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었는데, 하나의 미디어라는 느낌이. 지금이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의 이야기를 지금의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미디어라는 느낌을 받았음. 자신의 것을 남겨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뭐든 기록해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시대의 또 다른 나라는 느낌. 가능하다면, 친구가 되어 저자와 얘기 나눠보고 싶다.

허브님은 어떤 책을 통해서 하루에 3 페이지 정도씩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쓸 말이 없을 때에조차 세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작업이라고 해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중간에 쉬면서 적는 경우도 많아서 2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대네요.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생각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참가자 전원 “대단하다” 탄성. 책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어려운 순간들도 많은데 말이지요.

수진은 어린 시절부터 여성주의 인식이라까, 문제의식이랄까 하는 것들을 내뿜으며 성장한 입체님도 저자의 시절을 함께 살았다면, 저자의 친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월리님은 친척 어른 중에 어린 시절에 스스로 밥상을 차리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분이 계시다며 결국은 소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만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환경처럼 어떤 자극이 있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순간들, 삶

을 경험했는지 궁금하고, 그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여성학 팀에서는 이번 모임부터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팀원들이 살아 온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인공은 루나님이었어요. 2부 시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따로 정리해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6차 모임은 6월 25일 수요일 7시입니다.

6월의 책은 『보스턴 결혼』(에스더 D. 로스블럼, 캐슬린 A. 브레호니 지음, 이매진 출판사)

입니다.

6월에 다시 만나요!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6차 모임 후기 : 『보스톤 결혼』, (에스터 D. 로스블럼, 캐슬린 A. 브레호니

* 모임 일시 :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참석자 : 은영, 윌리, 허브, 루나, 박김수진

(입채님 회사 일로 불참)

6차 모임의 책은 『보스톤 결혼』이었습니다. 나신님은 퇴근이 늦어 30분 정도 늦게 오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 전까지 침묵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함께 어겼어요. 약 10초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는 여전히 윌리님의 어색한 진행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어요.

허브 : 책을 제대로 읽지는 못하고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왔다. 섹스가 없는 관계라는 것에 관해 나의 경우에 비추어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불편한 게, 최근에 나는 스스로 무성애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때, 섹스에 어떤 감흥을 받지 못 하는 나로서 섹스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재미가 없고, 달성해야 하는 어떤 과제처럼 느껴지는 편이다. 섹스 자체가 관계에서 꼭 필요한가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인들은 “너는 아직 안 겪어 봐서 그래.”라고들 말하는데, 내가 섹스를 원하지 않는 것을 무능력하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 불편하다. 이걸 그냥 하나의 내 특성 중 하나일 뿐인데. 반드시 관계 안에서 섹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관문처럼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인데, 최근에 발간된 ‘무성애를 말하다’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모두들 완전 동의했어요!

수진 : 예전에 읽은 책이었는데, 이번에 대충 훑어보고 왔다. 성기결합만이 섹스여야 하고, 그 횟수가 잦아야 하고, 그런 “정상성”을 수용하는 것은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성기 중심의 섹스에 관한 정의가 많은 이성애자들과 레즈비언들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다. 그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섹스이고, 심지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가.

은영 :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읽지는 못 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이 책을 읽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관계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관계라는 것이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나누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횟수 자체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해줄 수 없는데,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이를 정상적이지 못한 문제로 보고 말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이에 관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책 내용 중에 사회가 성관계를 “삽입”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병원 의사들이 성관계를 했느냐고 묻을 경우 참으로 난감한 것이 나는 분명히 섹스를 한 것이 분명한데, 삽입을 중심으로 보는 섹스를 한 것은 또 아닌 경우에 내가 했던 것을 섹스를 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던 장면이 떠올랐다. 이런 질문 역시 섹스를 삽입을 중심으로, 삽입에 의존해서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결과라는 생각이 들면서 크게 공감하였다.

은영님의 책은 100년 정도는 된 책처럼 너털너털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읽지 못하셨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셔서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50페이지 정도 남았대요. 그리고 은영님은 책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줄을 정말 열심히 치면서 독서를 하시더라는. 증거 사진 올릴게요.

윌리 : 다양한 관계들, 여러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만난다는 게 반가웠다. 나 역시도

관심이 있고,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여서 더 반가웠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상적인 관계 같은 건 없다. 관계란 개인적인 것이고, 각자에게 맞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언어로 규정되지 않은 관계들,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맺어 온 관계를 다시 돌이켜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퇴근을 하고 30분 늦게 루나님이 도착했어요. 아흑 그런데 루나님 말씀하는 부분 녹음이...-_-;;;;;; 재생을 해도 아무 소리가 안 나네요. 우왕..-_- (루나님 죄송 ㅠㅠ)

지난 모임부터 읽은 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모임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살아 온 이야기들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번 모임에 수다가 길어져서 인생사를 듣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다음 모임에서는 다시 시도를!

다음 7차 모임은 7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 책은 『무성애를 말하다』입니다. 23일에 만나웁!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7차 모임 후기 : 『무성애를 말하다』, (앤서니 보개트 저/임옥희 역/레디셋고/2013)

* 모임 일시 :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참석자 : 윌리, 허브, 루나, 박김수진

(입체님 입양 강아지 아파 불참, 은영님 야근으로 불참)

매끄러운 진행을 한다고 주장하는 팀장 윌리님의 진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이리하였지요. “매끄러운 진행을 자랑하는 여성학 소모임 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끄러운 진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팀장 윌리님이 이 책을 다 읽지 않으셨대요! 이래서야 어디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하지만 윌리님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 마음 속에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갈망, 열정이 있음을 후기에 남겨 달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살짝 남겨 둡니다. 쿵.

대부분 이 책을 구입하고, 읽기 전까지 이 책을 궁금해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핵심은 무성애자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방식에 온전하게 동의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책을 제안했던 허브님은 “내가 이 책을 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은 책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충분히 “논쟁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나마 세미나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 책을 끝까지 읽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독서. 이 책은 결국 킨제이 보고서와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 당시에는 새로운 이슈고 "HOT"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초라는 가치만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성적욕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무성애에 관해 성욕과 식욕이 비례한다고 얘기하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무성애자들은 체중이 덜 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계층적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동시에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불편했음.

● 표지와 제목은 참 매력적. 출간 직후에 읽고 싶었던 책. 기대를 했죠.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음.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개념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함.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음.

● 무성애와 동성애의 교집합에 관한 언급은 간단했고, 이 둘을 나누는 것의 절대적 기준이 성적지향성. 이 근본적인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의 전반에 불편한 마음. 우선 동성애조차 성적지향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범주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하는 무성애라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움.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든지 무성애자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 이는 이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고 이성애자라 믿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주변에서 이성애자, 동성애자, 커플을 이루고 있지 않을 자, 사랑이나 연애에 관심 없는 자, 혼자인 것이 좋은 자들 중 섹스리스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음. 또한 정체성은 변화하는 것. 성적지향성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양성애자, 동성애자, 이성애자, 무성애자의 특징을 온전하게 말할 수 없다. 이는 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관계의 상을 스스로 정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투쟁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동성애, 이성애, 무성애, 양성애라는 경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대체 무성애자 1%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음. 동성애자 인구 10% 어찌고 하는 주장에 큰 우려를 갖고 있는 판국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 정체성은 움직이는 것임. 우리가 무성애를 다시 말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무성애를 말하기를 바람. 무엇을 무성애로 정의할 것인가? 다양한 정의를 나열하고 싶음. 그 다양한 정의들 속에 성적지향이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 함.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무성애에 관해 규정하는 것, 어딘가에 끼워 맞추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압력 같은 것을 느낌. ‘이런 압력들이 없다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음.

● 나는 사실, 레즈비언이면서 나르시스트인 사람.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정의한다는 게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느낌. 이 사람이 무성애자를 정의하는데, 수궁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았음. 뭔가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음.

●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살아오면서도 동성애자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고,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살면서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더 어려운 일로 느끼고, 정의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듦.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대 그때 상황도 달라지고 나 자신도 바뀌고 하는 경험들 속에서 정의, 규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후에 지난 번 루나님 이야기에 이어 7차 모임에서는 허브님의 인생사를 짧게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사 이야기는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언급하지 않고 속~지나가겠습니다.

다음 8차 모임은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 책은 『젠더는 패러디다』입니다. 26일에 만나웁니다!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8차 모임 후기 : 『젠더는 패러디다』, (조현준 저/현암사/2014)

* 모임 일시 : 2014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참석자 : 윌리, 은영, 입채, 루나, 허브, 박김수진

“매끄러운 진행을 자랑하는“ 윌리님, “혹시 책을 다 읽은 분이 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윌리님의 진행은 날로 매끄러워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윌리님의 우려와는 달리 루나님은 책을 완독한 것은 물론 심지어 별도의 관련 프린트를 준비! 서평을 찾아 미리 공부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루나님 덕분에 책을 읽고 든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고 나눌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여성이고, 레즈비언이라는 것에 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정체성에 스킨크래치가 나면 굉장히 힘들어 진다. 뭔가 백지에 오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개인적으로 무엇인가에 소속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서 규정하고 소속되는 어떤 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들었다. 어떤 종류이든 해체론이 가지는 강점과 장점을 이해하기는 해도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움. 해체를 읽으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겼다. ^^

너무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불교 공부를 하다가 내 자아조차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이지 더 모르겠는 거다. 후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찾은 답이 모든 것이 환상일 수도 있고, 놀이일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의 이 판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구성되어서 나를 이룬다는 것. 이 판에서 이 구성물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충분하다. 내가 여성을, 그리고 레즈비언임을 선택한 것으로 이진 내가 구성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내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자’로 귀결.

내용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를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흐름이 읽기를 어렵게 했다. 나는 답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 답에 집착하는 편인데, 이런 나의 성향을 더 힘들게 고민하게 하는 어려운 책이었다. 답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가득한 책이니,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웠던 것!

정답이 없다는 내용이 정답 아닐까?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 책을 왜 이렇게 써야하지? 일부러 책을 어렵게 쓰려고 작정을 했나 싶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어렵지 않은 책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로 “공부”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음.

종종 관련 강의나 세미나에 갈 일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래서 말인데, 뭔가 이런 어려워 보이는 개념들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근대를 모르는데, 탈근대를 이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 개념의 이해를 위해 페미니즘 초기 이론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모두 대찬성!!!!

그리하여 우리는 로즈마리 통의 [페미니즘 사상]을 2챕터씩 나누어 열공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책은 절판인 관계로 제본을 해서 나누어 읽기로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열심히 만나서 공부도 열심히 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겐 소풍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9차 모임은 야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2014년 9월 9차 모임은 서울 선유도 공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냥 만나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이지요! 예!!!

8) <여성학 책 읽기 소모임> 9차 모임 후기: 『서울 선유도 공원』, (여성학팀 저/생애기록연구소/2014)

* 모임 일시 : 2014년 9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분

* 참석자 : 율리, 은영, 루나, 허브, 엘시, 박김수진

(입채님 회사의 과다업무로 인하여 결석. _ _)



서울 선유도 공원에 갔어요.

신입회원 엘시님도 함께!! 두둥!



선유도 공원 안에 있는 매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를 구입, 이렇게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어요.

날씨는 우리더러 무조건 야외에서 놀아라~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선유도 공원에서 나와 홍대에 있는 L bar 를 향해 양화대교도 건너고, 그렇게 걷고 걸었어요. 모든 길안내는 허브님이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양화대교 건너면서 강 찍어 본 것이지요.



도착! 모두들 정말 오랜만에 왔다고 했어요. 엘시님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술 ^^

10차 모임은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페미니즘 사상 1장과 2장을 읽어 오기로 했어요.

모두들 11월에 다시 만나요~

12인 2007년-2013년 촬영 월 기록 상황

2007년

5월 : 쏘머즈, 박김수진, 레종

7월 : 려수

8월 : 가루, 타지오, 고리, 아자

10월 : 레고

11월 : 에림

12월 : 꼬마, 서현

2008년

1월 : 박김수진

4월 : 레종, 쏘머즈

8월 : 타지오, 가루

9월 : 고리, 아자

10월 : 레고, 에림, 려수

11월 : 서현, 꼬마

2009년

6월 : 아자, 고리

7월 : 려수

8월 : 에림, 가루, 타지오, 레고, 꼬마

9월 : 레종

12월 : 서현

※ 담당자였던 쏘머즈, 박김수진 촬영하지 않음.

2010년

6월 : 박김수진, 아자

7월 : 가루, 타지오

8월 : 꼬마, 러수

9월 : 에림

10월 : 레고, 고리

12월 : 서현, 레중, 쏘머즈

2011년

6월 : 쏘머즈, 가루, 타지오

8월 : 아자, 러수

9월 : 꼬마, 에림

11월 : 고리

12월 : 박김수진, 레고, 서현, 레중

2012년

7월 : 쏘머즈

8월 : 러수, 가루, 타지오

10월 : 꼬마, 고리

11월 : 에림, 아자, 레중

12월 : 박김수진

2013년 1월 : 서현

2013년 3월 11일 : 레고

2013년

7월 : 쏘머즈, 려수

8월 : 꼬마, 고리

9월 : 에림, 아자

10월 : 가루, 타지오

11월 : 레중, 박김수진

12월 : 서현, 레고

2014년 8년차 영상기록부터 아자님과 함께 합니다

2007년에 시작한 20인 20년 프로젝트가 2014년이면 8년차를 맞이합니다.

20인이던 인터뷰이는 12인으로 줄었고,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2년이 남았네요.

그간 쏘머즈님, 래중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활동회원 아자님께서 이 활동을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촬영을 하는데요,

상반기 촬영은 아자님이, 하반기 촬영은 박김수진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자님 덕분에 일이 줄어서 기쁘기도 하고(ㅋㅋ), 아자님이 짠~하고 나타나주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반면에 상반기 인터뷰이들과 만날 일이 줄어들어 그점은 참으로 아쉽네요. 아흑아흑.

그래도 귀여운 아자님께서 더 즐겁고 '전문적인' 인터뷰와 촬영을 진행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의 영상기록팀 사업은 달랑 <20년 영상 기록 프로젝트> 하나인데요, 능력도 없는데 이런저런 사업 별이지 않고, 당분간은 진행 중인 이 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팀원도 아자님과 박김수진, 이렇게 둘이지요.

그래도 가끔 데이트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에서는 매년 말 혹은 초에 지난 1년의 활동 기록을 “활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묶어 냅니다. 이 활동기록물은 활동회원/후원회원과 나누며, 이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주요 기관에 무료 배포합니다.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2013-2014 활동 이야기」의 기획은 2014년 11월 현재 운영위원인 수현, 월리, 박김수진이 함께하였습니다. 1차 편집은 박김수진이 2차 편집은 월리가 최종 편집 및 디자인은 월리 친구 양바음이 하였습니다

정기후원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은행 : 054901-04-181776 (예금주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농협은행 : 351-0633-2179-83 (예금주 :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국민은행 : 591502-04-094561 (예금주 : 박수진)

농협은행 : 352-0653-5651-23 (예금주 : 박수진)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블로그 : <http://blog.daum.net/lesbian2013>

이메일 : lesbian2013@hanmail.net

트위터 : [@lesbian_2013](https://twitter.com/lesbian_2013)